제 1 편

역사










제1편
역사

Ⅰ. 선사시대

Ⅱ. 오산리선사유적

Ⅲ. 삼국 · 고려 · 조선시대

Ⅳ. 3 · 1운동과 근현대사

Ⅴ. 근현대 인물사



Ⅰ. 선사시대

1. 선사문화의 형성 배경과 주민의 정착

1) 자연환경적 배경

영동지방 중북부에 위치하는 양양지역은 동쪽은 동해바다, 서쪽은 인제군과 홍천군, 남쪽은 강릉시와 평창군, 북쪽은 속초시와 접하고 있다. 지리적 좌표는 동경 128° 24′ 17″~ 128° 48′ 34″, 북위 37° 51′ 44″~ 38° 09′ 41″이며, 동서간 길이가 31㎞, 남북간 길이는 34㎞이다. 해안선은 44.5㎞이다.

이 지역의 지세는 서쪽에 화채봉(華彩峰 : 1,328m) · 설악산(雪嶽山 : 1,708m) · 점봉산(點鳳山 : 1,426m) · 조봉(祖峰 : 1,183m) · 암산(巖山 : 1,153m) · 약수산(藥水山 : 1,306m) · 응복산(鷹伏山 : 1,360m)등 해발 1,000m 이상의 높은 산들이 솟아 있어 동해로 급경사면을 이루고 있고, 해안산맥이 곳곳으로 뻗어 있어 암석해안이 많으며, 그 사이에 모래밭이 펼쳐져 있다. 암석해안은 대개 해안단구(海岸段丘 : 해안선을 따라 계단 모양으로 나타나는 지형) 또는 해식애(海蝕崖 : 해식과 풍화작용에 의하여 해안에 생긴 낭떠러지)이고, 사빈해안은 화강편마암지대로부터 운반 · 퇴적된 모래밭이다.



양양 남대천과 주변지역(위성사진)

암석분포를 보면, 해안은 대부분 화강암이고, 태백산맥에 접한 산간지대는 화강암과 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서면 장승리 일대는 흑운모화강암, 흑운모편마암, 섬장암, 거정화강암이 분포하고 있다.

오대산 두로봉이 발원지인 대표적 하천인 남대천(南大川)은 현북면 법수치리와 어성전리를 지나 양양읍의 중앙을 북동류하여 동해로 유입되며, 갈전곡봉 · 약수산 · 응복산과 오색령 · 설악산 등지에서 발원한 계류들을 합류한 후천(後川)이 양양읍 임천리에서 남대천으로 흘러든다. 또한 쌍천(雙川) · 물치천(沕淄川) · 포월천(浦月川) · 거마천(車馬川) · 동명천(東明川) · 상운천(祥雲川) · 광정천(光丁川) · 해송천(海松川) · 화상천(和尙川) 등의 크고 작은 하천들이 대부분 서쪽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들 하천 유역에는 소규모의 충적평야와 나지막한 구릉지가 형성되어 있다.

해안에는 해식작용(파도에 의한 지표의 변환)에 의한 수문굴 · 장존굴 등의 해식동굴과 사빈해안이 발달해 있으며, 해안선 부근에는 동해사면의 하천으로부터 유수(流水)를 받아들여 다시 동해로 배수하는 지형학적으로 석호(潟湖)로 불리는 호수가 형성되어 특수한 경관을 이루고 있는데 양양 오산리의 쌍호(雙湖)와 현남면의 포매리의 매호(梅湖)가 대표적이다.

기후는 태백산맥이 북서계절풍을 막아주고 동해에 난류가 흘러 같은 위도상의 내륙이나 서해안지역보다 기후가 온난하다. 연평균 기온 13.0℃ 내외, 1월 평균기온 0.7℃ 내외, 8월 평균기온 24.9℃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1,300㎜ 정도이다.

이와 같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어 신석기시대에는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건조한 기후로 변했고 청동기시대는 다시 고온다습한 기후로 변했다가 철기시대에 접어들면서 건조한 기후로 환원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후빙기 이후의 기후변동은 선사시대 주민들의 주거 입지조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2) 문화환경적 배경

영동지방은 지형상으로 볼 때 동해안의 해안선을 동북 및 동남지방과 연결되고, 중부지방과는 태백산맥에 의해 가로막혀 있으나 남한강이나 북한강의 물줄기와 태백산맥의 곳곳에 안부(鞍部)를 이루고 있는 백봉령, 대관령, 구룡령, 오색령, 진부령 등을 통하여

연결된다. 이 지역의 선사문화는 이러한 자연적 지형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신석기시대 이래 영동지방의 선사문화의 형성과 변천은 동북계 선사문화의 밀접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동해안의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온 동북계 문화가 영흥만 일원의 동해안지방으로 진출한 서북계 문화와 합류하여 형성된 복합문화가 영동지방으로 유입되었음이 최근의 고고자료들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또한 동남부지방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청동기시대에는 영흥만에서 영동지방으로 이어지는 동해안지역에서 형성된 무문토기문화가 중부지방을 포함한 남한 전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까지 영동지방에서 발견·조사된 선사유적들의 분포 입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선사유적들은 주로 동해바다와 인접한 하천이나 호수 주변의 사구지대와 낮은 구릉지대에 입지하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구석기시대 유적들은 주로 해안단구의 평탄면에서 주로 발견되며 또한 주요 하천변의 낮은 구릉성 단구상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신석기시대 유적은 주요하천의 하류역과 호수 주변의 사구지대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하천 주변의 나지막한 구릉상에서도 발견된다. 청동기시대의 유적은 대부분 하천과 호수주변의 낮은 구릉상에서 발견되고 있다. 철기시대 유적은 신석기시대와 같은 입지를 갖는 사구지대에서 주로 발견된다. 이렇듯 영동지방에서 발견되는 선사유적들의 자연적 입지조건은 시기마다 대체로 일정한 규칙성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종래에는 당시 사람들의 주된 생업의 차이, 즉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주된 생업은 어로이고,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주된 생업은 농경이었기 때문에 주거의 입지조건을 달리했을 것으로 추정해 왔다. 그러나 철기시대 유적이 신석기시대와 마찬가지로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해변의 사구지대에 분포하고 있어, 선사시대의 입지조건을 단순한 생업과 결부시키기보다는 해수면변동에 따른 주거환경의 변화나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해석되어야 할 것 같다.

이와 같이 선사문화의 환경적 배경에서 볼 때, 양양지역의 선사시대의 각 문화상은 영동지방의 다른 지역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주민의 정착

선사문화 기원은 수십만 년 전의 구석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4년 손양면 도화리 일원에서 전기구석기에 속하는 '아슐리앙' 계통의 주먹도끼와 1,000여 점의 뗀석기가 출토되어 양양지역은 구석기시대 이른 시기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동해안지역 곳곳에서 다수의 구석기유적들이 발견되었는데, 뗀석기가 출토되는 구석기유적들은 주로 동해안에 접한 해안단구나 주요 하천변의 구릉에서 발견되고 있는 입지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구석기인들의 주요 생활터전이 해안단구(海岸段丘)나 하천변의 구릉지대(丘陵地帶)였음을 알 수 있다.


후기구석기시대 살림살이 모습

신석기시대의 주민들은 주로 식량자원이 풍부한 큰 강가 또는 하천변의 대지나 해안가의 모래언덕에서 움집[수혈주거(竪穴住居)]을 짓고 마을[취락(聚落)]을 형성하여 정착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1981~1987년 오산리유적, 1994~1996년 가평리유적, 1995년 지경리유적, 2002년 용호리유적, 2006년 송전리유적, 2006~2007년 오산리유적 등 일련의 발굴조사를 통해서 신석기주민들이 이곳을 활동무대로 삼아 삶을 영위했음을 잘 알 수 있다.


신석기시대 움집과 살림살이 모습

1990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영동지방 곳곳에서 발견·조사된 비교적 많은 수의 신석기유적들이 대부분 하천이나 호수가 동해바다와 만나는 사구지대(砂丘地帶)에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으며 신석기시대 후기나 말기단계에 와서는 부분적으로 사구지대에서 하천변의

나지막한 구릉지대로 옮기어 살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영동지방의 자연 · 지리적 환경과 동일한 양상을 띠는 양양지역도 남대천, 동명천, 화상천 등 주요 하천유역 및 석호 주변의 사구지대를 중심으로 신석기주민들이 어로와 원시적인 농경을 하며 정착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구석기인의 혈통이 신석기시대까지 계승되었는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나, 신석기시대의 주민들이 이 땅에서 다양하게 적응한 구석기인일 가능성이 높다.

청동기시대에 이르러서도 신석기시대를 뒤이어 많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살았음이 밝혀지게 되었으며, 아울러 일정한 규모의 세력집단이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1970년대 초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발견 · 조사된 다수의 생활유적과 고인돌의 분포를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양양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청동기시대 유적들은 지금까지 강원 영동지방에서 발견 · 조사된 유적의 입지조건과 매우 부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 하천변의 낮은 구릉지대에 주로 입지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하천 주변의 나지막한 구릉지대는 청동기시대 주민들의 삶의 보금자리로 이용되었으며 아울러 일정한 규모의 세력집단이 형성되어 본격적인 농경생활을 하면서 삶을 영위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영동지방에서 청동기시대 전기~후기에 이르는 다수의 주거지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그 문화적 계통은 동북이나 서북 등 북방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청동기시대 문화의 전개양상도 이와 대체로 일치되고 있다. 그러나 청동기시대 민무늬토기[무문토기(無文土器)]를 남긴 주민들이 신석기시대 이래 이 지역에 정착하여 살아온 주민인지, 아니면 다른 지방에서 새로 이주하여 정착한 주민들인지는 현재로서 정확히 알 수 없다.

2. 선사유적 · 유물의 분포 현황

1) 구석기시대(舊石器時代)

구석기시대는 인류가 유인원(類人猿)에서 진화하여 도구를 제작 사용하기 시작한 단계에서부터 농경이나 목축 또는 토기의 제작이 시작되기 이전까지의 문화단계로 고인류(古人類)가 등장하는 약 200만 년 전 부터 1만 년 전까지를 말한다. 지질학적으로 신생대 제4기 홍적세(洪績世)에 해당된다. 이 시대에는 돌을 깨뜨리거나 떼어서 만든 뗀석기[타제석기(打製石器)]가 가장 중요한 도구였으며, 석기의 전체 형태나 가공기술의 정도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로 나뉜다. 석기 이외에도 고인류의 화석이나 지층구조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 뿐 아니라 당시의 기후와 생활상을 복원 · 추정할 수 있다.

구석기인들의 생활은 수렵과 채집 그리고 어로에 의해 이루어졌다. 채집은 나무열매류, 견과성식물류, 뿌리성식물류, 기타 수확물 등이 대상이었다. 이들은 또한 강가나 해안에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로생활도 하였다. 수렵은 동물을 사냥하는 것으로 다소간의 무리를 이루며 생활을 해야 효과적으로 살아 나갈 수 있으므로 공동체적 생활을 하였으며, 아울러 식량자원을 지속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이동생활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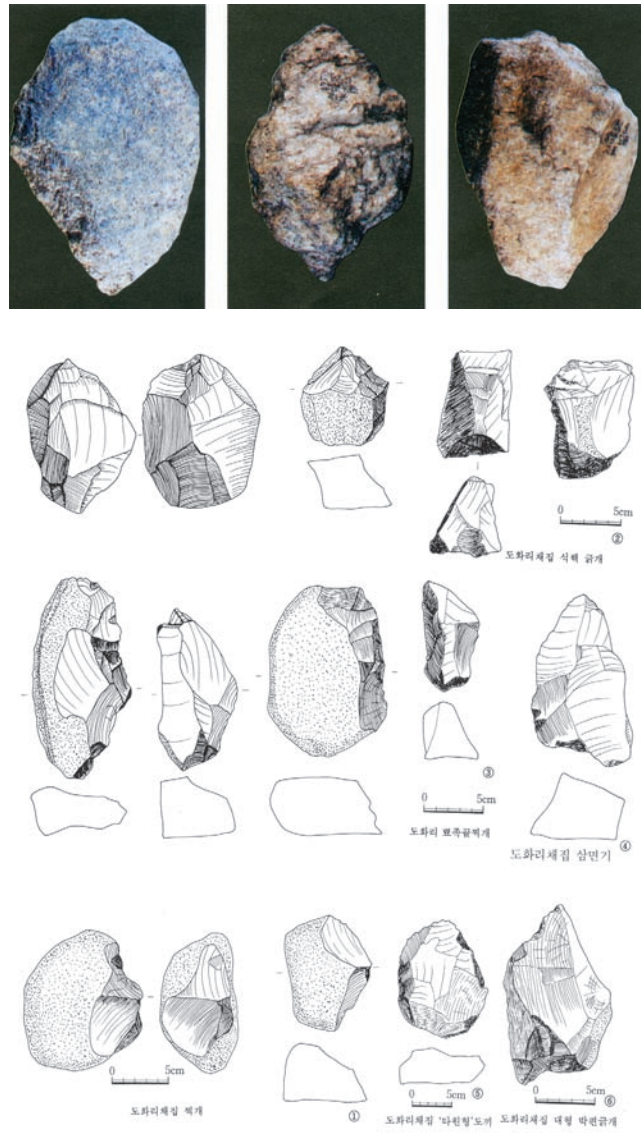
양양지역에서는 구석기시대에 인류가 살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1984년 도화리에서 뗀석기가 발견됨으로써 선사문화의 기원은 수십만 년 전인 전기구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발견된 구석기유적으로는 도화리유적이 있다.

(1) 도화리유적(桃花里遺蹟)

이 유적은 손양면 도화리 산71-1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오산리 신석기유적에서 남쪽으로 약 600m쯤 떨어진 동해안과 인접한 해안단구 지대에 속하는 해발 23m 정도의 낮은 구릉지대에 해당된다. 1984년 서울대학교 조사단의 지표조사에 의해 양양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유적으로, 전기구석기시대에 해당하는 이른바 '아슐리앙' 계통의 주먹

도끼를 포함하여 가로날도끼, 자르개, 긁개, 찍개 등 석기 1천여 점이 출토되었다.

특히 출토된 주먹도끼는 타원형, 삼각형, 창끝형, 하트형 등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양면석기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구석기시대 유적 중 최고 최대의 유적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화리유적 출토 뗀석기

2)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쯤 되면, 기후는 전반적으로 온난다습하게 되어 양극지방의 두꺼운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동식물상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듯 변화한 자연환경 속에서 인류는 구석기시대의 저급한 수렵, 채집경제를 벗어나 정착생활을 하면서 원시농경과 목축에 의한 식량생산을 하고, 흙을 빚어 구운 토기[덧무늬토기와 빗살무늬토기]로 요리와 저장의 수단을 개발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돌을 갈아 만든 다양한 간석기[마제석기(磨製石器)]를 사용하고 직조(織造)기술을 개발하는 등 인류문화 발달사의 혁명적인 전기를 이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인류의 문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이 시기를 신석기시대라고 한다.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주로 식량자원이 풍부한 큰 강가 또는 하천 그리고 호수 주변의 대지나 해안가의 모래언덕에서 움집[수혈주거(竪穴住居)]을 짓고 살았다. 움집의 보편적인 형태는 원형(圓形)으로, 집의 바닥에는 진흙을 펴서 다지고 풀이나 짐승 가죽을 깔고 생활하였으며, 화덕시설[노지(爐址)]을 설치하고 지붕은 주위에 서까래를 걸치고 다른 한 쪽 끝이 중앙에 모이게 하여 뼈대를 형성한 후 나뭇가지나 갈대 등의 풀을 덮어 만들었는데, 대개 원추형(圓錐形)의 모습을 띠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계단이나 경사면을 만들어 출입구 시설을 하기도 하고 밑이 잘린 토기를 거꾸로 묻어 만든 저장시설을 갖추기도 하였다. 주요한 생계수단은 사냥과 고기잡이, 야생식물의 채집이었으나 신석기시대 후기로 접어들면서 원시적인 농업이 시작되어 조 · 피 · 수수 · 기장 같은 곡물 일부가 재배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용호리, 조산리, 가평리, 송전리, 오산리, 남양리, 기정리, 하광정리, 원포리, 입암리, 임호정리 등 많은 곳에서 신석기시대와 관련된 유적 · 유물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 중 용호리유적, 오산리유적, 가평리유적, 송전리유적, 지경리유적 일부가 정식으로 발굴되어 신석기시대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는 양양지역의 신석기시대 문화양상이 점차 밝혀지게 되었다.

특히 남대천 하류역에 위치한 가평리, 송전리, 오산리 일대는 남북으로 연결되는 동일한 사구지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영동지방 최대 규모의 신석기시대 집단 취락지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유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용호리유적(龍湖里遺蹟)

이 유적은 강현면 용호리 127번지 일원으로서 태백산맥에서 뻗어 내린 해발 25m 내외의 낮은 구릉과 해안사구가 만나는 지점에 해당된다. 유적의 동쪽으로 약 100m쯤에 설악해수욕장이 있으며, 남쪽으로 50m 거리에 저구릉에서 흘러내리는 소하천이 동해바다로 흘러들고, 북쪽 구릉너머에는 작은 늪지가 있어 선사인들이 살기에는 비교적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2002년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한 결과, 신석기시대 야외노지 10기, 소토유구 2기, 융기문토기 출토유구 1곳 등이 확인되었으며, 융기문토


용호리유적 야외노지


용호리유적 출토 유물

기와 조합식어구, 어망추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신석기전기~중기에 걸쳐 형성된 유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2) 오산리유적(鰲山里遺蹟)


오산리유적 주거지(1980년대)

이 유적은 손양면 오산리 60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석호인 쌍호를 매립하여 농지로 전용하는 과정에서 유물이 출토되면서 처음으로 알려졌으며, 1981년부터 1987년까지 6차례에 걸쳐 서울대학교 조사단에 의해 A · B지구가 발굴되었다. 조사결과, 사구지대에서 11기의 원형 집자리[주거지(住居址)]와 야외노지로 추정되는 돌무지 등이 확인되었고, 출토유물은 복원 가능한 납작밑발형토기 20여 점과 많은 양의 빗살무늬토기 조각, 결합식낚시바늘, 돌톱, 흑요석, 마제석기 등 석기 300여 점, 점토제얼굴상 1점 등이 출토되었다. 층위는 크게 3개의 문화층으로 구분된다. 이 유적은 방사선탄소연대측정 결과, 지금으로부터 약 8000년 전부터 3500년 전까지 약 4500년간 존속했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최고의 연대를 보이고 있는 유적 중에 하나이다. 또한 이곳에서 출토된 흑요석에 대한 형광X선 분석

결과, 원산지가 백두산으로 밝혀져 선사시대 원재료의 교역에 관한 과학적인 단서를 제공하였다. 1997년 4월 18일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394호로 지정되었다.



오산리유적 출토 덧무늬토기



오산리유적 출토 석기류

한편, 2006~2007년에 걸쳐 예맥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오산리유적 A지구에서 동쪽으로 약 70m쯤 떨어진 C지구가 발굴되면서, 신석기조기~중기에 이르는 주거지 6기와 야외노지 2기가 조사되었으며, 융기문토기를 포함하는 신석기시대 전기의 습지유적과 함께 융기문 및 오산리식토기에 선행하는 신석기시대 조기의 한데유적이 조사되었다. 특히 신석기 조기문화층은 사구층 아래의 갱신세층으로 추정되는 황갈색점토층에서 확인되었는데, 제주 고산리유적의 초창기토기 다음으로 오래된 문화층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기문화층에서 무문양토기와 구연부에 압날점열문을 시문한 적색마연토기 등과 함께 석부, 결합식낚시, 석촉 등의 간석기 그리고 좀돌날, 좀돌날몸돌 등 소량의 뗀석기가 출토되어 이 단계까지 후기구석기 말기의 세석기(細石器)의 전통이 이어졌던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3) 가평리유적(柯坪里遺蹟)

이 유적은 손양면 가평리 산25-2번지 일원의 사구지대에 위치한다. 1994~1996년에 걸쳐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3차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신석기시대 주거지 2기 야외노지 3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말각방형의 형태이며, 단사선문의 횡주어골문, 종주어골문, 사격자문, 능형집선문, 점열집선문 등이 시문된 빗살무늬토

기[즐문토기(櫛文土器)]가 출토되었다. 주거지와 야외노지에 남아 있던 탄화목재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를 측정한 결과, B.C.3000~B.C.2000년경의 연대치가 나와 대체로 신석기 중기에 형성된 유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평리유적 주거지


가평리유적 야외노지

(4) 송전리유적(松田里遺蹟)

이 유적은 손양면 송전리 산14-1, 1-5임 일원으로서 가평리유적과 남북으로 길게 연결된 사구지대에 위치한다.

2006년 예맥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송전리 23-1번지 주택신축부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주거지 2기, 야외노지 3기, 수혈유구 1기 등이 확인되었으며, 단사집선문, 횡주어골문, 종주어골문, 삼각집선문, 능형집선문, 능격문, 격자문 등 다양한 문양이 시문된 빗살무늬토기와 석부, 석촉, 어망추, 갈판 · 갈돌 등의 유물들이 다수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이나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를 미루어볼 때, 유적의 중심연대는 신석기시대 중


송전리유적 2호 주거지


송전리유적 1호 주거지

기에 해당되며, 동일한 사구지대로서 북쪽으로 연결되어 인접한 가평리유적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 지경리유적(地境里遺蹟)


지경리유적 주거지

이 유적은 현남면 지경리 5-7, 5-1임 일대로서 화상천(和尙川) 하구 남쪽에 형성된 해발 7~9m의 퇴적사빈지형의 사구지대에 위치한다. 1995년 강릉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신석기시대 집자리 10기, 야외노지 3기, 소할석유구 1기 등이 발굴되었다. 신석기시대 집자리와 주변 교란층에서는 원형으로 복원된 빗살무늬토기 10여 점과 빗살무늬토기 조각 수백 점, 석부 12점, 석촉 17점, 석창 2점, 석도 4점, 돌그물추 331점, 갈판 10여 점, 숫돌 3점 등이 출토되었다.

주거지는 약간의 시기차를 두고 조성되었는데, 지경리 Ⅰ기와 Ⅱ기로 크게 구분된다. Ⅰ기는 첨저계(尖底系) 즐문토기 문화단계로 황해도 지탑리유적과 서울 암사동유적 등 중서부지역에 연결되며, Ⅱ기는 태선문계(太線文系) 즐문토기 문화단계로 동남부지역과 거의 일치되고 있다. 이 유적은 방사성탄소측정 결과, B.C.3355~B.C.3035년경의


지경리유적 출토 빗살무늬토기

연대치가 나와 신석기시대 중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각 지역간의 신석기시대 문화의 상대편년과 문화교류 관계 및 신석기시대 중기 집자리의 형태와 가옥구조를 연구하는데 획기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지경리유적 출토 금강식토기



지경리유적 출토 석기류

3)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였던 간석기 대신에 구리에 비소, 주석을 합금하여 만든 청동기(靑銅器)의 사용으로 인류는 새로운 문명사회로 접어들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신석기시대 말기인 기원전 2000년경에 중국의 요녕지역, 러시아의 아무르강과 연해주 지역에서 들어온 덧띠새김무늬토기가 앞선 빗살무늬토기 문화와 약 500년간 공존하다가 점차 청동기시대로 넘어간다. 이때가 기원전 2000년경에서 1500년경으로 한반도의 청동기시대가 본격화 된다. 고인돌[지석묘(支石墓)]도 이 무렵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한반도의 토착사회를 이루게 된다. 이 시대에 청동기가 생산도구로 널리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아직 없으나, 청동기는 신분상징적인 존재로 소수의 유력자들에 한정되어 무기나 장식품으로 사용되었다. 생활도구로는 주로 간석기나 목기, 골각기가 이용되었다.

청동기시대의 주민들은 주로 강과 하천에 가까운 평야나 야산 구릉지대에서 취락을 이루며, 주변 골짜기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네모꼴[방형(方形)]이나 긴네모꼴[장방형(長方形)]의 움집을 짓고 살았다. 움집은 신석기시대보다 움이 낮아진 반움집으로 규모가 더 커졌으며, 움집 내부의 바닥에는 돌을 돌리거나 바닥을 약간 파서 화덕을 만들었고, 집이 큰 경우에는 여러 개의 화덕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이 시대에 와서 벼농사를 비롯한 농경이 본격적으로 발달하여 이전부터 사용하던 간석기가 더욱 다양해졌다. 간석기에는 벌목이나 나무 가공에 사용된 돌도끼, 홈자귀, 돌대패날, 돌끌 등이 있고, 곡식의 이삭을 따는데 사용된 반달돌칼, 돌낫이 있으며, 땅을 파거나 밭을 일구는데 사용된 돌보습과 돌괭이 등이 있다. 이외에도 곡물 가공에 쓰인 갈판과 갈돌이 있으며, 무기와 사냥도구로는 돌화살촉, 돌창, 돌칼, 바퀴날도끼 등이 있다.

청동시시대의 토기[민무늬토기 : 무문토기(無文土器)]는 이전의 신석기시대와는 달리 굵은 모래나 활석 등을 섞은 진흙으로 빚어 구운 납작한 토기로, 대개 그릇표면에 무늬가 없으며 갈색 또는 적갈색을 띠고 있다. 일상용의 민무늬토기는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와 교체되면서 지역과 시기에 따라 그릇의 형태나 색, 만드는 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1970년대 초반 감곡리 유물산포지와 범부리 고인돌이 확인된 이래 최근까지 포월리, 수여리, 학포리, 상양혈리, 하광정리, 조산리, 사천리, 강선리, 기정리, 밀양리, 포매리, 원포리, 지리, 임호정리, 입암리 등 비교적 많은 곳에서 다수의 청동기시대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동기시대에 들어와 많은 주민들이 주요하천의 나지막한 구릉지대를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가꾸면서 살았음이 밝혀지게 되었으며, 아울러 일정한 규모의 토착집단이 거주하였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청동기시대 유적 중에서 포월리유적, 밀양리유적, 임호정리유적, 지리유적이 발굴되었으며, 최근 영동지방 최초로 청동기시대 분묘유적인 송전리토광묘 1기가 새로이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유적은 주거지(住居址) 및 유물산포지 등의 생활유적(生活遺蹟)과 고인돌과 같은 분묘유적(墳墓遺蹟)으로 크게 구분된다.

주요 유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포월리고인돌(浦月里支石墓)

이 고인돌은 양양읍 포월리 산59번지 일원의 나지막한 구릉상에 3기가 위치한다. 1992년 포월리 농공단지 조성지역내의 청동기시대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강

릉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2기가 조사되었으며, 이와 인접한 남쪽 구릉 정상부에 1기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포월리 1호 고인돌

1호 고인돌은 하부구조로 추정되는 석곽만 남아 있었다. 석곽의 바닥은 아무런 시설 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했고, 면이 고른 할석을 안쪽으로 향하여 2~4단 높이로 쌓았다. 석곽의 크기는 길이 165㎝, 너비 62㎝, 깊이 62㎝이다. 출토유물은 없었으며 발굴조사 당시 농공단지 부지 조성을 위하여 부득이 매립처리 되었다.

2호 고인돌은 하부구조로 추정되는 석곽만 조사되었다. 석곽은 장벽은 3~4단으로 쌓았으며, 단벽은 1매 또는 2매의 판석을 세워 마감하였다. 바닥은 장벽에 쌓은 돌과 같은 크기의 할석을 사용해 전면에 깔았다. 출토유물은 없었으며 발굴조사 당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부득이 매립하게 되었으므로 유물의 보존과 후세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강릉시립박물관으로 이전 원형대로 복원하여 전시 중이다.


포월리 2호 고인돌


포월리 3호 고인돌

3호 고인돌은 이미 도굴되어 남쪽에 도굴갱이 뚫려 있고 덮개돌은 둘로 갈라진 상태로 놓여 있다. 덮개돌의 주변은 작은 냇돌들이 폭 1m 내외로 덮개돌 중간부까지 쌓여 있고, 덮개돌 밑으로 받침돌들이 보인다. 덮개돌의 방향은 남-북향이며 크기는 길이 2.5m, 너비 1.7m, 두께 20㎝이다.

(2) 범부리고인돌(凡阜里支石墓)

이 고인돌은 서면 범부리 산5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서면 소재지에서 남대천을 건너면 범부리 마을이 있는데, 이곳에서 남대천의 남쪽 기슭을 따라 남서쪽 약 1.8㎞쯤 거슬러 올라간 지점에 남북으로 약 20m 거리를 두고 2기가 나란히 소재하고 있다.

1호 고인돌의 덮개돌은 장방형 판석으로 크기는 길이 2m, 너비 0.83~1.45m, 두께 40㎝이다. 덮개돌 밑에는 판석으로 구성된 석관형의 하부구조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하부구조의 석실은 동벽은 2매, 서벽은 1매의 판석이고, 남벽과 북벽은 결실되었다. 바닥은 1매의 판석을 깔았다.



범부리 1호 고인돌



범부리 2호 고인돌

2호 고인돌은 덮개돌이 둘로 갈라져 있다. 덮개돌의 크기는 길이 2.06m, 너비 0.77m, 두께 40㎝이다. 덮개돌의 하부구조는 1호와 마찬가지로 판석으로 구성된 석관형의 석실이다. 석실의 장축인 동벽과 서벽, 그리고 단벽인 북벽은 각각 1매의 판석으로 되어 있고, 바닥에도 1매의 판석을 깔았다. 석실 내부의 크기는 길이 1.47m, 너비 0.6m, 높이 47㎝이고, 둘레에는 직경 6m 정도의 할석을 덮개돌 밑까지 깔았다.

(3) 수여리고인돌 I (水餘里支石墓 I)

이 고인돌은 손양면 수여리 전314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7번국도변에서 오산리 방향으로 진입하여 냉수성어류연구센터 앞에서 수여리 마을로 시멘트 포장도로를 따라 들어



수여리고인돌 Ⅰ

가면 마을의 동쪽 끝 낮은 능선부에 소재하고 있다. 이 고인돌은 마을에서 '칠성바위'로 불리고 있으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제를 올렸다고 한다.

고인돌의 덮개돌은 계란 모양으로 잘 다듬은 판석이며, 동편에 직경 약 20㎝의 구멍이 뚫려 있어 도굴된 것으로 보인다. 덮개돌의 장축은 동-서향으로 길이 3.1m, 너비 2.35m, 두께 30~40㎝이다. 덮개돌의 사방으로 약 1~1.4m 거리에 둘레돌 모양의 판석들이 세워져 있고, 둘레돌과 덮개돌 사이에는 주먹크기의 냇돌이 깔려 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매우 특이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4) 수여리고인돌Ⅱ(水餘里支石墓Ⅱ)



수여리고인돌 II

이 고인돌은 손양면 금강리 고인돌로 알려져 왔으나 손양면 수여리 산4-2번지에 위치한다. 7번국도변에서 오산리 방향으로 약 2.1㎞쯤 들어가다 두 번째 고갯길 왼쪽 구릉의 정상부에 도로방향과 나란히 놓여 있다.

고인돌의 덮개돌은 장방형의 판석으로 크기는 길이 2.5m, 너비 1.8m, 두께 40㎝이다. 하부구조는 동편에 받침돌 1개가 있고, 북쪽 즉 정상부의 노출되지 않은 지점에 길이 80㎝, 두께 30㎝ 크기의 장대석이 덮개돌을 받치고 있을 뿐, 다른 특별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5) 기정리고인돌(基丁里支石墓)

이 고인돌은 양양읍 포월리 48번지 일대에 소재한다. 양양에서 속초로 가는 7번 국도를 따라 북상하다가 좌측 포월리 마을 뒤쪽 낮은 구릉의 북서편 능선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덮개돌의 장축모서리에는 정 자국이 있으며, 길이 2m, 너비 60㎝, 두께 50㎝이다.


기정리고인돌

(6) 송전리토광묘(松田里土壙墓)

이 토광묘는 손양면 송전리 23-1번지에 위치한다. 2006년 예맥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주택신축부지 내 신석기유적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영동지방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신석기시대 1호 주거지에서 동남쪽으로 약 2.2m 떨어진 지점에서 조사되었다.

토광묘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주축방향은 동-서향에 가깝다. 1호 주거지를 둘러싸고 잇는 암황갈색 모래층을 일부 파괴하고 거의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다. 내부에는 점질 함량이 높은 황갈색 모래가 채워져 있었으며, 황갈색 모래층 내에서 즐문토기편 소량이 출토되었다. 토광묘 중앙에서 서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청동기시대의 삼각만입형 석촉 9점이 포개어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토광묘 유구의 규모는 길이 180㎝, 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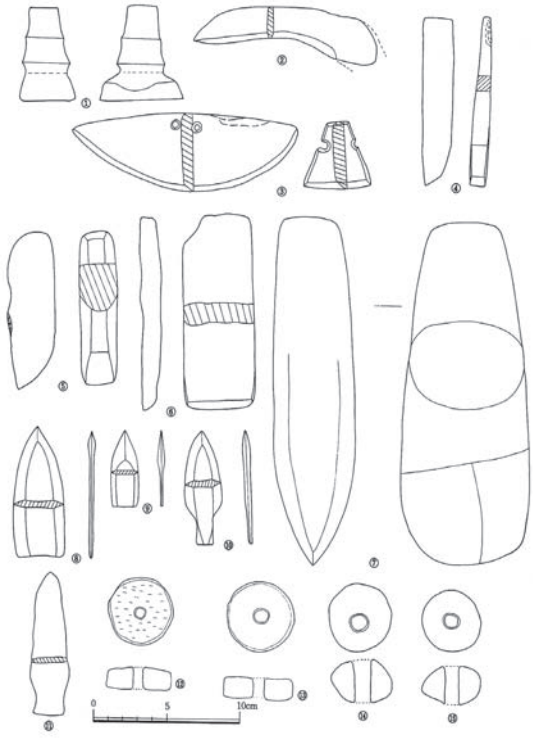

송전리 토광묘


송전리 토광묘 출토유물

70㎝, 깊이 25㎝이다. 최근 이와 같이 청동기시대의 유구와 유물이 구릉이 아닌 사구지대에서 간간히 발견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동기시대 유적의 분포범위를 사구지대까지 확장시켜 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7) 강선리유적(降仙里遺蹟)

이 유적은 강현면 강선리 마을 뒷산에 위치한다. 1985년 동우대학의 전영수 학생이 1981년 마을 뒷산 정상부에서 청동기시대의 각종 석기류 등의 유물을 발견하여 대학에 기증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유물 출토지는 물치천을 바로 지나 북서편의 설악산에서 동-서로 길게 뻗어 내린 해발 56~58m의 구릉 정상부 일대에 해당된다. 이 구릉일대의 북쪽에는 쌍천, 남쪽으로는 물치천이 동해로 흐르고 있어 선사인들이 거주하기에는 매우 양호한 조건을 갖춘 지역 중의 하나이다.



강선리유적 출토 유물

1994년 강릉대학교 박물관에서 시행한 지표조사에서도 청동기시대 무문토기편들이 주변에서 다수 수습되었다. 지금까지의 출토유물의 양상과 자연 지리적 위치 및 환경을 고려해 볼 때, 강선리 구릉일대에는 청동기시대 후기의 집단취락지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검파두식, 돌낫, 반달돌칼, 돌끌, 돌대패, 돌도끼, 홈자귀, 돌화살촉, 가락바퀴, 점토대토기편 등이 있다.

(8) 포월리유적(浦月里遺蹟)


포월리유적 주거지

이 유적은 양양읍 포월리 산52번지 일대의 해발 약 22m 높이의 동-서로 길게 뻗은 나지막한 구릉지대에 위치한다. 1992년 강릉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포월리 농공단지 지정구역내 포월리 청동기시대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청동기시대의 장방형 주거지 13기가 조사되었으며, 지석묘 2기와 신라시대 고분 3기 등이 함께 확인되었다.

포월리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구릉의 능선을 따라 풍화된 암반층을 수직으로 파고 조성하였고, 바닥은 평탄하게 고른 다음 점토를 깔아 다졌다. 일부 주거지에서는 벽체에 판자를 세웠던 흔적과 어깨 밑에 벽선을 따라 홈이 파여진 벽구시설도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거의 대부분 장방형을 띠며, 집자리의 방향은 동-서향이 7기, 남-북향이 3기, 남서-북동향이 2기, 남동-북서향이 1기이다. 집자리 규모는 10평 이상이 3기, 9평~5평 사이가 4기, 5평 이하가 1기로서, 대부분 5평 이상의 집자리가 분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토된 토기류는 거의 대부분 구멍무늬토기가 주종을 이루며, 석기류는 돌도끼, 돌대패, 돌화살촉, 돌검, 돌창, 그물추, 갈돌 및 갈판 등이 있다. 이 유적은 당시 조사된 집자리 유구와 출토유물의 형식으로 보아, 청동기시대 중기의 후반경인 B.C.8세기경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포월리유적 출토 민무늬토기류


석기류

(9) 임호정리유적(臨湖亭里遺蹟)



임호정리유적 주거지

이 유적은 현남면 임호정리 화상천 남쪽 주변의 구릉일대에 위치한다. 2005~2007년 걸쳐 강원문화재연구소에 의해 동해고속도로 건설공사구역내 청동기시대 유적 B·C지구 발굴과정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7기와 수혈유구 2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해발 22m 높이의 나지막한 구릉 정상부와 사면에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장축방향은 능선과 평행하거나 직교하게 축조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과 말각 방형을 띤다. 주거지의 길이가 10m 넘는 대형 주거지로는 B-1호와 B-3호가 있는데, 이중 B-1호 주거지는 그 면적이 90㎡에 이른다. 내부시설로는 주혈, 벽구, 선반, 저장공, 노지, 배수구 등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기둥구멍은 모든 주거지에 설치되었는데, 주로 벽 안쪽에 시설된 벽구나 단상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였으며, 간혹 벽면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기도 하였다. 바닥은 점토를 깔고 불다짐을 하거나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유물은 이중구연토기 및 공렬토기 등 무문토기와 함께 석검, 석부, 석착, 석도, 석촉, 지석, 석제방추차, 어망추, 갈판 및 갈돌 등이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이 유적은 이중구연토기 및 공렬토기를 공반하는 유물의 조합상을 미루어 볼 때, 청동기시대 전기에 조성된 유적으로 추정된다.


임호정리유적 출토 민무늬토기류


임호정리유적 출토 석기류

(10) 지리유적(池里遺蹟)

이 유적은 현남면 임호정리 산16-2번지 일대로서 지리마을의 발우봉(鉢盂峰)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상에 위치한다. 2000년 강릉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동해고속도로 건설공사구역 내 청동기시대 유적에 대한 발굴과정에서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능선을 따라 동-서향으로 풍화된 암반층을 수직으로 파서 마련하였으며, 평면형태는 모서리의 각을 죽인 말각 방형으로 추정된다. 주거지의 크기는 남-북 폭 420㎝이며, 잔존하는 동-서 길이는 540㎝정도이다. 서벽의 수혈깊이는 20㎝정도이다. 바닥은 생토층을 평탄하게 고른 후 약 4~5㎝의 두께로 진흙을 깔은 다음 불에 구워 단단하게 하였다. 가옥의 구조를 알 수 있는 기둥은 서벽에서 2개 북벽과 남벽에서 각각 1개씩 노출되었다. 서벽기둥의 지름은 2개 모두 약 15㎝ 정도이며, 북벽과 남벽의 지름은 각각 10㎝와 22㎝이고 기둥간의 거리는 약 1m 정도이다. 또한 주거지 벽에는 횡보로 보이는 목탄이 확인되었으며, 판자를 사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유물은 주거지의 서남벽 모서리에서 무경식 화살촉 3점, 유경식 화살촉 2점, 석창 1점, 돌대패 1점, 돌자귀 1점, 고석 2점, 숫돌 1점이 서로 세트를 이루며 출토되었고, 서쪽으로 약 20㎝ 떨어져 반월형 석도 1점이 출토되었다. 토기는 점토대 토기 구연부편 2점과 무문토기 동체부편 약간만이 바닥 중앙에서 출토되었다. 이 유적은 강릉 송림리유적과 더불어 영동지방에서 처음으로 조사된 원형 점토대토기를 공반하는 주거지로서, 청동기시대 후기의 문화상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유물의 조합상을 미루어 볼 때, 청동기시대 후기인 B.C.5세기 이전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리유적 주거지


지리유적 출토 석기류

(11) 북평리유적(北坪里遺蹟)


북평리 주거지

이 유적은 서면 북평리 산15번지 일대로서 남대천과 후천이 합류되는 지점의 중간부에 해당하는 해발 60m 내외의 구릉지대에 위치한다. 2010년 주문진-속초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에 대한 예맥문화재연구원의 발굴조사를 통해 평면 장방형 주거지 2기, 방형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고, 무문토기, 점토대토기, 석촉, 검파두식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크기는 길이 358~420㎝, 너비 185~320㎝, 깊이 16~30㎝이며, 주공과 초석으로 추정되는 강돌 등을 제외하고는 노지 등의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양양지역에서 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강선리, 기정리, 송전리, 오산리, 범부리유적과 더불어 청동기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점토대토기 문화의 전개양상을 밝히는데 추가적인 자료가 된다.


북평리 주거지 출토 토기류


북평리 주거지 출토 석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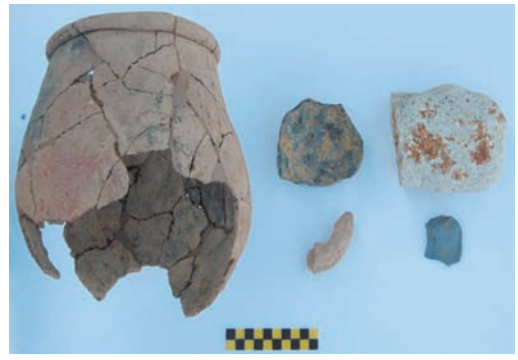
(12) 범부리유적(凡阜里遺蹟)

이 유적은 서면 범부리 산22-1번지 일대로서 북평리유적의 남서쪽에 형성된 구릉지대에 위치한다. 2010년 주문진-속초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에 대한 예맥문화재연구원의 발굴조사를 통해 평면 장방형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고, 원형점토대토기

1개체분을 비롯하여 토기저부 및 파수편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크기는 길이 530㎝, 너비 400㎝, 깊이 34㎝이며, 추정 노지 등의 내부시설이 확인되었다. 양양지역에서 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강선리, 기정리, 송전리, 오산리, 북평리유적과 더불어 청동기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점토대토기 문화의 전개양상을 밝히는데 추가적인 자료이다.



범부리 주거지



범부리 주거지 출토유물

4) 철기시대(鐵器時代)

한반도에서 청동기의 제작이 본격화된 기원전 3세기말경 중국 북방으로부터 새로운 문화, 즉 철기문화가 들어옴으로써 철기시대가 시작된다. 이 시기는 기원전 300년경부터 기원후 300년까지의 약 600년간에 해당되지만, 청동기시대 후기와 겹치는 기원전 300년경부터 기원전 · 후까지를 초기철기시대(初期鐵器時代)로, 기원전 · 후부터 기원후 300년까지를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로 나누어 부르고 있다.

초기철기시대는 청동기시대 후기에 중국으로부터 철제품이 들어오면서 철기의 현지 생산이 시작되는 시기로, 단단하고 예리한 철의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무기류, 농공구류가 만들어졌다. 특히 철제 농기구의 보급은 대규모의 농경을 가능케 하여 생산력을 급속히 증가시키는 등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철의 제조 공정을 수행하는 전문집단이 발생하고 철이 부(富)의 척도가 되는 등 사회적 계급분화를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철제 무기의 출현과 농업생산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출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철기문화는 중국에 가까운 북부지방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남부지방에서는 기원전 1세기경에 본격적으로 확산하게 되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은 중국의 한(漢)문화의 유입이었다. 원삼국시대는 문헌상의 삼한시대(三韓時代), 한국사(韓國史)에서의 부족국가(部族國家), 성읍국가(城邑國家), 연맹왕국(聯盟王國)시대에 해당되며, 삼국이 고대국가체제를 마련할 수 있었던 기틀이 된 시기이다.

철기시대의 주거생활은 청동기시대 주민들이 주로 평야나 하천과 가까운 야산이나 구릉지대에서 취락을 이루고 살았던 것과는 달리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큰 강가와 하천변의 대지나 해안가의 모래언덕에 움집을 짓고 살았다. 움집의 기본형태는 긴네모꼴로서 청동기시대와는 별 차이가 없으나 입구가 돌출된 철(凸)자형의 움집과 큰 방에 입구시설인 작은방이 딸린 여(呂)자형의 움집이 보편적으로 만들어졌다. 집 내부에는 기존의 화덕 대신에 부뚜막과 구들을 설치하여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내부의 생활공간은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당시의 무덤으로는 널무덤[목관묘(木棺墓)], 덧널무덤[목곽묘(木槨墓)], 독무덤[옹관묘(甕棺墓)], 돌무지무덤[적석총(積石塚)] 등이 유행하였다. 토기는 청동기시대의 민무늬토기의 전통위에 중국의 영향과 새로운 토기제작의 기술의 보급으로 검은간토기[흑도(黑陶)]와 덧띠토기[점토대토기(粘土帶土器)], 경질민무늬토기[경질무문토기(硬質無文土器)], 두드림무늬토기[타날문토기(打捺文土器)] 등이 만들어졌으며, 한국식동검 · 청동거울 · 청동방울 등의 청동기류와 쇠칼 · 쇠고리칼 · 쇠화살촉 · 쇠창 등의 철제무기류, 쇠도끼 · 쇠삽 · 쇠낫 등의 철제농공구류가 활발하게 제작되어 사용되었다.

양양지역은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에 이르러 함경도 해안지대와 영동지역 그리고 경북 동해안의 일부지역과 함께 동예(東濊)에 속해 있었으며, 예족(濊族)이라고 불리는 종족들이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보면, 동예에 속한 예 종족의 거주영역에는 물질문화의 공통성이 드러난다. 즉 충적대지나 해안의 사구지대에서 이른바 여자형(呂字形), 혹은 철자형(凸字形)의 평면형을 지닌 수혈주거지로 구성된 취락이 분포하며, 예족의 주민들이 사용한 토기는 중도식토기로 불리는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단경호가 공존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물질문화의 공통성은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의 기록에

보이는 예종족의 습속들과 함께 문화적인 정체성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시기에 동해안지역의 강릉과 삼척일대에는 예국(濊國)과 실직국(悉直國)이 각각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강릉의 예국고성(濊國古城)은 정치체로서 예국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예국고성의 축조 및 사용 시기는 기원전후의 시기부터 기원후 4세기 후반 혹은 5세기초반경까지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강릉지역과 동해 · 삼척지역은 대체로 기원후 4세기후반~5세기초반 무렵에 신라화(新羅化)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양양지역이 동예의 어느 정치집단에 속해 있었는지와 고구려 혹은 신라의 동해안 진출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문화적 전개양상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는다.

1966년 정암리에서는 초기철기시대의 동경(銅鏡)과 동검(銅劍)이 발견되고, 1983년 가평리 주거지유적이 처음으로 조사된 이래 최근에 이르기까지 정암리, 용호리, 조산리, 가평리, 송전리, 여운포리, 동호리, 지경리 등에서 다수의 철기시대 생활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가평리유적, 용호리유적, 지경리유적이 부분적으로 발굴조사 되었다. 지금까지 발견된 양양지역의 철기시대 유적은 모두 해안 사구지대에 입지하고 있는데, 지형상으로 소하천과 늪지, 사구와 석호, 그리고 잔구성의 나지막한 구릉이 교대되는 저지대의 환경을 이루는 곳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양양지역의 철기시대 취락의 분포양상과 주거지 구조를 미루어 보면, 대체로 동예의 영역에 속한 거주집단의 취락형태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울러 일정한 규모의 예의 토착집단이 거주하였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된 철기시대 주요 유적과 유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암리 출토유물(釘岩里 出土遺物)

1966년 강현면 정암리 일원에서 청동거울[銅鏡] 1점과 청동검[銅劍] 1점이 발견되어 당국에 신고되어 알려졌으며, 1967년 김원룡에 의해 학계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청동거울은 다뉴세문경(多鈕細文鏡)이고, 청동검은 세형동검(細形銅劍)이다. 유물의 출토경위는 자



정암리 출토 동경 및 동검

세히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초기철기시대인 기원전 3~2세기경에 제작되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용호리유적(龍湖里遺蹟)

이 유적은 강현면 용호리 127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태백산맥에서 뻗어 내린 해발 25m 내외의 낮은 구릉과 해안사구가 만나는 지점에 해당된다. 유적의 동쪽으로 약 100m쯤에 설악해수욕장이 있으며, 남쪽으로 50m 쯤에 저구릉에서 흘러내리는 소하천이 동해바다로 흘러들고, 북쪽 구릉너머에는 작은 늪지가 있어 선사인들이 정착생활을 하기에는 비교적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2002년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여관신축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석기시대 야외노지 10기와 철기시대 추정 야외노지 1기가 확인되었다. 철기시대 유구인 추정 야외노지는 평면형태가 부정형으로 크기는 동-서 2m, 남-북 0.8m이다. 내부에서 경질무문토기 항아리 2점과 토기편 소량이 출토되었다.



용호리유적 추정 야외노지



용호리유적 출토 민무늬토기

(3) 가평리유적(柯坪里遺蹟)

이 유적은 손양면 가평리 산25-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7번국도변에서 수산리쪽으로 약 3.5㎞ 진입하면 KBS송신소와 강원대학교 수련원이 있고, 송신소 뒤편 북쪽으로 약 500m쯤 올라가면 저습지에 도달하는데, 이 저습지의 북쪽에 있는 해발 5m 미만의


가평리유적 몸자형 주거지


가평리유적 출토 타날문토기


가평리유적 출토 민무늬토기


가평리유적 출토 민무늬토기

모래언덕 일대가 철기시대의 집자리 유적이 위치한 지역이다.

유적이 위치한 지역은 남대천 하류역으로, 동쪽은 동해와 접하고 서쪽은 태백산맥이 지맥이 이곳까지 도달하여 유적의 배면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유적이 위치한 남대천 하류역 일대는 하천, 해안, 호수, 산림 등의 천혜의 조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선사인들이 생활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가평리유적은 1983년 강릉대학교 박물관에서 처음으로 발굴하여 초기철기시대 철자형(凸字形) 집자리 2기가 확인되었고, 많은 양의 경질무문토기 및 타날문토기와 소량의 철편 등이 출토되었다. 집자리는 수혈움집으로 바닥은 모두 점토를 펴서 단단하게 다졌다. 1호 집자리는 기둥구멍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크기가 길이 7.5m, 너비 7.1m이고, 면적은 53.25㎡(약 16평)이다. 2호 집자리는 길이 4.6m, 너비 4.3m이고, 면적은 19.78㎡(약 6평)이며, 불탄 숯기둥이 확인되었다. 숯기둥은 모두 진흙바닥의 가장자리

에서 약 30~50㎝ 안쪽에 위치하여 초석 없이 세워져 있다. 집자리의 동북쪽 모서리 진흙더미 속에 불먹은 진흙과 길이 20~30㎝, 두께 5㎝ 정도의 네모진 불맞은 돌들이 흩어져 있어 화덕자리 내지는 부뚜막시설로 보여진다. 기원전후~A.D.2세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6년 가평리 '쿵쿵산'으로 불리는 주변의 사구지대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철기시대 여자형(呂字形) 집자리 1기와 파괴된 집자리 2기가 발굴되었으며,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 흑색토기 등의 토기류와 철겸, 철도자, 철촉 등의 철제품이 출토되었다. 당시 조사된 여자형 집자리는 작은 방을 통해서 큰방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바닥은 점토를 다졌으며, 기둥자리와 화덕, 저장시설 등을 갖추었다. 기둥자리는 내부기둥과 외곽기둥의 이중 구조로 설치되었는데, 움집의 상부구조가 상당히 복잡한 구조였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가옥의 구조는 주거입지가 해양성기후로 인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며, 토양이 모래이기 때문에 지붕은 상당히 넓게 만들어서 처마가 지표에 가깝게 하여 비나 눈에 의해 주거지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저장용 대형토기와 화덕자리 부근의 토기 안에서 다량의 탄화곡물(콩과 보리)이 출토되어 당시 주민들의 식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집자리의 전체 규모는 길이 10.5m, 너비 5.5m, 움깊이 50~65㎝이다. B.C.2세기~1세기경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 지경리유적(地境里遺蹟)

이 유적은 현남면 지경리 임5-7번지 일원으로서 화상천(和尙川) 하구와 남쪽으로 접한 사구지대에 위치한다. 1994년 도로공사중에 발견되어 처음으로 알려졌으며, 1995년 강릉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주문진-양양 간 7번국도 확장공사 구역에 대한 정식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철기시대 집자리 7기가 확인되었다.

당시 조사된 집자리는 평면형태가 철자형(凸字形) 6기, 장방형(長方形) 1기이다. 장방형 1호 주거지는 길이 28.2m, 너비 8m, 움깊이 30㎝이고, 면적은 약 225㎡(약

68평)로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조사된 선사시대 주거지중 가장 규모가 큰 것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철자형 주거지는 바닥에 진흙을 깔아 고르게 다졌으며, 화덕자리는 주로 주거지의 북쪽에 치우쳐 시설되었다. 주거지 내부에서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 다수가 출토되었다.



지경리유적 1호 주거지



지경리유적 2호 주거지



타날문토기



지경리유적 출토 민무늬토기

집필 : 이상수

참고문헌

김원룡, 1967,「韓國 江原道 襄陽郡 出土 細形銅劍·細文鏡について」『史林』50-2.
백홍기, 1982,「江原道 東海岸地方의 支石墓」『考古美術』156, 한국미술사학회.
백홍기, 1984,《襄陽郡 柯坪里 住居址 發掘調査報告(1)》강릉대학 박물관.
장문철, 1988,「襄陽郡 降仙里 出土 先史時代 遺物에 대하여」『嶺東文化』3,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이선복, 1989,『동북아시아 구석기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양양군, 1990,「襄陽地方의 先史時代」『襄州誌』
백홍기·지현병, 1994,「襄陽郡의 先史考古遺蹟」『襄陽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강릉대학교 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襄陽 柯坪里》
강릉대학교 박물관, 2000.『발굴유적유물도록』
강릉대학교 박물관, 2001,『襄陽 池里 住居址』
강릉대학교 박물관, 2002,『襄陽 浦月里 住居址』
강릉대학교 박물관, 2002,『襄陽 地境里 住居址』
강원문화재연구소, 2003,『文化遺蹟 分布地圖-襄陽郡-』
강원문화재연구소, 2004,「양양군 강현면 용호리 127번지 여관신축부지 문화유적 긴급발굴조사 보고서」『江陵 江門洞 鐵器·新羅時代 住居址』.
국립춘천박물관, 2004,『강원 고고학의 발자취』(특별전 도록)
박영구, 2004,「嶺東地域 靑銅器時代 住居址 硏究」『江原考古學報』3, 강원고고학회.
고동순, 2007,「양양 오산리 C유적」『국가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제31회 한국고고학대회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관동대학교 박물관, 2007,『양양 낙산골프리조트 조성사업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관동대학교 박물관, 2008,『양양 현남면 골프리조트 조성사업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襄陽 臨湖亭里 遺蹟-동해고속도로(주문진-속초간) 건설구간내 유적-』
예맥문화재연구원, 2008,『襄陽 松田里遺蹟-양양 송전리 23-1번지 주택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II. 오산리 선사유적

1. 머리말

인류사는 흔히 문자의 사용여부에 따라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누어지며, 사용한 도구의 재료에 따라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구분한다. 석기시대는 다시 뗀석기를 사용한 구석기시대와 간석기를 사용한 신석기시대로 나누어진다.

신석기시대는 연대적으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 극지방의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시기인 약 1만년 전 무렵부터를 일컫는다. 흔히 신석기문화는 식량생산, 정착생활, 토기의 제작, 간석기의 등장과 유행으로 정의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나라와 지역에 따라 서로 달라 농경이 없는 신석기문화도 있으며, 토기가 없는 신석기문화도 존재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아시아지역에서는 토기의 출현부터를 신석기시대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육지부의 신석기문화는 지금부터 약 8000년 전(B.C.6000년)경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있는데, 가장 대표되는 유적이 오산리에 위치한 사적 제394호 '오산리 신석기유적' 이다.[1] 그러나 최근에는 섬지역인 제주도 고산리에서 육지부 보다 이른 시기의 유적이 조사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신석기시대 유적은 전국적으로 약 400여 개소에 이르며, 대부분 물과 식량자원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큰 강가나 바닷가, 가까운 섬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신석기시대 유적들은 동해안에서 대부분 하천이나 석호가 해안과 만나는 사구지대(砂丘地帶)에서 조사되고 있으며, 신석기시대 늦은 시기에는 호수나 하천주변의 나지막한 구릉 위에서도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 성과로 인하여 동해안 지역의 신석기시대 조기(早期) 및 전기(前期)유적으로 양양 오산리유적, 동해 망상동유적, 고성 문암리

유적[2] 등이 조사되었고, 중기유적으로는 양양 송전리유적과 지경리유적, 강릉 초당동 유적이, 후기유적으로는 강릉 지변동유적, 초당동유적, 고성 철통리유적 등이 조사되어 유적간의 비교를 통하여 동해안 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졌다.[3]

동해안 지방은 태백산맥이 동해바다 가까이에서 동해쪽으로 급경사를 이루며 흘러내리기 때문에 큰 강과 퇴적평야는 없으나 군소하천들이 발달되어 이들 군소하천이 바닷가와 만나는 부분에는 사구지대와 저습지가 발달하였고, 이러한 지형적 여건과 당시의 자연환경 속에서 신석기인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4]

2. 오산리유적 발굴조사

1) 조사경위


발굴조사 당시전경(1982년)

오산리유적(鰲山里遺蹟)은 행정구역상으로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에 있다. 양양읍을 가로질러 흐르는 남대천의 하구 남쪽 3㎞ 지점에 있으며, 해안으로부터 약 300m 내륙쪽으로 떨어진 쌍호(雙湖)라고 불리는 자연호수의 동북쪽 모서리 사구(砂丘)위에 위치한다. 현재는 양분된 사구의 사이로 상류의 학포천에서 흘러 내려오는 관개용수가 흐르고 있는데, 편의상 동쪽의 사구 잔류분을 오산리 A구역, 서쪽에 위치한 사구를 오산리 B구역으로 명명하여 부르고자 한다.[5]

이 유적은 식량생산 증대를 위한 농토 확장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다. 1977년 봄 이곳의 흙을 채취하여 인근의 쌍호를 매립하여 농지로 전용하기 위한 토사채취 작업 중 흙에서 다량의 토기와 석기가 출토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서울대학교박물관 조사단에 의해 여러 차례에 걸친 지표조사가 실시되었고, 1981년부터 1987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적의 범위는 전체 약 6,000㎡로 추정되는데 그 중 600㎡를 발굴하였으며, 신석기시대 유적의 원형 집자리와 복원 가능한 평저(平底, 납작밑)완형토기 20여 점을 포함하여 토기편 3,000여 점, 결합식낚시[결합식조침(結合式釣針)], 돌톱, 흑요석 등 석기 300여 점, 흙으로 빚은 얼굴조각상 1점 등이 확인되었다.[6)]

〈표2-1〉 오산리유적 발굴기간 및 조사유적 · 출토유물

구 분	발 굴 기 간	조 사 유 적	출토유물(점)
1차	'81. 3.26.~ 4.11.	집자리 1(A구역)	23
2차	'82. 4.19.~ 5.10.	집자리 1(A구역)	81
3차	'83. 4. 9.~ 5. 5.	집자리 4(A구역)	63
4차	'84. 9.13.~ 9.30.	집자리 2(A), 적석유구 1(B)	46
5차	'85.11.20.~12.13.	소할석유구1(A), 집자리2(B), 소할석유구2(B), 적석유구3(B)	59
6차	'87.11.17.~12. 6.	집자리 1(A구역)	78

2) 유적의 층위


주거지 조사 광경(1982년)

오산리유적의 층위는 현 지표로부터 생토층까지는 지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4.5m의 두께로서 위로부터 6개의 층위가 나타났다. 극히 유적의 일부 지점에서만 나타나는 Ⅰ층(점토층, 청동기시대층)을 제외한 Ⅱ층에서 Ⅵ층까지는 가는 모래(細沙)로 이루어진 신석기시대층이다. 이 중 Ⅳ층은 유물이 포함되지 않은 유물 포함층이고 Ⅵ층은 생토층(生土層)이다. Ⅱ층 이하는 신석기시대 문화층인데 Ⅱ층을 신석기시대 상층, Ⅲ층을 신석기시대 중층, Ⅴ층을 신석기

시대 하층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Ⅴ층은 다시 7개의 소층위로 세분되지만 출토유물이나 C^{14}연대측정결과 이들 층간의 현저한 시간차는 보이지 않는다.[7]

(1) 하층

하층(Ⅴ층, 제1문화층)에서는 여러기의 집자리가 확인되었다. 직경 6m 정도의 원형에 가까운 집자리의 바닥면은 약 5㎝의 두께로 점토를 깔고, 그 위에 불을 놓아 바닥을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약 110㎝×70㎝ 크기의 방형 화덕자리를 중앙에 1~2개 설치하였다. 집자리 바닥면과 그 바깥쪽과는 높낮이의 차이가 거의 없고 당시의 지반이 모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 주거형태는 한반도 신석기시대의 보편적인 수혈(竪穴, 움집)주거지와는 달리 모래땅 위에 점토를 깔고 불다짐을 하여 단단하게 한 다음 가구(架構)를 설치한 일종의 지상가옥 형태로 추정된다.[8]

집자리의 내부 및 주변에서는 다량의 토기와 석기가 출토되었는데, 토기는 모두 납작밑토기만 출토되었고, 이들 토기는 좁은 바닥에 아가리가 넓은 발형(鉢形)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토기의 표면은 문질러서 광택이 나며 색은 주로 적갈색이나 흑갈색을 띠고 있다. 토기의 문양은 아가리 쪽에만 국한하여 시문하였으나, 무늬가 없는 무문양(無文樣)토기도 상당수에 이른다. 시문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점열문(點列文)이나 손톱무늬[조문(爪文)] 등의 눌러 새긴무늬와 종주평행단사선문(縱走平行短斜線文) 위주의 새긴무늬, 그리고 이들 두 가지가 혼합된 방식이 있다. 그밖에 하층에서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덧무늬토기[융기문토기(隆起文土器)]가 함께 출토되었다.

하층에서 출토된 석기로는 결합식낚시, 돌칼, 돌창, 추형석기(錘形石器), 마제석부(磨製石斧), 연석, 석구(石球), 괭이, 규암제 타제석기(찍개와 긁개), 돌톱, 돌끌, 숫돌 등 다양한 종류가 나타나는데, 어로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특히, 결합식낚시가 가장 많이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혈암을 마연하여 만든 축으로 골각제(骨角製) 침을 결합시켜 낚싯바늘로 사용한 것이며, 돌칼은 단면이 렌즈형으로 날이 무뎌 생선의 비늘을 긁어내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⑵ 중층

중층(Ⅲ층, 제2문화층)은 하층과는 Ⅳ층의 무유물포함층을 사이에 두고 그 윗층에 해당되는데 여기서도 납작밑토기류만 출토되었다. 이들을 하층토기와 비교하여 볼 때 유경호(有頸壺)류가 증가하고, 몸체에 비하여 저부(底部)가 넓어진 안정된 것이 많다. 바탕흙[태토(胎土)]에는 굵은 사립(沙粒)이 혼입(混入)된 것이 두드러지게 많으며, 표면은 마연(磨硏)조정된 것도 있으나 매우 거친 편이다. 점과 선을 배합하여 상반부에만 국한하여 시문한 토기류와 함께 문양이 없는 토기들도 출토되었는데 후자가 수적 우위를 차지한다. 저부에는 활엽수의 나뭇잎 모양이 선명히 찍혀 있는 것이 많다. 이처럼 토기 저부에 나뭇잎이 찍힌 것은 세계의 신석기시대 토기 중 시베리아 · 연해주 및 일본열도 등 동아시아 태평양에 면한 지역에만 국한되어 출토되는 것으로 주목된다.[9)]

⑶ 상층


유적의 층위

상층(Ⅱ층, 제3문화층)은 유적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지표상층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후세의 교란이 심한 편이다. 토기는 직립구연(直立口緣)에 밑이 뾰족한 첨저형(尖底形)토기이며, 문양은 구연부(아가리)와 기복부(몸통)에 시문된 것이 많은데, 구연부에 평행밀집단사선문(平行密集短斜線文) · 사격자문(斜格字文) · 띠무늬와 기복부에 어골문(魚骨文)을 시문한 것과, 구연부 및 기복부에 어골문으로만 시문한 것이 있으며, 이 중에는 태토에 석면(石綿)을 혼입한 것도 있다. 이와 같이 첨저의 기형, 시문방법, 문양, 태토에 석면혼입 등은 서해안 지역의 첨저형 빗살무늬토기 특징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다.

상층에서는 어망추가 많이 발견되었을 뿐, 하층과 중층에서 나온 결합식낚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10]

이밖에 발굴지점과 약 50m 떨어진 오산리 B지구를 발굴한 결과, 지표면에는 첨저형 토기류가 산재되어 있고, 최하층에서는 융기선문(隆起線文)토기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이 토기는 구연부를 융기선문으로 장식한 갈색계통의 토기이다. 또한, 붕괴된 퇴적층에서는 저부가 좁은 평저형에 구연부에만 융기선으로 장식한 토기도 채집되었다. 이는 부산시 동삼동유적이나 일본 대마도 고시다카[월고(越高)]유적의 토기와 유사점이 있다.[11]

3) 출토유물과 유구의 검토

(1) 토기

오산리유적 A · B구역 하층과 중층은 오산리형 평저토기문화로 명명될 수 있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준다.[12] 오산리식 토기의 특징을 그릇 형태와 문양으로 나누어보면, 우선 그릇의 형태는 발형(鉢形), 옹형(甕形), 호형(壺形), 완형(埦形)토기가 있다. 그 중 절반 이상이 옹형토기이며, 그 다음으로 발형토기가 많아 오산리식 토기의 특징적인 양상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발형토기와 옹형토기 모두 구연부 안쪽을 비스듬하게 처리하여 단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모두 평저(납작밑)형이며, 옹형토기에는 손잡이가 달리거나 목이 있는 토기들도 많이 출토되었다.

문양은 주로 구연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며, 시문기법으로는 주로 자돌(刺突)기법이 이용되었다. 이런 기법으로 시문한 문양은 시문구 선단부의 형태와 시문각도에 따라 다양하다. 입술 가까이부터 무늬를 3~4줄 눌러 찍은 종류가 많은데, 평행으로 된 점무늬와 짧은 빗금무늬 및 손톱무늬가 가장 많고, 이런 무늬를 합해 만든 문양대를 기복부까지 확대한 것도 있으며, 그 외 침선문(沈線文)과 구순각목(口脣刻目)이 시문된 것도 있다. 또 토기 겉면에 덧입힘을 하거나 공들여 문질러서 광택나는 것이 많다는 점에서도 남해안 지방의 토기들과 유사성이 있다. 바탕흙은 가는 모래를 섞은 찰흙이 주로 쓰였으며, 집자리나 분묘유적에서 주로 출토되는데, 아직까지는 유적 수도 많지 않고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지역성이 강한 토기문화라고 할 수 있다.[13]

오산리식 토기에 대한 연대는 C구역[14] 오산리식 토기의 출토 층위가 덧무늬토기 아래층에서 확인되고 오산리유적 A구역의 오산리식 토기가 출토되는 하층의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치와 오산리유적 C구역 덧무늬토기 문화층의 하층에서 출토된 오산리식 토기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에서 최고치가 모두 B.C.5200년을 넘지 못하고 B.C.5200~4610년 사이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B.C.5000년을 전후한 시기로 판단된다.[15]

오산리유적을 대표하는 상징적 유물 중 하나가 덧무늬(隆起文)토기이다. 덧무늬토기는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의 가장 이른 단계인 조기(早期)로 편년되는 토기로 그릇의 표면에 점토띠를 덧붙여 각종 문양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덧무늬는 점토띠의 굵기나 점토띠 상부에 누름문(刻目文)의 유무에 따라 태선융기문토기(太線隆起文土器)와 세선융기문토기(細線隆起文土器), 혹은 융기대문(隆起帶文)과 융기선문(隆起線文)으로 크게 구분되며, 이 외에도 점토 알갱이를 규칙적으로 붙인 융기점열문(隆起點列文), 혹은 두립문(豆粒文)이 있다. 과거 융기대문토기와 융기선문토기의 선후관계를 두고 열띤 논쟁이 있었으나 이들의 선후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단일성격의 유적이 극히 드물고 대부분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덧무늬토기(隆起文, 높이 16.0㎝)



납작밑바리(平底鉢, 높이 30.0㎝)



빗살무늬토기(櫛文, 높이 42.0㎝)



결합식 낚시



돌톱(길이 18.0㎝)



토제인면상(높이 5.1㎝)

오산리유적에서 출토된 대표적 유물

가장 많은 수가 출토되고 있는 남해안지역의 경우 유적별로 기형(器形)이나 문양구성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장시간에 걸친 형식변화를 수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형은 저부의 형태에 따라 평저(平底)와 원저(圓底)로 구분되며, 평저심발형(平底深鉢形)토기의 경우 저부가 아주 좁아 마치 팽이와 같은 형태를 띠는 것들이 남해안지역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다.[16]

(2) 석기

오산리유적에서 출토된 가장 특색있는 석기유물은 결합식낚시이다.[17] 이것은 돌로된 낚시축과 뼈를 깎아 만든 낚싯바늘의 결합으로 낚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낚시축은 길이 10㎝정도의 석제로서 윗부분에는 줄을 맬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고, 바늘을 접합하기 위한 부분은 편평하게 갈아 놓았다. 여기에 접합되는 낚싯바늘은 1점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축(軸)부분에 사슴뿔, 멧돼지의 이빨, 짐승의 뼈 등을 깎아 바늘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합식낚시[결합식조침(結合式釣針)]는 면결합을 하는 오산리형, 연대도형, 송도형과 축의 일부와 바늘의 일부가 겹쳐서 결합하는 상노대도형으로 대별된다. 오산리형의 북한계는 동해안에서는 함북 송평동이고, 서해안에서는 전북 노래섬 조개더미이며, 집중분포지는 남해안지방이다. 남해안지방에서는 신석기 전기~중기 동안의 부산 동삼동 조개더미, 후기의 구평리 · 농소리 조개더미에서 출토되어 신석기 전기간에 걸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면결합에 있어서는 송도형이 전기에 나타난다. 중기가 되면 축과 바늘을 일부 겹쳐서 결합하는 상노대도형이 나타나고, 면결합을 하는 연대도형은 상노대도형의 재질에 오산리형의 형태로 변화되어 나타난다.[18]

그밖에 석제 생활도구로서 장방형의 석도, 석촉, 타제석부, 돌톱, 흑요석 등 모두 16종 242점이 출토되었다. 석도의 경우에는 날[인부(刃部)]이 예리하지 않아 절단용이라기보다는 물고기의 비늘을 벗겨내기 위한 조리 용구로서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돌톱은 비교적 강도가 높은 혈암으로 만든 것으로서 길이 24㎝, 폭 6㎝ 크기인데, 이러한 큰 돌톱이 발견된 것은 국내외적으로 그 예를 찾기 어렵다. 그 외 연수정제 치레

거리 1점이 출토되었다.

오산리유적에서 출토된 석기류 중 특이할 만한 유물은 흑요석이다. 흑요석[(黑曜石) : obsidian]은 용암의 급속한 냉각에 의해 생성되는 유리질의 화산암으로 주로 흑색, 회색, 적색, 갈색을 띤다. 흑요석이 만들어지는 화산 분출지는 지점마다 조금씩 다른 지질학적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성되는 흑요석의 화학적 구성 성분도 각 지역에 내재해 있는 암석의 특징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유적에서 출토되는 흑요석의 성분분석을 통해 원산지를 추정하고 그것을 통해 선사인의 이동경로와 이동범위, 교역 등 생활상의 복원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흑요석을 X형광선 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 오산리 흑요석 원산지는 백두산계로 분류되었다.

(3) 기타유물

신석기시대는 보통 규모가 작고 아주 단순한 기술과 경제에 의존했던 원시단계의 사회로 여겨지나, 당시에도 그저 의식주 해결만을 위해 급급한 일상생활만을 유지하였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물론 삶과 직결되는 의식주해결을 위한 사고나 행동이 주가 되었다. 하지만 사회나 문화 전체 속에서 신비성과 영성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비일상적인 사고와 행동도 뒤따랐다.

원시사회에서의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사고는 조직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토착적 신앙 또는 의례에 의해 사회적이나 개인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한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이 의례를 통해 사회구성원 개개인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심어주고 사회구성집단의 질서를 유지 · 강화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오산리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중 신석기인의 정신세계를 반영하는 유물로는 점토제인면상 1점(길이 4.4㎝, 폭 4㎝)이 채집되었다. 이것은 반죽한 점토 덩어리를 얼굴 형태로 납작하게 만든 다음, 두 눈과 입은 깊게, 그리고 볼 부분은 덜 깊게 눌러 사람의 얼굴을 표현한 것으로 희화적으로 보이는 얼굴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토제품은 자연의 변화에 좌우되는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는 신석기인들의 자연에 대한 두려움, 갈망 등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유물은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이 일본보다는 더 안정적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함경북도 웅기 서포항 유적에서 출토된 9.5㎝ 크기의 뼈로 만든 입상(立像)을 들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각형 모양으로 깎은 머리부분에는 모두 세 개의 점으로 두 눈과 입을 표현하고 있고, 긴 무처럼 생긴 몸체부분에는 팔과 다리가 아예 생략 되어버린 단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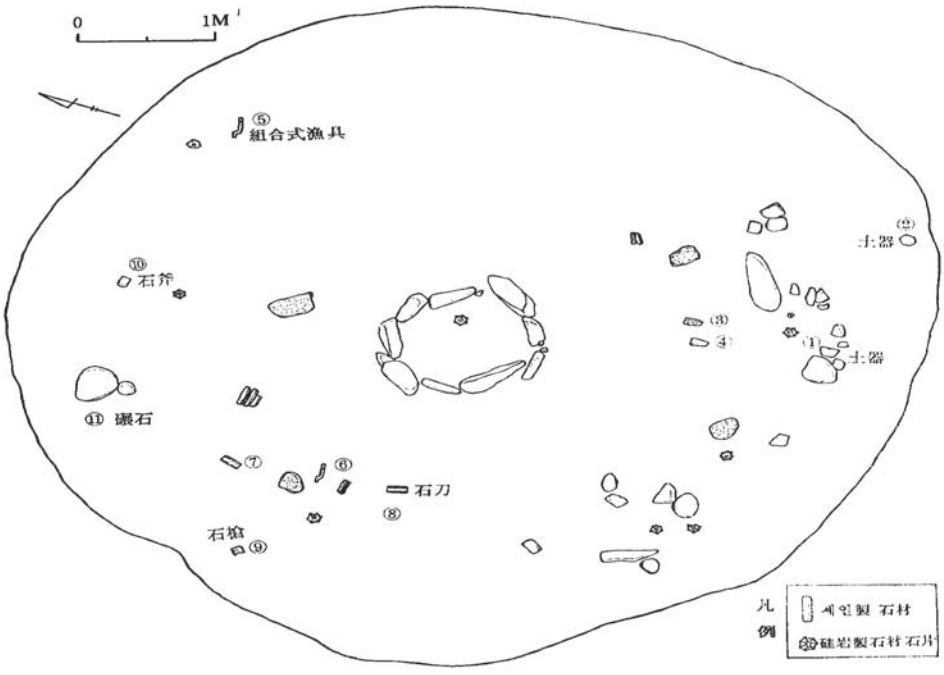
이 몸체의 중앙부분에는 중심점과 그것을 둘러싼 일곱 개의 점이 원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여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당시 사회의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뜻이 담긴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도 부산 동삼동패총에서 가리비조개 위에 두 눈과 입을 파서 만든 사람 얼굴모습을 나타낸 것이 출토되어 이채롭다. 조개 위에 이런 방식으로 얼굴모습을 나타낸 것은 현해탄을 마주보고 있는 일본 신석기유적에서도 흔히 보인다. 이것은 얼굴만이 강조된 일종의 신상(神像)으로 여겨진다.[19]

(4) 유구

모두 6차례에 걸친 발굴을 통해 A지구 제1문화층에서 주거지 9기와 야외노지로 보이는 적석유구 2기, 석열과 할석유구가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모두 원형에 가까운 지상가옥이며, 바닥은 3~10㎝ 두께로 석립이 섞인 점토를 여러 겹 다져 만들었다. 천석이나 할석을 돌려서 만든 노지는 대부분 주거지 중앙에 한 개씩 자리잡고 있으나 2호와 3호 주거지에서는 각각 2개의 노지가 확인되었으며, 2호 주거지의 경우 유일하게 기둥 구멍이 발견되었다.

9호 주거지의 경우, 다른 주거지와 달리 점토다짐이 없어 소토면으로 주거지 윤곽을 추정하였는데, 중앙을 향해 마치 기둥이 쓰러진 듯한 모양으로 길게 뻗은 검은색의 소토흔적이 나타나 원추형의 주거지 자취를 보여 주었다. B구역에서는 최하층에서 주거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돌을 쌓아 놓은 유구들이 여러기 조사되었다.[20]

이밖에 약 30㎝ 크기의 하천석을 원형으로 둘러놓은 석렬(石列)이 확인되었는데, 이 석렬은 직경 약 4m 정도로 당시 차양천막을 쳤을 때 그 괴임돌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확인된 야외노지의 대부분의 돌들은 모두 오랫동안 불을 맞아서 깨어지거나



오산리유적(A구역, 4호) 집자리 평면도

갈라진 채로 노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일종의 공동 취사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지의 형태는 대부분 1.5~3.4m의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바닥을 깊이 20~30㎝가량의 토광을 파고 그 위에 여러 겹의 돌을 쌓아 만들었다.

신석기인들의 주거형태는 주로 움집과 동굴이었다. 움집의 경우, 바닥은 원형이나 방형이며 중앙에 취사나 난방용 화덕이 위치하고 있는데, 간단한 음식물의 조리뿐만 아니라 실내를 따뜻하게 하거나 밝게 하는데 이용되었을 것이다. 화덕 곁에는 조그마한 구덩이들이 발견되는데, 이 구덩이 안에는 간혹 모래를 깔고 그 안에 곡물이나 석기가 놓여 있어 저장용 구덩이 임을 알 수 있다. 움집의 형태는 둥글거나 혹은 네 모서리를 줄인 네모꼴이 대부분이다. 크기는 지름 또는 한 변의 길이가 대체로 5~6m이고, 깊이는 50~100㎝ 정도이다. 이로 보아 움집의 면적은 일반적으로 20~30㎡ 정도였으며, 대략 4~5명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움집터는 오산리유적을 비롯하여 서울 암사동, 충북 청원 쌍청리, 부산 동삼동, 황해도 봉산 지탑리 등 한반도 전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들 움집터는 한 유적에서 몇 개씩 모여 있는 것이 대부분이

고 그 중에는 서로 겹쳐있는 예도 있어, 한 마을에서 여러 시기에 걸쳐 새로운 집을 지으면서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주거지(8호)내부 노지(1984)



야외노지 전경(1985)

〈표2-2〉 오산리유적 주거지 일람표(A, B구역)[21]

구분 / 호수	주거지 형태	주거지 크기(m)				화덕자리(㎝)				바닥	비고
		길이	넓이	깊이	면적(㎡)	형태	길이	넓이	깊이		
1호	원 형	·	·	지상(?)	67.0 (20평)	긴네모꼴	·	·	·	진흙 다짐	·
2호	타원형	7.2	5.9	〃	31.3 (9.5평)	사다리꼴	·	·	·	진흙 다짐	돌을 돌림
3호	타원형	6.8	5.5	〃	31.9 (9.6평)	긴네모꼴	60 70	95 70	·	진흙 다짐	돌을 돌림
4호	원 형	7.0		〃	33.6 (10평)	둥근모양	100		·	자갈, 진흙 다짐	·
6호	원 형	3.8		〃	10.9 (3.3평)	둥근모양	·	·	·	진흙 다짐	·
7호	원 형	4.0		〃	12.5 (3.8평)	타원모양 (부정)	70	50	·	진흙 다짐	·
8호	타원형	4.1	3.4	〃	10.1 (3.1평)	타원모양 (부정)	95	85	·	진흙 다짐	돌을 돌림

4) 오산리유적의 중요성

오산리유적 발굴조사 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함경북도 웅기 서포항유적과 남해안지방의 신석기문화를 잇는 중간지대가 공백으로 남아 있었으나, 이런 발굴로 거의 공백상태에 놓여 있었던 동해안지역의 선사문화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점이다.

둘째, 당시 발굴조사 결과, 오산리유적이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유적 가운데 가장 이른시기 신석기 유적지 하나로 우리나라 신석기문화의 기원 규명에 유력한 단서가 제시되었다. 오산리유적 신석기하층의 C^{14}연대의 하한이 지금으로부터 8000년으로 나와 한반도 육지부 신석기유적 중 최고(最古)의 연대를 보여 주었다. 이 연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신석기문화의 기원지로 생각되어 온 연해주보다 1000~2000년 선행하는 것으로, 이런 의미에서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두만강지역의 신석기 문화에 새로운 주목을 기울일 필요가 있게 되었다.

셋째,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서쪽에 대동강이나 한강유역의 뾰족밑빗살무늬토기문화와는 구분되는 납작밑토기문화가 번성하고 있었던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 오산리유적 납작밑 토기 문화층이 서해안식의 뾰족밑빗살무늬토기 문화층보다 아랫층에서 나와 오산리 토기가 서해안 뾰죽밑토기에 선행함을 알아낸 점이다. 또한, 석기면에 있어서도 결합식낚시, 돌톱 등 특색있는 석기가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태백산맥 이동(以東)인 동해안과 서해안 신석기문화의 특성을 통한 심도있는 신석기문화의 지역적 비교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넷째, 오산리유적의 상한(上限)을 B.C.6000년으로 잡을 때, 이는 현재 북한의 시기구분과 근접한다는 점이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이후 신석기시대의 상한을 B.C.600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평안북도 의주군 미송리유적과 더불어 북한에서 가장 이른 시기 유적의 하나로 꼽히는 서포항유적과 오산리유적과의 문화적 유사성은 진작부터 지적되어 오던 바이다.[22)]

다섯째, 선사문화의 전파와 교역에 관한 중요한 과학적 단서가 제시되었다. 당시까지 선사시대의 문화전파나 교역문제는 주로 토기의 유사성(類似性)이나 석기 제작기술의

상사성(相似性) 여하에 따라 논의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오산리 출토 흑요석의 형광X선 분석결과 원산지가 백두산으로 밝혀져, 당시 신석기인들의 원재료 교역과 문화전파에 대한 과학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

여섯째, 신석기시대의 정신적인 측면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었다. 신석기문화 연구의 중심 자료는 토기나 석기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오산리유적에서 출토된 점토제 인면상은 신석기인의 사유 및 종교관 등을 규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3. 최근 발굴된 오산리유적[23)]

1) 조사경위 및 주변환경

양양군은 국도 7호선의 교통량 분산과 양양국제공항의 접근망을 개선하고, 해안도로 연결로 낙산도립공원과 연계, 낙후된 동해안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손양면 여운포리에서 송전리간 총 7.1㎞의 구간을 폭 18.5m로 확·포장하는 「여운포-송전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 유적을 조사하게 되었다.

현재 쌍호는 해안에서 하천을 따라 내륙으로 약 600m 들어온 농경지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쌍호로 유입되는 하천 유역분지의 분수계는 사방 30~110m 내외의 낮은 구릉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쪽에 위치한 해발 125m의 노고봉이 유역 분지를 경계짓는 분수계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이다. 쌍호의 남쪽 분수계에서 발원한 하천은 북쪽으로 흘러 남서쪽에서 흘러 내려온 동명천과 합류되어 오산봉 바로 아래 남쪽에서 동해로 유입된다.

조사지역의 남동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구릉에 위치한 도화리 구석기유적에서는 주먹도끼 등의 뗀석기가 확인된 바 있고, 조사지역의 북쪽으로는 동명천을 사이에 두고 약 300m 떨어진 곳에는 송전리 철기시대 유물산포지가, 약 600m 떨어진 사구지대에는 송전리 신석기·철기시대 유물산포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송전리 23-1번지(송포초

등학교 앞 밭 경작지)에서는 신석기시대 말각장방형의 주거지 2기, 야외노지 3기 등이 조사된 바 있다. 북쪽 약 1㎞ 지점에는 송전리 신석기 · 철기시대 유물산포지와 연결되어 가평리 신석기 · 철기시대 유적이 위치하며, 1983년 강릉대학교박물관이 철기시대 주거지 2기를 발굴 조사하였고 1994~1996년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3차에 걸쳐 신석기시대 주거지 2기, 야외노지 3기, 철기시대 주거지 2기를 발굴조사한 바 있다. 한편 쌍호를 사이에 두고 남서쪽으로 약 500m 지점에는 학포리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가 위치하고 있다.

2) 출토유물과 유구

오산리유적 C구역은 1981년부터 서울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 한 A · B구역의 동쪽 70m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C구역는 A · B구역과는 달리 해발 4~5m 높이에 황갈색점토층(갱신세층)이 형성되어 있다. 이 황갈색점토층 위에 사구가 형성되어 있는데 사구에서 3개의 신석기기시대 문화층이 조사되었다. 상층은 침선문(沈線文)토기를 공반하는 신석기시대 중기문화층, 중층은 융기문(덧무늬)토기를 포함하는 신석기시대 전기문화층, 최하층은 융기문토기가 포함되지 않은 신석기시대 조기문화층이다. 또한 융기문토기를 포함하는 신석기시대 전기문화층인 중층은 상 · 하의 2개 문화층으로 구분된다.

신석기시대 문화층에서는 조기 및 전기주거지 5기와 중기주거지 1기 등 모두 6기의 주거지와 야외노지 2기가 확인되었으며, 사구지대 남쪽에서는 저습지유적이 조사되었다. 신석기시대 주거지 중 1~4호 주거지는 융기문토기를 포함하는 신석기시대 조기 또는 전기에 해당하는 주거지로 모두 사구 위에 분포하고 있다. 주거지는 황갈색점토층 또는 사구를 굴착한 후 바닥에 점토다짐을 하고 가운데에 돌을 이용하여 수혈위석식노지를 시설하였다. 북쪽 사구지역에 위치한 5호 주거지는 출토유물이 없었으나 층위상 1~4호 주거지보다 이른 시기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주거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된 주거지로 보인다. 또한 6호 주거지는 구릉성 사구지역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나, 침선문토기를 포함하는 신석기시대 중기의 것으

로 확인되었다.

C구역 조사에서 확인된 융기문토기가 출토되는 상부 문화층의 주거지의 면적은 1호가 48㎡, 2호가 53㎡, 3호가 38㎡로 평균 46㎡ 정도이며 신석기시대 주거지로는 대형의 수혈식(竪穴式)주거지에 해당된다. 1·2호 주거지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조사된 융기문토기를 공반하는 주거지 중 그 형태가 가장 잘 남아 있다. 1호 주거지 내에서는 순수 융기문토기, 주칠+융기문, 무문토기호 등의 토기류와 갈돌, 갈판, 숫돌, 어망추, 결합식낚시, 모루, 망치돌, 격지 등의 석기류가 함께 출토되었다. 2호 주거지에서는 구연부에 융기선문을 3열 배열한 발형토기류와 무문양의 발형토기가 함께 출토되었다. 3호 주거지는 1·2·4호 주거지와 달리 하부의 황갈색점토층까지 굴착한 후 주거지를 조성하여 현재까지 조사된 주거지 중 수혈이 가장 잘 남아 있는 상태이다.

융기문토기가 출토된 주거지 아래에서 오산리식토기들이 확인되어 융기문토기 보다는 오산리식 토기가 앞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구 퇴적층 아래의 황갈색점토층 상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된 오산리식토기 보다 앞서는 신석기시대 조기의 순수무문양토기, 압날점열구획문(押捺點列區劃文)토기와 함께 어망추, 결합식낚시, 뗀석기 등의 석기류가 많이 수습되었다.

특히, 압날점열구획문토기는 점토층 상면에 사구가 형성되기 전에 형성된 문화층으로, 무문양토기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압날점열구획문토기도 함께 출토되었고, 석기로는 석부류, 결합식낚시, 석촉류 등의 간석기와 어망추, 몸돌, 격지 등이 주로 출토되는 가운데 소량이지만 좀돌날, 좀돌날 몸돌도 출토되어 후기 구석기의 석기제작 전통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사구지역 남쪽 곡간부의 현 지표하 4m 아래에서는 현재의 해수면과 거의 같은 높이에서 1m 내외로 두텁게 퇴적되어 있는 저습지 유적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회청색(灰靑色) 사질토층에서 융기문 및 압날문토기편 등의 토기류, 결합식낚시 및 어망추 등의 석기류, 말목과 판재 등 당시 사용하였던 목기류를 비롯하여 솔방울, 잣, 도토리 등의 씨앗 및 갈대, 나뭇가지 등이 출토되었다.[24)]

(1) 주거지

1호 주거지는 구릉성 사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와 인접하여 남쪽으로 2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다. 3호와 4호 주거지는 모두 2호 주거지의 동쪽과 서쪽에 걸쳐 중복되어 있다. 현재 구릉성 사구 상면에 위치한 주거지의 선후 관계는 출토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1호 및 2호 주거지는 거의 동 시기의 것으로 판단되며, 서로 중복된 2·3·4호 주거지의 선후 관계는 4호→2호, 3호→2호의 순서로 축조되었으며, 4호와 3호의 선후관계는 알 수 없다. 구릉성 사구에 위치한 주거지 중 1·2·4호 주거지는 사구 상면에 점토바닥면을 마련하여 축조한 반면, 3호 주거지는 모래층 하부의 점토층을 약 30~50㎝ 가량 굴착하여 점토층 내부에 바닥면을 마련한 후 벽면에 점토다짐을 하였다.

북쪽 사구지대에 분포한 5호 주거지는 해발 4m 내외의 사구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토유물이 없어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주거지의 형태 및 층위상 현재까지 조사된 주거지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판단된다. 구릉 남단에 위치한 6호 주거지는 신석기시대 중기의 것으로 해발 4m 내외의 점토층을 파고 조성하였으며, 이번에 조사된 주거지 중 가장 늦은 시기에 해당한다.

가. 1호 주거지

바닥에는 5~8㎝ 내외의 점토다짐을 하였으며, 주거지의 중심에는 60×50㎝ 규모의 방형 노지를 시설하였다. 노지는 수혈식으로 네 면에 모두 천석(川石)을 너비 방향으로 세웠으며, 깊이는 20㎝ 내외이다. 출토유물은 무문토기호, 주칠+융기문토기, 죽관문(竹管文)을 압날 시문한 발형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서편에는 모루 및 망치돌과 함께 지석 등이 출토되었으며, 주변으로 석영제 격지 등이 흩어져 있어 주거지 내에서의 석기 제작행위를 엿볼 수 있다. 출토 석기는 소량의 결합식낚시 등의 간석기와 석기제작중의 부산물인 몸돌 및 격지와 더불어 긁개, 뚜르개 등의 뗀석기가 공반되어 출토되었다. 돌감은 사암, 석영, 수정(결정질 석영), 점판암, 혼훼스, 반암, 편마암, 부석 등의 다양한 암질을 사용하였다.



오산리 C구역 유구노출 [주거지(적색)와 야외노지(노란색)]

나. 2호 주거지

주거지의 남쪽 일대는 조선시대 굴뚝 및 수혈로 인하여 교란된 상태이며, 바닥은 1호 주거지와 마찬가지로 5~8㎝ 내외의 점토다짐을 하였다. 평면의 형태는 말각방형으로 장축 7.8㎝, 잔존단축 6.8㎝, 수혈은 최대 50㎝이다.

내부시설로는 모난 자갈돌을 이용하여 오각형의 수혈식 노지를 시설하였다. 시설된 노지의 최대 너비는 70㎝ 내외이며, 깊이는 20㎝ 내외이다. 출토유물은 발형의 융기문토기 및 무문토기와 함께 결정질 석영(수정)편 등이 수습되었다. 또한 내부 퇴적토에서는 귀달린 호형토기의 구연부에 횡으로 융기선문을 4열 배치한 토기가 확인되었는데, 출토된 융기문과 무문양토기 등의 외면에는 기벽(器壁) 정면흔(整面痕)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또한, 저부의 내면과 외면에 활엽수 잎을 받친 흔적들이 관찰되는 토기류도 일부 확인되었다.

다. 3호 주거지

1·2호 주거지와는 달리 점토층(갱신세층)을 굴착하고 조성하였으며, 굴착시 나온 점토로 주거지의 남쪽 벽에 점토를 쌓은 것으로 보인다. 내부시설로는 직경 50㎝ 내외의

원형의 수혈식 노지를 시설하였으며, 깊이는 23㎝ 내외이다. 주거지 상부 문화층에서 무문 및 압날 시문된 발형토기가 수습되었으며, 주거지 내에서는 무문양토기, 융기문토기편, 끌 등이 출토되었다.

라. 4호 주거지

바닥만 남아있는 상태이며, 주거지의 중심에는 장방형의 수혈식 노지를 시설하였다. 노지의 규모는 장축 150㎝, 단축 50㎝ 내외로 서쪽으로 치우쳐 격벽시설을 하였다.

마. 5호 주거지

침식이 이루어진 구릉에 인접하여 형성된 해발 4m 내외의 사구에 위치하고 있다. 주거지의 규모는 직경 3.6m 내외의 원형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심에는 천석(川石 : 물돌)을 이용하여 50×50㎝의 원형 노지를 시설하였다. 노지는 1~4호 주거지와는 다른 반 수혈식이다. 주거지의 북서쪽은 바람에 의해 결실된 상태이고, 주거지내에서는 반입 석재만이 수습되었으며, 토기류는 출토되지 않았다.

〈표2-3〉 오산리유적 C구역 유구조사 현황[25)]

구분 / 호수	시기	주거지 형태	주거지 크기(m)				화덕자리(㎝)				바닥	비 고
			길이	넓이	깊이	면적(㎡)	형태	길이	넓이	깊이		
1호	전기	말각방형	7.0	6.9	0.5	48.30 (15평)	방형 수혈	60	50	20	진흙 다짐	융기문토기, 석기류
2호	전기	말각방형	7.8	6.8	0.5	53.00 (17평)	오각형 수혈	70	40	20	진흙 다짐	융기문토기, 석기류
3호	전기	원형	7.1	-	0.5	38.46 (12평)	방형 수혈	60	50	23	점토층 굴착	융기문토기, 석기류
4호	전기	말각방형	4.7	4.2	-	19.74 (6평)	장방형 수혈	150	50	15	진흙 다짐	무문양토기, 석기류
5호	조기	원형	3.6	-	-	10.17 (3평)	원형	50	50	지상	진흙 다짐	
6호	중기	말각방형	잔존 4.9	잔존 4.0	0.78	-	방형	93	82	지상	점토층 굴착	침선문토기, 석기류

바. 6호 주거지

이 일대는 이미 근세의 민가 및 도로시설로 인해 대부분 훼손된 상태이며, 이후 나무 굴채 등으로 인하여 여러 곳이 교란된 상태이다. 주거지는 구릉성 사구의 남쪽 접경부에 위치하고 있다. 주거지의 서쪽은 현재의 도로로 인하여 절반가량이 결실된 상태이다.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말각(장)방형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점토층을 일부 굴착한 후 조성되었다. 규모는 잔존장축 4.9m, 잔존단축 4m이고, 최대 수혈깊이는 78㎝이다. 내부시설은 중심부에 위석식(圍石式) 노지 1기를 시설하였으며, 북동쪽 모서리에는 직경 50㎝, 깊이 20㎝ 내외의 원형 저장공이 위치하고 있다. 노지는 길이 25~50㎝, 너비 20㎝, 두께 10㎝ 내외의 납작한 할석을 옆으로 세워 시설하였으며, 평면 형태는 방형을 띠고 있다. 노지의 전체 규모는 93×82㎝이고, 내부는 65×65㎝이다. 노지 뒤편으로는 잔 할석을 사용하여 보강하였다. 또한 주거지의 북벽에는 직경 20㎝ 내외의 주공(柱孔)이 55~75㎝의 간격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깊이는 15㎝ 내외이며, 동북쪽 모서리에는 깊이 30㎝ 내외의 깊은 주공을 배치하였다.



주거지(2호)



야외노지(2호)

주거지 내부에서는 어골문, 단사집선문 등이 시문된 침선문 계통의 빗살무늬토기편과 함께 소량의 융기문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침선문 계통의 토기편 내면에는 기벽(器壁) 정면흔(整面痕)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출토유물은 대부분 바닥 상부 10㎝ 내외 지점에서 출토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소량의 융기문토기편도 관찰되고 있다. 이들 융기문토기편은 주거지 폐기 후, 경사면을 따라 이루어진 재퇴적 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2) 야외노지

야외노지는 2기가 조사되었으며, 북쪽 사구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1호 야외노지는 북쪽 사구지대에서 해발 4m 내외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다. 2호 야외노지는 1호 야외노지의 남쪽 약 1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은 3m 내외이다. 2기 모두 출토유물은 없으나 층위상으로 2호 야외노지는 신석기시대 전기 문화층과, 1호 야외노지는 신석기시대 중기 문화층과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가. 1호 야외노지

내부에는 30×21×12㎝ 내외의 천석으로 시설하였으며, 불의 영향으로 쪼개져 있는 상태이다. 또한 숯의 함량이 높아 전체적으로 흑색을 띠고 있다. 내부에서 출토유물은 확인할 수 없었다. 수혈은 25㎝ 내외로 오산리 B구역에서 발굴조사된 야외노지와 그 규모 및 구성요소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나. 2호 야외노지

규모는 장축 1.6m, 단축 1.3m 내외의 원형으로 내부에는 숯과 함께 천석으로 채워져 있다. 수혈은 30㎝ 내외로 노지 상면은 심한 침식현상이 관찰되며, 하부는 숯의 함량이 높아 흑색을 띠고 있다. 1호와 마찬가지로 출토유물은 확인할 수 없었다.[26)]



무문양토기(높이 24.3㎝) 융기문토기(높이 14.5㎝) 압날문토기(높이 33.7㎝)

오산리유적(C구역)출토 토기

(3) 출토유물

가. 토기류(土器類)

6호 주거지와 구릉 정상부의 신석기시대 중기 문화층에서는 구연부에 단사집선문(短斜集線文)을 시문한 후 동체부에 태선침선문(太線沈線文)식 횡주어골문(橫走魚骨文)을 시문한 토기편과 능형집선문(菱形集線文)이 시문된 침선문 계통의 토기가 수습되었다.

상부의 중기 문화층을 제외하고 하부의 전기 및 조기 문화층에서는 모두 평저토기류만 확인되었다. 특히, 최하층인 황갈색점토층 상면에서 출토된 무문양토기와 압날점열구획문토기는 점토층 상면에 사구가 형성되기 전의 문화층으로 제주 고산리유적의 초창기토기 다음으로 오래된 문화층에서 출토된 토기로 볼 수 있다.



곰모양 토우(C구역 출토)

압날점열구획문토기는 끝이 뾰족하거나 둥근 시문구를 이용하여 구연부에서 1㎝ 정도의 공백을 둔 후 횡방향으로 2열 또는 3열씩 압날시문한 후 밑으로 바로 연결하여 방형으로 구획한 후 그 안에 다시 삼각형이나 방형을 또다시 구획하는 시문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토기편들은 모두 동체부에서 구연부로 완만하게 내경하여 오르다 바로 직립한 구연과 둥근 입술을 만들었다. 기벽의 내·외면에는 모두 매끈하게 적색마연을 하였으며, 태토는 오산리식토기나 융기문토기와는 달리 고운 점토를 사용하였고 모래 크기보다 작은 석영조각도 극히 일부만 관찰되며 속심의 색깔은 회갈색을 띠고 있다.[27]

조기문화층 출토 토기류는 반입 자갈돌 등과 혼재되어 모두 편으로 출토되었으며, 무문양토기의 경우 기벽에서 정면흔이 관찰되었다. 이밖에 곰 모양을 형상화한 토우 등의 예술품도 소량 출토되었다.

나. 석기류(石器類)

석기류는 신석기시대 중기문화층에서 석영제 긁개 등이 수습되었으며, 신석기시대 전기의 융기문토기를 공반하는 주거지 내에서도 석기 제작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는 모루, 망치, 지석 등과 더불어 결합식낚시, 뚜르개, 격지 등이 출토되었다.

신석기시대 조기문화층 출토 석기류는 석부, 결합식낚시, 석촉 등의 간석기와 어망추, 새기개, 몸돌, 격지 등의 뗀석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간석기 중 석부는 편인석부(偏刃石斧)만 출토되었으며, 단면의 형태는 대부분 타원형을 취하고 있고 날의 형태는 직선날[직인(直刃)]이다.

결합식낚시는 상부 융기문토기 문화층에 비하여 매우 소형의 것으로, 너비 0.5㎝ 내외의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돌감은 상부 문화층의 출토유물과 같은 점판암제로 제작되었으며, 크기는 고성 문암리유적이나 오산리식토기 출토유물에 비하여 현저하게 작아, 가장 큰 특징은 두께가 너비에 비하여 얇은 납작한 형태이며 두부(頭部)의 너비가 좁은 반면, 결합부로 가면서 점차 두꺼워진다. 문암리유적과 오산리유적 A · B구역에서 출토된 결합식낚시의 형태가 두부에서 결합부로 수직으로 내려오는 J자형인데 반하여, 이곳에서 출토된 결합식낚시는 완만한 곡률을 가지고 있는 C자형이다. C자형은 오산리식토기 문화층이나 융기문토기 문화층 출토 결합식낚시에 비하여 소형에 해당하여 우리나라 결합식낚시의 형태변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유물이라 할 수 있겠다.[28)]



결합식낚시 돌도끼 어망추

오산리유적(C구역)출토 석기류

어망추는 장축 5㎝ 미만, 무게 40g 미만의 소형의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어망추를 제외한 뗀석기류는 상부 융기문토기 문화층에서도 많은 양이 수습되었다. 돌감은 모두 석영, 결정질 석영(수정), 혼휄스 등을 사용하여 돌감의 구성 및 제작기법의 차이점은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상부 융기문토기 문화층에 비하여 수정(결정질 석영)제 뗀석기의 출토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량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유적 중에서 제주 고산리유적 외에는 출토된 예가 없는 좀돌날과 좀돌날 몸돌이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후기구석기의 제작전통이 이 시기까지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구역 최하층에서 출토된 석기는 잘 마연된 석부, 결합식낚시, 석촉, 끌 등의 마제석기와 좀돌날, 수정제 석기 등의 타제석기가 혼용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목기류(木器類)

목기류는 조사지역의 남쪽 곡부(曲部)에 형성된 습지유적에서 융기문토기편 및 압날문토기편 등과 함께 소량 수습되었다. 공반된 토기류로 보아 신석기시대 전기문화층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출토유물은 거친 판재류와 노(櫓)의 형태로 가공된 목기를 비롯하여, 말목, 통나무의 내부를 쪼아낸 흔적이 관찰되는 것 등이 있다.

3) 조사성과

조사된 6기의 주거지 중 6호 주거지는 신석기시대 중기의 것이며, 1~4호 주거지는 융기문토기를 공반하는 신석기시대 전기의 것으로 판단되고, 북쪽 사구에서 확인된 5호 주거지는 출토유물이 없어 정확한 시기의 판명이 어려우나 주거지의 형태 및 층위양상으로 보아 현재 융기문토기를 포함하는 1~4호 주거지보다 이른 시기로 판단된다.

오산리 최하층은 고성 문암리 유적의 최하층과 비교하였을 때, 오산리식 토기가 전혀 보이지 않고, 압날점열구획문토기가 출토되고 있으며, 공반되는 석기 등으로 볼 때 문암리 최하층문화 보다 이른 시기로 조사되었다.

또한, 출토된 유물 중 곰모양을 형상화한 토우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출토된 예술품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보인다. 조사된 습지는 회청색 사질 점토층으로 1m 내외로 두텁게 퇴적되어 있으며, 융기문토기편과 함께 목기편 등이 공반되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신석기시대 전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습지 내에서는 솔방울, 잣, 도토리, 갈대 등과 함께 많은 양의 나뭇가지 등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자연과학적 분석이 뒷

받침되면 유적 형성시기의 식생 및 자연환경을 이해하는데 있어 좋은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오산리유적 C구역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토기문화의 발전단계는 순수문양토기와 압날점열구획문+주칠토기(B.C.6000년) → 오산리식토기(B.C.5200년) → 융기문토기(B.C.4700년) → 침선문토기(B.C.3600년) 순으로 변천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신석기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29]

특히, 융기문토기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오산리식토기보다 빠른 것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오산리유적 C구역 발굴조사 결과 융기문토기가 오산리식토기보다 상층에서 조사되었고, 탄소연대 측정에서도 오산리식토기 출토 주거지가 융기문토기 출토 주거지보다 앞서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30]

4. 오산리유적의 보존과 활용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석기시대 유적인 오산리선사유적을 효율적으로 보존, 활용하기 위해 1990년부터 역점사업으로 오산리유적 야외시설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1997년까지 6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32,200㎡의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1998년 9월 30일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다. 또한, 강원도 지정문화재(기념물 제53호)로 관리되어 오던 오산리유적이 1997년 4월 18일 자로 국가사적으로 승격되어 정부차원의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밖에, 오산리유적의 가치를 되짚어보고 국내외적으로 유적을 효율적으로 홍보하여 고고학분야의 학술적 위상을 확인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활동도 활발히 전개되어, 양양문화원이 주관한 오산리선사유적 국제학술 심포지움이 7회에 걸쳐 개최된 바 있다.

2001년 11월부터 추진한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은 2005년 9월 건축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내부전시 시설공사를 거쳐 2007년 7월 26일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박물관은 전체 3,200㎡면적에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로 3개의 전시실과 세미나실, 학예실, 수장고 등을 갖추고 있다. 제1전시실에는 움집과 토기제작, 사냥, 어

로 등 오산리 신석기인들의 생활모습이 디오라마 형태로 전시되고 있으며, 제2전시실은 오산리유적을 포함하여 강릉 초당동유적과 고성 문암리유적 등 영동지역의 대표적인 선사유적에서 출토된 500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데, 개관이후 하루 평균 2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양양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1단계 야외시설공사에 착수하여 유적지내에 신석기시대 움집 6동을 복원하였고, 야외체험장과 탐방데크 설치, 주차장 조성 등을 마무리하여 2009년 6월부터 일반 관람객에게 유적지를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박물관 옆에 자리한 쌍호의 갈대 군락지는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하늘에서 바라본 오산리유적지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 일컫는다. 양양군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에서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박물관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박물관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추어 전국 각 급 학교를 대상으로 박물관 마켓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외체험장을 활용하여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신석기인들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산리유적 등 특정유적에서 나온 유물들을 전시하는 유적박물관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는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예외없이 공립박물관으로 조성된다. 본질적으로 강력한 지역성을 표방하게 되는 유적박물관을 통해 지역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기본목적은 물론 지역정체성의 고취,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 지역

축제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가치창출을 꾀하면서 유적과 박물관 자료를 이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의 경우도 향토유적의 답사와 강좌중심의 교육,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박물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제는 박물관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조사, 연구, 전시의 기존 기능에서 체험과 교육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박물관이 지역 내에서 교육기능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박물관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문화, 예술, 과학, 환경을 탐구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곳이며 인간이 살아온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점칠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박물관 교육은 인간이 남긴 족적을 되새겨 보는 곳이고,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현재의 상황을 단단히 구축할 수 있는 토양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오산리선사유적 박물관전경



오산리유적(A구역)에 복원된 움집

오산리유적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유적지로 평가된다. 첫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석기유적으로 주변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관람객 흡인력이 기대된다. 둘째, 낙산사와 진전사, 하조대, 설악산 등 주변에 위치한 양양군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박물관을 찾는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하여 관람객이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를 면면히 살펴 정성껏 해설하며 안내하는 고객중심의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박물관은 평생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체험형 박물관을 지향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박물관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우리나라에서 이제까지 발견된 신석기시대 유적은 전술한 바와 같이 400여 개소에 이른다. 이들은 한반도 전역에 걸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는 않고, 주로 대동강·한강 유역을 포함한 서해안 지역, 낙동강 유역을 포함한 남해안 지역, 그리고 두만강 유역을 포함한 동북해안 지역 등 크게 3개 지역에 밀집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간의 토기 양상에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즉, 서해안 지역에서는 뾰족밑토기, 남해안 지역에서는 덧무늬토기, 그리고 동해안 지역에서는 납작밑토기 등이 각각 지역적 특성을 강하게 반영하면서 출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각 지역 내에 있어서 토기의 변천상이나 각 지역 간의 문화적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분명한 점이 적지 않다. 이는 신석기 토기 상호간의 선후관계를 보여주는 층위를 이룬 유적의 발굴 예가 적은 데에도 그 원인이 있고, 이들 지역군을 연결하는 중간지점에 대한 조사가 불충분 하였던 것에도 원인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 지역과 남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중간지점에 위치한 오산리유적의 발굴은 상당한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유적으로서는 이례적이라 할 만큼 층서(層序)가 뚜렷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유적 각 지역의 특징적인 토기가 망라되고 있어 동해안 선사문화의 구명(究明)뿐 아니라 한국 신석기문화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31]

우리나라 신석기유적의 분포상황을 볼 때, 중서부지방과 서북·동북지방에서는 큰 강을 중심으로 장기간 점유된 유적들이 많고, 서해안의 도서지방에서는 주거유적들이 아닌 패총이나 야외노지 등과 같은 단기간 점유된 유적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최근 확인되고 있는 영종도와 같은 큰 섬의 경우, 신석기시대의 취락이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해석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동북해안과 남해안지역은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하여 비교적 안정된 정착생활을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어로가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었던 해안이나 큰 강을 중심으로 한 신석기시대 전기의 유적들과 달리 신석기시대 후기가 되면 내륙지방에 어로의 비중이 크지 않는 신석기유적들이 나타난다. 1980년대부터 구제 발굴조사가 많아지자 전혀 예

상하지 못하였던 충청도 및 남부 내륙지방에서도 적지 않은 신석기시대 유적이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유적의 분포적 특성을 살펴볼 때, 앞으로는 해안 및 강안 유적을 중심으로 그 곳 환경에 적응한 신석기문화와 깊숙한 내륙의 환경에 적응한 신석기문화의 심도 깊은 비교연구가 기대된다.[32)]

오산리유적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신석기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검토해 보고, 최근에 조사된 오산리유적의 발굴성과를 통해 주거지 형태, 토기양상의 선후관계와 층서문제 등 오산리유적에 대한 고고학분야의 학술적 평가보다는 유적이 갖는 가치와 의미를 토대로 연구된 자료를 정리해 보았다.

양양의 중심부를 유유히 흐르는 남대천 하구 일대는 구석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에 이르는 각 시대에 걸친 유적들이 밀집 분포된 곳으로, 그 가운데 오산리 신석기유적은 3천여 점의 중요 유물들이 출토되어 우리나라 신석기문화의 초기 단계를 규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제시되었다. 더구나 이 유적을 중심으로 구석기, 청동기, 원삼국시대의 각 유적과 유물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대의 변화에 따른 양양군 역사의 변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듯, 우리나라 신석기문화 연구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유적을 그 자리에 그대로 재현하고 출토된 유물을 한 곳에 모아 전시해 놓은 오산리 선사유적지와 박물관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사유적으로 양양군의 자랑이자 우리나라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오산리유적은 발굴조사를 통해 원형을 재현함으로서 역사와 문화가 접목된 산교육장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양양군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양양국제공항과 연계한 국제적인 관광자원으로 널리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집필 : 전유길

각주

1) 오산리 신석기유적은 1990년 5월 31일 강원도기념물 제62호 '양양 오산리선사유적(16,051㎡)으로 지정되었다가 1997년 4월 18일자로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394호로 승격되었다. 전체 지정면적은 135,614㎡로 이중 지정구역은 16,087㎡이고, 보호구역은 119,527㎡이다.
2) 국립문화재연구소가 1998년부터 2회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1년 2월 5일자로 54,438㎡이 사적 426호로 지정되었다. 문암리에서는 독특한 양식의 덧무늬토기와 함께 오산리유적과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누른무늬토기와 결합식 낚싯바늘 등이 출토되어 신석기문화와 비교연구 및 전파과정을 연구하는데 있어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3) 고동순,「동해안지역의 신석기문화」,『한반도 신석기시대 지역문화론』, 동삼동 패총전시관 학술총서 제Ⅳ권, 2009, 149쪽.
4) 고동순, 위의 책, 2009, 150쪽.
5) 서울대학교박물관,「오산리유적 발굴조사보고서」,『오산리유적』, 1984, 3쪽.
6) 임효재,「오산리유적」,『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전시도록』, 2008, 24쪽.
7) 서울대학교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발굴유물도록, 1997, 23쪽.
8) 2006~2007년에 걸쳐 예맥문화재연구원이 양양 여운포-송전간 도로개설부지 유적을 발굴조사(오산리유적 C구역)한 결과, 6기의 주거지가 모두 수혈주거 형태이며 오산리유적과 같은 시기인 고성 문암리유적과 양양 지경리 신석기유적에서도 수혈주거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주거형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9) 임효재, 위의 책, 2008, 24쪽.
10)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양양 오산리선사유적), 계문사, 1996, 13쪽.
11) 임효재, 두더지고고학, 집문당, 2006, 51쪽.
12) 고동순, 위의 책, 2009, 154쪽.
13) 동삼동패총전시관,「신석기시대의 토기문화」,『동삼동패총전시관 학술총서 Ⅰ』, 한글그라픽스, 2004, 132쪽.
14) (재)예맥문화재연구원이 양양군의 의뢰를 받아 2006~2007년 발굴조사한 도로부지유적으로, 오산리유적 A구역과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동쪽으로 마주하고 있다. 이 유적은 원래A구역과 연결된 사구였으나 도로개설로 인해 양분된 것으로 오산리유적의 전체적인 혼선을 피하고자 편의상 C구역으로 구분하였다.
15) 고동순, 위의 책, 2009, 164쪽.
16)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고고학사전, 학연문화사, 2001, 284~285쪽.
17) 결합식낚시는 조합식어구(組合式漁具), 결합식낚시도구(結合式釣針), 오산리형 이음낚시 등으로도 불리운다.
18)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2001, 181쪽.
19) 임효재, 위의 책, 2008, 27쪽.
20) 고동순, 위의 책, 2009. 153쪽.
21) 고동순, 위의 책, 2009. 158쪽.
22)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2001, 882쪽.
23) (재)예맥문화재연구원이 2006~2007년간 발굴조사한 도로부지 유적으로 약보고서를 요약·정리하였다.(주석14 참조)
24) 예맥문화재연구원,「양양 여운포-송전간 도로개설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07, 7~21쪽.
25) 고동순, 위의 책, 2009, 158쪽.
26) 예맥문화재연구원, 위의 책, 2007. 22~32쪽.
27) 고동순, 위의 책, 2009. 159쪽.
28) 고동순, 위의 책, 2009. 162쪽.
29) 예맥문화재연구원, 위의 책, 2007, 40쪽.
30) 고동순, 위의 책, 2009, 184쪽.
31) 임효재, 위의 책, 2006, 46쪽.
32) 임효재, 위의 책, 2008, 23쪽.

참고문헌

오산리유적 Ⅰ · Ⅱ · Ⅲ, 서울대학교박물관, 1984, 1985, 1988.

임효재, 한국 신석기문화, 집문당, 2002.

서울대학교박물관도록, 서울대학교박물관, 서울대학교인쇄공업협동조합, 1997.

예맥문화재연구원, 「양양 여운포-송전간 도로개설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07.

양양군, 양주지, 양주지편찬위원회, 1990.

임효재, 두더지 고고학, 집문당, 2006.

양양의 역사와 문화유적, 양양군 · 강릉대학교박물관, 학연문화사, 1994.

이상균, 한반도 신석기문화의 신동향, 학연문화사, 2005.

임효재, 한국 신석기문화의 전개, 학연문화사, 2005.

문화재(사적)지정 조사보고서(양양 오산리선사유적), 문화재관리국, 1996.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고고학사전, 학연문화사, 2001.

양양군문화시설관리사업소, 양양 오산리선사유적 야외시설 1단계조성공사 준공보고서, 양양군, 2009.

김건수, 한국 원시 · 고대의 어로문화, 학연문화사, 1999.

동삼동패총전시관, 신석기시대의 토기문화, 동삼동패총전시관 학술총서 Ⅰ, 한글그라픽스, 2004.

고동순, 「동해안지역의 신석기문화」, 『한반도 신석기시대 지역문화론』, 동삼동 패총전시관 학술총서 제Ⅳ권, 2009.

국립춘천박물관, 강원고고학의 발자취, 통천문화사, 2004.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전시도록, 양양군, 2008.



Ⅲ. 삼국 · 고려 · 조선시대

1. 양양지방의 고대사

1) 동예시대의 양양

청동기 · 철기시대에 접어들어 생산력이 발전하고 계급분화가 이루어지면서 한반도의 각 지역에서는 정치적 지배자들이 출현하게 되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초기국가들이 형성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워진 국가는 고조선이다. 그러나 고조선은 한(漢)나라의 침략으로 멸망당하였고, 그 후 한나라는 동방정책의 수행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과거 고조선의 세력권 안에 4군(郡)을 설치하게 된다. 즉 한나라는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의 옛 땅에 낙랑군 · 진번군 · 임둔군을 설치하였고, 이어 기원전 107년에 현도군을 설치하였다.

한군현이 설치되었을 때, 영동지방은 처음에 임둔군의 통치를 받았으나, 기원전 82년에 임둔군이 폐치(廢置)되자 일시적으로 현도군의 관할하에 놓이게 된다. 그 뒤 현도군이 중국 동북지방으로 이동하게 되자 영동지방은 낙랑동부도위(樂浪東部都尉)가 관할하게 되는 동이(東暆) · 불이(不而) · 잠대(蠶台) · 화려(華麗) · 사두매(邪頭昧) · 전막(前莫) · 부조(夫租) 등 영동 7현에 속하게 되지만, 기원전 30년에 한나라는 토착세력에 밀려 영동 7현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영동지방은 중국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자치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무렵 영동지방에는 동예(東濊)와 실직국(悉直國)이 있었다.

동예에 대한 기록은 3세기 후반 진수[(陳壽), 233~297년]가 편찬한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의하면, "예는 남쪽으로는 진한, 북쪽으로는 고구려 · 옥저와 접하였고, 동쪽으

로 큰 바다[大海]에 닿았으니 오늘날 조선(朝鮮)의 동쪽이 모두 그 지역이다"라고 전하고 있다. 우리 국사학계에서는 동예의 위치를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강원도의 영동지방에 걸치는 한반도 동해안 일대로 비정(比定)하고 있다. 지금의 양양은 동예(東濊)에 속해 있었다.

동예를 비롯한 한국 고대사회의 기본단위는 읍락(邑落)이었다. 동예의 읍락들은 독자적인 생활권을 유지하는 등, 읍락의 개별성과 폐쇄성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었다. 이 문제를 거론할 때 주목되는 자료는 『삼국지』 동이전 예조의 다음 기사이다.

> 그 풍속은 산천을 중요시하는데,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산천각유부분(山川各有部分)]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읍락을 서로 침범하면 벌로서 생구(生口)와 우마(牛馬)를 부과하는데 이를 책화(責禍)라 한다.

여기서 "산과 내마다 각기 부분이 있어[산천각유부분(山川各有部分)]"에 보이는 부분이란 읍락이 입지한 곳으로 이해된다. 읍락은 읍락민의 생업과 관련한 활동공간으로서 그 안에는 주거지, 농경지, 천변(川邊) 및 산곡(山谷)을 포함하는 생활영역을 갖고 있었다. 이 읍락을 침범했을 시에는 생구(生口, 노비)와 우마(牛馬)로 배상하는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다. 즉 동예의 읍락들은 산천을 경계로 각기 일정한 생존영역을 유지하면서 각 읍락단위로 독자적인 공동체적 경제생활을 영위하였고, 상호간 그 영역을 침범할 경우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로서 '책화'라는 읍락단위의 배상제도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점에서 볼 때 동예는 개개 읍락을 정치적 · 경제적 기저단위로 하는 여러 정치체들이 병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동예사회가 고구려나 부여에 비해 후진사회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많다. 가령 "보전(步戰)에 능했다"고 한 것이라든지, "주옥(珠玉)을 보배로 여기지 않았다" 한 것이 그것이다. 또 "도둑질하는 사람이 적다"고 한 것은 동예사회에서 씨족공동체적 생활양식이 존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동예인들이 시간측정과 역(曆)에 관한 지식을 전제로 한 별자리를 관찰하여 농사에 있어 풍흉을 예언하였다는 점과 누에를 쳐서 명주실을 뽑아내고 마포(麻布)를 짰다는 점 등은 당시 이들의 농업관리

역량과 직조기술 수준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동예에서는 항상 10월에 하늘에 제사지냈는데, 이를 '무천(舞天)'이라 하였다. 이때에는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추었다[주야음주가무(晝夜飮酒歌舞)]"고 한다. 이러한 축제는 삼한에도 있었다. 삼한에서는 5월에 파종을 마친 후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무리를 지어 노래하고 춤을 추었으며 주야로 술 마시기를 계속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에 추는 춤은 수십 인이 같이 일어나 서로 따르며 땅을 발로 밟았다가 올리며 손과 발이 서로 응답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10월에 농사를 마치고 나서도 이렇게 한다고 하였다. 이같은 제천행사의 존재는 당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예인들은 농사 이외에도 수공업, 수산업, 수렵에도 종사하였다. 이는 동예의 특산물로서 거론되는 낙랑단궁(樂浪檀弓) · 반어피(班魚皮) · 문표(文豹) 및 과하마(果下馬)의 존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의하면 동예사람들은 "호랑이에게 제사지내고 그것을 신으로 섬긴다"[제호이위신(祭虎以爲神)]고 하였다. 이 기사는 호신(虎神)숭배를 전하는 최초의 것으로서, 한국에서 호랑이를 산신(山神)으로 숭배하는 연원이 매우 오래되었음을 보여준다.

산신은 산에 살면서 산을 맡고 있는 신이다. 그러나 산신은 산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산 밑 마을공동체의 모든 길흉화복을 주재하며 또 마을공동체를 지켜주는 신이다. 산신숭배가 마을신앙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마을신을 모시는 동제에서는 산신에게 여러 가지를 기원하는데, 동제의 축문(祝文)을 분석해보면 풍년의 기원이 가장 많다.

호랑이 자체가 산신이란 관념은 오늘날에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방언에서 호랑이를 산의 임자, 산을 지키는 자라는 의미의 '산군'(山君) · '산왕(山王)' · '산지킴' · '산주인' · '산찌김이'로 부르는 것이라든지, 무당 산신도(山神圖)에서 호랑이만을 그려놓고 산신령이라 한 것, 그리고 민담에서 딸의 혼인을 반대하던 아버지가 호랑이가 딸을 물어다가 남자에게 데려다주자 산신이 맺어준 인연이라 생각하여 딸의 혼사를 승낙했다는 것 등에서 찾아진다.

동예사회에서 호랑이 산신은 읍락의 초자연적 지배자이며, 따라서 읍락은 읍락인들

의 생활권인 동시에 산신의 영역이었다. 그러므로 외부인이 다른 읍락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그 읍락을 지배하는 산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며, 여기서 다른 산신의 영역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지만, 들어갈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는 관념이 성립될 수 있다. 동예사회에서 읍락단위의 사회질서가 유지되는 데에는 이러한 산신숭배가 기여한 바가 컸다고 할 수 있다.

2) 삼국시대의 양양

삼국이 형성되면서부터 영동지방은 신라 · 고구려의 영향을 차례로 받기 시작한다. 신라는 일찍부터 영동지방으로 진출해 오기 시작하였다. 문헌상으로 신라의 영향력이 영동지방에 최초로 미치는 것은 2세기 무렵이다. 『삼국사기』 파사왕 23년(102년) 8월 기사에 따르면, 실직국(悉直國)과 음즙벌국(音汁伐國)이 경계 다툼이 일어나 파사왕에게 와서 이를 판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왕은 이를 판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 하며 '금관국(金官國) 수로왕(首露王)은 연로하고 지식이 많으므로 그를 불러서 판결하게 하자' 고 하였다. 이에 수로왕은 여러 가지를 논의한 결과 그 분쟁지역을 음즙벌국에 속하게 했다. 그러나 신라 6부(部) 내의 갈등에 음즙벌국이 연관되어 신라군의 공격을 받고 항복하자 이에 실직국도 항복하였다고 한다.

신라는 실직 · 음즙벌국을 복속한 후에 동해안 북쪽으로의 개척을 계속 진행하였다. 강릉일대가 언제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 시기는 내물왕 42년(397년) 이전의 어느 시기로 보인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북변의 하슬라(何瑟羅, 강릉)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자 왕이 죄수들을 놓아주고 1년간의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1]고 한다. 이는 강릉이 신라의 영역으로 확정되었음을 말해준다.

내물왕대(356~402년)에 신라는 고구려와 친선관계를 유지하였다. 신라가 377년에 전진(前秦)에 사신을 파견할 때 고구려의 사신과 동행한 것이라든가, 381년에 고구려를 통해 전진에 위두(衛頭)를 파견한 것, 고구려와의 우호의 대가로 실성(實聖)을 볼모로 보낸 것은 이를 말해준다. 400년에 왜병이 신라 왕경을 침범해왔을 때에는 광개토왕이 보병 · 기병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해주기도 하였다.[2] 그러나 눌지왕대(417~458년)

에 들어와 장수왕의 남진정책과 이에 대비한 나제동맹의 체결 이후 양국 사이에서 파열음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눌지왕 34년(450년, 장수왕 38년) 7월에 하슬라성주(何瑟羅城主) 삼직(三直)이 고구려의 변장을 실직(悉直) 들에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신라왕이 사과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3] 그 후 자비왕 7년(464년, 장수왕 52년)에 신라군이 경주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 군인 100명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양국 간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4]

이에 대한 보복으로 고구려는 장수왕 56년(468년)에 말갈 군사와 함께 신라의 실직성을 공격하여 점령하였고, 장수왕 69년(481년, 소지왕 3년)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동해안 일대를 점령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사실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통일신라 때 명주를 구성한 간성 · 고성 · 영덕 · 흥해 · 울진 · 청하 등 동해안 지역과 임하 · 영월 등 영서의 일부 지역들이 본래 고구려의 군현(郡縣)이었다고 기술되어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의 양양은 익현현(翼峴縣) 또는 이문현(伊文縣)이라 하였고, 동산(洞山)은 혈산현(穴山縣)이라 하였다.

신라가 고구려에 빼앗긴 동해안 영토를 다시 수복하는 것은 6세기 초의 지증왕 때 와서이다. 지증왕은 고구려가 북쪽의 위(魏)와 양(梁)나라에 몰두하고 있는 시기를 이용하여 국력을 신장시켰다. 6세기 초에 즉위한 지증왕은 국호(國號)와 왕호(王號)를 확정하고, 우경(牛耕) 장려, 순장(殉葬) 금지법, 상복법 시행 등 왕실의 위상과 경제적 기반을 확대하였다.[5] 이와 함께 변방의 중요 지역에 12성(城)을 쌓고, 지증왕 6년(505년)에 주군현(州郡縣)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실직주를 설치하고 거기에 신라에서 가장 명망하는 인물인 이사부를 군주(軍主)로 파견하였고, 7년 후에는 실직보다 북쪽에 위치한 하슬라주(강릉) 군주로 파견하였다. 이는 당시 신라의 입장에서 동해안 지역을 매우 중시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진흥왕 17년(556년)에는 비열홀주(比列忽州, 안변)를 설치하고, 사찬(沙飡) 성종(成宗)을 그 군주(軍主)로 삼았다. 이는 신라의 동북변의 군사중심지가 하슬라에서 비열홀로 이동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열홀주가 설치된 지 12년 후에는 이를 폐지하고 달홀주(達忽州, 고성)를 설치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변방지역의 전진과 후퇴에 따라 주(州)가 이동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남북국시대의 양양

'남북국시대'란 발해사를 한국사의 한줄기로 인정하고, 나아가 이를 한국사 체계에 적극적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주로 사용해 온 통일신라시대라는 용어 대신 신라와 발해를 묶어서 '남북국시대'로 파악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유득공이 『발해고』 서문에서 처음 제기하였다. 김정호도 자신이 집필한 『대동지지(大東地志)』에서 "발해가 고구려 옛 땅을 이어받아 신라와 더불어 200여 년간 남북국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이는 일제 강점기 때의 역사학자였던 장도빈 · 권덕규 등에게도 같은 맥락으로 계승되어 '남북국' 또는 '남북조'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광복 이후 북한학계에서는 발해를 고구려의 계승자라는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으나 '남북국'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있다. 남한에서는 1970년대에 들어 이우성 교수가 적극적으로 '남북국시대론'을 제기[6]한 후 많은 개설서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무열왕 때부터 시작된 신라의 통일전쟁은 문무왕 때에 이르러 원산만과 대동강을 잇는 그 이남 지역을 확보하였다. 그 결과 신라는 백제의 영토 모두와 대동강 이남의 고구려 영토를 차지하게 되어 영토와 인구가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신라의 중대 왕실은 '삼한을 일통하였다[일통삼한(一統三韓)]'는 의식을 표방하면서 신문왕대에 전국을 9주 5소경으로 정비하였다.

〈표3-1〉 통일신라 9주의 편성

구 분	주 이름
원신라지역	사벌주(尙州) · 삽량주(良州) · 청 주(康州)
옛 고구려지역	한산주(漢州) · 수약주(朔州) · 하서주(溟州)
옛 백제지역	웅천주(熊州) · 완산주(完州) · 무진주(武州)

〈표3-2〉 통일신라 9주의 편성

- 溟　州 (고구려 河西良(何瑟羅), 경덕왕 溟州, 고려 溟州)
  - 旌善縣(고구려 仍買縣, 경덕왕 旌善, 고려 旌善縣)
  - 棟隄縣(고구려 東吐縣, 경덕왕 棟隄, 고려 未詳)
  - 連谷縣(고구려 支山縣, 경덕왕 支山, 고려 連谷縣)
  - 洞山縣(고구려 穴山縣, 경덕왕 洞山, 고려 洞山縣)
- 曲城郡 (고구려 屈火郡, 경덕왕 曲城, 고려 臨河郡)
  - 緣武縣(고구려 伊火兮縣, 경덕왕 緣武, 고려 安德縣)
- 野城郡 (고구려 也尸忽郡, 경덕왕 野城, 고려 盈德郡)
  - 眞安縣(고구려 助攬縣, 경덕왕 眞安, 고려 甫城府)
- 積善縣 (고구려 靑已縣, 경덕왕 積善, 고려 靑鳧縣)
- 有隣郡 (고구려 于尸郡, 경덕왕 有隣, 고려 禮州)
  - 海阿縣(고구려 阿兮縣, 경덕왕 海阿, 고려 淸河縣)
- 蔚珍郡 (고구려 于珍也縣, 경덕왕 蔚珍, 고려 蔚珍郡)
  - 海曲縣(고구려 波且縣, 경덕왕 海曲, 고려 未詳)
- 奈城郡 (고구려 奈生郡, 경덕왕 奈城, 고려 寧越郡)
  - 子春縣(고구려 乙阿旦縣, 경덕왕 子春, 고려 永春縣)
- 白烏縣 (고구려 郁烏縣, 경덕왕 白烏, 고려 平昌縣)
- 酒泉縣 (고구려 酒淵縣, 경덕왕 酒泉, 고려 酒泉縣)
- 三陟郡 (悉直國, 경덕왕 三陟, 고려 三陟郡)
  - 竹嶺縣(고구려 竹峴縣, 경덕왕 竹嶺, 고려 未詳)
  - 萬卿縣(고구려 萬若縣, 경덕왕 滿卿, 고려 未詳)
  - 羽谿縣(고구려 羽谷縣, 경덕왕 羽谿, 고려 羽谿縣)
  - 海利縣(고구려 波利縣, 경덕왕 海利, 고려 未詳)
- 守城郡 (고구려 逆城郡, 경덕왕 守城, 고려 杆城縣)
  - 童山縣(고구려 僧山縣, 경덕왕 童山, 고려 烈山縣)
  - 翼嶺縣(고구려 翼峴縣, 경덕왕 翼嶺, 고려 翼嶺縣)
- 高城郡 (고구려 達忽, 경덕왕 高城, 고려 高城郡)
  - 豪猳縣(고구려 猪逆穴縣, 경덕왕 豪猳, 고려 豪猳縣)
  - 偏嶮縣(고구려 平珍峴縣, 경덕왕 偏嶮, 고려 雲巖縣)
- 金壤郡 고구려 休壤郡, 경덕왕 金壤, 고려 金壤郡)
  - 習谿縣(고구려 習比谷縣, 경덕왕 習谿, 고려 歙谷縣)
  - 隄上縣(고구려 吐上縣, 경덕왕 隄上, 고려 碧山縣)
  - 臨道縣(고구려 道臨縣, 경덕왕 臨道, 고려 臨道縣)
  - 派川縣(고구려 改淵縣, 경덕왕 派川, 고려 派川縣)
  - 鶴浦縣(고구려 鵠浦縣, 경덕왕 鶴浦, 고려 鶴浦縣)

9주의 분포를 보면, 옛 고구려 땅에 3개 주, 옛 백제 땅에 3개 주, 소백산맥 이남 원래의 신라 땅에 3개 주를 두었다. 오늘날 강원도는 삭주(朔州)와 명주(溟州)에 속해 있었는데, 영동지방은 명주에 속해 있었다. 당시 명주의 관할 군현은 군(郡)이 9곳, 현(縣)이 25곳이었다.

명주는 강릉을 주치(州治)로 한 직할지와 곡성군 · 야성군 · 유린군 · 울진군 · 내성군 · 삼척군 · 수성군 · 고성군 · 금양군 등 9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지금의 행정구역에서 보면, 영동지방 대부분과 평창군 · 영월군 · 정선군, 경상북도 북부의 해안 쪽 대부분, 함경남도 일부 지역을 관할하였다. 지금의 양양은 익령현(翼嶺縣)으로 편제되었으나 독립된 현이 아니라 수성군(守城郡)의 속현이었다. 수성군은 관할 영역은 오늘날 고성군에서 양양군까지로 추정된다.

신라의 서북경은 분명하게 되어 있지만, 동북경에 대하여는 『신당서』 발해전에 "발해는 남쪽으로 신라와 접해 있는데, 니하(泥河)로 경계를 이루고 있다" [발해남접신라 이니하위계(渤海南接新羅 以泥河爲界)]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 니하의 위치 비정에 있어서는 몇 개의 학설이 제기되어 있다.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학설을 종합해 보면, 크게 원산만부근설과 강릉부근설로 나눌 수 있다.

원산만부근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삼국사기』 지리지에 신라 동북경 최북단의 행정구역이 천정군(泉井郡, 현 덕원)이었다는 점, 동사전조(同祀典條)에서 동북지방 최북단의 소사(小祀)로 상악(霜岳, 고성 금강산)과 설악(雪岳, 양양 설악산)이 설정되어 있는 점, 성덕왕 20년(721년) 7월에 "하슬라도(강릉)의 정부(丁夫) 2천명을 징발하여 북변에 장성을 축조하였다"는 것 등이다. 강릉부근설은 정약용이 그의 『강역고』에서, "니하는 강릉 북쪽에 있다"고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정약용은 니하를 강릉 북쪽의 이천수로 보고 양양 이북이 발해의 땅이었다가 756년경에 신라 영토가 되었다고 기록한 사실을 근거로 발해 남변은 신라와의 세력관계에 따라 발해와 신라의 대외교통로인 신라도(新羅道)는 시기별로 변화하였다고 보고 있다.[7] 이와 같이 발해의 남쪽 경계인 니하를 어디로 비정하는가에 따라 발해의 영역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니하의 위치 즉 신라의 남쪽 경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일치된 견해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이를 종합해 보면 발해의 남쪽 경계는 양양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추론은 가능하다. 비록 덕원 이남의 지역이 일

시적으로 점령하는데 그쳤다 할지라도 해당지역에 대한 지리적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므로 발해가 이용했을 신라도를 적극적으로 이해할 경우 양양 이남까지 확장할 수 있다.

『신당서』 발해전에 의하면, 발해에는 국도인 상경(上京)을 중심으로 하여 각 방면에 이르는 교통로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조공도(朝貢道) · 영주도(營州道) · 일본도(日本道) · 거란도(契丹道) · 신라도(新羅道)가 바로 그것이다. 이 가운데 발해사와 영동지방을 연결함에 있어 당시 발해의 수도인 상경용천부에서 남경남해부를 거쳐 신라로 가는 길인 신라도가 명시되어 있음이 주목된다.[8)]

남경남해부의 위치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지만 함경남도 북청군 북청읍에서 동남쪽으로 18㎞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는 청해토성이 발견되면서 현재는 신창이 유력하다. 따라서 신라도는 자연히 동해안 경로를 택하였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에 인용된 가탐(賈耽)의 『고금군국지(古今郡國志)』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발해국의 남해(南海) · 압록(鴨淥) · 부여(扶餘) · 책성(柵城)의 4부(府)가 모두 고구려의 옛땅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신라 천정군으로부터 책성부까지 39개의 역이 있다고 하였다. 신라 천정군은 함경남도 덕원에 해당하고 발해 책성부는 중국 길림성 혼춘현에 있는 팔련성(八連城)에 해당하므로 두 지역 사이에 북청토성이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 경로가 바로 신라도에 해당한다. 참고로 당나라의 제도에 의하면 30리마다 1개의 역을 두었으므로 천정군에서 책성부까지 1,170리로서 현재의 단위로 하면 약 521㎞가 된다고 한다. 아무튼 신라의 국경도시인 천정군에서 발해 5경의 하나인 책성부까지 역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발해와 신라 사이에는 상설 교통로가 개설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바로 양국 사이에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시켜 준다.

신라도의 설치시기는 양국 간의 상설적인 교류가 언제 시작되었는가를 추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고금군국지』에 신라 천정군이라 표기하였는데 천청군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경덕왕 16년(757년)에 정천군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이전까지이므로 757년 이전에 이미 양국 사이에 교통로가 개설되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발해측으로 보면 3대 왕인 문왕 시기 전반에 해당한다. 결국 신라도는 721년에서 757년 사이에 개설되었던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아마도 발해 문왕대 즉 신라 경덕왕대에 들어

와서 양국의 교섭 통로가 개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양국 사이에 교섭 통로가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초반에는 아직 상설적인 교류가 행해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것은 발해 대조영 후반에서부터 문왕 초반에 이르는 시기는 무력정복이 활발히 벌어지던 시기로 이것이 신라에 위협이 되었을 것이므로 양국 관계가 원활하지는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뒤 문왕이 정복사업을 마무리하고 내치(內治)에 힘쓰기 시작하면서 신라도는 보다 빈번히 이용되었을 것이다. 이에 상응하기 위해 757년에 이르러 721년에 쌓은 장성에 탄항관문(炭項關門)을 쌓아 양국의 교섭통로로 삼았던 것 같다. 탄항관문은 바로 신라도가 통과하는 양국 국경지대의 관문이었다. 발해에서 출발하여 탄항관문을 지남으로써 마침내 신라 경내로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다시 동해안로를 따라 신라의 수도 경주로 향하게 되었을 것이다.

신라가 동해안로를 여는 시기는 소지왕 9년(487년) 사방에 우역(郵驛)을 설치하고 관도(官道)를 수리할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신라는 통일 이후 수도 경주를 중심으로 한 교통로를 새로이 정비하였는데, 5통과 5문역이 바로 그것이다.[9] 5통은 북해통(北海通)·염지통(鹽池通)·동해통(東海通)·해남통(海南通)·북요통(北僥通)이고, 5문역은 건문역(乾門驛)·곤문역(坤門驛)·감문역(坎門驛)·간문역(艮門驛)·태문역(兌門驛)이다.

5통은 통일 이후 지방통치조직이 9주 5소경으로 정비되면서 9주에 10정·만보당(萬步幢) 등 여러 군사조직을 배치하면서 지방통치조직과 군부대를 효율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재정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 이후 신라의 지방통치조직은 신문왕 2년(681년)에 완산주(지금의 전주)와 청주(菁州, 지금의 진주)를 설치함으로써 완비되었다. 따라서 5통은 신문왕대에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5통은 왕도를 중심으로 하여 9주의 주치(州治)나 소경(小京)으로 통하는 행정통로임과 동시에 군사도로인 5개의 간선도로라고 할 수 있다.

5통 가운데 북해통은 그 명칭에서 미루어 볼 때 동해안을 따라 북으로 올라가는 교통로라 파악된다. 북해통의 출발점은 경주의 간문역이었고 종점은 천정군이었다. 수도 경주에서 천정군까지 가기 위해서는 먼저 형산강을 따라 가다가 안강현을 지나면 의창군에 이르게 된다. 의창군에 이른 후 북해통의 길은 계속 북상하게 된다. 그 길을 『삼국사기』 지리지의 명주 관내의 군현과 연결시켜 보면, 의창군(포항시 흥해읍)·청하현(포항

시 청하면 고현리) · 야성군(영덕군 영덕읍) · 유린군(영덕군 영해읍) · 해곡현(울진군 덕신리) · 울진군(울진군 울진읍) · 해리현(삼척시 옥원리) · 만경현(삼척시 원덕면) · 삼척군(삼척시) · 우계현(강릉시 옥계면) · 명주(강릉시) · 지산현(강릉시 연곡면) · 동산현(현남면) · 익령현(양양읍) · 수성현(간성읍) · 고성군(고성읍) · 환하현(양진리) · 편험현(양진리) · 임도현(가염성리) · 금양군(통천면) · 습계현(송전면) · 파천현(시천리) · 학포현(학고리) · 천정군(덕원군 문천면)으로 연결된다.

신라와 발해는 신라도를 이용하여 사신 왕래나 문화적 교류를 하였다고 본다. 신라도는 대체로 8세기 전반에 개설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양국이 이 교통로를 이용하여 자주 교류한 것은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전반이다. 현존 기록을 바탕으로 할 때 이 신라도를 최초로 이용한 사람은 당나라 사신 한조채(韓朝彩)로서 그는 발해에 사신으로 갔다가 764년에 발해에서 신라로 직접 갔다고 하는데, 이 때 이 경로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원성왕 6년(790년)에 일길찬 백어(伯魚)와 헌덕왕 4년(812년)에 이찬 숭정(崇正)을 발해에 사신으로 파견하였는데, 이때도 이 경로를 이용하였을 것이다. 신라 사신이 발해로 갈 때에는 신라도를 이용하였다고 본다. 신라도는 발해에서 일본으로 가는 경로로도 사용되었는데, 777년 발해 사신이 토호포(吐號浦)를 출발하여 일본으로 향하였다고 한다.

4) 후삼국시대의 양양

7세기 후반에 삼국을 통일했던 신라는 신문왕대(681~692년)의 체제정비를 거치면서 전제왕권을 수립하게 되었고, 성덕왕대(702~737년)에 와서는 안정된 전제왕권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하대로 들어오면서 서서히 쇠망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중대의 마지막 왕인 혜공왕 4년(768년)에 일어난 대공(大恭)의 난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대공의 반란은 전국의 96각간이 3개월 동안 서로 싸웠다고 전할 정도로 일찍이 보지 못한 대란이었다. 이는 신라 중대 왕실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

싸움의 양상은 현 집권자인 혜공왕파와 반(反)혜공왕파로 갈라지게 되었다. 전자의 대표적 인물이 김지정(金志貞)이었고, 후자의 대표적 인물이 김양상(金良相) · 김경신

(金敬信)이었다. 여기에서 반혜공왕파가 승리하고 김양상이 왕위에 오르니 이가 37대 선덕왕(780~785년)이다. 선덕왕은 무열왕계가 아니라 내물왕 10세손이었다. 이러한 방계 출신인 선덕왕이 왕위에 오름으로써 무열왕계가 왕위를 계승하던 중대는 종언을 고하고 하대가 시작되었다.

신라는 하대에 들어 150여 년 사이에 20명의 왕이 교체되는 대혼란을 겪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배계급의 분열과 대립이 격화되었고, 이에 따라 중앙의 정치기강은 극도로 문란해지고 지방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귀족과 사원은 권력 · 고리대 등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백성들의 토지를 탈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장(田莊)이라 불리는 대토지를 소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신당서』에는 "재상의 집에는 녹(祿)이 끊이지 않으며, 노비가 3천명이나 되고 갑병(甲兵)과 소 · 말 · 돼지도 이에 맞먹는다. …곡식을 남에게 빌려주어서 늘리는데, 기한 안에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았다." 라고 전하고 있다. 그러자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유민화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진성여왕 3년(889년)에 조세독촉을 계기로 전국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때 원종(元宗)과 애노(哀奴)가 사벌주(沙伐州, 지금의 상주)를 근거로 하여 처음으로 반기를 들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당시 농민군의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왕명을 받고 출동한 영기(令奇)는 그 위세에 놀라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농민봉기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다. 이 틈을 타 각처에서 몇몇 지도자들이 세력의 구심점을 형성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북원(北原, 원주)의 양길(梁吉), 죽주(竹州, 안성)의 기훤(箕萱), 완산(完山, 전주)의 견훤(甄萱), 명주(溟州)의 김순식(金順式) 등이다. 그러다가 종국에는 이른바 후삼국시대가 연출되어 견훤이 세운 후백제와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 그리고 종래의 신라가 각축전을 벌이게 되었다.

9세기말 명주는 궁예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 궁예는 한 때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여 당시 영토의 절반 이상을 지배하였던 인물이다. 특히 명주는 궁예가 세력을 구축하는데 기반이 된 곳이기도 하다. 궁예가 명주에 들어올 때의 군사는 600여 명이었으나 명주에 도착한 후에 3,500명으로 불어났다. 즉 궁예는 명주 땅에서 명주호족과 농민, 승려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기에 원래 그의 군사보다 5배나 늘어났던 것이다. 궁예

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양을 거쳐 저족(猪足, 인제) · 성천(狌川, 화천) · 부약(夫若, 김화) · 금성(金城, 김화) · 철원(鐵圓, 철원) 등을 정복하였고, 얼마 후 왕건 부자와 패서(浿西, 평양 이남 예성강 이북) 일대의 호족세력의 귀부(歸附)를 받아 서쪽과 남쪽 방면으로 진출하여 공주에서 영주를 잇는 선의 이북 지역을 거의 차지하는 커다란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에 궁예는 901년에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고려'를 건국하였다.

왕위에 오른 초기에 궁예는 사졸(士卒)들과 침식을 같이하고 상벌을 공평하게 하는 등 바람직한 지도자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전제적이고 급진적인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신라에 대한 극심한 적대의식으로 신라를 '멸도(滅都)'라 부르고, 신라에서 오는 자를 모두 죽이기까지 했다. 그러자 지식인과 호족들이 서서히 그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당시 사회의 중간계층이었기 때문에 급진적인 개혁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궁예 휘하에서 동궁기실(東宮記室)까지 지냈던 박유(朴儒)는 산속으로 숨어버렸으며, 장주(掌奏)의 직책에 있던 최응(崔凝)은 궁예가 왕건에게 모반 혐의를 뒤집어씌울 때 왕건을 도와주었다. 그리하여 궁예는 결국 왕위를 왕건에게 내주게 되었다.

918년에 궁예의 세력기반을 물려받아 새 왕조의 창시자가 된 태조 왕건은 국호를 '고려'라 하고, 연호를 '천수(天授)'라고 정하였다. 그러나 왕건 앞에는 허다한 난관이 가로 놓여 있었다. 왕건이 즉위한 5일째 되던 날 혁명 내부세력 가운데 왕건의 왕위를 넘보고 왕권에 도전한 반(反)혁명 사건이 발생하였고, 얼마 후 궁예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청주지역 호족들이 모반을 꾀하여 왕건에 저항하였다. 이와 같이 왕건은 즉위한 후에 궁예를 지지하고 있던 각 지역 호족세력들의 반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세를 관망하고 있던 호족세력들이 후백제로 기울어짐에 따라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어 갔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후백제 영역과 근접한 지역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명주장군 김순식도 왕건이 즉위한 후에 불복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건이 해야 할 일은 먼저 궁예정권 하에서 궁예와 결합했던 호족들을 회유 포섭하는 일이었다. 이에 왕건은 제도(諸道)의 호족에게 사절을 보내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겸양의 덕을 발휘하여 호족들을 회유 · 포섭하였다. 그러자 각지의 호족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고려에 많이 귀부(歸附)해 왔다. 이렇게 해서 귀부해 오는 호

족에게는 토지와 저택을 주기도 하고 관계(官階)를 수여해주면서 그 통치권을 인정해 주기도 하였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각 지역의 유력한 호족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왕건이 호족의 딸들과 정략결혼을 통해 집권은 물론, 왕권을 안정시키는데 활용한 측면이 강하다. 이로 인해 정권의 안정은 이루지만 왕건 사후에 피비린내 나는 왕위쟁탈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중요한 호족들에게는 자신과 같은 왕씨 성을 하사하여 가족과 같은 대우를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많은 호족들이 귀부해 왔다. 왕건은 김순식을 귀부시키기 위해 집요한 노력을 하였다.

김순식의 귀부는 3차에 걸쳐서 진행된다. 태조 5년(922년) 7월에 왕건이 순식의 아버지 허월을 보내어 타이르니, 순식은 그의 장자 수원(守元)을 보내어 1차 귀부하였다. 이 때 왕건은 수원에게 왕성(王姓)을 하사하고 전택(田宅)을 주었다. 그러나 순식의 이러한 귀부는 왕건에게는 매우 소극적이고 불만스러운 일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왕건은 순식 자신의 완전한 귀부를 위해 더욱 노력하였을 것이다. 1차 귀부를 한 지 5년이 지난 태조 10년(927년) 8월에 순식은 다시 아들 장명(長命)과 군사 600인을 보내서 고려 궁궐을 숙위하게 하였다. 이에 태조는 순식의 소장(小將) 관경(官景)에게 왕성(王姓)과 관계(官階)를 수여하고, 그 아들 장명에게는 염(廉)이란 이름과 원보(元甫)[10]라는 관계를 주었다. 김순식 본인이 몸소 휘하 세력을 이끌고 왕건에게 완전히 귀부하는 것은 태조 11년(928년)에 들어와서이다. 이때 왕건은 순식에게 왕성을 하사하고 대광(大匡)[11]이라는 관계를 주었다. 대광은 '크게 나라 일을 바로잡을 만한 위치' 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대광은 살아있는 인물에게 주었던 관계 중 최고위였다. 태조대에 대광의 관계를 수여한 예는 재경세력(在京勢力) 중에는 몇몇 있었으나, 지방세력 중에서는 순식이 최초였다. 이런 점을 통해서 볼 때 당시 김순식의 위치가 얼마나 컸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명주호족 김예(金乂)도 왕씨 성을 하사받았다. 김예가 언제 어떻게 해서 왕씨 성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앞에서 본 관경이 김순식의 아들 장명과 함께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역시 김순식의 귀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명주호족 세력으로서 왕씨 성을 받은 사람은 김순식의 3부자와 관경, 김예 등이었다.

왕건은 명주호족 김순식과 김예로부터 군사적 도움을 받아 태조 12년(929년) 12월부

터 시작된 고창군(안동)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고, 이 전투의 승리로 강릉에서 울산에 이르는 110여 성이 고려에 귀부하여 왕건의 세력은 크게 강화되었다. 김순식과 김예는 태조 19년(936년)에 후백제를 공멸(功滅)할 때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고려의 통일 과정에서 큰 공을 세운 순식은 얼마 안 가서 중앙정계에서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태조 19년(936년) 이후부터 순식에 관해 전혀 자료가 찾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의 가문이 그 후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었다가 도태되었거나, 아니면 광종의 호족억압책으로 제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김예 계열은 건재하였다. 그는 왕건의 공신이 됨과 동시에 내사령(內史令)을 역임하였고, 그의 딸은 태조 왕건의 14비 대명주원부인(大溟州院夫人)[12]이 되었다. 그의 후손은 그 후에도 중앙정계에서 활약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현손 왕국모(王國髦)가 헌종 때 역신(逆臣) 이자의(李資義)를 제거한 공로로 참지정사(參知政事) 및 수사도(守使徒) 등을 역임한 것이라든지, 왕백(王伯)이 충렬왕 때 급제 출사한 것에서 확인된다.

2. 양양지방의 중세사

1) 고려전기의 양양

고려의 군현제는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를 갖추고 출발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신라말 이래 강력한 지방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려초기에는 한동안 지방세력의 자율적 지배를 인정했고, 지방관을 파견하여 중앙정부의 의사를 지방에 직접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국초에는 다만 서경[(西京), 개경]을 비롯한 몇몇 요지에 군사적 필요성 때문에 관리를 파견하였고, 조세수취를 위해 금유(今有) · 조장(租藏)과 전운사(轉運使) 등으로 불린 비상주 관원을 파견하였을 뿐이다. 본격적으로 지방관을 파견하여 통치하기 시작한 것은 후삼국을 통일하고 50년 가까이 지난 성종 원년(982년) 6월에 주요 거점지역에 12목(牧)을 설치하면서부터였다. 12목은 양주 · 광주 · 충주 · 청주 · 공주 · 해주 · 진주 · 상주 · 전주 · 나주 · 승주 · 황주였다.

12목 설치의 계기가 된 최승로의 상소에서는 "국왕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집집마다 가서 날마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령을 파견하여 백성들의 이해를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태조가 통일한 뒤에 지방관을 두려고 하였으나 대개 초창기였으므로 이를 실행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지방토호들이 공무를 빙자하여 백성들을 침탈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지방관을 두기를 청합니다. 비록 한꺼번에 다 파견하지는 못하더라도 먼저 10여 주현을 아울러 한 명의 지방관을 설치하고 그 지방관마다 두세 명의 관원을 두어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십시오." 라 하여 당시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

성종대에 12목에 목사를 파견한 것은 민정적(民政的) 지방행정관 파견의 시초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며, 이는 지방 호족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통제에 나서게 된 것을 의미한다. 당시 강원도 지역은 12목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지방호족의 세력하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성종 14년(995년)에는 처음으로 전국을 10도로 편성하였다.[13] 그리고 12목이 설치되었던 큰 주에 절도사(節度使)를 두고, 이보다 작은 주에 도단련사(都團練使)·단련사(團鍊使)·자사(刺使)·방어사(防禦使)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목종 8년(1005년)에 절도사만 남고 양계지방을 제외한 지역에서 도단련사·단련사·자사는 혁파되었다. 10도제가 실시되면서 양양은 익령현으로 삭방도(朔方道)에 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도기를 거쳐 현종 9년(1018년)에는 전국을 5도와 양계로 크게 나누고, 그 안에 경(京)·도호부(都護府)·목(牧)을 위시하여 군(郡)·현(縣)·진(鎭)에 지방관을 상주시키는 형태로 지방제도를 정비하였다. 특히 현종 9년의 지방제도는 고려시대 지방제도의 기본 구조가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고려 지방제도의 연혁을 기록하고 있는 『고려사』 지리지가 현종 9년의 지방제도를 기준으로 하여 편성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고려의 지방지배는 지역별로 지배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크게 보면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와 북방변경지대인 양계, 그리고 나머지 5도의 지배방식이 각기 달랐다. 행정적으로 볼 때 경기는 개성부사가 관할하고, 양계는 병마사 예하의 방어주진으로 편성되었으며, 5도는 안찰사가 관할했다. 그것은 수도 인근 지역과 민사적으로 통치하는 지역

그리고 군사적으로 통치하는 지역으로 나누어 전국을 3원적으로 통치했음을 의미한다.

5도의 위치와 관할지역 범위는 양광도가 지금의 경기도 · 충청남북도와 강원도 영서지방의 남부지역 일부를 포함하며, 경상도가 지금의 경상남북도, 전라도가 지금의 전라남북도, 교주도가 지금의 강원도의 영동지방을 제외한 영서지방의 대부분 지역, 서해도가 지금의 황해도 지역이었다. 양계 중 북계(北界)의 관할 범위는 천리장성 이남의 평안남북도 지역이었고, 동계(東界)[14]의 관할 범위는 지금의 영동지방 대부분과 함경남도 정평(定平) 이남 지역이었다. 동계의 해당구역은 다음과 같다.

〈표3-3〉 동계의 해당구역

구 분	소 속 군 현
안변도호부	서곡현(瑞谷縣), 문산현(汶山縣), 위산현(衛山縣), 익곡현(翼谷縣), 고산현(孤山縣), 학포현(鶴浦縣), 상음현(霜陰縣) 화주(和州), 고주(高州), 의주(宜州), 문주(文州), 장주(長州), 정주(定州), 예주(豫州),
순(純)동계 지 역	덕주(德州), 원흥진(元興鎭), 영인진(寧仁鎭), 요덕진(耀德鎭), 진명현(鎭溟縣), 장평진(長平鎭), 용진진(龍津鎭), 영흥진(永興鎭), 정변진(靜邊鎭), 운림진(雲林鎭), 영풍진(永豊鎭), 애수진(隘守鎭)
준(準)남도 지 역	금양현(金壤縣, 속현3 : 臨道 · 雲岩 · 碧山), 흡곡현(歙谷縣), 고성현(高城縣, 속현2 : 豙猴 · 安昌), 간성현(杆城縣, 속현1 : 烈山), 익령현(翼嶺縣, 속현1 : 洞山), 명주(溟州, 속현3 : 羽溪 · 旌善 · 連谷), 삼척현(三陟縣), 울진현(蔚珍縣)

동계의 해당구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안변도호부에서 상음현까지로 안변도호부와 그 속현들로 구성되었고, 둘째는 화주에서 애수진까지로 순동계(純東界) 지역의 군현들로 구성되었으며, 셋째는 금양현에서 울진현까지로 준남도(準南道) 지역의 주현들로만 구성되어 있다.[15] 동계의 관할 하에는 1도호부(都護府) · 9방어군(防禦郡) · 10진(鎭) · 25현(縣)이 있었는데, 25현은 주현이 8곳이고 속현이 17곳이었다. 익령현(양양)은 동계의 행정구역 가운데 준남도지역에 속해 있었다. 동산현은 본래 고구려 혈산현(穴山縣)이었으나 통일신라 경덕왕 때 동산현으로 고쳐서 명주(溟州)의 속현으로 하였던 것인데, 현종 9년(1018년)에 익령현의 속현이 되었다.

고려시대의 군사제도는 중앙에 2군 6위가 있었고, 각 도와 양계에 주현군(州縣軍)과 주진군(州鎭軍)이 있었다. 지방군 가운데 주진군은 국경지역의 방어를 담당하였는데,

지금의 영동지방에 주둔한 주진군의 배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계에서 주진군의 핵심이 되는 상비부대는 초군(抄軍)·좌군(左軍)·우군(右軍)이 있었고, 그밖에 수성(守城)의 임무를 담당한 영색군(寧塞軍)이 있었다. 이들 제(諸)부대는 25명의 행군(行軍)으로 구성되는 대(隊)가 최하의 기본단위부대였고, 그 장(長)이 대정(隊正)이었다. 그런데 대체로 대정 2명에 교위(校尉) 1명의 비례인 것으로 보아 50명 단위의 부대조직이 예상되며, 그 장이 교위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또 별장(別將)의 수가 교위의 약 반인 것을 보면, 100명 단위의 부대조직과 그 장인 별장을 생각할 수 있다. 양양에는 별장 3인, 교위 3인, 대정 9인, 행군 225인, 초군 4인과 좌군 2대, 우군 4대, 영색군 1대가 배치되었다.

〈표3-4〉 영동지방의 주진군 배치표

부대 / 지명	별장 (別將) (人)	교위 (校尉) (人)	대정 (隊正) (人)	행군 (行軍) (人)	초군 (抄軍) (人)	좌군 (左軍) (隊)	우군 (右軍) (隊)	영색 (寧塞) (隊)	공장 (工匠) (梗)	비 고
금 양	2	4	10	250	4	3	3	1	-	통천
고 성	1	4	9	225	1	1	3	2	-	
간 성	1	5	10	250	4	4	2	1	-	
익 령	3	3	9	225	4	2	4	1	-	양양
명 주	5	10	23	575	8	8	8	4	1	강릉
삼 척	1	8	16	400	4	4	9	1	1	
울 진	1	3	8	200	2	2	3	1	-	
계	14	37	85	2,125	27	24	32	11	2	

2) 이민족의 침입과 양양

고려시대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특징은 중국 한족(漢族) 주변에 복속되어 있던 북방민족인 거란·여진·몽골 등이 대두하여 중원의 한족을 압박했다. 고려는 건국 이후 중국의 역대왕조와 친선관계를 유지했으나, 북방민족에 대해서는 서로 대립정책을 취했다. 고려 전·후기의 대외관계는 주로 이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고려말에는 왜구가 침입해 옴으로써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1) 여진족의 침입

고려시대 여진족은 크게 만주 길림성 동북지방에 거주하는 생여진(生女眞)과 그 서남에 거주하는 숙여진(熟女眞)의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다. 전자는 대개 거란의 지배권 밖에서 산만한 부락생활을 하였으며, 후자는 대체적으로 거란에 복속되어 있었다. 나말여초에 이르러 이들은 함경도 일대와 서북으로 압록강 남안(南岸) 및 평북 일대까지 흩어져 살게 되었다. 고려에서는 동북 방면의 여진을 동여진 혹은 동번(東蕃), 서북방면의 여진을 서여진 혹은 서번(西蕃)이라 불렀다.

서여진은 고려와 거란의 양대세력 사이에 끼어 있다가 고려측의 강동 6주 확보로 일단락되었지만, 동여진은 대개 생여진 계통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고려와 많은 접촉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여진의 침구는 서여진보다 동여진에서 많이 나타났다. 특히 동여진의 해구(海寇)는 제2차 거란과의 전쟁 이후 거란의 파상적 공격이 계속되면서 동북변의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더욱 빈번히 침략하였다. 이 해구는 대개 함흥의 해안지방을 비롯하여 골면(骨面, 홍원) · 삼산(三山, 북청)의 해안에 산거하던 여진족으로 화내(化內) · 화외(化外)를 막론하고 때로는 바다로 나와 동해안 지방을 침범하기도 하였다. 고려에서는 이러한 동여진의 움직임에 대비하여 현종초부터 진명구(鎭溟口, 원산)에 과선(戈船) 75척을 건조하여 해구를 대비하기도 하였고, 각지에 도부서(都部署)[16]를 설치하여 동여진의 해구에 대해 강력한 무력적 토벌을 가하였다.

동여진의 해구는 현종 2년(1011년) 8월에 100여 척의 배를 타고 경주에 쳐들어 온 것이 기록에 나타난 최초라 할 수 있다. 양양에는 현종 20년(1029년) 5월에 동여진 400여인이 동산현을 침구(侵寇)하였다. 같은 해 7월 동여진의 해구는 삭방도의 등주(登州)와 명주 관할 내의 삼척, 상음, 학포, 파천, 협곡, 금양, 벽산, 임도, 운암, 환가, 고성, 안창, 열산, 간성, 익령, 동산, 연곡, 우계 등 19개 현(縣)을 침범하였는데, 국가에서는 이들 군현의 주민들이 해구의 소란을 겪었다고 하여 특별히 조세를 면제해 주었다.[17] 동여진의 해구는 숙종 2년(1097년)에 이르기까지 20여 회에 걸쳐 침범하였는데, 그 피해지역은 문천 · 덕원 · 안변 · 통천 · 고성 · 간성 · 양양 · 강릉 · 삼척 · 평해 · 흥해 · 청하 · 영일 · 경주 등 동해연안 일대였다.

이들 해구는 우리나라 동해안 뿐 아니라 일본의 대마도(對馬島)·일기도(一岐島)와 북구주(北九州) 연안에까지 출몰하였다. 동여진의 해적선단은 때로는 100여 척 혹은 50여 척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였다. 동여진의 침탈 상황의 실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사가 참조된다.

> ○ 적선(敵船)의 길이가 혹 12심(尋, 1尋은 8尺) 혹은 8~9심(尋)이 되며, 한 배의 노(櫂)는 3~40개나 된다. 배에 탔던 5~60인 또는 2~30인이 힘을 뽐내며 뛰어 오르면, 그 다음에는 궁시(弓矢)를 들고 방패를 진자가 7~80명 가량 서로 따르는데, 이런 것이 1~20대(隊)나 된다. 이들은 산에 오르고 들을 건너 소와 말·개를 잡아먹으며, 노인과 어린 아이는 모두 베어 버리고 장건한 남녀는 몰아서 배에 실은 것이 4~500명이나 된다. 곡식 쌀을 운반해 간 것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조야군제(朝野群載)』卷20, 〈태제부해(太宰府解)〉 언상도이국적도혹격취혹충각장심(言上刀伊國賊徒或擊取或充却狀尋)]
>
> ○ 전투할 때는 각자가 방패(干)를 지닌다. 앞에 진(陣)에 있는 자는 창(槍)을 갖고, 다음 진(陣)의 자는 큰 칼을 가지며, 그 다음 진의 자는 활과 화살을 가진다. 화살의 길이가 1척여(尺餘)나 되고, 쏘는 힘이 매우 맹렬하여 방패를 뚫고 사람을 맞춘다.(『소우기(小右記)』, 관인(寬仁) 3년 4월 25일 임자조)

위의 자료는 여진 해구(海寇)의 병선 규모와 그들의 잔학상, 그리고 그들의 전진법(戰陣法)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양양지방에 침입한 여진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2) 거란족의 침입

거란은 태조 25년(942년) 고려에 사신을 보내어 교빙을 요청했으나, 태조는 이를 거절했고 나아가 〈훈요10조(訓要十條)〉에서도 거란을 '금수(禽獸)의 나라'로 단정하여 경계하도록 했다. 그 후 역대왕은 이러한 태조의 반거란 정책을 계승했다. 정종(定宗)은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30만의 광군(光軍)을 조직했고, 광종(光宗)은 서북지역에 여러 성을 쌓아 거란에 대한 경계를 엄하게 했다. 또한 이 무렵 발해의 유민들은 압록강 중류

지역에 정안국(定安國)을 세우고 송 · 고려 등과 통교하면서 거란을 적대시했고, 송과 연합하여 거란을 협공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에 큰 위협을 느낀 거란은 배후의 강적인 고려를 견제하기 위해 성종 5년(986년)에 먼저 압록강 중류 지역의 정안국을 쳐서 멸망시키고, 동왕 10년(991년)에 압록강 하류의 여진족을 경략한 후 고려를 침략하기 시작했다.

거란과의 전쟁은 성종 12년(993년)에 거란이 소손녕(蕭遜寧)을 장수로 삼아 고려에 침입하여 옴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 현종 원년(1010년)과 현종 9년(1018년)에 또 침입해 왔으나, 강원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

강원도와 거란족이 직접적인 접촉을 갖게 된 것은 몽골과의 전쟁이 있기 직전인 고종 때였다. 원래 이들은 금나라 말에 혼란한 틈을 타 일어난 오합지중(烏合之衆)으로 고종 3년(1216년)에 '대요수국' (大遼收國)이라 하였다. 그러나 몽골군에게 공격을 당하여 형세가 불리해진 거란족은 압록강을 건너 저항이 약한 고려를 침입하게 되었다.

거란군의 한 갈래는 장단 · 적성지방을 거쳐 동주(東州, 철원)를 함락하고 다시 남하할 기세를 보였다. 그때에 최충헌은 국왕에게 아뢰어 전군병마사(前軍兵馬使) 최원세(崔元世)를 중군병마사(中軍兵馬使)에, 상장군(上將軍) 김취려(金就礪)를 전군병마사(前軍兵馬使)에 임명하여 진격케 하였다. 동으로 향하던 거란군이 양평을 거쳐 원주로 진입하자 이곳 지방민이 합세하여 적을 물리쳤다. 적은 일단 횡성으로 물러나 있다가 다시 원주를 공격하였다. 오랫동안 대치하며 9번이나 힘써 싸웠지만 원주성은 마침내 함락되었다. 원주에는 양평 방면에서 내려온 거란군들까지 모여 그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원주에 머물던 거란군은 김취려가 이끄는 관군에 의해 격퇴되었다. 김취려는 이들을 원주와 충주 사이에 있는 법천사(法泉寺)까지 추격하여 300여 급을 참획하였고, 제천 박달재에서 또 크게 이겼다. 제천 박달재에서 패배한 거란군은 평창을 거쳐서 대관령을 넘어 강릉을 점령하였다.

당시 영동지방의 피해는 막심하였다. 강릉에 들어온 거란군은 수개월에 걸쳐 노략질하면서 가옥을 불태우고 주민을 마구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증수 임영지』에 의하면, 강릉부민(江陵府民) 중에는 산성(山城)에 피난했다가 거란군의 방화로 죽기도 하였고, 문벌이 높던 집안사람들은 약탈에 못 견디어 배를 타고 무릉도(武陵島, 울릉도) 방

면으로 가다가 뱃길에 익숙하지 못해 바다에 빠져 죽기도 하였으며,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선에 가서 굴속에 피했다가 모두 굶어 죽기도 하였다.

거란군은 강릉에서 북쪽으로 말을 몰아 등주(登州, 안변)까지 이르렀는데, 양양에서부터 금양군(金壤郡, 통천)에 이르기까지 가는 곳마다 남아난 짐승이 없었고 유혈이 천리를 뒤덮었다고 한다. 그러나 양양을 비롯한 영동지방 일대에서 거란군을 격퇴했다는 기록은 찾아지지 않는다. 조충(趙沖)·김취려(金就礪)가 지휘하는 고려군이 고종 5년(1218년)에 그들을 쫓아 평양 동쪽에 있는 강동성(江東城)에 그 주력부대를 몰아넣고 몽골군 및 동진군과 힘을 합쳐 성을 함락함으로써 거란군이 완전히 소탕되었다.

(3) 몽골의 침입

고려가 몽골과 최초로 접촉하게 된 것은 몽골에게 쫓겨오는 거란인을 함께 협공하면서부터다. 이러한 일이 있은 이후 몽골은 고려에 대한 은인으로 자처하고 매년 고려로부터 공물(貢物)을 취하여 갔다. 그런데 그 요구가 지나치게 무거운 것이었기 때문에[18] 고려가 이에 불응하자 이를 계기로 고려와 몽골과의 사이는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후 몽골의 사신 저고여(著古與)가 고려로부터 귀국하는 도중에 살해된 일을 구실로 드디어 고종 18년(1231년)에 제1차 침입을 하여 오게 되었다. 몽골은 전후 30년 동안 6차례의 침입을 해왔다.

몽골 침입 때 영동지방이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제4차 침입 때의 일이었다. 몽골은 고종 40년(1253년) 7월 야굴(也窟)을 원정군의 원수로 임명하고 아무간과 홍복원을 부장으로 삼아 고려를 침공해 왔다. 당시 고려는 동계와 북계를 비롯하여 거의 각지가 병란을 입었다. 몽골군은 고려의 청야작전(靑野作戰)으로 말미암아 무인지경이 되다시피한 서북계의 남로를 통해 7월 15일에 서경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부대를 동군(東軍)과 서군(西軍)으로 나누어 몽케칸의 동생인 술지우트[송주(松柱)]가 지휘하는 동군은 서경에서 동북계의 화주－안변－동주－춘주－광주를 잇는 통로를 따라 고려 영내의 동부 내륙지역을, 원수 야굴이 직접 지휘하는 몽골군 본대인 서군은 서경에서 황주－봉주－평주－개경을 잇는 통로를 따라 고려 서북계로부터 서북 내륙 일대에 이르는 지역을 종

단하면서 유린하려고 하였다.

몽골군의 일부는 춘주성(春州城, 춘천)에 진격하였는데, 당시 춘주성에는 안찰사 박천기(朴天器)와 문학 조효립(曺孝立)이 춘주와 인근 제읍의 군민을 거느리고 방어에 임하고 있었다. 몽골군은 춘주성 주변에 2중의 목책(木柵)을 구축하고, 목책 둘레에 한 길이 넘는 참호를 파서 성내의 고려군이 불시에 성밖으로 출진하여 반격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몽골군의 포위공격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물이 모두 말라 마실 물이 고갈되자 소와 말을 잡아 피를 마시는 형편이었다. 안찰사 박천기는 9월 중순에 600여 명의 결사대를 조직하여 몽골군의 포위를 돌파하려 했으나 몽골군이 파놓은 참호 때문에 전원이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춘주성을 함락한 몽골군은 최후까지 저항하는 성내의 군민 300여 명을 살육하였다.

한편 동북면에서 남하한 술지우트[송주(松柱)]의 동군은 9월에 등주(登州, 안변)를 포위 · 공격하고, 10월에는 금양성(金壤城, 통천) 방면의 동해안을 따라 내려왔다. 당시 양주(襄州, 양양)의 부병(府兵)과 부민(府民)들은 결사 항쟁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10월 22일 양주성은 함락되었고, 부병과 부민은 몰살당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양양 사람들 중에는 권금성(權金城)[19]과 같은 천험의 요새에 피난하기도 하였다. 이때 양주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으나 국가에서는 전쟁에 패했다고 고종 44년(1257년) 읍호를 격하하여 덕녕(德寧)이라 하고 감무(監務)를 두었다. 그러나 3년 후에는 다시 양주로 읍호를 복구하고 지양주사(知襄州事)를 두었다.

(4) 왜구의 침입

왜구의 침입이 처음 보이는 것은 고종 10년(1223년)에 "왜가 금주(金州, 김해)를 노략질하였다"는 기사이다. 왜구는 충정왕대(1349~1351년)부터 본격적으로 창궐하기 시작하여 공민왕대(1351~1374년)를 거치면서 점차 침략 횟수가 빈번해졌다. 고려말 왜구의 침입 횟수는 고종 10년(1223년)부터 공양왕 4년(1392년)까지 169년간 519회에 달하였다. 그 가운데 왜구가 본격적으로 창궐하기 시작한 충정왕 2년(1357년)부터 42년 동안은 506회로 연평균 12회에 달한다. 우왕 연간에는 연평균 27회의 놀라운 숫자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극심하였던 우왕 9년(1383년)에는 50회에 달하여 월 평균 4회를 넘고 있다.

왜구의 규모는 적을 때에는 20척, 많을 때는 500여 척에 이르는 대선단을 이루고 침입하였다. 왜구의 인원수를 살펴보면, 공민왕 13년(1387년) 5월에 왜적 3,000명을 진해현에서 대파한 기록이 있고, 우왕 5년(1379년) 5월에 기병 700명과 보병 2,000명의 침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규모로 미루어 볼 때 왜구는 단순한 해적의 오합지졸이 아니고 그 배후에 유력한 토호가 있어 직접 조종했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조종자가 대마도주 종씨(宗氏)와 일기도주(壹岐島主) 지좌씨(志佐氏), 서부일본의 거추(巨酋) 주방(主防)의 대내씨(大內氏), 구주 풍후(豊後)의 대우씨(大友氏) 등이었다.

당시 왜구가 약탈하고자 한 주된 대상은 미곡(米穀)이었다. 왜구가 주로 세미(稅米)를 운반하는 조운선(漕運船)과 이를 보관하는 조창(漕倉)을 습격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따라서 왜구는 배를 타고 다니며 조운선을 습격하였고, 해상에서 약탈이 어려울 때에는 해안의 조창을 습격하여 미곡을 약탈했다. 왜구는 곡물뿐만 아니라 고려의 민인들을 노략해 가기도 하였다. 왜구들이 민인을 노략한 것은 우선 그들을 노비로 삼아 값싼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노예로 팔거나 고려정부로부터 적당한 몸값을 지불 받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그 외에도 노를 젓는 일이나 배의 잡역에 동원하려는 것도 있었다.

이러한 왜구 침입의 피해는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 왜구의 침입으로 '연해지방에 사는 백성들이 고향을 등지고 수 백리 내륙지방으로 도피하여 산다' 거나 혹은 '수 천리에 달하는 비옥한 들이 왜구의 약탈이 시작된 후 방치되어 들판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국토는 어염(魚鹽)과 목축, 농산의 이익을 잃을 정도' 였다고 한다.

처음에 왜구는 남해안 일대를 주로 침입해 왔으나 14세기 중엽 충정왕대에 이르러서는 그 활동범위를 서해안까지 확대하여 갔다. 공민왕 21년(1372년)에 이르러 왜구의 침입이 더욱 극심해지자 고려 조정에서는 전라도의 조운을 폐지하고 육운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왜구들은 서남해안에서 더 이상 조운선의 탈취가 불가능해지자 동해안 일대에 집중적으로 출몰하기 시작하였다. 왜구는 4월 15일에 동해안의 진명창(鎭溟倉)을 약탈하였고, 6월 6일에 강릉부와 영덕 · 덕원을 침범했다. 이때 이춘부(李春富)의 아들 이옥

(李沃)이 이춘부가 신돈의 일당으로 처단된 후 그 죄로 인해 강릉부 관노로 편입되어 있었는데, 이옥이 용감히 싸워 왜구를 격퇴함으로써 강릉일대를 재난으로부터 구해냈다.

왜구는 북상을 계속하여 6월 26일에 동계의 안변 등지를 침범하여 부녀자를 잡아가고 창고의 미곡 1만여 석을 약탈해 갔다. 왜구가 공민왕 23년(1374년) 6월 양양에 침범했을 때에는 아군이 적 100여 명을 베었다. 이와 같이 공민왕 21년(1372년) 이후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왜구의 침입이 빈번해진 것은 이전에는 왜구가 주로 남해안과 서해안 일대에 침입하여 조운선을 탈취하거나 연해 지역을 약탈하면서 개경으로 접근하는 것이 통례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려가 조운을 폐지하고 조세운송을 육운으로 전환함에 따라 식량의 탈취가 어려워지자, 왜구들이 서해안과 동해안 양방면으로 분산하여 직접 연해의 고을이나 내륙으로 상륙하여 약탈을 자행하였던 것이다.

왜구는 우왕 7년(1381년) 2월에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영해부를 불살랐고, 3월에 강릉도(江陵道)에 침입하였다. 이에 고려 조정에서는 첨서밀직 남좌시(南佐時)와 밀직부사 권현룡(權玄龍)을 현지로 보내 왜구를 격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때 강릉도에 크게 흉년이 들어 왜구 방어에 어려움이 많자, 고려 조정에서는 동지밀직 이숭(李崇)으로 하여금 교주도의 군사를 거느리고 토벌작전을 지원하게 하였다. 그러나 왜구는 동해안의 송생(松生) · 울진 · 삼척 · 평해 · 영해 · 영덕 등지에 침입하여 삼척현을 불질렀다. 이에 강릉도부원수 남좌시는 조정에 "왜구가 삼척 · 울진에 침입하여 오근(吾斤)과 답곡(沓谷)의 창고에 있는 곡식을 탈취하려 했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퇴각하였습니다. 지금 굶주린 백성들을 징집하여 이곳을 방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컨대 얼마간의 양곡을 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갚도록 하기 바랍니다"고 보고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또 강릉도조전원수(江陵道助戰元帥)는 조정에 "교주도에서 선발한 병사들은 모두 허약하여 쓸 수 없기 때문에 보병은 이미 다 보내 버렸습니다. 연호군(烟戶軍)을 제외하고 먼저 한산관(閑散官)을 선발하며 또 삭방도의 기병(騎兵) 200명을 파견케 하여 돕게 하기 바랍니다"라고 보고하여 승낙을 받음으로써 동해안지역의 방어태세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우왕 8년(1382년) 3월에 왜구가 삼척 · 울진 · 우계(羽溪, 강릉) 등 동해안 일대를 침입해 왔으나 강릉도 상원수 조인벽(趙仁壁)과 부원수 권현용(權玄龍)이

왜구와 싸워 적 30명을 베었다. 5월에도 왜구는 영춘현과 회양부 등지를 침입해 왔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왜구는 동해안 일대에서의 침입이 계속 실패하자 우왕 9년(1383년)부터 다시 대규모 선단을 동원하여 먼저 남해안 일대를 공격한 뒤에 서해안으로 북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지(鄭地, 1347~1391년)가 이끄는 고려 선단 47척에 의해 우왕 9년 5월 관음포에서 왜선 17척이 침몰당하고 왜구 2,400여 명이 섬멸됨으로써 왜구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관음포 전투 이후에 왜구는 침입의 양상을 바꾸어 내륙지방으로의 침입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이해 6월부터 단양 · 제천 · 주천 · 평창 · 횡천 · 영주 · 순흥 등 소백산맥과 태백산맥 주변의 마을을 침입하였다. 이에 고려 조정은 왕안덕(王安德)을 양광도 조전원수(楊廣道助戰元帥)로 임명하여 내륙으로 침투하는 왜구를 대적하게 하고 전의령(典儀令) 우하(禹夏)를 독찰사(督察使)로 경상도에 파견하여 왜구를 격파하도록 하였다.

고려정부는 왜구에 대한 강공작전을 통하여 해안지대와 내륙 각지에 대규모로 침입해 오는 그들의 기세를 꺾는 데에는 일단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소규모의 선단으로 불시에 출몰하는 왜구의 침입을 근절시키지는 못하였다. 이에 고려는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하여 그들의 근거지를 말살시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리하여 창왕 원년(1389년)에 경상도원수 박위(朴葳)가 병선 100여 척을 거느리고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직접 정벌하여 적선 300척과 가옥을 불태우고 붙잡혀간 우리나라 사람 100여 명을 구하여 돌아오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3) 고려말 매향(埋香)과 양양

고려 말엽을 전후한 시기는 우리 민족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기 중의 하나이다. 이 '전환기' 라는 인식이 6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당시에 이루어진 역사발전을 차분하게 파악함으로써 얻은 결론일 뿐이다. 그러나 당시의 실제 상황은 커다란 민족사적 위기였다고 할 수 있다. 위기를 맞게 된 원인도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 간단치 않다.

고려는 40여 년 동안의 몽고와의 전쟁 끝에 원종 11년(1270년) 고려와 원 사이에 강화가 체결되고 원(元)의 요구에 따라 출륙환도(出陸還都)했다. 이는 고려가 원제국의 일

부로 포섭되어 정치 · 경제 · 사회적으로 갖가지 영향과 간섭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후 고려의 지배체제는 원의 군사 · 정치적 지원 아래에서만 유지될 수 있었다. 집권세력의 창출이나 사회 경제의 여러 측면에도 원(元)이라는 외세가 크든 작든, 직 · 간접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고려의 지배층들은 권력이 원실(元室)과의 강한 정치적 결속을 통해서만 보장된다는 현실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는 원제국을 완성시킨 세조의 외손자로서, 또 무종(武宗) 옹립의 공신이 되어 부왕(충렬왕)과 그 측근세력을 누르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충선왕이 원 간섭기 동안의 고려왕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원의 정치적 지원을 받기 위해 고려의 왕실을 비롯하여 지배층들은 상당 기간 원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였다. 정부나 지배층은 이러한 재정 수요를 피지배층에 대한 수탈 강화로 해결하고 있었다. 부세 수취에서는 조(租) · 포(布) · 역(役)의 3세 외에 상요(常徭) · 잡공(雜貢)이 부과되었고, 그 외에 과렴(科斂), 공물의 선납(先納) · 대납(代納) 등으로 민의 부세 부담이 과중되었다.

게다가 14세기 이후 고려정부는 원과의 전쟁으로 인해 황폐된 토지를 개간한다는 명분과 국가재정 수입의 확대를 위해 공신들이나 관료들에게 사패(賜牌)를 지급하여 한지(閑地)나 진전(陳田)을 개간하도록 한 사급전제(賜給田制)를 시행하였다. 사급전제는 당시 국왕들이 측근정치를 시행하면서 거기에 참여하였던 정치세력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도 이용되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12세기 이래의 대토지 집적현상인 농장(農莊)이 이때에 크게 확대되었다. 이들은 한지나 진전의 개간뿐만 아니라 일반 민의 소유토지를 탈점하는 방식으로 토지집적을 가속화하였다.

고려가 원의 간섭을 받게 된 이후 민의 동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유민(流民)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시기에 대규모의 유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대원(對元)관계에서 오는 정치적 파행과 그로 인한 농민 수탈의 가중, 부세수취의 구조와 그 운영에서 오는 수탈 심화, 대토지 소유의 발달과 그로 인한 농민경리의 영세화 등을 들 수 있다.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중세사회에서 고향의 토지에 안착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대규모로 유망하였다는 것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위기였다. 이러한 환경의 영향으로 이 지역의 주민들은 미륵신앙에 몰입하게 되

고, 천년 후의 극락세계를 염원하며 포구에 향을 묻는 매향(埋香)의식이 확산되었다.

매향을 매개로 미륵과 연결되기를 발원하고 있는 매향의식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의 불교의식이다. 매향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충선왕 원년(1309년)에 건립된 「삼일포매향비」이다. 원래 이 비는 삼일포의 남쪽 호반에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지금은 비석이 없어져 찾아볼 수 없고 비문의 탁본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 비의 앞면에는 강릉도존무사 · 지강릉부사 · 강릉부판관과 동해안 8개 군현의 부사(副使) · 현령(縣令) · 현위(縣尉) · 감무(監務)가 그 지역의 승려 · 주민과 함께 발원하고 1,500개의 향나무를 묻었다는 내용이, 뒷면에는 매향한 9개 지역의 명칭과 묻은 향나무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 매향한 지역과 숫자는 평해현 해안사(海岸寺) 동구(洞口)에 100조, 삼척현 맹방촌정(孟方村汀)에 150조, 울진현 두정(豆汀)에 200조, 양주(양양) 덕망산(德望山)에 100조, 강릉 정동촌정(正東村汀)에 310조, 동산현 문사정(文泗汀)에 200조, 간성현 공수진(公須津)에 110조, 흡곡현 구말을(摳末乙)에 210조, 압융현 학포(鶴浦)에 120조를 묻었다고 하였다. 이들 지역은 불가(佛家)에서 전해지고 있는 하천수와 해수가 만나는 매향의 최적지라고 하겠다. 그리고 우측면에는 황제와 국왕의 복수(福壽)를 기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중국 황제가 등장하는 것은 당시가 원나라 간섭기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왕만을 언급하거나 국왕조차 언급하지 않은 후대의 매향비와는 다른 현상이다.

매향의 주체는 시대에 따라 그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동해안에서의 매향사례는 지방수령이 적극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후 시대 흐름에 따라 민중적 발원형태로 전환되는 매향의 전반적 추이에 좋은 대조가 되고 있다. 가령 강릉도존무사 이하 인근의 9개 지방 수령들이 매향에 동원되었다는 것과 전답의 시납(施納)까지 지방관이 출연(出捐)한 것은 그러한 사실을 잘 말해준다. 그 이유는 불교계의 퇴락에도 있었을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당시의 사회 동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20]

양양지방에는 양양부 북쪽 36리에 있는 덕망산에 100조, 양양부 남쪽 45리에 있는 동산현 문사정에 200조의 향나무를 묻었다. 이들 지역이야말로 불가(佛家)에서 전해지고 있는 하천수와 해수가 만나는 매향의 최적지라고 하겠다.

3. 양양지방의 근세사

1) 조선전기의 양양

(1) 조선왕조의 성립과 양양

조선시대 군현제 정비는 태종대를 전후한 15세기에 이루어졌다. 그것은 고려의 다분히 신분적이고 계층적인 군현체제를 명실상부한 행정구역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속현과 향 · 소 · 부곡 등 임내(任內)의 정리, 규모가 작은 현의 병합, 군현 명칭의 개정 등 지방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을 단행한 것이었다. 조선시대의 군현은 토지와 인구의 규모에 따라 주 · 부 · 군 · 현으로 구획되었고, 거기에 대응하여 부윤(종2품) · 대도호부사(정3품) · 목사(정3품) · 부사(종3품) · 군수(종4품) · 현령(종5품) · 현감(종6품)이 파견되었다.

양양은 태조 6년(1397년)에 태조 이성계의 외향(外鄕)이라 하여 종3품의 읍격(邑格)인 도호부로 승격되었고, 태종 16년(1416년)에 양양으로 개칭되어 오늘날까지 그 이름을 잇고 있다. 광해군 10년(1618년)에 역난(逆亂)에 연루되어 양양현으로 강등되었고, 인조 원년(1623년)에 양양도호부로 복구되었으나 숙종 14년(1688년)에 역난으로 재차 양양현으로 강등되었다가 숙종 23년(1697년)에 양양도호부로 복구되었다. 정조 7년(1783년)에 역적 이경래(李京來)가 양양 임천리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라 하여 양양현으로 강등되었다가 정조 16년(1792년)에 양양도호부로 복구되었다.

강원도의 도명은 태조 4년(1395년)에 도내의 거읍(巨邑)인 강릉의 '강(江)' 자와 원주의 '원(原)' 자를 취하여 명명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강릉과 원주의 읍호 승강(昇降)에 따라 도명이 무려 10여 차례의 변경과 복칭이 반복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불효(不孝) · 패륜(悖倫) · 역모(逆謀) 등 강상(綱常)에 위배되는 중죄인이 발생하였을 때 그 죄인 뿐 아니라 그 지방 군현의 등급까지 강등하였기 때문이다.

현종 8년(1667년)에 강릉지방에서 박귀남(朴貴男)이라는 사람이 전염병이 걸리자 그의 처와 딸, 사위가 공모하여 그를 산곡(山谷)에 생매장한 일이 발각되어 딸과 사위는

처형되었으며, 부사는 파직되고 강릉대도호부는 강릉현으로 강등되었다. 그리하여 강원도는 강릉의 '강' 자를 빼고 대신 양양의 '양' 자를 취하여 원양도로 개칭되었다가, 9년 후인 숙종 2년(1676년)에는 다시 강원도로 복구되었다. 숙종 9년(1683년)에는 원주에서 강상죄가 발생하자 이번에는 강원에서 '원' 자를 빼고 양양의 '양' 자를 취하여 강양도로 개칭되었으나 동왕 14년(1688년)에 양양이 역적의 태향(胎鄕)이라고 해서 '양' 자를 빼고 춘천의 '춘' 자를 넣어서 강춘도로 개명되었다가, 동왕 19년(1693년)에 이르러 강원도로 복구되었다. 이 같은 읍호(邑號)의 승강(昇降)으로 도명의 개칭은 있었지만, 도명은 대개 10년 이내에 복구되었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양양도호부의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바닷가까지 12리, 남쪽으로 강릉부 경계까지 65리, 서쪽으로 인제현 경계까지 55리, 북쪽으로 간성부 경계까지 45리라고 하였다. 즉 양양은 동서로 67리, 남북으로 110리에 달하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다.

양양도호부는 국방체제상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조선초기의 지방군제를 보면 국초에는 각 도의 변경 · 해안 등의 요충지에 진(鎭)을 두었다. 그러나 세조가 즉위하면서 지방군제는 일대 혁신이 일어난다. 즉 세조 원년(1455년)에 이때까지 북방(평안 · 영안도)의 익군(翼軍)과 남방의 영진군(營鎭軍)으로 2원화되어 있던 군사조직을 북방의 예에 따라 군익도(軍翼道)의 체제로 통일하였다. 이는 각 도를 몇 개의 군익도로 나누고, 각 군익도는 다시 중 · 좌 · 우의 3익으로 편성하여 인근의 여러 고을들을 여기에 소속시킴으로써 하나의 군사단위를 이루도록 한 것이었다. 이것이 2년 뒤에는 다시 진관체제(鎭管體制)로 변경되어 지방군제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 진관체제는 군익도의 중첩성을 지양하고 거진(巨鎭)을 중심으로 주변의 여러 진들을 이에 속하게 하여 하나의 진관으로 편성함으로써 '자전자수(自戰自守)' 하는 독립적인 군사거점의 성격을 갖도록 한 것이었다. 이때 육군만이 아니라 수군도 이러한 진관조직을 갖추었다.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는 강원도의 진관편성은 다음과 같다.

〈표3-5〉 강원도 진관 편성표

병마절도사 및 수군절도사 : 관찰사 겸임(감영=원주)				
육군	진 관	첨절제사	동첨절제사	절제도위
	강릉진관	강릉대도호부사	삼척 · 양양부사, 평해 · 간성 · 고성 · 통천군수	강릉판관, 울진 · 흡곡현령
	원주진관	원주목사	춘천부사, 정선 · 영월 · 평창군수	원주판관, 인제 · 횡성 · 홍천현감
	회양진관	회양부사	철원부사	양구 · 낭천 · 이천 · 평강 · 김화 · 안협현감, 금성현령
수군	진 관	첨절제사	만 호	
	삼척포진관	삼척포첨사	안인포 · 대포 · 고성포 · 울진포 · 월송포 만호	

강원도에서 육군은 강릉 · 원주 · 회양 3진관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각 진 밑에는 부 · 군 · 현에 지방군을 배치하였다. 육군진관은 수령이 겸직하는 첨절제사가 통할하였다. 영동지방은 거진인 강릉에 총사령부격인 첨절제사를 두고 그 아래 삼척 · 양양 · 평해 · 간성 · 고성 · 통천에 기지를 설치하여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로 하여금 통할하게 하였다. 수군진관은 삼척에 삼척포첨사가 겸직하는 첨절제사를 두고 그 아래 강릉의 안인포, 고성의 고성포, 울진의 울진포, 평해의 월송포를 두어 만호로 하여금 통할하게 하였다. 성종 21년(1490년) 안인포의 포구가 얕아지자 이를 양양부 대포[(大浦), 조산]로 이전하였다.

조선전기 진관체제는 국가 방어체제의 근간이었으나 전국적 방위망으로서 그 성립기반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그 규모에 비해 실제 방어에 당하여서는 오히려 무력감을 드러내게 되고 점차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휘계통을 개편하고, 유사시의 부족한 병력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정규군사가 아닌 층까지 동원하여 전쟁에 임하는 이른바 '제승방략(制勝方略)'의 응급적인 분군법(分軍法)이 대두하게 되었다. 이는 유사시에 각 지방의 군사를 제도상 군사직을 겸한 소관수령(所管守令)이 동원 가능한 병력을 인솔하여 미리 할당된 방어지에 가서 대기하되, 중앙에서 파견되는 도원수(都元帥) · 순변사(巡邊使) · 방어사(防禦使) · 조방장(助防將) 등의 경장(京將)과 본도(本道)의 병수사(兵水使)가 각기 그 지휘관이 되는 체제이나 지휘계통의 혼선을 일으키는 등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

(2) 양양도호부의 물산

조선시대 양양지방의 생산물은 『세종실록지리지』·『동국여지승람』·『여지도서』에 수록되어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3-6〉 조선시대 양양지방의 물산내역

구 분	항목	물 산 종 류
세종실록지리지	토의	오곡, 뽕나무, 삼〔마(麻)〕, 왕골, 감, 배, 밤, 닥나무, 옻〔칠(漆)〕
	토공	꿀〔봉밀(蜂蜜)〕, 밀〔황랍(黃蠟)〕, 잣〔송자(松子)〕, 호도, 지초(芝草), 북나무충영〔오배자(五倍子)〕, 석용(石茸), 여우가죽〔호피(狐皮)〕, 삵괭이가죽〔이피(狸皮)〕, 노루가죽〔장피(獐皮)〕, 대구, 문어, 상어〔沙魚〕, 연어, 전복, 홍합, 숭어, 상곽〔常藿〕, 자리〔석(席)〕, 시우쇠〔정철(正鐵)〕
	약재	인삼, 오미자(五味子), 당귀, 복령(茯苓), 북나무진〔안식향(安息香)〕, 쥐꼬리망초뿌리〔진규(秦艽)〕, 궁궁이〔궁궁(芎藭)〕, 산무애뱀〔백화사(白花蛇)〕, 웅담(熊膽), 병풍나물〔방풍(防風)〕, 다린송진〔백교향(白膠香)〕, 대왕풀〔백급(白芨)〕, 모란뿌리껍질〔목단피(牧丹皮)〕
	토산	가는 대〔소(篠)〕
동국여지승람	토산(土産)	모시〔저(苧)〕, 철(鐵), 대살〔죽전(竹箭)〕, 잣〔해송자(海松子)〕, 오미자, 지치〔자초(紫草)〕, 인삼, 지황(地黃), 복령(茯苓), 산무애뱀〔백화사(白花蛇)〕, 꿀, 김〔해의(海衣)〕, 미역〔곽(藿)〕, 전복, 홍합, 문어, 대구〔대구어(大口魚)〕, 송어, 연어, 은어〔은구어(銀口魚)〕, 황어(黃魚), 방어, 고등어〔고도어(古刀魚)〕, 광어, 농어〔노어(鱸魚)〕, 숭어〔수어(水魚)〕, 쌍족어(雙足魚), 해삼, 송이〔송심(松蕈)〕
여지도서	토산(土産)	모시〔저(苧)〕, 철, 대살〔죽전(竹箭)〕, 잣〔해송자(海松子)〕, 인삼, 오미자, 지치〔자초(紫草)〕, 지황, 복령, 꿀〔봉밀(蜂蜜)〕, 백화사(白花蛇), 김〔해의(海衣)〕, 말린미역〔조곽(早藿)〕, 생전복〔생복(生鰒)〕, 홍합, 문어, 대구〔대구어(大口魚)〕, 송어, 연어, 은어〔은구어(銀口魚)〕, 황어(黃魚), 고등어(古刀魚), 광어, 농어, 숭어〔수어(秀魚)〕, 쌍족어, 해삼, 송이

양양지방의 물산은 『세종실록지리지』에는 토산(土産)·토공(土貢)·약재(藥材)·토의(土宜) 항목에, 『동국여지승람』에는 토산 항목에, 『여지도서』에는 물산 항목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의 토의는 해당 지역의 경종(耕種)에 적합한 작물을, 토산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물을 가리킨다. 약재항목 또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물을 기

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토의 · 약재 · 토산은 해당 지역에서 산출되는 산물이라는 점에서 동일류라 할 수 있다. 토공항목은 각 군현에서 중앙각사에 납부하는 공물(貢物)을 기록한 것이다.

양양지방에서 생산된 주요 곡물은 오곡(쌀 · 보리 · 콩 · 조 · 기장)이었고, 바다에서는 문어 · 대구 · 송어 · 연어 · 은어(銀魚) · 황어 · 방어 · 고등어 · 광어 · 농어 · 숭어 · 쌍족어 등의 어류, 홍합 · 전복 등의 패류, 김 · 미역 · 해삼 등의 해산물이 어획되었다.

양양지방의 물산은 곡물류, 수피류, 과실류, 수산물, 수공업품 및 원료, 약재 등을 망라하고 있다. 이들 품목은 산림천택(山林川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수렵물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밖에 이를 가공한 수공업품과 약간의 농업생산물이었다. 이것의 용도는 일상생활 전반에 필요한 물품들이었다.

이상의 물산은 국가에서 공물의 형태로 수취하였다. 조선전기의 공물은 국가재정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의 중요한 재원이었다. 이들 공물은 관에서 비납(備納)하는 관비공물(官備貢物)과 각관(各官)의 민호로부터 수취 · 상납하는 민비공물(民備貢物), 그리고 민호(民戶) 중에서 종사하는 생업에 따라 특정한 물자의 규정된 양을 생산 · 포획 · 제조하여 상납하는 정역호(定役戶)를 통해 조달하였다.

관비공물 중 과실과 지지(紙地) · 전칠(全漆) · 지율(芝栗)은 각 군현에서 과원(菓園)을 두어 지방관부의 경비와 공납에 충당하였다. 『경국대전』에 수록되어 있는 재식(栽植) 조항은 각 군현에서 공물상납에 대비하여 마련된 것이었다. 관비공물과 정역호가 담당하던 공물은 시대의 추이와 함께 점차 일반 민호에게 전가되었다.

대부분의 공물은 각 군현의 민호(民戶)에서 수취하였다. 그런데 공물은 각 민호에 일률적으로 분정된 것이 아니라 호의 등급에 따라 분정하였다. 호등의 기준은 점차 인정(人丁)에서 전지(田地)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였다. 소경전(所耕田)의 다과에 따른 5등호제의 원칙이 마련된 것은 세종 17년(1435년)이었다. 이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공물도 이에 준거하여 분정한다는 원칙이 제정되었다.

조선초기 강원도 지역에서의 호별 경작규모 상황을 전해주는 『세종실록』 소재 기사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7〉 강원도의 호별 경영규모의 현황

호등(戶等)	경영규모	호수(戶數)	비율(%)	호등별 추정규모	비율(%)
대 호(大 戶)	50결 이상	10	0.1	75×10=750결	1.18
중 호(中 戶)	20결 이상	71	0.6	35×71=2,485결	3.91
소 호(小 戶)	10결 이상	1,641	14.2	15×1,641=24,615결	38.70
잔 호(殘 戶)	6결 이상	2,043	17.7	8×2,043=16,344결	25.70
잔잔호(殘殘戶)	5결 이하	7,773	67.4	2.5×7,773=19,433결	30.70
계		11,538	100.0	63,627결	100.00

위의 표에서 보듯이 강원도의 호별 경작규모를 보면, 총 11,538호 가운데 50결 이상의 대호가 0.1%인 10호, 20결 이상 50결 미만의 중호가 0.6%인 71호, 10결 이상 20결 미만의 소호가 14.2%인 1,641호, 6결 이상 10결 미만의 잔호가 17.7%인 2,043호, 5결 이하의 토지를 소유한 잔잔호가 67.4%인 7,773호를 차지하고 있다. 즉 10결 이상을 소유한 가호는 전체 가호 가운데 14.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5결 이하의 잔잔호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큰 비율을 점하고 있는 잔잔호야말로 일반 농민층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 가운데에는 이 시기 전형적인 소경영 농민 체제로서의 양민 자영농이 위치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잔잔호층 가운데서도 이 시기의 사회편제에서 기준적 농민층으로 비정할 수 있는 것은 1·2결 정도를 소유 경작하는 양민 자영농이 아니었던가 한다. 그것은 이 시기의 노동생산력 수준만으로 보면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었다. 이 시기의 호구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자연호의 인구수는 평균 4.5명 내지 5.5명 정도였다고 한다. 그것은 호주(戶主) 부부를 중심으로 그 자식 부부와 사위 부부 등 3~4명의 장정(壯丁)을 포함한 혈연가족으로 구성된 가호(家戶)로서, 자체의 노동력으로써 자기 소유지를 경영하는 자영농으로서 하나의 단위를 이룰 수 있는 존재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는 모양과 크기가 천차만별한 전국의 전지를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토지파악의 기본단위를 5결(結) 1자정(字丁)으로 파악 운영하였다. 5결 1자정은 양전(量田) 뿐만 아니라 수취의 기초단위로 기능하였다. 공물 수취에서도 5결 1자정을 단위로 하여 부과하였다. 물론 5결 이상을 소유한 호(대호~잔호)는 하나의 자연호 단위

로 편성되었겠지만, 5결 이하를 소유한 잔잔호의 경우 2가(家) 혹은 3가 이상을 5결로 묶어 하나의 호로 편제하였다.

그런데 5등호제에 준거하여 공물을 분정한 것은 대체적인 기준을 나타낸 것임은 틀림없지만, 호의 대소에 따른 각호의 공물 부담액이라든가 부과율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각 군현의 관리들이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함부로 횡탈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컸었다. 그리고 공물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종류가 있었기 때문에 설사 호의 대소에 준거하여 공물을 분정한다 하더라도 균일한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매우 곤란하였다. 이것이 5등호제의 제도적인 미비점이자 결함이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8결 단위로 묶어 공물을 분정하는 '8결작공제(八結作貢制)'를 시행하였던 것이다.

(3) 교통과 통신

가. 도로와 편의 시설

도로는 예로부터 생산과 유통 등 경제적으로나 정치적 ·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교통체계 중에서 우리 생활에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고려시대에는 도로의 등급을 대로 · 중로 · 소로의 3등급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대로 · 중로 · 소로의 분류 기준, 도로의 현황 등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다. 조선시대 도로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대로 · 중로 · 소로 3등급으로 나누었고, 이를 더 세분하여 대로는 1 · 2 · 3등로, 중로는 4 · 5 · 6등로, 소로는 7 · 8 · 9등로로 각각 나누었다. 전국의 도로망은 모두 서울로 연결되어 있었다. 대로는 서울~개성, 서울~죽산, 서울~직산, 서울~포천에 이르는 4개 도로이고, 중로는 이 4대로와 연결된 개성~중화, 죽산~상주 · 진천, 직산~공주 · 전주, 포천~회양, 서울~양근간이고, 소로는 이들과 연결된 외방의 각종 도로이다.

사방으로 통하는 도로에는 일정한 거리마다 돌무지를 쌓고 장승을 세워 도로의 리수와 지명을 기록한 도로표지가 있었고, 주요도로에는 얇은 돌판을 깔거나 작은 돌, 모래, 황토 등으로 포장을 했다. 그러나 자세한 사항은 지방마다 지형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도로의 거리 표시는 6척(尺)을 1보(步), 360보를 1리(里), 30리를 1식(息)으로 하였다. 도성 내에서의 거리의 기준점은 궁궐문으로 하였고, 각 지방과의 거리 기준점은 성문을 기점으로 하였다. 예컨대 4대문인 숭례문 · 흥인문 · 돈의문까지는 경복궁의 광화문 또는 창덕궁의 돈화문이 그 기점이었고, 전국 각 지방으로 뻗은 의주로(한양~의주) · 우로(右路, 한양~해남) · 중로(한양~통영)와 강화로 이어지는 교통로는 숭례문이 기점이었으며, 관북로(한양~경흥) · 관동로(한양~평해) · 좌로(左路, 한양~봉화, 한양~동래) 등은 흥인문이 기점이었다.

강원도는 전국의 9개 도로 중 2개의 도로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나는 한양에서 다락원(樓院)~만세교~김화~금성~회양~철령을 거쳐 함경도로 가는 제2로이고, 다른 하나는 한양에서 망우리~평구역~양근~지평~원주~안흥역~방림역~진부역~횡계역~대관령~강릉~삼척~울진~평해에 이르는 제3로이다. 양양 사람들이 서울로 갈 때 소동라령(所冬羅嶺)을 넘어서 서울로 갔었는데 험준하여 폐하고, 그후에는 양양부 오색령(五色嶺)을 경유하여 서울로 들어갔으며, 구룡령(九龍嶺)을 경유하여 홍천 송치(松峙)를 지나 서울에 들어가거나 혹은 조침령(阻枕嶺)을 경유하여 춘천의 기린과 홍천 송치를 지나 서울로 들어갔다. 오늘날에는 하루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지만 당시에는 왕복 20여 일이 소요되었다.

전국의 각 도로망에는 곳곳에 원[(院) 혹은 원우(院宇)]이 설치되어 있었다. 원래 원은 공적인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되는 관리나 상인, 일반 여행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치한 것이었다. 이것은 각 군현 내의 관(館)과는 구별된다. 고려시대에는 원이 사원(寺院)에 부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서로 동일시되기도 했다. 물론 개인이 지은 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교통의 요지에 있는 사원이 숙박처의 기능을 하거나 또는 하루 정도 걸리는 지점에 원을 세우고 사원의 이름을 따서 원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조선 건국 직후인 태조 원년(1392년) 9월에 배극렴 · 조준 등은 조선왕조의 기본정책들을 제시한 시무책 22조를 올리는 가운데 "여행자들이 오고 가는데 민가에서 자야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각도(各道) 각주(各州)에 거리를 헤아려 원관(院館)을 수리하여 행려(行旅)를 편하게 하자"는 상소하였다. 이를 계기로 고려시대 이래 사적으

로 운영되던 모든 원은 국가가 관장하게 된다. 조선시대의 원은 고려시대의 사원을 원으로 전환하거나, 개인소유의 주택 또는 누정을 개조한 것이 많았다. 그밖에 관가 또는 개인이 주관해 원을 신축하는 경우도 있었다.

원은 대체로 30리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원은 대개 역(驛)이나 참(站) 부근, 도(渡) · 진(津)의 기슭 및 교량부근, 산고개 및 산밑 계곡 입구, 온천 주변 등에 있었다. 원은 대부분 상인이나 여행자의 숙식소로 존재하였으나, 각도 관찰사가 도내의 여러 고을을 순행할 때 원에서 점심을 먹거나 마필을 교체하고, 신 · 구 감사가 도계(道界) 부근의 원에서 교대하기도 했으며, 국왕이 지방을 순시할 때나 피난길에 묵어가기도 했다. 그리고 과거를 보기 위해 서울로 길 떠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의 원은 공적인 임무를 맡은 관리들이 이용하던 역에 비해 민간인들이 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그 수가 훨씬 많았다.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성종대에는 전국에 1,263개소의 원이 설치되어 있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중종대에는 약 1,310개소의 원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 분포를 보면 경기(117)를 비롯하여 충청도(212), 경상도(468), 전라도(245)에 집중되어 있었다. 강원도에는 성종대에 59개소, 중종대에 64개소의 원이 설치되어 있었다. 조선초기 이래 전국에 걸쳐 많이 설치되어 있던 원은 조선후기로 갈수록 그 기능을 상실해 쇠퇴해 갔고, 그 대신 민간에서 운영하는 점사(店舍)가 점차 그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 강원도의 경우 중종대 64개소에 달하던 원이 18세기 중엽에 와서는 23개소, 19세기 20세기 초에 와서는 20여 개소로 줄어들었다.

점사는 역의 인근에 위치하여 여행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던 일종의 사설 요식업과 여인숙을 겸한 곳이었다. 이것을 보통 '주막(酒幕)'이라 속칭하였다. 주막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서 교통의 요지나 지방관아의 소재지, 또는 역과 역 사이의 인가가 없는 외딴 곳 등 도처에 설치되었다. 양양지역 안에 얼마나 많은 주막이 있었는지는 기록이 없어 정확한 수를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수많은 주막이 산재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도로와 도로를 연결해주는 교량도 중요한 교통의 수단이었다. 여행자에게 교통의 자연적 장애물이 된 것으로는 강과 하천, 그리고 산고개가 있다. 산고개가 여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장애가 되기도 하였지만, 전자에 비해 인명의 손실은 적은 편이었다. 산봉우리와 산봉우리의 허리를 통과하게 되고, 경사가 급한 곳에는 잔도[(棧島) 사닥다리 돌

길]를 가설하여 내왕에 편의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하천에는 징검다리 혹은 외나무다리 · 돌다리 등을 설치하여 교통의 장애요인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양양에는 남대천(南大川), 광정천(廣汀川), 물치천(勿淄川), 강선천(降仙川), 화상암천(和尙巖川), 광천판(廣遷坂), 굴호판(屈湖坂), 덕기원(德耆院)에 교량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비가 일시에 많이 내리거나 장마철에는 가설된 다리들이 물에 떠내려가거나 잠김으로써 교통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4) 통신 체계

조선왕조에서 통신의 기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역(驛)과 봉수(烽燧)였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모든 사람들의 통신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국가의 공적인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 임무는 행정적인 면에서 중앙의 명령을 지방에 하달하고 지방의 사정을 중앙에 보고하는 일이었고, 군사적인 면에서 변방의 군정을 신속하게 중앙에 보고하는 일이었다.

가. 역(驛)

역은 일반적으로 중앙과 지방 사이에 왕명 등 행정 명령을 전달하고, 공물 · 진상 등의 관물(官物)을 운송하며, 국내외의 사신 왕래에 따른 영송과 접대를 담당하였다. 우리나라의 역제는 문헌기록상으로 볼 때 삼국시대부터 비롯되었다. 당시의 역은 군사 명령의 전달, 물품의 수송 등과 같은 통신 및 교통시설로 설치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역제가 전국적인 규모로 설치된 것은 고려시대였다. 고려시대의 역제는 전국의 약 525개에 달하는 역의 관리를 22개 역도(驛道)로 편제되어 있었다. 고려시대 양양은 명주도(溟州道)에 포함되어 있었다. 명주도는 강릉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양양까지, 서쪽으로 대관령을 넘어 평창–횡성까지, 남쪽으로 삼척–울진–평해까지 이어지는 역도로서 관할 역은 28개였다.

조선시대의 역도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되 군현제도의 개편과 함께 새로 정비되었다. 태종대에 와서 고려의 5도 양계 체제를 8도체제로 개편하면서 그에 맞추어 새로이

역을 신설하거나 역도를 재편성하였다. 태종 15년(1415년) 12월에는 이식제(里息制)에 의한 각 역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6척(尺)을 1보(步), 360보를 1리(里), 30리를 1식(息)이라 하고, 10리마다 작은 표식을, 30리마다 큰 표식을 세우며, 30리마다 역을 1개소씩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었다. 산이 높고 험한 지형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국가재정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역과 역 사이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거나 가까운 경우에는 대개 위의 규정에 준하여 역을 증설하거나 옮기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조선시대의 역로는 역도(驛道) · 속역(屬驛)체계로 조직되어 있었다. 역도는 지금의 국도를 예상하면 된다. 역도라는 것은 도로의 상태와 중요도 및 산천의 거리에 따라 수개 내지 수십여 개의 역을 하나로 묶어 역승(驛丞) 또는 찰방(察訪)[21]으로 하여금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전국에 산재한 538개의 역이 44개의 역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강원도 지방의 역도-속역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8〉 세종대의 강원도 역도-속역체계

역도(驛道)	속역(屬驛)
보안도 (21)	보안(춘천), 인남(춘천), 부창(춘천), 원창(춘천), 연봉(홍천), 천감(홍천), 연평(영월), 약수(평창), 평안(평창), 여량(정선), 창봉(횡성), 갈풍(횡성), 오원(횡성), 벽탄(정선), 호선(정선), 안흥(횡성), 유원(원주), 신흥(원주), 양연(영월), 단구(원주), 신림(원주)
대창도 (28)	대창(강릉), 안인(강릉), 진부(강릉), 구산(강릉), 횡계(강릉), 대화(강릉), 방림(강릉), 운교(강릉), 목계(강릉), 고단(강릉), 대강(고성), 고잠(고성), 등로(통천), 낙풍(강릉), 임계(강릉), 동덕(강릉), 인구(양양), 상운(양양), 연창(양양), 강선(양양), 청간(간성), 죽포(간성), 운근(간성), 명파(간성), 양진(고성), 조진(통천), 거풍(통천), 진덕(흡곡)
평릉도 (9)	평릉(삼척), 사직(삼척), 교가(삼척), 용화(삼척), 옥원(삼척), 흥부(울진), 수산(울진), 덕신(울진), 달효(평해)
기 타 (19)	은계(회양), 신안(회양), 화친(회양), 직목(금성), 서운(금성), 창도(금성), 신화(김화), 생창(평강), 임단(평강), 건천(이천), 방천(낭천), 원천(낭천), 산양(낭천), 수인(양수), 함춘(양구), 부림(인제), 마노(인제), 임천(인제), 남교(인제)

세종대의 강원도 역도체계는 보안도(保安道), 대창도(大昌道), 평릉도(平陵道) 등이 있었는데, 여기에 속한 역은 모두 77개였다. 강원도에는 1개 찰방과 3개 역승이 관할하는 4개의 역도가 있었다. 역도체계의 중심도시로는 춘천, 원주, 강릉, 회양, 삼척, 양양

등이었다. 이들 지역은 군사적 거점이었을 뿐 아니라 도호부 이상의 군현이었다. 그리고 역로의 입지는 지역 간 이동이 용이한 하천계곡이나 하천 중상류의 침식분지에 자리잡고 있다.

세종대의 역도체계는 세조대에 이르러 대폭 개편되었다. 세조대의 역도 개편은 세조 3년(1457년), 세조 6년(1460년), 세조 8년(1462년) 등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개편은 주로 기존의 역도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때는 강원도의 역로가 피폐하고 역승의 관품이 낮아 역무를 처리하는데 원활하지 못하다 하여 대창도와 보안도를 합하여 대창도라 칭하고 찰방을 파견하도록 하였다. 2·3차 개편은 역 사이의 거리를 조정하여 재편성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때는 은계도(찰방), 보안도(찰방), 평릉도(역승), 상운도(역승) 등 4개 역로로 개편되었고, 이때 정비된 역로는 『경국대전』에 이르러 4역도 78역으로 확립되었다.

〈표3-9〉『경국대전』의 강원도 역도-속역체계

역도(驛道)	속역(屬驛)
은계도 (19) 회 양	풍전(철원), 생창(김화), 직목(금성), 창도(금성), 신안(회양), 용담(철원), 임단(평강), 옥동(평강), 건천(이천), 서운(금성), 산양(낭천), 원천(낭천), 방천(낭천), 함춘(양구), 수인(양구), 마노(인제), 부림(인제), 남교(인제), 임천(인제)
보안도 (29) 춘 천	보안(춘천), 천감(홍천), 인람(춘천), 원창(춘천), 부창(춘천), 연봉(홍천), 창봉(횡성), 갈풍(횡성), 오원(횡성), 안흥(횡성), 단구(원주), 유원(원주), 안창(원주), 신림(원주), 신흥(원주), 양연(영월), 연평(영월), 약수(평창), 평안(평창), 벽탄(정선), 호선(정선), 여량(정선), 임계(강릉), 고단(강릉), 횡계(강릉), 진부(강릉), 대화(강릉), 방림(강릉), 운교(강릉)
평릉도 (15) 삼 척	동덕(강릉), 대창(강릉), 구산(강릉), 목계(강릉), 안인(강릉), 낙풍(강릉), 신흥(삼척), 사직(삼척), 교가(삼척), 용화(삼척), 옥원(삼척), 흥부(울진), 수산(울진), 덕신(울진), 달효(평해)
상운도 (15) 양 양	연창(양양), 오색(양양), 강선(양양), 인구(양양), 죽포(간성), 청간(간성), 운근(간성), 명파(간성), 대강(고성), 고잠(고성), 양진(고성), 조진(통천), 등로(통천), 거풍(통천), 정덕(흡곡)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은 서울에서 원주~대관령~강릉~울진~평해까지 연결되는 관동로로 불리는 제3로를 중심으로 많은 지선(支線)들이 모여 하나의 역도체계를 형성하였다. 이 가운데 양양의 상운도 소관역은 양양~간성~고성~통천~흡곡에 이어지는 역

로였다. 양양도호부에서 관할하던 역은 상운역, 연창역, 오색역, 강선역, 인구역이었다. 뒤에 미시파령(彌時波嶺) 길을 개착함으로써 오색역은 간성 원암역에 이속되었다. 상운도 소관역들은 모두 소로(小路)에 속해 있었다. 이 역도는 1894년 갑오경장 때까지 존속하였다.

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마(驛馬)였다. 역마는 주로 전국의 목장으로부터 공급받았는데, 항상 부족하여 때로는 주인이 없는 말, 몰수한 난신(亂臣)의 말, 민가의 말을 징발하여 충당하기도 하였다. 이들 역마는 용도에 따라 승마용 기마(騎馬)와 운반용 태마[(駄馬), 卜馬라고도 함]로 구분되었고, 크기에 따라 대마 · 중마 · 소마 또는 상등마 · 중등마 · 하등마로 구별하여 지급되었다. 그리고 역의 등급에 따라 마필수 및 등급의 배속이 달랐던 것으로 파악된다.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전국 40개 역도 535개 역에 5,380필의 말이 있었다. 각 역에는 정해진 수의 말이 있었다. 전국의 역은 9등급으로 나누어져 1등로는 대마(大馬) 8필 · 중마(中馬) 13필 · 소마(小馬) 15필 등 도합 36필을, 2등로는 32필을, 3등로는 28필을, 4등로는 24필을, 5등로는 20필을, 6등로는 16필을 구비하여야 했다. 또한 7등로는 대마 2필 · 중마 4필 · 소마 6필 등 도합 12필을, 8등로는 대마 1필 · 중마 3필 · 소마 4필 등 도합 8필을, 9등로는 대마 1필 · 중마 1필 · 소마 2필 등 도합 4필을 구비하였다. 역의 대부분은 7~9등로에 속하였다. 양양도호부의 역마수는 『여지도서』 역원조(驛院條)에 의하면, 상운역에 대마 3필 · 복마 8필, 연창역에 대마 3필 · 복마 8필, 강선역에 대마 2필 · 복마 4필, 인구역에 대마 2필 · 복마 3필이었다.

이들 말은 이용자의 지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급되었다. 가령 대군(大君) · 의정(議政)에게는 상등마 1필 · 하등마 3필 · 태마(駄馬) 3필을, 정2품 이상 관료에게는 상등마 1필 · 하등마 3필 · 태마 2필을, 종2품 관료에게는 상등마 1필 · 하등마 2필 · 태마 2필을, 3품 이상 당상관에게는 상등마 1필 · 하등마 2필 · 태마 1필을, 6품 이상 관료에게는 중등마 1필 · 하등마 1필 · 태마 1필을, 9품 이상의 관인에게는 중등마 1필 · 태마 2필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부경사신(赴京使臣)과 부사(副使)에게는 상등마 1필과 태마 2필을, 서장관(書狀官)에게는 중등마 1필과 태마 1필을, 종사관(從事官)에게는 중등마 1필과 2명당 태마 1필을 지급하였다. 이 밖에 어사에게는 상등마 1필 · 하등마 1필 · 태마 1필을,

관찰사와 절도사의 명령으로 왕에게 보고하고 돌아가는 자에게는 하등마를 지급하였다.

공무로 출장가는 관인이 역마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각 역에서 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증표인 마패(馬牌)를 제시하여야 하였다. 둥근 모양의 마패 한 면에는 사용자의 품계에 따라 이용한 가능한 마필의 수만큼 말을 새겨 넣었고, 다른 한 면에는 자호(字號)와 주조된 연월(年月)과 '상서원인'(尙瑞院印)을 새겨 넣었다. 다만 왕족이 사용하는 마패는 산유자(山柚子)로 만든 둥근 패로서, 한쪽은 마필수를 새기고 다른 한쪽은 '마(馬)'만 새겨 넣었다. 마패는 상서원(尙瑞院)에서 발급하였는데, 이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병조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였다. 즉 중앙에서는 출장관원의 품계에 따라 병조가 문첩(文帖)을 발급하면 상서원이 마패를 내주었지만, 지방에서는 관찰사와 절도사가 마패를 항상 지니고 있다가 중앙에 보고할 일이 있거나 진상(進上)을 올려 보낼 때 수시로 발급하였다.

역마의 이용은 『경국대전』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1일 3식(90리, 1식은 30리)을 여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만약 이를 어긴 자나 남승(濫乘)·남급(濫給)한 자에게는 장 100·유 3천리에 처하도록 하였다. 또한 역마를 반환하지 않는 자는 장 300·도 3년에 처하도록 하였다.

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경비가 필요로 하였다. 그리하여 각 역에는 토지가 지급되었으며, 역마 충당을 위해 마전(馬田)이 지급되었다. 『경국대전』 호전 제전조(諸田條)의 마전 지급내용을 보면, '대마(大馬)는 7결, 중마(中馬)는 5결 50부, 소마(小馬)는 4결이었다. 긴로[(緊路), 교통량이 많은 역로]이면 급주(急走)에게 50부를 더 주었고, 대마는 1결을 더 주며, 중·소마는 각 50부를 더 준다.' 고 되어 있다. 또 각 역에는 역리(驛吏)와 역노(驛奴)·역비(驛婢)가 있었다. 양양도호부에는 상운역에 역리 154명·역노 30명·역비 29명, 연창역에 역리 270명·역노 130명·역비 70명, 강선역에 역리 192명·역노 7명·역비 8명, 인구역에 역리 70명·역노 81명·역비 61명이 있었다.

나. 봉수(烽燧)

봉수는 변경지방의 긴급한 상황을 중앙 또는 변경의 진영(鎭營)에 알리는 통신수단으로 주로 군사상의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에 거화(擧火) · 봉현(烽峴) · 봉산(烽山) · 봉산성(烽山城) 등이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미 삼국시대에 봉화에 의한 통신법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낮에는 연기, 밤에는 횃불을 사용하여 소식을 알렸는데, 세종 원년(1419년)에 5구분법으로 체계화하였다. 즉 무사시에는 해상과 육상을 막론하고 1개의 홰를 올렸고, 해안의 경우 왜적이 해상에 나타나면 2개의 홰, 해안에 가까이 오면 3개의 홰, 우리 병선과 접전시에는 4개의 홰, 왜적이 상륙할 때는 5개의 홰를 올렸으며, 육지의 경우는 적이 국경 밖에 나타나면 2개의 홰, 변경에 가까이 오면 3개의 홰, 국경을 침범하면 4개의 홰, 우리 군사와 접전하면 5개의 홰를 올리도록 했다. 그후 『경국대전』에 이르러 육상적과 해상적의 구별 없이 무사시에는 1개의 홰, 적이 나타나면 2홰, 경계에 접근하면 3홰, 경계를 범하면 4홰, 접전하면 5홰를 올리도록 했다. 그러나 적이 침입했을 때 안개 · 구름 · 비바람으로 인하여 봉수가 전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화포(火咆)나 각성(角聲) 또는 기(旗)로써 알리거나 봉화대에 상주하는 봉수군이 직접 달려가 다음 봉수에 알리도록 했다.

봉수에는 경봉수 · 연변봉수 · 내지(內地)봉수 3종류가 있었다. 경봉수는 전국의 모든 봉수가 집결하는 중앙봉수로서 서울 목멱산[(木覓山), 남산]에 위치하여 목멱산봉수 또는 남산봉수라고도 불렀다. 연변봉수는 해륙(海陸)변경의 제일선에 설치되었으며, 내지봉수는 연변봉수와 경봉수를 연결하는 중간봉수로 수적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각 봉수대의 거리는 산세와 운무(雲霧) 등 자연조건에 의해 차이가 나기도 했지만, 대체로 연변봉수[연대(烟臺)]는 10~15리, 내지(中間)의 주수(晝燧)지역은 20~30리, 야화(夜火)지역은 40~50리 정도가 기준이었다.

전국 봉수망은 5대로가 있었는데, 여기에 간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제1로는 영안도 경흥으로부터 강원도를 거쳐 아차산에 이르러 서울 목멱산 제1봉에, 제2로는 경상도 동래로부터 충청도를 거쳐 광주 천림산에 이르러 서울 목멱산 제2봉에, 제3로는 평안도 강계로부터 내륙으로 황해도를 거쳐 서울 무악동봉에 이르러 목멱산 제3봉에, 제4로는 평안도 의주로부터 해안을 거쳐 서울 무악서봉에 이르러 목멱산 제4봉에, 제5로는 전라도 순천으로부터 충청도를 거쳐 양천 개화산에 이르러 목멱산 제5봉에 각각 응하는 것이었다.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조선전기 전국의 총 봉수대 수는 약 610개소에 달하였다. 이 가운데 강원도의 봉수대는 48개 처가 있었다. 강원도에는 함경도 경흥으로 연결되는 본선과 동해안 지대에 간선이 있었다. 강원도 봉수의 본선은 함경도 안변의 철령을 통해 전해오는 봉수를 회양~평강을 통하여 경상도 영해의 대소산(大所山)으로 연결되어 청송을 경유, 안동에 이르러 동래본선에 연결되었다. 간선망에 위치한 양양의 봉수대는 수산[(水山), 부 동쪽 10리], 덕산[(德山), 부 북쪽 15리], 초진산[(草津山), 부 남쪽 29리], 양야산[(陽野山), 부 남쪽 40리]에 있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와서는 경흥으로 이어지는 본선에 속한 평강 · 회양 · 철원 · 금성의 봉수대만 존속하고 동해안으로 이어지는 간선망은 모두 폐지되었다. 이는 조선초기에는 왜구가 동해안에 출몰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경계의 필요성에서 유지되었던 것이나 임진왜란 이후 국방정책의 관심이 수도와 서북변경지역에 집중되고 동해안에서의 왜구의 출몰이라든가 기타의 사변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 세조의 낙산사 행차와 중창

낙산사는 세조가 세자(뒷날 예종)의 자복(資福)을 위해 중창한 원찰(願刹)이었다. 세조 12년(1466년) 3월부터 윤 3월 사이 중궁 · 왕세자를 데리고 금강산의 장안사 · 정양사 · 표훈사 등을 순행(巡行)하고, 양양에 이르러 동해신(東海神)에게 제사하게 한 후에 낙산사에 들렀다. 세조는 낙산사를 출발한 다음날에 강릉 연곡리에 머물렀다. 세조는 농가(農歌)를 잘하는 자를 모아서 장막(帳幕) 안에서 노래하게 하였는데, 양양의 관노(官奴) 동구리(同仇里)란 자가 가장 노래를 잘하였다. 세조는 동구리를 악공(樂工)의 예(例)로 수가(隨駕)하게 하고, 또 유의(襦衣) 1령(領)을 하사하였다.

세조가 낙산사에 들렀을 때 낙산사는 전사(殿舍)가 비루(鄙陋)하였는데, 세조는 학열로 하여금 이를 중창하게 하였다. 낙산사 중창은 세조 13년 2월부터 대대적으로 착수하여 예종초까지 계속 되었다. 중창을 보게 된 낙산사는 왕실로부터 돈독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22] 세조는 낙산사를 세자의 원찰로 명명한 후에 간경도감의 미포(米布)를 공양(供養) 보시(布施)하였고, 낙산사 방근(傍近)에 위치하고 있던 비옥한 수전 30여 석의

'가종지지(可種之地)'를 사급하여 이를 승도들로 하여금 경식(耕食)케 하였다. 예종 즉위 후에는 왕실원당인 낙산사에 노비 · 전민 등을 사급하였다. 예종 원년에는 역모사건에 연루된 남이(南怡)의 의령전(宜寧田) 외에 삼가전(三嘉田) · 청도전(淸道田)을 낙산사에 사급하였고, 성종은 경상도의 삼가전 200결의 수조지를 낙산사에 사급하였다. 그런데 이 낙산사에는 소재지에 있는 수조지를 지급하지 않고 경상도 혹은 각도의 전지를 지급하고 있다.

게다가 낙산사는 이곳의 전지(田地)에서 전세로서 포물(布物) · 면화(綿花)를 거두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원래 전세의 경우 수전에서는 미(米)로, 한전에서는 두(豆)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수경(輸京)의 어려움 때문에 편의상 미곡 대신에 저포(苧布) · 면주(綿紬) · 목면(木棉) · 마포(麻布) · 유밀(油蜜) 등으로 납부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전세공물(田稅貢物)이라 한다. 경상도의 경우 조세 수납의 운송이 타도에 비해 어려웠기 때문에 고려시기부터 산군(山郡)지역에서는 그 지방의 편의에 따라 미곡 대신 주포(紬布) · 면서(綿絮)를 전세로 수납하여 왔다. 이는 조선왕조에 들어와서도 태조 원년(1392년)에 공부(貢賦)를 상정할 때 경상도 상도(上道)의 여러 군현은 미곡 대신에 포화(布貨)를 배정하여 육로로 운반 상납하게 하였고, 연변에 위치한 군현들은 해로를 통해 미곡을 바치도록 하였다. 낙산사에서 의령 · 삼가 · 청도전에서 거둔 포물 · 면화는 전세공물이었다.

낙산사는 이곳에서 거둔 포물 · 면화를 해마다 팔아 거승(居僧)의 경비가 두루 풍족하였으나, 상원사는 포물 · 면화가 나지 않는 강릉 땅을 절수(折受)하였기에 승려의 경비가 부족하였다. 이에 성종은 낙산사에서 매년 거두어들이는 포물 · 면화를 영세토록 상원사에 반분(半分)하도록 내수사(內需司)에 하달하였던 것이다. 낙산사에 대한 특혜는 전지에 국한되지 않고 성종 때에는 매년 경창미(京倉米) 100석을 사급하였고, 노비를 영세토록 전하라는 사패(賜牌)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낙산사는 절 앞 해안의 10리까지의 구역에 대한 포어권(捕漁權)을 독점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낙산사 소속 노비들로 하여금 해산물 채취와 고기잡이를 하게 하여 그 생산물을 판매하여 이익을 독점함으로써 치부(致富)하기도 하였다.

3) 임진왜란과 양양

선조 25년(1592년)부터 31년(1598년)까지 2차에 걸쳐서 조선에 침입한 일본과의 싸움은 1차의 침입이 임진년에 일어났으므로 '임진왜란' 이라 부르고, 2차의 침입이 정유년에 있었으므로 '정유재란' 이라 하는데, 임진왜란하면 일반적으로 정유재란까지를 포함하여 말한다.

전쟁은 하루아침에 터진 것은 아니었다. 발발 이전에 꽤 오랫동안의 교섭이 있었다. 도요도미가 전국시대를 마감할 때까지 조선과 일본 간의 외교관계는 단절되어 있었지만, 대마도주(對馬島主)와는 제한적 교류를 진행하고 있었다. 선조 20년(1587년) 도요도미는 대마도주를 통해서 조선과 교섭하였는데, 그 내용은 조선국왕을 일본에 입조(入朝)하라는 것이었다. 나아가 명나라에 대해서까지 일본에 조공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마도주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리 없을 뿐 아니라 양국의 외교 관례상 너무나 격에 벗어난 요구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대마도주는 이러한 도요도미의 요구를 숨기고 단지 통신사(通信使)를 파견해 줄 것을 조선정부에 요청하였던 것이다.

이듬해 일본에서는 국사(國使)라는 이름으로 사절단을 파견하였으나 소득 없이 돌아가게 되었다. 이 때 일본사신들이 '조선이 통신사 파견을 거절하였으므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고 밝힘으로써 비로소 조선정부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상정하게 되었다. 그 뒤 일본이 자진해서 조선인을 송환하자 선조 23년(1590년) 조선정부는 결국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일본 내에서 전쟁을 반대하던 대마도주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는 통신사 파견이 곧 조선이 항복한 것을 의미한다고 도요도미를 설득하였다. 그러나 도요도미는 조선 통신사에게 명나라를 정벌할테니 조선이 길잡이가 되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듬해에 돌아온 통신사의 각기 다른 보고에 대해 논란을 벌이던 중, 그해 3월 일본 사신으로부터 "1년 뒤에 길을 빌어 명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통고를 받았다. 조선정부는 비로소 일본군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조선정부는 남부 하삼도의 관찰사를 새로 임명하여 성지(城池)를 수축하고 병기(兵器)를 수리하게끔 독려하였다. 또한 남해 연안의 국방요지에도 유능한 군사지휘관을 배

치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이를 능가하는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조선정부가 일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대규모의 왜구가 약탈을 목적으로 침입할 것이라는 정도로 사태를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도요도미는 중앙집권적인 군사지휘체제를 확립하고 병력동원체계와 전투부대를 재편하였다. 일본은 왜란 직전 이미 1천여 척의 전선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출정부대의 군량을 확보하고, 총 병력 33만을 동원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었다. 이때의 일본군은 조총을 비롯한 개인무기 뿐 아니라 오랫동안의 전투경험을 아울러 갖춘 병력이었다. 반면 조선군은 전쟁 준비부터 지고 있었다. 수군의 경우 488척의 전선과 약 5만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군대였다. 게다가 육군은 명부상으로만 존재하거나 무력한 대역인(代役人)만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임진왜란은 선조 25년(1592년) 4월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당시 일본의 조선 침략군은 9개 부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4월 13일 고니시가 이끄는 일본군은 700여 척의 대선단을 이끌고 오전 8시에 오우라항(大浦港)을 떠나 오후 5시에 부산 앞바다에 도착하였다. 다음날 일본군이 부산진성을 공격하였는데, 이곳을 사수하던 부산진첨사 정발(鄭撥)은 사력을 다해 싸웠으나 중과부적으로 성민과 함께 전사했다. 이튿날 동래성을 지키던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도 군민과 더불어 항전했으나 전사했다.

대마도에 대기하고 있던 일본군의 후속부대는 제1대가 부산상륙에 성공했다는 보고를 받고 계속 상륙해 왔다. 19일에는 가토가 이끄는 제2대 병력이 부산에, 구로다가 이끄는 제3대 병력이 다대포를 거쳐 김해에 각각 상륙하였다. 4~5월에 걸쳐 제4~9대에 이르는 후속부대가 상륙하였다. 이 중 부산성과 동래성을 함락한 일본군은 크게 3갈래로 나누어 서울을 향해 북상하였다.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하여 불과 20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다.

영동지방에 침입한 일본군은 부산 상륙시 제4대였던 삼길성(森吉成) 부대였다. 이 제4대는 삼길성 휘하에 2천명, 도진의홍(島津義弘) 휘하에 1만명, 도진의홍의 종속적 지위에 있는 고교원종(高橋元種) 휘하에 1천명, 추월종장(秋月種長) · 이등우병(伊藤祐兵) · 도진충풍(島津忠豊) 휘하에 1천명 등 총 1만 4천명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삼길성 부대는 철원 · 김화 · 금성군을 거쳐 동북 방향으로 진격한 다음 6월 5일 회양

부를 함락하고, 그 길로 북상하여 6월 15일에는 함경도 남병사(咸鏡道南兵使) 이휘(李揮)가 진을 치고 있던 철령을 넘어 6월 17일에는 안변부에 가토오 기요마사(加藤清正)와 같이 입성(入城)하였다. 가토오 기요마사는 함경도를 담당하였기에 여기서 북진하고, 삼길성은 안변에서 흡곡을 거쳐 그 길로 동해안을 남하하여 통천, 고성, 간성, 양양을 함락하였다. 삼길성의 일부 부대는 양양에서 설악산을 우회하여 오색령을 넘어 인제로 쳐들어갔고, 주력부대는 동해안을 따라 남진하여 7월 12일 전후에 강릉에 쳐들어갔다가 다시 삼척으로 내려가 두타산성을 함락하였다.

삼길성 부대는 7개월간 강원도에 주둔하면서 문묘(文廟)·공해(公廨)를 방화 약탈하였다. 일본군이 주둔하였던 김화군은 임란이 끝난 다음해인 선조 32년(1599년)에 폐읍(廢邑)을 논의할 정도로 일본군의 수탈이 심하였다. 일본군은 진격한 지역에서 명을 침략하기 위한 군수물자의 조달량을 채우기 위해 가혹한 약탈을 자행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수탈은 단지 주력군의 이동 경로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일본군은 주둔지나 경유지를 중심으로 강원도 전역에 걸쳐 노략질을 자행하였다.

4) 조선후기의 양양

(1) 조선후기의 면리제와 양양

조선왕조의 지방행정 체계가 왕(중앙정부)→감사→수령→면리임(面里任)으로 이어져 있듯이, 행정구역은 크게 도→주·부·군·현→면→리로 편성되어 있었다. 『경국대전』에서는 세조 때의 오가작통법과 결합하여 외방은 5호를 1통으로 하고 5통마다 이정(里正)을 두었으며, 통에는 통주(統主), 면에는 권농관(勸農官)을 둔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조선전기의 면리제는 촌락단위가 아니라 군현 내부를 읍치(邑治)와 동서남북의 4면으로 나누는 방위면(方位面)의 편제였다. 그리고 때때로 촌(村)이라는 명칭과 혼용되기도 했다. 16세기 이후 점차적으로 집약농법에 근거한 소농민경영이 발전하고 당시 광역리 밑에 있던 자연촌락들이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독자적인 형태를 갖추어갔다.

임진왜란 이후 국가권력이 '국가재조'(國家再造)의 방침아래 수취제도 개편, 호구파

악 등 촌락재편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촌락단위의 편제가 일반화되었다. 여기에는 조선후기 내내 계속된 생산력 발전에 편승한 자연촌락의 성장이라는 요인이 내재되어 있었다. 숙종 원년(1675년)에 반포된 '오가통사목(五家統事目)'에서는 이를 소리(小里 : 5~10통) · 중리(中里 : 11~20통) · 대리(大里 : 21~30통)로 구분, 이의 규모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어 이전의 '5통 1리'라는 편의적인 편제기준은 사라지고 자연적 촌락 그대로를 리로 설정할 수 있었다. 또한 산거적(散居的)인 촌락을 집촌화(集村化)해서 독자적인 기능을 하도록 유도하고 통 단위의 기능을 리 단위로 확대시키며 농업경영, 국가수취, 향약적 교화와 관련하여 리의 독자적인 기능을 규정해놓았다. 하지만 정조대까지만 해도 아직 전국적으로 일관되고 안정된 면리편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었다. 삼남지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연촌락을 단위로 리가 편제되면서 독립할 수 없는 소촌(小村)은 대개 대촌(大村)에 부속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부지방에서는 면을 몇 지역으로 분할해서 '1리 · 2리' 식으로 편제하거나 자연명칭의 리이지만 남부지방의 리와는 달리 여러 개의 촌을 하나로 묶어 규모가 큰 형태로 만들었다.

강원도의 면리제의 규모는 영조 때 편찬된 『여지도서』의 방리조에 의하면 26개 관읍에서 225개 면과 1,441개 리에 달하였다. 이 가운데서 원주목과 강릉부가 21개 면과 20개 면으로 그 규모가 가장 크며, 다음으로 춘천현과 양양부, 삼척부 순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리수에서는 평강현이 116개, 춘천현이 114개, 삼척부가 102개 리로 가장 잘 분화되어 있다.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여지도서』에 의하면 양양부에는 종3품 부사 1명을 비롯하여 좌수 1명, 별감 3명, 군관 15명, 아전 27명, 지인 16명, 사령 19명, 관노 25명, 관비 25명 등 총 132명의 관리와 관속이 있었고, 면리별 호구수는 다음과 같다.

〈표3-10〉 18세기말 양양부의 면리(面里)와 호구현황

면 (12)	리(里)	호(戶)	인구(人口)		
			남(男)	여(女)	계(計)
부내면 (府內面)	남문리(南門里)	29	63	69	132
	성내리(城內里)	50	102	108	210
	구향교동리(舊鄕校洞里)	50	88	78	166
	청곡리(靑谷里)	26	36	28	64
	연창역리(連倉驛里)	134	299	320	619

면 (12)	리(里)	호(戶)	인구(人口)		
			남(男)	여(女)	계(計)
동 면 (東 面)	고송개리(古送介里)	10	27	26	53
	금강리(金剛里)	14	32	32	64
	송전리(松田里)	10	21	15	36
	불성리(佛城里)	21	38	34	72
	수산진리(水山津里)	15	27	24	51
	굴포진리(屈浦津里)	34	42	54	96
부남면 (部南面)	서문리(西門里)	16	46	50	96
	문선왕리(文宣王里)	13	32	38	70
	목일리(木日里)	10	26	26	52
	거말리(巨末里)	10	26	20	46
	임천리(林泉里)	49	106	108	214
	영혈사(靈穴寺)	8	17	-	17
서 면 (西 面)	공수전리(公須田里)	15	23	33	56
	영덕리(盈德里)	18	33	38	71
	서림리(西林里)	53	92	126	218
	청대리(靑臺里)	7	27	23	50
	오색리(五色里)	57	84	145	229
	상평리(上平里)	23	52	49	101
	장생리(長牲里)	6	11	15	26
	수동리(水洞里)	10	25	13	38
	웅전리(熊田里)	43	95	76	171
남 면 (南 面)	신존리(神存里)	19	36	45	81
	와동리(瓦洞里)	10	16	24	40
	양혈리(陽穴里)	20	38	50	88
	판교리(板橋里)	21	38	43	81
	여운포리(如雲浦里)	29	38	67	105
	상운역리(祥雲驛里)	88	182	174	356
현북면 (縣北面)	도동리(陶洞里)	9	16	17	33
	말곡리(末谷里)	35	49	74	123
	광정리(廣汀里)	40	47	89	136
	대치리(大峙里)	40	43	72	115
	어성리(魚城里)	24	39	47	86
	원일전리(元日田里)	13	15	20	35
	면비치리(綿飛峙里)	15	27	29	56
	법수치리(法水峙里)	37	46	65	111

면 (12)	리(里)	호(戶)	인구(人口)		
			남(男)	여(女)	계(計)
현북면 (縣北面)	초진리(草津里)	15	63	56	119
	명주사(明珠寺)	6	24	-	24
현남면 (縣南面)	월내리(月乃里)	25	32	58	90
	견불리(見佛里)	33	48	67	115
	원당리(元堂里)	24	43	52	95
	북분리(北盆里)	56	85	104	189
	양야진리(陽也津里)	79	114	129	243
	인구역리(猶丘驛里)	90	196	157	353
위산면 (位山面)	감동리(甘洞里)	15	24	27	51
	진수동리(眞水洞里)	6	10	13	23
	용월리(涌月里)	14	15	26	41
	토천리(土川里)	37	77	75	152
사현면 (沙峴面)	소근교리(小斤橋里)	15	24	23	47
	북동리(北洞里)	29	56	69	125
	물감리(勿甘里)	10	13	15	28
	노동리(魯洞里)	7	10	11	21
	장산리(長山里)	15	18	33	51
	침교리(砧橋里)	39	50	69	119
	북진리(北津里)	26	42	32	74
	낙산사(洛山寺)	21	28	-	28
강선면 (降仙面)	둔전동리(屯田洞里)	29	31	63	94
	상복동리(上福洞里)	15	23	31	54
	석교리(石橋里)	11	49	74	123
	물치진리(勿緇津里)	109	242	228	470
도문면 (道門面)	상도문리(上道門里)	20	33	33	66
	하도문리(下道門里)	35	44	82	126
	물치리(勿緇里)	18	19	33	52
	대포리(大浦里)	34	35	69	104
	옹진리(甕津里)	78	107	131	238
	신흥사(神興寺)	20	49	-	49
소천면 (所川面)	논산리(論山里)	20	39	58	97
	부월포리(扶月浦里)	18	48	38	86
	속초리(束草里)	86	90	182	272
	동진리(東津里)	58	79	96	175
12면(面)	74리(里)	2,243	3,960	4,498	8,458

양양부는 12면 74리를 관할하였는데, 그 가운데 현북면이 10개 리, 서면이 9개 리, 사현면이 8개 리, 동면 · 부남면 · 남면 · 현남면 · 도문면이 6개 리, 부내면이 5개 리, 위산면 · 강선면 · 소천면이 2개의 리로 되어 있어 그 규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양부의 총 호수는 2,243호이고 인구는 남자가 3,960명, 여자가 4,498명으로 총 8,458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538명이 많았다.

〈표3-11〉 조선후기 강원도의 군사편제

군사 중심지	영(營)	관 할 지 역
강원도관찰사 (원 주)	防禦營(철원)	특수 임무
	左 營(춘천)	이천, 철원, 회양, 김화, 평강, 안협, 금성, 양구, 낭천
	中 營(횡성)	원주, 영월, 정선, 평창, 홍천, 인제
	右 營(삼척)	삼척, 강릉, 양양, 간성, 통천, 흡곡, 울진, 평해, 월송진

한편 조선후기 군사제도의 개편은 임진왜란 중에 전쟁을 수행해가면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훈련도감(訓練都監)을 근간으로 중앙의 5군영과 지방의 속오군(束伍軍)이 조선후기 핵심적인 군대로 등장하게 되었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설치된 훈련도감은 처음 기민구제(飢民救濟)와 정병양성(精兵養成)이란 목표 아래 국가가 요미(料米)를 지급하는 용병적인 장번 급료병으로 등장하였다. 훈련도감의 설치를 계기로 하여 중앙에는 숙종초까지 총융청 · 수어청 · 어영청 · 금위영 등의 군영이 설치되어 이른바 5군영체제로 재편되었다. 그런데 5군영체제는 어떠한 계획 아래 편제된 것이 아니라 양란을 겪으면서 그때 그때의 편의와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군영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비슷하지만 그 경제기반이라든가 조직편제 등이 일관된 것이 아니었다.

지방군은 진관체제 대신 속오군이 등장하였다. 속오군은 선조 27년(1594년)에 유성룡의 건의를 계기로 처음에는 황해도 지역에 설치되었고, 지방방어체계인 진관체제가 재정비되면서 전국으로 편성되어 갔다. 속오군의 편성은 기본적으로 대(隊) · 기(旗) · 초(哨) · 사(司) · 영(營)으로 조직되었는데, 대개 1대가 11인, 3대가 1기, 3기가 1초, 5초가 1사, 5사가 1영으로 편제되었다. 1영의 인원은 원칙적으로 2,500명으로 편성되었다. 그 지휘권은 종전의 진관에 해당하는 영장(營將)이 가지고 있었는데, 영장은 중앙의 총융청 · 수어청 · 진무영(鎭撫營) 등에 속한 것과 각 도의 감영 · 병영에 속한 것의 두

계통이 있었다. 모두가 겸직이었으며, 중앙 소속은 판관 · 중군 및 인근 주목(州牧)의 부사 · 목사가 겸임하였고, 각 도 소속은 주 · 군을 적당한 관할구역으로 나누어 진영을 설치하고 그 지방의 부윤 · 부사 · 목사 · 현감 등이 겸하였다. 첨사 · 만호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강원도는 원주를 군사 중심지로 삼아 관찰사로 하여금 총괄케 하였고, 그 밑에 철원 · 춘천 · 횡성 · 삼척에 군영을 설치하여 내륙지방과 해안지방의 경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양양은 우영인 삼척영장의 관할 하에 있었다.

정묘호란 직후인 인조 5년(1627년)에는 속오군의 조직과 훈련을 위해 전담영장제가 실시되었다. 전담영장은 겨울철 농한기에 속오군을 소집하여 무예와 진법 훈련을 실시하였다. 전담영장제가 실시되면서 그 이전까지 지방 수령이 장악하고 있었던 행정권과 군사권이 분리되었다. 즉 수령은 속오군의 소집과 동원만을 담당하고 군사훈련은 영장이 전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방 수령의 반발과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효종대 이후 전담영장제를 폐지하고 지방 수령들이 병력의 관리와 훈련을 모두 맡는 겸영장 체제로 전환하였다. 수군의 경우 수군절제사는 관찰사가 겸하고, 첨절제사(종3품) 1인을 삼척보진에 두되 영장이 겸임하며, 만호(종4품) 1인을 삼척보진의 월송포에 두되 안인포 · 고성포 · 울진포는 모두 폐지하였다.

(2) 조선후기의 사회변동과 양양

가. 사회변동의 요인

조선시대 양양지방에서 생산된 주요 곡물은 오곡(쌀 · 보리 · 콩 · 조 · 기장)이었다. 조선초기 전국의 농경지에서 논이 차지하는 비율은 28%, 밭이 차지하는 비율은 72%에 달하였는데, 논의 80% 정도는 경기와 하삼도에 분포되어 있었다. 논농사 지대는 경기와 하삼도에 편중되어 있었고, 강원도를 비롯한 북부지방은 대부분 밭농사 지대였다.

양양부의 토지결수는 조선초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양양도호부는 땅이 메마르며, 개간된 땅[간전(墾田)]이 1,833결로 논이 2/5가 넘는다' 고 하였고, 영조 33년(1757년)에서 영조 41년(1765년) 사이에 편찬된 『여지도서』에는 한전(旱田)이 185

결(結) 46부(負) 7속(束)이고, 수전(水田)이 387결 27부 1속(束)으로 모두 573결이라고 하였다. 18세기 무렵 양양부의 토지결수는 15세기경보다 2/3 이상 줄어든 상태이다. 그리고 조선초기에 비해 논농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강릉부의 농경지에서 논이 차지하는 비율은 67.5%, 밭이 차지하는 비율은 32.5%에 달하였다.

조선후기에 들어 양양부의 토지결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토지대장에서 빠진 은결(隱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 『경국대전』에는 20년마다 한 번씩 양전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양안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양전은 인력 · 경비 등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대사업이라 규정대로는 실시하지 못하여 수십 년, 혹은 백 년이 더 지난 뒤에 실시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특히 조선후기에는 전국적으로 양전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써 은결이 크게 증가되고 있었다. 조선후기에 와서 양양의 토지결수가 크게 줄어든 것도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흔히 역사발전의 지표로 농업생산력을 말한다. 역사의 전 과정은 인간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농업생산력이 발전했지만 특히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기가 있었다. 예를 들면 농경생활을 시작했던 신석기시대 후기, 철제농기구를 사용하게 되었던 철기시대, 소를 이용해 농사짓고 저수지를 만들기 시작하는 4~6세기, 휴한농법을 극복하고 상경연작농업을 가능케 한 고려말 등의 시기를 들 수 있다. 특히 17세기 이후 농업생산력의 발전은 이전 시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조선초기 벼 재배 방법에는 물을 채운 논에 미리 발아시킨 볍씨를 파종하는 직파법(直播法), 비료성분을 묻힌 볍씨를 물이 없는 논에 파종하는 건경법(乾耕法), 못자리에서 모를 어느 정도 키워 전체 논으로 옮겨심는 이앙법(移秧法) 등이 있었다. 이 시기에는 볍씨를 뿌려 그대로 경작하는 직파법이 일반적이었다. 수리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강원 · 경상도의 일부지역의 농민들에 의해 시도되던 이앙법은 법으로 금지되고 있던 실정이었다. 따라서 조선초기까지 대부분의 농민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직파법으로 벼를 재배하였다. 직파법으로 벼를 재배하게 되면 농부들은 이른 봄철 쟁기를 이용하여 논을 한두 차례 갈아 두었다가 4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써레를 이용하여 논을 고른 다음, 미리 발아시켜 둔 볍씨를 파종했다. 이후 약 한달 가량 지난 후부터 호미를 이용하여 김매기를 시작했는데, 추수 때까지 4~5차례 반복하였다. 그러나 이

앙법으로 벼를 재배할 경우 농민들은 이른 봄철 쟁기를 사용하여 한두 차례 논을 갈아 두었다가, 그 가운데 대략 1할 정도의 면적에 4월 하순경에서 5월 초순에 못자리를 설치하였다. 모가 모판에서 자라는 동안 떡갈나무의 잎, 연한 버드나무가지 등을 사용하여 만든 거름을 모낼 곳에 뿌려 주었다. 볍씨를 뿌리고 약 한달이 지난 6월 초순경부터 모내기를 하였는데, 한 그루는 어린 모 4~5포기를 넘지 않도록 하였고, 그루와 그루 사이의 간격을 적당히 남겨 두었다. 김매기는 모낸 후 약 20일이 지나서부터 시작하여 추수 때까지 모두 2~3차례 실시하였다. 16세기 초반에 들어서면 이앙법은 정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그 보급이 점차 증대되어 강원도 지방에서도 실시되고 있었다.[23]

17세기 이후 이앙법을 실시하면 노동력이 감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앙법은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보급되었다. 서유구는 '이앙을 실시하면 노동력이 감소하고, 모를 옮겨 심는 과정에서 부실한 모를 제거할 수 있고, 나아가 모를 심는 땅과 본논에 옮겨 심는 땅의 지력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니 그 이익이 크다.'[24]며 이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

밭에서는 보리, 조, 콩, 기장 등의 농산물이 생산되었다. 적지 않은 농부들은 이미 15세기에 보리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다시 콩을 심기도 하였다. 이같이 같은 밭에서 1년 동안 보리와 콩을 교대로 경작하는 방식을 그루갈이[근경법(根耕法)]라고 하였다. 물론 모든 콩이 그루갈이로 재배된 것은 아니었다. 콩은 종류에 따라 봄철에 파종을 해야만 잘 자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 초여름에 심는 것도 있었다. 보리, 콩과 달리 조는 모두 봄에 심었다. 봄철 밭에서 보리, 콩, 조가 동시에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작물을 같은 밭에서 섞어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밭작물의 김매기에도 적지 않은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5세기에는 농지가 적은 농민들에 의해서만 섞어짓기[간종법(間種法)]이 조금씩 행해지고 있었다. 조선후기에 들어와 밭고랑과 밭이랑을 만들어 밭고랑에다 곡식을 파종하는 방법의 변화가 있었고, 토지이용방식이 조선전기의 1년 1작에서 2년 3작 내지 2년 4작식의 윤작체계로 바뀌어 감으로써 생산력이 높아졌다.

조선후기의 농업생산력의 발전은 농업경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경제변화를 잘 이용하는 농민이나 지주들은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절감된 노동력을 경영규모의 확대에 사용하였다. 또한 당시에는 농산물의 상품화가 널리 이루어져서 농산물을 장시에 내다

팔아 돈을 벌 수 있었다.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농민 중에는 부농으로 성장하거나 지주로 전신(轉身)하는 계층도 생겨났다. 이들 농민들은 자기 가족만으로 농사를 짓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농촌의 임노동자를 고용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이들의 경우 재산을 축적하면 먼저 농토를 매입했는데, 그 많은 땅에 농사짓는 일을 자기 가족들만으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주와 부농이 임노동자를 고용해서 많은 토지를 경작하게 되자 가난한 농민층은 점차 토지경영으로부터 배제되어 갔다.

이러한 농업경영의 변동은 지주제를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8세기 이후 토지의 상품화가 진전되어 토지매매도 활발해져서 지주 · 부농 · 상인들이 토지를 크게 늘려 갔다. 경제변동에 잘 대처하지 못한 영세농민은 부세 부담, 고리대 부담, 관혼상제 비용에 농사의 흉작까지 겹쳐 헐값에 자신의 토지를 내놓았고, 지주 · 상인 · 부농층은 이를 틈타 이것을 매입해 늘려감으로써 토지소유의 양극화 현상이 이루어졌다.

몰락농민의 다수는 다시 지주전호관계의 전호로 전락되기도 하였지만, 토지에서 유리된 농민들 가운데 일부는 농업고용인으로서 지주 또는 부농의 농업경영에 고용되거나 광산 또는 수공업 촌락의 임노동자로 전화되었고, 또 다른 일부는 도시로 가서 상업에 종사하거나 임노동자가 되었다. 반면에 부농들은 자가소비를 위한 생산단계에서 벗어나 인삼 · 담배 · 면화 · 채소 · 과일 · 약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상업작물을 재배하여 장시에 판매함으로써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 장시의 발달과 상권의 형성

조선전기 상인은 크게 서울을 비롯하여 도시에서 성장하고 있던 좌상(坐商)과 육로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하던 육상(陸商), 그리고 배를 이용하여 교역활동을 하던 선상(船商)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좌상은 대개 시전상인(市廛商人)을 말하고, 육상과 선상은 전국을 무대로 교역활동을 하던 행상(行商)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초기부터 억상책(抑商策)의 일환으로 상인의 활동을 크게 제한하였다. 그리하여 행상에게는 일종의 영업허가증이라고 할 수 있는 행장(行狀)을 발급하였고, 이 행장이 없는 상인의 상업활동은 금지시켰다. 이후 행상에 대한 수세(收稅) 규정은 몇 차례 변화가 있었고, 『경국대전』에는 매월 저화 8장을 수세하는 것으로 명문화되었다. 육

상은 육로를 이용하여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대개 가볍거나 크기가 작은 초립(草笠) · 유기(鍮器) · 가죽신 · 갓 · 빗 · 바늘 · 분(粉) 등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유의(襦衣) · 면서(綿絮) · 농기구를 취급하였다. 선상들이 취급하는 물품은 주로 곡물이었다. 15세기 후반 이후 전국적인 차원의 곡물유통망이 갖추어짐에 따라 선상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선상들은 곡물뿐만 아니라 소금이나 어물 · 미역 등을 지역 간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들 물품이 생산되지 않는 지역에다 운반하여 판매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장시(場市)는 농민 · 수공업자 등 직접 생산자가 생산물의 일부를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이유역무(以有易無)' · '유무상천(有無相遷)' 하는 새로운 형태의 농촌의 정기시를 말한다. 장시는 15세기말 농업의 선진지역이었던 전라도 지역에서 가장 먼저 개설되었는데, 성종 원년(1470년) 흉년을 계기로 이 지역의 백성들이 스스로 모여서 시포(市鋪)를 열고 장문이라고 부른 것에서 처음 나타난다. 15세기말부터 유통을 위한 장시가 출현한 것은 여말선초에 농업경영 방식이 휴한농법(休閑農法)에서 상경연작법(常耕連作法)으로 바뀌면서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것에 기인한다. 장시는 장문(場門) 또는 향시(鄕市) · 허시(墟市) 등으로 불렸으며, 조선전기에는 주로 장문으로 일컬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시기에도 일부 관원들 중에는 각 주현(州縣)에 시장을 열어 화폐의 유통 및 교역을 촉진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자들이 있었다. 세종 15년(1433년) 예조판서 신상(申商)은 중국의 경우 작은 현(縣)이라 하더라도 모두 시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시장이 없어 화폐가 있어도 쓸모가 없게 되므로 지방마다 시장을 열어 전화(錢貨)가 자연스럽게 유통되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시장개설의 제의는 이 시기 농업과 수공업이 더욱 발전하고 사회적 분업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물화유통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가운데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당시 상업활동에 대해 지배층이 갖고 있던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들이었다. 즉 상업이 발달하면 상인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놀고먹는 백성이 많아지며 그 결과 농촌이 황폐해진다고 우려하였다. 이러한 폐단은 곧바로 국가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상인이 증가하게 되는 배경인 장시의 발달을 초기부터 금압하였다. 그리하여 국가는 상

업을 적극 통제 · 독점하기 위해 장시를 폐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농민들의 잉여 물자가 늘고 유통이 활발해지는 한편 일부 농민이 흉년으로 몰락하여 장시에 몰려왔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무조건 금지하거나 조종할 수 없었다. 그래서 16세기 전반에는 '제도(諸道)에 모두 장시가 개설되고 있다.' 라거나 '방방곡곡에 장이 서지 않는 곳이 없다.' 고 할 정도로 전국 각지에 확산되어 있었다.

〈표3-12〉 18세기 이후 영동지방의 군현별 장시수

군현 \ 시기	1770년대 『동국문헌비고』	1830년 『임원십육지』	1853~1856년 『여도비지』
강 릉	6	4	6
양 양	5	2	4
삼 척	4	3	4
평 해	2	2	2
통 천	2	2	2
고 성	2	1	2
간 성	2	1	2
울 진	3	3	3
흡 곡	1	2	1
총 계	27	21	26

조선전기 양양지방의 장시개설 상황에 대해서는 자료의 미비로 자세히 알 수 없다. 하지만 16세기 전반에 전국에 걸쳐 장시가 개설되어 있다고 한 점으로 볼 때 양양지방에도 장시가 개설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시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더욱 확산되어 18세 중엽에 이르러 조사된 숫자만 1,000여 개소를 넘고 있었다. 강원도의 장시수는 1770년대에 간행된 『동국문헌비고』에 68개로 나타난다. 당시 강원도의 군현수가 26개인 것에 비추어 볼 때 군현당 평균 2.6개 정도의 장시가 개설되고 있었다. 조선후기 강원도 영동 9읍의 장시수를 〈표3-12〉로 나타내었다.

〈표3-12〉는 영동 9읍의 장시 분포상황을 나타낸 것인데, 군현별 개설되어 있는 장시수는 평균 3개 정도에 달한다. 장시가 가장 많이 개설된 곳은 강릉이었고, 그 다음이 양양이었다. 『동국문헌비고』에 의하면, 양양부에는 읍내장, 물치장, 동산장(洞山場), 부동장(府東場), 상운장(祥雲場)이 개설되어 있었다.

장시 성립초기의 개시일수는 1개월에 2차례 개시하는 15일장이었다. 그러나 16세기 중엽에 이르면 1개월에 3차례 개시하는 곳도 증가하여 지역에 따라서는 10일장도 생겨났다. 물론 10일장이 개설되는 곳은 교통이 편리하고 물산이 풍부한 지역들이었다. 17세기 초에는 1개월에 6차례 개시하는 게 대부분이었다. 흔히 5일장이었다. 5일장은 군마다 보통 3개소에서 많으면 4~5개소로 서로 다른 날짜에 번갈아 열렸으므로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상설시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다. 또한 보통 30~40리 거리를 표준으로 하여 산재된 장시의 망을 이루어 상인 즉 행상이 각 장시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활동하기에 알맞았다. 양양부의 장시 개시일은 읍내장이 4 · 9일, 인구장과 물치장이 5 · 10일이었다.

조선후기 장시에서 거래된 물품은 쌀 · 콩 · 보리 · 조 · 기장 · 메밀 등의 곡물류, 면포 · 면화 · 삼베 · 모시 · 비단 등의 직물류, 농기구 · 왕골자리 · 삿자리 · 초립(草笠) · 유기(鍮器) · 가죽신 · 의복 · 신발 · 갓끈 · 빗 · 바늘 · 분(粉) 등의 수공업 제품, 조기 · 청어 · 준치 · 민어 · 굴 등의 수산물, 소 · 말 · 돼지 · 닭 등의 축산물, 감 · 밤 · 대추 · 배 · 사과 등의 과일, 배추 · 파 · 마늘 · 무우 · 오이 · 참외 등의 채소류였다. 이 외에도 호랑이 · 사슴 · 노루가죽 등의 피물(皮物)이 유통되었다.

그러면 영동지방의 장시에서는 어떤 물품이 유통되었을까. 『임원경제지』에는 각 장시에서 교역된 물품들이 수록되어 있어서 이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영동지방의 각 장시별로 유통된 품목수를 살펴보면, 강릉 읍내장이 8개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양양 읍내장이 7개, 평해 읍내장이 5개 순으로 나타난다. 장시에서 거래된 물품은 쌀, 면포, 면화, 마포, 명주, 어염, 우독(송아지), 종이, 과일 등이 거래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거래된 물품은 면포(8곳)이고, 그 다음이 마포(7곳), 어염(6곳) 순이다. 특히 면포는 전국 325개 군현 중 253개 군현에서 거래될 정도로 중요한 상품이었는데, 강원도에서는 26개 군현 중 24개 군현에서 거래되었다. 쌀은 영동 9개 군현 중 강릉 · 양양 · 평해 3곳에서만 거래되었고, 명주와 종이는 강릉과 양양에서만 거래되었다.

〈표3-13〉 영동지방의 장시에서 유통된 물품

구분 군현	장시명	쌀	면포(綿布)	면화(綿花)	마포(麻布)	명주(明紬)	어염(魚鹽)	우독(牛犢)	종이	과일	담배	철물(鐵物)	토기(土器)	계
강릉		○	○	○	○	○	○	○		○				8
양양	府內	○	○		○		○	○	○	○				7
삼척	府內府				○		○	○						3
평해	內府內	○	○		○		○	○						5
통천	府內府		○	○										2
고성	內府內		○		○		○							3
간성	府內庫		○		○									2
울진	底		○		○		○							3
흡곡			○	○										2
계		3	8	3	7	1	6	4	1	2	0	0	0	21
강원도(26)		11	24	6	21	8	20	11	3	6	4	2	1	117

4. 양양지방의 근대사

조선은 1876년의 개항으로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한 고리로 편입되었고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비교적 일국사적 발전을 계속해 왔던 조선은 개항을 분기점으로 하여 더 이상 세계사의 조류에서 벗어나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국제사회에의 편입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조선에 부여된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도 예속적 · 종속적이었다는 것이다. 불평등조약으로 상징되는 이러한 위치는 조선의 국권을 침해하고, 세계무대에서의 정당한 시민권의 행사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민족의 각 성원들에게 외면할 수 없는 과제를 부여하였다. 그것은 한마디로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 앞에 제약받고 있는 조선의 자주권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근대화를 이룩하여 세계무대에서 정당한 대접을 받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대해 각 사회집단은 다양하고 상이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각 집단이 처해 있었던 사회적 위치의 차이 및 그에 따른 근대화에 관한 전망의 상이(相異)에서 연유하는 것이었다.

1) 동학농민전쟁과 양양

동학은 심화되고 있던 봉건체제의 모순과 열강의 침략 위기 속에서 1860년 최제우에 의해 창시되었다. 동학은 유 · 불 · 선 등 이전의 여러 사상을 집약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집약에 체계성이 있고 또 세련성을 갖춤으로써 저급한 수준의 민간신앙이 아닌 종교의 단계로 승화시켰다는 점이다. 동학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인내천'(人乃天) 사상이었다. 당시의 양반신분제도 아래에서 소외되고 억압받으며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평등을 의미하는 이 말은 대단한 호소력을 가지는 것이었다. 자연히 사람들은 동학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위협을 느낀 지배층은 동학을 사교(邪敎)로 지목하고 고종 원년(1864년) 교조인 최제우를 '혹세무민'(惑世誣民)했다는 죄로 사형에 처했다. 이와 함께 동학도에 대한 탄압도 심화되자 2대 교주였던 최시형은 산 속으로 숨어 다니면서 포교를 하였다.

최시형이 동학에 입교한 시기는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가 본격적으로 동학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하던 해인 철종 12년(1861년) 6월경이다. 그는 동학에 입교한 이래 광무 2년(1898년) 4월 5일에 체포되어 6월 2일에 처형되기까지 38년 동안 동학교단을 지켜온 인물이었다. 그는 최제우가 처형된 이후 사실상 동학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동학 교리의 체계화, 교단조직의 재건 및 지역적 기반의 확대, 경전의 집성, 동학의 각종 제도와 의례의 확립, 정기적 수련제도의 실시를 통한 지도자 양성 등 동학 교단사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강원도 지역에 동학이 전래되는 계기는 철종 14년(1863년) 3월경 최제우의 제자 이경화(李慶化)가 영월 소밀원(小密原)으로 유배되면서이다. 이경화는 유배지인 소밀원에서 원주사람 장기서(張奇瑞)에게 처음으로 포교하였다. 고종 7년(1870년) 10월경에는 최제우의 가족(부인, 두 아들, 세 딸)이 양양교도 공생(孔生)의 주선으로 영양(英陽) 용화동에서 소밀원으로 이주해 왔다. 한편 최시형은 1871년 3월 이필제(李弼濟)와 함께 경상도 각 지방의 동학교도들을 동원하여 영해에서 교조신원운동(敎祖伸寃運動)을 일으킨 직후 주모자로 지목되어 관병의 집요한 추격을 받는 몸이 되자, 동학조직 재건 활동의 중심지였던 영양 용화동에 은신해 있다가 영월 소밀원으로 일시 피신해 왔다.

이로써 영월지방은 1870년대 동학의 재건과정에서 대표적인 비밀포교지가 되었던 것이다.

정선지방의 동학 비밀포교지로는 무은담과 갈래산 적조암 등이 있다. 무은담이 동학 교단과 연관을 맺는 계기는 영해 교조신원운동과 같은 해인 8월 이필제의 문경작변의 실패로 인해 경상도 북부지방의 동학조직이 와해되고 동학 지도부에 대한 관의 지목과 체포령이 내려지자 단양, 영월 등지로 피해 다니던 최시형과 소수의 동학교도들이 1872년 4월 정선접주 유시헌(劉時憲)[25]의 집으로 피해 오면서이다. 그리하여 무은담은 1870년대 이래 동학 교단의 주요 비밀 포교지가 되었고, 이곳에서 동학의 새로운 종교의식인 설법제(說法祭), 구성제(九星祭), 개접례(開接禮)가 행해졌다.

적조암은 현재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에 있는 정암사의 부속암자를 가리킨다. 이곳은 영해 교조신원운동 직후 영월 · 정선 · 단양 접경지역으로 피신해 온 최시형이 1872년 10월 몇몇 교도들과 입산하여 49일 수련을 한 뒤 동학 교단의 중요한 수련장소이자 비밀 포교지의 하나가 되었다. 이곳은 1880년대에 들어와 동학교문의 중요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지 역할을 하였다.

양양에 동학이 전해진 것은 1869년 이전으로 보인다. 양양지방에 동학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전해졌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최시형이 강원도에 오기 전에 이미 양양교도 공생(孔生)이란 사람이 입도하여 포덕(布德)[26]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당시 동학에 입도한 사람들은 주문만 외울 뿐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고종 6년(1869년) 2월에 양양 사람 최혜근(崔惠根) · 김경서(金慶瑞)가 최시형을 찾아가서 비로소 동학교에 대한 교리와 의식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들이 최시형에게 양양 포덕을 역설하자 그 곳에 오래 전부터 뜻을 두고 있던 최시형은 박춘서(朴春瑞)를 데리고 양양에 이르러 3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양양의 산중에 은거하면서 포교하였다.[27] 당시 최시형이 지내던 곳이 어딘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최시형은 그 후 양양 · 인제 · 홍천 등지를 순회하면서 많은 신도를 확보하게 되었고, 그 중에는 열성교인도 많았다.

최제우의 장남 세정(世貞)은 영월, 양양, 인제 등지로 피신생활을 하면서 이 지역의 교인들을 지도하였다. 그러나 동학에 대한 관의 탄압이 심해지자 양양 김덕중(金德中) 집에 피신해 있던 세정은 1870년 10월에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하기 위해 첩첩산중

의 인제 귀둔리로 거처를 옮겼다. 귀둔리에서 세정은 그의 처와 둘째 여동생과 함께 장춘보(張春甫)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귀둔리는 현재 교통의 발달로 인제와 생활권이 가깝지만 당시에는 오색령, 점봉산을 두고 양양과 인접해 있어 인제보다 양양이 더 가깝게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귀둔리 사람들은 주로 양양장을 이용하였던 것이다. 이곳에서 양양장을 가려면 곤배골을 지나 강선리와 양양군의 북암리와 송천리를 거쳐 양양으로 갔는데 대략 80리 거리였다. 최시형에 의해 포덕된 양양의 교인들은 귀둔리 교인들과 왕래하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였다. 그러나 양양 관아에서는 김덕중으로부터 이를 탐지하고 귀둔리까지 추적하여 세정을 체포하여 양양옥에 수감하였다. 세정의 처와 여동생은 인제옥에 수감하였다. 세정은 양양 감옥에 갇히었다가 고문 끝에 1872년 5월 12일(음) 장사(杖死)되었다. 당시 양양 감옥은 현재 양양군청이 들어서 있다.

1870년대 양양 · 인제 · 영월 · 정선지방을 중심으로 한 동학의 포교활동이 점차 뿌리를 내리고 교세가 확장됨에 따라 최시형은 1880년 6월 인제에서 『동경대전(東經大典)』을 간행하여 동학교문에게 경전을 중심으로 포교활동을 펼치게 된다. 최시형이 포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1890년대 초에 이르면 동학의 포교조직이 급속도로 불어나고 그 세력이 신장되었다. 이러한 세력 신장을 바탕으로 동학교도들은 억울하게 죽은 최제우의 죄를 벗기기 위한 제1차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였다. 동학교도 40여 명이 고종 30년(1893년) 3월 서울에서 복합상소(伏閤上疏)로써 항거했으나 별로 효과가 없었다.

두 차례에 걸쳐 신원운동을 벌였던 동학교도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1893년 봄에 충청도 보은과 전라도 금구의 원평에서 각각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다. 보은집회는 교단 중심의 북접이, 원평집회는 전봉준 계열의 남접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5월에 열린 보은집회에서는 교조신원의 구호를 넘어 탐관오리의 축출, 일본과 서양을 배척한다는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 의 구호까지 등장하였으나, 지도부 안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봉기를 일으키는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다가 좀 더 기다려 보자는 교단 중심의 북접 온건파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해산되었다. 원평집회에 모여 보은의 동정을 관망하다가 봉기를 적극 주도하려 했던 남접 강경파들도 결

국 북접이 보은집회를 해산시키자 이들과 연대를 모색하며 다음 시기를 기약한다는 뜻에서 일단 해산하였다.

농민들의 불만은 1894년 1월 고부민란(古阜民亂)이 직접적 계기가 되어 농민전쟁으로 전개되었다. 고부민란이 일어난 원인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학행위에서 비롯되었다. 전봉준은 1천여 명의 농민을 이끌고 고부관아를 습격하여 탐학한 이서배를 징치하고, 양곡을 몰수하여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무기고를 격파하여 농민군의 무장을 강화하였다. 농민군의 기세에 놀란 정부는 책임을 물어 조병갑을 체포하여 의금부로 압송하고, 대신 박원명을 고부군수로 임명하여 이들을 설득 · 회유하였다. 그리고 장흥부사 이용태를 안핵사로 파견하여 농민군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용태는 농민봉기의 원인을 올바로 규명하여 수습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였고, 게다가 무고한 백성을 동학교도로 몰아 재물을 약탈하고 목숨을 빼앗는 등 갖은 횡포를 자행하였다. 이로 인해 민심은 다시 극도로 흉흉해졌다. 이에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1894년 4월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위해 봉기하라는 통문을 발하자, 고부일대의 각 군에서는 8천여 명의 농민군이 재차 봉기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제1차 동학농민전쟁이다.

농민군이 백산에 대규모로 모이자 정부는 우선 전주감영 군사로 하여금 진압하도록 하는 한편, 홍계훈(洪啓薰)을 양호초토사(兩湖招討使)로 임명하여 800여 명의 경군(京軍)을 이끌고 출동하도록 하였다. 농민군은 황토현 전투에서 감영군(監營軍)을 격파한 데 이어서, 장성에서는 홍계훈의 경군도 격파하고 마침내 전주에 무혈입성 하였다. 그러나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이후 전쟁을 둘러싼 주변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자력으로 농민군을 진압하지 못한 정부는 전주성을 함락한 다음날 청나라에 출병을 요청하였고, 이어 5월 5일에 청군이 아산만에, 5월 6일에 일본군이 인천에 각각 상륙하여 민족적 위기가 고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군은 5월 8일 정부와 '전주화약(全州和約)' 을 맺게 되었다.

농민군은 전주화약을 맺는 과정에서 전주성 철수의 조건으로 폐정개혁안을 제시하고 국왕에게 아뢰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래서 이후 전라도 각지에 집강소(執綱所)를 설치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던 것이다. 집강소의 활동이

기존 수령의 활동과 다른 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조선후기의 가장 큰 모순이었던 양반신분제를 타파하는데 앞장선 점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수탈과 불평등 관계를 시정하려고 했던 점이다.

그러면 집강소 활동을 하던 농민군이 왜 또 다시 2차 봉기를 일으켰는가? 그것은 당시 전개되던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청 · 일(淸 · 日) 양군이 조선에 출병하자 농민군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군과 전주화약을 맺은 다음 집강소 활동에 치중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조선정부도 일본의 철군을 요구하고 교정청(校正廳)을 설치해 스스로 개혁을 추진하며 일본의 내정개혁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일본은 6월 21일 새벽, 무력으로 경복궁을 점령하여 민씨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원군을 앞세워 새 정권을 수립하였다. 이 사건을 '경복궁쿠데타' 또는 '갑오왜란(甲午倭亂)'이라 한다. 이어 성립된 새 정권은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설치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갑오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한편 쿠데타 직후인 6월 23일 일본 해군은 아산만 풍도에 있던 청군 함대를 공격함으로써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은 농민군으로 하여금 심각한 민족적 위기의식을 느끼게 했다. 농민군은 이런 변화에 따라 6월말부터 재무장에 들어갔으나 여전히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8월 평양전투에서 일본군이 청군에 대승을 거두고 나서 노골적으로 조선의 내정에 간섭을 해오자 9월 12일 삼례에서 2차 봉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1차 봉기가 반봉건투쟁의 성격이 강했다면, 2차 봉기는 반외세 · 항일투쟁의 성격이 강했던 것이다.

강원도에서 농민전쟁이 전개된 것은 제2차 농민전쟁이 시작되는 1894년 9월에 들어서이다. 동학농민전쟁보다 30여 년 앞서 1862년에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72개 군현에서 반봉건 농민항쟁이 일어났을 때 강원도에서는 농민항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채 잠잠했다. 그런데 개항 이후 사회모순이 깊어지면서 강원도에서도 1884년부터 1894년까지 크고 작은 민란이 8개 지역에서 30여 회 이상이나 일어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의 봉건적 모순이 극한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살펴볼 때 민란으로 다듬어진 강원도 농민들의 반봉건의식은 일찍부

터 전파된 동학교의 조직과 합세하여 농민전쟁으로 승화되었던 것이다. 후일 강원도 농민군의 총수령이 된 차기석이 최시형의 영향 하에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강원도 동학농민군은 북접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원도 동학농민군은 봉기과정 중 북접의 교단과 직접적인 연결점은 찾아볼 수 없다. 삼남지방의 2차 봉기가 9월 중순에 이르러 전개되는 반면, 강원도 농민군은 이미 9월 4일에 봉기하여 강릉부를 점령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 농민군은 북접 교단과는 독자적으로 봉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강원도에서의 농민전쟁은 평창, 정선, 영월, 강릉, 삼척, 홍천, 원주, 횡성, 양양, 간성, 인제, 춘천, 김화, 금성 등지에서 일어났는데, 농민전쟁은 크게 두 세력에 의해 전개되었다. 하나는 충청도 제천·청주세력과 연합하여 활동한 정선·평창·영월·원주 등의 영서 남부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차기석을 중심으로 홍천군 일대에서 활동한 중부 내륙세력이었다. 이 가운데 투쟁의 포문을 먼저 연 것은 영서 남부세력이었다. 1천여 명이 넘는 농민군 부대는 9월 3일 대관령을 넘어 구산역(丘山驛)에서 하룻밤을 자고, 9월 4일 별 저항을 받지 않고 강릉부를 점령하였다. 농민군은 강릉부에 4~5일 머무르는 동안 강릉부 관아 동문에 '삼정(三政)의 폐단을 뜯어고치고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이룩한다.'는 방문을 내걸었다. 그리고 삼정을 임의로 삭감하고 요호(饒戶)를 잡아들여 토지와 재산, 전답문서를 빼앗고 이서(吏胥)들을 잡아 족쳤으며, 민간의 송사를 마음대로 처결하였다.

한편 강원도 동학 농민군을 토벌한 부대의 주축세력은 원주에 있던 순군영에서 파견된 순중군과 각 지역의 유림세력을 중심으로 형성된 민보군(民堡軍)이었다. 삼남지방에서는 일본군이 모두 지휘권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당시 강원도에서의 농민군 토벌의 지휘권은 순군영에서 파견된 순중군이 장악하였다. 그러나 관군은 삼남지방과 마찬가지로 부실한 상태였다. 당시 반(反)농민군의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은 각 향촌사회의 기반을 장악하고 있던 보수지배층이었다. 『동학당정토인록(東學黨征討人錄)』에 의하면 당시 양양지방에서는 김익재(金翼齋)·노정수(盧鼎秀)·장혁주(張赫周)·김준수(金儁秀)·최주하(崔舟河) 등이 활약하였다고 한다.

2) 대한제국기의 양양

임오군란(1882년) 이래 조선에서 강력한 지위를 유지해오던 청국은 청일전쟁(1894~1895년)에서 패함으로써 그 지위를 일본이 이어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요동반도를 획득함으로써 만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틀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일본은 러시아 · 프랑스 · 독일의 삼국간섭을 받아 요동반도를 청국에 반환했다.(1895년 5월) 삼국간섭의 영향으로 일본의 지원 하에 개혁(갑오 · 을미개혁)을 추진해오던 온건개화파 내각이 동요하는 반면, 명성황후의 지지를 받는 보수파 인물들이 입각함으로써 정부는 배일 · 친러적 경향을 띠어갔다. 일본은 퇴세(退勢)를 만회하기 위해 명성황후를 시해했다.(을미사변,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 시해사건 뒤로 신변의 위험을 느껴온 고종은 1896년 2월 배일 친러파와 은밀히 추진하여 왕세자와 함께 궁궐을 탈출하여 정동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데 성공하였다. 아관파천은 삼국간섭 뒤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일시적으로 형성된 제국주의 열강 사이의 세력 균형과 고종이 이러한 국제 정세를 이용하여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서로 맞물리면서 가능하였다.

러시아는 이를 계기로 이미 남만주에 구축한 세력을 발판으로 조선으로 남하의 손길을 뻗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의 공사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러시아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었다. 러시아는 이를 발판으로 조선 정부에 대하여 군사 · 정치 · 경제적 이권을 요구하며 제국주의 침탈을 본격화하였다. 그들은 조선 정부 안의 배일 친러세력을 앞장세워 서울에 러시아어 학교를 세우고, 러시아 장교 10여 명을 동원하여 조선 군인을 훈련시키는 한편, 당시 재정 고문이던 영국인 브라운을 해고시키고 러시아 대장성 관리 알렉세에프를 그 자리에 들어 앉혔다.

이처럼 조선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당시 서울을 중심으로 문명개화와 자강 운동을 벌이던 독립협회가 강력히 반발하였다. 독립협회는 삼국간섭 뒤 이루어진 열강 사이의 세력 균형이 어느 한 나라의 영향력 강화로 깨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한 나라의 왕이 외국 공사관에 1년 가까이 머무는 상황에 대해 위로는 조

정 대신에서 아래로는 시전 상인에 이르기까지 고종의 환궁과 대외적 자주독립의 선언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러한 안팎의 여론을 등에 업고 고종은 마침내 1897년 2월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어 8월에는 황제 즉위를 준비하였다. 그 해 10월 12일 고종은 원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갖고 이튿날 '대한제국'의 성립을 나라 안팎에 선포하였다. 동시에 연호를 '광무'로 고쳐 이 해를 광무 원년으로 삼았다.

광무정권은 그동안 개혁의 과정에서 옛 법을 폐기하고 새로이 제정된 법이 잘 시행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하여 옛 법과 새로운 법을 절충하는 방향에서 개혁 사업의 원칙을 정하였다. 즉 '옛 것을 기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는 '구본신참(舊本新參)'이 그것이다. 갑오·을미개혁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성하는 데서 출발한 광무개혁은 사실상 1896년부터 시작되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1905년까지 계속되었다.

광무정권은 우선 갑오정권이 종래 8도의 지방행정구역을 23부로 바꾼 것을 도제(道制)로 환원하고 각종 향사(享祠)와 음력을 부분적으로 복원하는 한편, 단발령을 철폐하였다. 이것은 갑오정권의 급진적인 개혁정책을 일부 완화하는 측면과 함께, 갑오개혁으로 이반된 양반 유생의 반발과 흩어진 민심의 동요를 진정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에 앞서 고종은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101호〉를 반포하여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府制)를 실시한 바 있다. 그것은 전국을 23개의 행정구역으로 하여 23부 337군으로 하고 종래의 도·부·대도호부·도호부·군·현 등의 지방행정체제를 부·군제로 통일하였다. 당시 지방제도의 개혁은 8도의 각 감영과 안무영(按撫營) 및 개성·강화·광주(廣州)·춘천 등지의 유수부(留守府)를 폐지하는 동시에 각 도의 관찰사와 안무사(按撫使) 및 각 부의 유수 이하의 지방관을 모두 폐지하였다. 그 대신 소지역주의를 채택하여 전국을 23부로 개편하고, 종래의 부·목·군·현 등 대소의 행정구역을 폐합하여 군으로 획일화하여 23개의 부 밑에 분속시켰다.[28)]

23부제가 실시되면서 강원도는 영동과 영서로 나뉘어져 영동지방은 강릉부에, 영서지방은 춘천부에 속하게 되었다. 강릉부는 강릉군·울진군·평해군·삼척군·고성군·간성군·통천군·흡곡군·양양군의 9개 군을 관할하였으며, 춘천부는 춘천군·양

구군 · 홍천군 · 인제군 · 횡성군 · 철원군 · 평강군 · 김화군 · 낭천군 · 회양군 · 금성군 · 양근군 · 지평군의 13군을 관할하게 되었다. 현 양양군은 강릉부에 속해 있었다.

23부제의 실시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재편이라기보다는 지방관의 봉건적 절대권력을 근본적으로 타파하여 지방관의 횡포와 부패를 막고 지방행정체제를 중앙에 예속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전임 23명의 관찰사 혹은 안무사 중에서 개편된 지방관제의 관찰사에 임명된 자가 2명이고, 해당 읍의 지방관 중에서 관찰사로 승인(昇任)된 자가 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7명이 모두 경질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23부제는 외견상으로는 획일적이고 간편하여 상당히 합리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소지역주의에 입각한 과대분할로 실제 행정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았다. 게다가 종래의 8도제를 무시한 인위적인 획정이었기 때문에 오랜 전통과 현실 사이에 마찰이 불가피하였다. 그리하여 23부의 지방제도는 불과 1년 2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존재하다가 폐지되고, 1896년 8월 4일 〈칙령 제36호〉를 반포하여 13도가 시행되었다. 이때의 13도제는 종래의 8도를 기반으로 경기 · 강원 · 황해도를 제외한 충청 · 전라 · 경상 · 평안 · 함경도를 남북으로 분할한 것이었다. 13도 밑에는 부 · 목 · 군을 두었는데, 수도인 한성부만은 정부 직할하에 두어 도와 격을 같게 하였다. 한성부를 제외한 일반 부(府)는 광주 · 개성 · 강화 · 인천 등 경기도 관할하의 4부와 경상남도의 동래, 함경남도 덕원, 함경북도의 경흥 등 모두 7곳이었고, 목은 제주 1곳이었으며, 군은 23부제 실시 당시의 336개 군에서 약간의 통폐합을 거쳐 331개 군으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들 부 · 목 · 군은 지역의 중요성과 특수성에 근거하여 1~5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23부제 하에서도 인구 · 토지 등의 기준에 따라 운용하여 오던 것이었다. 부와 목은 당연히 1등급으로 취급하였지만, 군은 5등급을 대폭 축소하여 86개 군에서 단 2개 군으로 줄인 대신 4등급을 확대하여 109개 군에서 214개 군으로 늘인 점이 이전과 달랐다. 당시 강원도 26개 군은 모두 4등급에 속하였다. 그러나 23부제는 다음해 폐지되고 13도제가 실시되면서 강릉부 양양군은 강원도 양양군으로 개칭되었다.

3) 의병항쟁과 양양

의병은 나라가 외적의 침입으로 위급할 때 국가의 명령이나 징발을 기다리지 않고 민중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외적에 대항하여 싸우는 구국 민병을 말한다. 한말의 의병활동은 크게 보아 두 단계를 거쳐 발전해 갔다. 첫 단계는 1895년 일어난 을미의병이고, 두 번째 단계는 1905년 이후의 을사의병과 정미의병이다.

(1) 을미의병

한말 의병항쟁의 효시는 1895년 일제가 자행한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단발령을 계기로 일어난 을미의병으로 소급된다. 을미의병의 발단은 단발령이 직접적 원인이었다. 단발의 경우 그 자체만 본다면 근대화의 상징적 몸짓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활동상 건강상 편리할 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짧은 머리 모양을 할 때 근대적인 정신이 그 안에 깃든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 라 하여 이를 조금도 훼상(毁傷)하지 않음이 효의 시초라고 배워왔던 성리학자나 그 세례를 받고 살아왔던 대부분의 백성들에게 단발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충격이었고, 따라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1894년에 일본군대가 경복궁을 점령한 사건인 '경복궁쿠데타' 와 한 나라의 왕비를 참혹하게 살해한 사건인 '을미사변' 을 계기로 의병이 활발히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단발령을 계기로 의병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초기 의병전쟁의 성격과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국가와 민족이 걸린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가 인간을 행동하게 만든 직접적인 계기였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의식이나 민족의식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경복궁쿠데타와 을미사변이 주었던 자극은 비록 즉각적인 반발은 없었다 하더라도 어느 틈엔가 저변에서 민족의식을 확산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을미의병의 계기가 단발령이었다고 해도 그 저변에는 민족의식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의 의병은 일본에 대한 대항보다도 정부에 대한 대항이라는 성격이 강했다. 당시 집권하고 있던 김홍집 내각은 명성황후가 시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

공포하지 못하게 하였고, 또한 이 사건과 일본인은 무관하다고 선언해서 우리 백성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그래서 당시의 내각은 의병항쟁의 직접적인 목표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 정권에서 반포한 단발령은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었다.

을미의병에서는 보수적인 양반유생들이 지도부를 구성하였다. 보수적인 양반유생들은 그 대부분이 동학 농민군 토벌에 참여했던 민보군(民堡軍)을 기반으로 창의하였다. 이들은 향촌사회의 보수적인 지배층으로서 사회 · 경제적인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학문적 · 지연적 · 혈연적인 재지적 기반이 공고한 사족가문 출신의 유생들이었다. 이들은 학문적으로는 조선후기 사상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른바 위정척사사상의 전통 위에서 현실을 인식하고, 그 논리에 따라 반제국주의 투쟁을 전개하는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양반유생들은 학문적 기반과 지연 및 혈통에 기초한 치주망(緇蛛網)처럼 얽힌 연계관계 위에서 조직적인 동원이 가능하였고, 이서층의 경우에도 사회 · 경제적 성장 기반 위에서 창의에 참여하고 있었다.

을미의병 당시 영동지방에서의 의병활동은 민용호(閔龍鎬)의 관동창의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29] 민용호는 고종 32년(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경기도 여주에서 거의(擧義)한 뒤 병력을 이끌고 이듬해 1월 15일 원주의 남쪽 30여리 떨어진 신림(神林)에서 이병채 · 송형순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키고 대장에 추대되었다. 민용호는 1월 17일 원주를 떠나 1월 29일 강릉진입을 눈앞에 두고 대관령에서 의병진의 진용을 갖추었다. 의병장은 민용호, 좌군장은 김원섭, 우군장은 이병채, 전군장은 강우서, 후군장은 박한옥(朴漢玉, 일명 朴雲瑞)이었다.

민용호는 강릉에 진입하여 강릉의 토착세력을 포섭하고 경무관보 고준식을 처단하였으며, 강릉의 선비 권인규를 초빙하여 각종 포고문을 작성하여 의병의 뜻을 널리 전파하였다. 육지와 해안에 봉수장(烽燧將)과 망해장(望海將)을 두었으며, 무사청과 예빈소를 설치하였다. 민용호는 1896년 3월 초순 원산공략에 나설 때까지 한달 동안에 우선 영동의 제군(諸郡)을 통괄하는 '관동구군도창의소(關東九郡都倡義所)'를 설치하여 주변세력을 규합하고 의병[산포수]을 소모(召募) 하는 등 전력강화에 진력하였다. 민용호가 원산공략에 나선 것은 원산이 강화도조약에 따라 설치된 개항장 가운데 하나로 일본인들에 의해 군사 및 경제적 침략의 발판이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민용호는 어느 한 지역에서 의병활동을 벌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관동에서 준비한 병력으로 관북방면에 들어가 그곳 의병들과 합세하고, 다시 서북지방의 의병들과 연합하여 서울로 진공하자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다. 이에 민용호는 원산공격을 위한 북진계획을 서둘러 2월 7일 북으로 함경남도에서 남으로 경상북도에 이르기까지 의병의 소모사를 파견하였다. 즉 오영도 총독(五營都 摠督) 권익현(權益顯)을 북각읍소모사(北各邑召募使)로 삼아 원산항의 정세를 정탐하면서 양양 · 간성 · 고성 · 통천 · 흡곡 · 안변 6읍의 군사를, 권명수(權明洙)를 영외북각읍소모사(嶺外北各邑召募使)로 삼아 인제 · 양구 · 화천 · 회양 · 평강 · 김화 · 금성 7읍의 군사를, 이경환(李景煥)과 김윤희(金允熙)를 정선 · 삼척 · 울진 · 평해 · 흥해 5읍의 소모사로 삼아 군사를 모으도록 조처하였다. 그 이튿날(2월 8일)에는 진사 김형윤(金亨倫)을 경상도연해소모사로 삼아 의병소모와 일본군 방어의 임무를 수행케 하였다. 그리고 민용호는 전군장(前軍將) 강우서(姜禹瑞)를 삼척지방에서 의병을 일으킨 유생 김헌경(金憲卿)에게 보내 합류를 설득하여 중군(中軍)으로 삼았고 얼마 후 삼척 유진장(留陳將)으로 삼았다. 또 진사 이우열(李佑烈)을 양양 유진장에, 이명렬(李明烈)을 양양 수성장(守城將)에, 진사 최용각(崔龍珏)을 간성 유진장에 각각 임명했다.

민용호가 이끄는 2천여 명의 강릉의병은 원산의 일본인거류지 공격을 계획하였다. 당시 원산에는 일본인 1,400여 명이 거류하고 있었으니 공격의 주목표가 되기에 충분했다. 민용호부대가 북정(北征)을 떠난 것은 1896년 3월 4일로 강릉입성 두 달 후였다. 이때 강릉에는 이병채(李秉埰)와 민동식(閔東植)이 유진장(留陣將)과 수성장(守城將)으로 각각 남아 그들의 근거지 수비에 만전을 기하였고, 출진(出陣)에 앞서 오영도 총독 겸 북각읍소모사 권익현을 선발대장으로 하여 안변 일대를 점거하고 원산항의 적정을 탐지하도록 했다.

민용호부대는 3월 11일에 통천에 도착하였으며, 3월 17일에 원산의 길목인 선평(仙坪)에 진을 쳤다.[30] 이 무렵 선평에 집결한 별도 예하부대 병력으로는 춘천에서 온 의병 170명, 고성 · 간성 지방에서 온 병력 240명 및 기병 30여 명, 그 외 원주 · 횡성 · 회양 · 양양 등지에서 모여들었고, 관북의병 300여 명이 합세하여 새로운 편제까지 마련하고 있었다.[31] 민용호는 먼저 소규모의 선발대를 원산에 잠입시켜 원산시가의 곳곳

에 방화케 하여 민심을 교란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방화초기에 이를 신속히 진화함으로써, 원산을 불바다로 만들고 그 틈을 타서 공격하려 했던 민용호부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민용호부대의 본진은 선발대의 실패 이후에도 해안선을 따라 북상을 계속하여 양양(3월 5일) · 간성(3월 8일)을 지나 3월 9일에 고성에 도착하였고, 이틀 후에 고성을 떠나 당일 저녁 무렵에 통천에 도착하였다. 민용호부대의 본진이 안변 선평에 도착한 것은 3월 17일이었다. 원산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인후(咽喉)가 되는 안변을 반드시 점령해야만 했다. 그러나 당시 1,700여 명이 참여한 민용호부대는 일기불순으로 안변 선평에 유진해 있는 동안, 원산수비대장 중천우수(中川祐須) 소좌는 정찰병과 한인정보원을 파견하여 의병의 동태를 살폈다. 이어서 중천 소좌는 17일에 40명, 18일에 25명의 수비대 병력을 연안 가도를 타고 선평으로 출동시켰다. 일본 대본영에서는 의병이 원산을 내습하기 위해 이동한다는 급보를 전달받고 곧바로 육전대(陸戰隊) 병력을 실은 군함 고웅호(高雄號)를 파견하여 3월 16일 원산항에 입항하게 하였다. 의병이 선평에 주둔해 있다는 첩보를 받고 3월 17일 오전에 수병 1개 소대와 야포대를 상륙시켰다.

민용호부대와 일본군과의 전투는 3월 19일 선평장에서 일본군의 기습으로 시작되었다. 일본군은 갑자기 내리는 진눈깨비로 화승총을 쏠 수 없는 악천후를 이용하여 선제공격을 감행했다. 전투에 참여한 일본군은 원산수비대와 군함 고웅호에서 파견한 육전대 등 도합 150여 명 정도로 이들이 천여 명의 의병과 격전하였다. 기습을 받은 의병은 결사의 항전을 벌였으나, 일기불순으로 의병들이 가진 화승총 사용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전투가 계속될수록 전황이 의병측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민용호는 하늘을 원망하면서 원산항을 뒤로 한 채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32] 이날의 전투에서 의병측은 군사 박동의가 전사하고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일단 통천으로 퇴각한 민용호부대는 회양과 양구를 거쳐 3월 29일 오색령을 넘어 양양에 도착했다. 이때 민용호는 고성에 일본군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북방으로부터의 위협을 없앨 생각으로 별영장(別營將) 김연상(金演常)에게 군사 500명을 주어 급파하였다. 민용호부대는 4월 3일 일단 강릉 연곡에 유진(留陣)하였다가 다음날 강릉으로 회군하던 중 뜻밖에 민용호부대의 핵심인물인 강릉유진장 이병채의 모반사건이 발생하

여 강릉입성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 민용호는 곧바로 강릉부중(江陵府中)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이병채는 '패군의 장수는 성에 들어올 수 없다' 고 하며 민용호의 입성을 거부하고 나왔다. 그러나 이때 부중(府中)의 유생들이 주축이 되어 동문(東門) 안에 별도의 의병소(義兵所)를 세우고, 관찰사 이위(李暐)를 축출하고 공금 7천금을 탈취하여 주민들의 큰 반발을 사게 되었던 이병채와 대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민심이 불리함을 깨달은 이병채가 스스로 민용호에게 투항해 옴으로써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민용호는 대진을 이끌고 원산공략을 위해 북정(北征)길에 오른 지 꼭 한달 만에 강릉으로 귀환하게 되었다. 이후 민용호는 강릉을 중심으로 전력을 강화하는데 진력하였다.

민용호부대의 원산 공략계획이 이렇게 실패로 끝나기는 하였으나, 대일 항쟁의 의지만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민용호부대는 이때부터 5월 24일 관군의 공격으로 강릉을 물러날 때까지 약 2개월 동안 병력을 다시 모아 의진(義陣)의 전열을 수습하는 한편, 영남 각 지역에 격문을 보내어 그 동안의 원산진공계획의 전말을 밝히면서 의병부대들과의 연합작전을 호소하였다.[33)]

민용호는 4월 영남 각읍에 격문을 보내어 상호 연합할 것을 호소한 후, 5월에는 소모사 이호성(李虎成)으로 하여금 영남의 김도현(金道鉉) 의병장에게 보내어 합진(合陣)을 요청하였다. 이에 안동의진에서 중군장(中軍將)을 역임한 김도현은 의병 60여 명을 이끌고 평해 · 울진 · 삼척을 지나 5월 초순경 민용호부대에 합세해 왔고, 민용호는 그를 선봉장으로 중용하였다. 이와 같이 민용호부대와 영남의 김도현의병부대가 제휴하여 군세가 강화되고 있을 무렵인 5월 13일경 적의 공격을 받은 민용호부대는 대관령 동쪽 기슭의 보현산성에서 공방전을 벌인 끝에 관군(경군)에게 타격을 입혔다.

한편 강릉부의 신임 관찰사 서정규(徐廷圭)가 참서관 조희봉(趙羲鳳), 친위대 제2대대 중대장 정위(正尉) 김홍권(金鴻權) 등과 함께 맹일호(孟一鎬, 전 강릉부 주사), 이석범(李錫範, 민용호부대의 좌군장 역임) 등을 앞세워 관군을 이끌고 강릉을 향해 홍천까지 왔다는 소식에 접하자, 민용호는 선봉장 강우서(姜禹瑞) · 신무섭(申懋燮) 등을 급파하여 강릉진입의 요로인 속사리(평창군 진부면)와 몰잇재[(沒夷峙), 대화면 노근리]를 수비토록 하는 한편, 김안수(金安洙)에게 북읍(北邑)의 의병을 동원해 관군의 대관령 진입을 차단하도록 아울러 조처하였다. 또 그는 관찰사 서정규와 중대장 김홍권 이하 경병에게 각

각 효유문(曉諭文)을 보내 의병을 공격하는 것이 의리에 배치된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관찰사 일행은 오색령을 넘어 양양으로 들어와 민용호부대와 전투를 벌였고, 이어 강릉외곽의 연곡으로 진출한 뒤 5월 24일 새벽 강릉부중의 의병본진으로 공격하여 왔다. 민용호부대는 이들을 맞아 김안수 · 권인하 · 강우서 · 신무섭 등의 지휘 아래 수성전(守城戰)을 벌였으나 전력의 열세로 패하여 강릉을 버리고 산간협지인 임계로 물러나게 되었다. 이어 민용호부대는 임계를 떠나 영동과 영서를 잇는 교통의 요지인 백봉령(白鳳嶺)을 넘어 동해안의 북평에 도착한 후 삼척으로 이동하였다. 이곳에는 이미 삼척 출신의 김헌경이 민용호부대의 휘하에 들어와 유진장으로 활약하면서 그 기반을 착실히 다져놓은 상태였다.

이때 관군은 강릉에서의 승세를 몰아 화비령(강릉시 강동면 소재)을 넘어 5월 31일 새벽 삼척에 이르렀다. 이에 민용호는 삼척출신 유진장 김헌경과 선봉장 김도현과의 합동작전으로 관군의 접근에 대비하였다. 관군의 공격개시와 동시에 시작된 이날의 전투는 05시부터 17시까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그러나 민용호부대는 관군의 공격이 잠시 주춤하는 틈을 타서 신속히 포위망을 뚫고 후퇴하였다. 영남의 김도현 의병장은 민용호부대에서 20여 일간 머물렀다가 5월 31일 삼척전투에서 패한 끝에 민용호부대와 결별하고 잔여 10여 명의 군사만을 데리고 영양으로 남하하였다. 민용호부대는 삼척전투 이후 황지령을 넘어 정선—임계를 지나 다시 강릉으로 들어갔다.

한편 춘천의병의 별동부대인 성익현(成益鉉)의병이 민용호부대와 합세하고자 동해안의 통천을 지나 고성방면으로 내려왔다. 그는 친일관료인 고성군수 홍종헌(洪鍾憲)과 양양군수 양명학(楊命學)을 차례로 처단한 뒤 양양 속초리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성익현부대는 친위대 중대장 김홍권이 이끄는 관군의 공격을 받고 부득이 간성 건봉사로 퇴각하여 유진하였다. 이에 민용호부대는 성익현의병과 연합하기 위해 연곡 · 양양방면으로 나아갔다.

이때 김홍권이 이끄는 관군은 강화도 관군 500여 명 등을 지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500~600명의 예수교도들이 가세하여 간성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에 민용호부대는 6월 12일 간성의 관군과 일대교전을 벌여 그 예봉을 꺾으려 하였으나, 오히려 패배하여 순포(巡浦)로 퇴군하였다. 간성전투의 전과는 의병측이 30여 명의 관군을 포로로 잡은

데 비해 60~70여 명의 의병이 부상당하였다. 관군들은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자기포(自起砲)를 믿고 우천(雨天)을 틈타" 또다시 순포에 유진 중인 의병을 공격하였다. 이때 의병은 그들을 맞아 결사적으로 항전하여 관군측의 사상자와 피포자가 200여 명에 달하는 뜻밖의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민용호부대는 정부에서 더욱 의병해산을 종용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민용호는 고종에게 다시금 의거의 정당성과 의병을 해산할 수 없는 이유 등을 밝히었다. 민용호부대는 이같은 어려운 형세에서도 항전의 결의를 늦추지 않았다. 6월 24일경, 양양에 주둔해 있는 관군에 대한 공략작전을 편 결과 중대장 김홍권 이하 80여명의 관군을 사살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이 양양전투는 실로 민용호부대가 거둔 최후의 승전이라 하겠다.

그러나 곧이어 벌어진 연곡전투에서 중군장 최중봉이 전사함으로서 민용호부대의 전력은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최중봉의 전사소식을 듣자 민용호는 군중에 3일 동안 복을 입게 하고, '유유한 하늘이시여, 어찌 달포가 넘도록 비를 계속 내리시는가.' 라고 탄식하면서 삼척으로 물러났다. 7월 하순까지 장마는 계속되었고 의병들은 그동안 계속된 전투로 인해 피로가 극도로 쌓여 더 이상 항전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자, 8월 초순 민용호는 마침내 북행대장정(北行大長征)을 결심하게 된다. 민용호가 압록강을 건너는 것은 10월 5일이었다. 민용호는 휘하 의병을 이양희에게 맡겨놓은 채 청나라의 원조를 기대하고 서간도 통화현(通化縣)을 지나 심양(瀋陽)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민용호는 1896년 1월 중순 원주에서 거의한 지 약 10여 개월에 걸친 항전 끝에 사실상 의병을 해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2) 을사의병

을사의병은 1905년 '을사조약' 이 계기가 되어 그 이듬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을사의병은 을미의병과는 달리 국권침탈에 대한 저항의 성격이 강했다. 일본은 조선을 '보호' 하여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었지만, 그 실상은 일본의 침투를 막는 전통사회의 제도들을 없애고 그 자리에 일본의 제도를 갖다 심

는 것이었다. 그것도 아주 취약한 일본 자본가를 돕기 위해 그들에게 특혜를 주는 대신, 조선의 토착자본가에게는 궤멸적 타격을 줄 조치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었다. 철도 · 통신 · 화폐제도는 근대화의 상징일지는 모르지만 조선인들에게는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유생의병장들의 사고방식도 단순히 봉건체제나 윤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당시 국제질서 속에서 조선이 독립국가로서 대우받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차원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민족적 과제에 동감하는 농민층 · 상인층의 호응을 받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갔던 것이다.

이 시기의 의병봉기 역시 최익현(崔益鉉) · 기정진(奇正鎭) · 허위(許蔿) 등 저명 유생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가령 화서 이항로의 제자로 당시 대표적인 유학자였던 최익현은 전북 태인에서 기의(起義)하였으나, '일본군이면 모르되 국왕이 보낸 군사와는 싸울 수 없다' 고 하며 항복하고 말았다. 이 사건은 아직도 봉건적인 이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1906년 3월경 삼척에서 전 도사(都事) 김하규(金夏奎, 河奎)가 의병을 일으키고, 이에 황청일(黃淸一)이 가담하여 더욱 의세(義勢)를 떨쳤다. 강릉출신인 전 현감 황청일은 일찍이 민용호의 관동의진에 참가하였고, 삼척의 김하규 의병부대와 영해에서 재기한 신돌석(申乭石) 의병부대에 호응하여 일본군을 격파하기도 하였다.[34] 그러나 당시 양양에서 직접적으로 의병에 나서 활동한 것은 찾아지지 않는다.

(3) 정미의병

정미의병은 헤이그 밀사사건, 고종의 강제퇴위, 정미 7조약, 군대해산 등이 계기가 되어 일어났다. 고종의 퇴위는 군주를 외세가 마음대로 갈아치웠다는 점에서 의병을 일으키는 명분을 제공했으며, 군대해산은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함으로써 그때까지 전혀 군사적인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에 의해 움직여지고 현대식무기의 보급이 없었던 의병진영의 전력을 급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의병들의 투쟁은 전쟁의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정미의병 단계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양상들이 많이 나타났다. 우선 의병의 지도부는

양반유생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다수의 평민도 의병장이 되었다. 의병 지도부의 구성을 보면 약 25%만 양반이었고, 나머지는 상민 · 군인출신이었다. 가장 적극적으로 투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개항 이후 급격한 상품화폐경제의 발달로 몰락하여 행상으로 연명하거나 화적(火賊)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의병대열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또한 그 이전의 의병은 학통을 중심으로 일어나 지역적인 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났던 한계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면 각 지역 간의 연합전선, 대규모부대에 의한 연합작전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미의병 당시 강원도 지역에서 활약한 의병장 및 의병부대는 민긍호 의병부대, 이강년 의병부대, 지용기 의병부대, 유홍석 의병부대, 이인영 · 이은찬 의병부대, 허위 의병부대, 왕회종 · 김주묵 의병부대, 그리고 연해주에서 의병활동의 의맥을 이어간 유인석 의병장이 있다.[35] 이 가운데 양양지방에서 의병항쟁을 전개한 것은 이강년과 지용기부대였다.

을미 · 을사의병에 참여한 바 있는 이강년은 제천 북쪽 10㎞ 거리에 있는 배향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가 7월 2일(음력)에 원주진위대가 봉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원주로 직행하여 진위대 무기고에서 총기와 탄약을 챙겨 배향산에다 진영을 구축하였다. 이강년은 민긍호 의병부대와 함께 제천을 양면공격하여 일본수비대를 급습하여 승전하였다. 그리고 영월 주천에서 40여 의진의 회맹으로 이강년은 도창의대장(都倡義大將)으로 추대되었다. 이강년 의병부대는 서울진공작전을 위해 북상하기 전까지 약 4개월간 충청 · 강원 · 경상도 일대를 중심으로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1907년 겨울 13도창의군의 전국연합부대가 창설되자 이강년은 관동창의대장 이인영으로부터 경기도 양평으로 집결하라는 통문을 받고 이듬해 1월 8일(음력)에 천신만고 끝에 경기도 용소동[가평 서북쪽 18㎞] 부근에 당도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지인 양주지역으로의 진출은 여의치 않았다. 그것은 일본군과 싸우면서 오랜 행군을 한 탓에 병력이 피로한데다 일본군 수비대와 경찰들이 양주로 이동하는 길목을 가로막음으로써 용소동 일대에서 한 달 이상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호서창의대장으로서 의병을 총동원할 임무를 맡은 이강년은 예정된 날짜에 병력을 집결시키지 못하여 결국에는 서울진공작전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강년부대는 경기도에서 2개월 여 동안 자

주 일본군과 접전을 벌였는데, 2월 17일 용소동전투를 비롯하여 2월 26일 갈기동전투 등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이강년 의병부대가 강원도 지역으로 활동무대를 옮겨온 것은 1908년 4월경이었다. 이강년 의병부대는 1908년 4월 6일 인제 서면을 거쳐 다음날 오색리로 행군한 후 4월 10일 설악산 백담사에 주둔하였다. 백담사에서 우군선봉 최동백(崔東白)이 군사 수십 명을 모집해 왔으므로 병력이 다소 보강되어 200여 명의 전열을 정비하던 중 4월 13일 일본군 추격대 500여 명이 백담사로 접근해오자, 이강년 의병부대는 이들을 맞아 반나절 동안이나 격전을 벌여 일대 승첩을 올렸다.[36] 다음날 부대를 신흥사로 옮겼다가 오세암을 경유하여 양양, 강릉으로 내려갔다. 4월 29일 강릉 사방사(四方寺) 부근에서 일본군을 만나 지구전을 전개하였으나 전세가 불리하자, 다음날 하시동으로 내려가 밤을 지내는데 갑자기 일본군의 습격을 받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5월 1일 강릉에서 설악산 봉정암으로 행군하여 양양 서면을 거쳐 5월 2일 홍천 북면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이 양양 쪽에서 추격해 오자 이강년 의병부대는 반격하여 일본군을 퇴각시켰다. 5월 3일 밤에 현남면 해변가 백사장에 의진(義陣)을 치고 있을 때, 일본군이 습격해 오자 하한서(河漢瑞)가 정예병을 거느리고 그들을 맞아 퇴각시켰고, 다음날 강릉 연곡으로 이동하여 군사들을 휴식케 하였다.[37] 『조선폭도토벌지(朝鮮暴徒討伐誌)』에는 5월 4일 이강년 · 이준명 · 정원팔 등 260명이 오세암에서 일본군과 싸웠으나 50여 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고, 또한 『폭도사편찬자료(暴徒史編纂資料)』에는 5월 9일 이강년이 부하 300여 명을 거느리고 양양우편취급소를 습격하여 양양분견대 및 주재 순사와의 5시간 동안 전투 끝에 10여 명이 부상당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강원지역의 양양 · 홍천 · 인제 · 강릉 등지에서 전투를 벌이던 이강년은 자신이 지리를 잘 아는 경상도로 내려가 항전을 계속할 생각으로 태백산 줄기를 따라 남하하여 영월 상동의 운기리(雲基里)에 도착하였다. 이때 마침 백남규(白南奎) · 권용일(權用佾)이 그동안 모집한 의병을 거느리고 본진에 합류하였고, 삼척의병장 성익현(成益賢)이 또한 500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합세하여 이강년 의병부대는 일시에 대부대를 형성하게 되었다.[38]

이강년은 새로운 활동근거지를 확보하기 위해 재차 안동 서벽(西壁)으로 남하하였다.

이강년은 소백산 · 일월산 일대에서 일본군과 유격전을 벌여 큰 전과를 거두었으나, 7월 2일 청풍 까치성[작성(鵲城)] 싸움에서 부상을 입고 일본군 제천수비대에 체포되었다. 7월 8일 서울의 일본군 헌병사령부로 압송되었다가 평리원으로 옮겨 9월 22일에 교수형을 선고받고 10월 13일에 생을 마감하였다.

양양 출신의 지용기(池龍起, ?~1908년)는 1907년 9월 이언용(李彦用) · 이완채(李完蔡) · 이인재(李寅在) · 신창호(申昌鎬) 등과 의병장으로 추대되었다. 그는 의병 600여 명을 지휘하여 양양, 충청북도 청주 · 쌍호, 경상북도 송면 등지에서 일본군 수비대 및 헌병대와 싸워 큰 타격을 주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의병 250여 명을 이끌고 낭천(狼川)에서 동쪽으로 약 10리 떨어진 곳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그 뒤 여러 전투에서 용맹을 떨쳤으나 1908년 11월 적군과 교전하던 중 순국하였다.

이러한 활발한 의병투쟁이 있었기에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작업 자체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나아가 우리의 국권을 끝까지 지키려는 저항의식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가 되어서도 민족해방운동을 끈질기게 전개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의병전쟁의 정신과 경험이 일제 강점기 민족해방운동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4) 애국계몽운동과 양양

애국계몽운동이란 을사조약을 계기로 전개된 실력양성에 의한 국권회복운동을 지칭하는 역사적 용어이다. 실력을 양성하여 국권을 회복하려고 했던 이 운동은 개항 이후 근대적 자본주의 국민국가를 건설하려고 노력해 온 개화자강파 계열의 인사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들은 각종단체를 조직하고 계몽강연 · 언론활동 · 정치운동 · 교육구국운동 · 민족산업진흥운동 · 청년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계몽운동은 갑신정변 · 갑오개혁 등을 거치면서 심화된 개화파의 개혁이념과 독립협회의 조직적인 운동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수많은 학회를 설립하고, 신문과 학회지를 발행하여 여기에 자신들의 주장을 발표했다. 『대한매일신보』 ·

『황성신문』은 이들이 발간하여 애국계몽운동의 주장을 발표한 대표적 신문들이었다. 당시 강릉사람들 사이에서 『황성신문』이 읽혀진 것으로 보아 양양지방 또한 애국계몽운동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잡지 · 신문에는 다양한 논조의 글들이 실렸는데, 그 기조는 문명개화론에 입각한 '자강론(自强論)'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청을 통해 들어온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우승열패 ·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으로 보고, 약한 조선이 강한 일본에게 지배를 받는 것, 그 자체는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이들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강자가 되어 세계무대에서 제대로 대접받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실력을 양성하는 일이었다. 그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다름 아닌 '교육'과 '식산(殖産)'이었다. 애국계몽운동가들은 국력을 배양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교육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 박은식은 우리나라가 국권을 잃은 것은 일찍 신지식을 배워서 힘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 보고 국권을 회복하려면 신교육을 진흥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설파하였다.

교육의 진흥이 국권회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애국계몽운동가들은 신교육의 발전과 사립학교의 설립을 통해 실력배양과 민족의식의 고양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전국적으로 무수한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 일제의 보고에 따르면 사립학교가 한때 거의 5천 개에 달하였고, 학생수는 20만 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1개 군에 20개에 가까운 사립학교들이 설립되었던 것은 바로 교육을 통하여 근대화로 나아가고,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강원도의 사립학교는 인가를 받은 학교가 1909년 당시 53개교, 1910년 당시에는 43개교가 있었으며, 그와 같은 수의 비인가학교가 있었다. 양양지방에는 현산학교(峴山學校)가 있었다.

현산학교의 설립자는 근대의 대표적인 개화파 지식인인 남궁 억(南宮 億)이다. 그는 고종 21년(1884년) 영어학교인 동문학(同文學)을 수료하였고, 1889년 궁내부별군직(宮內府別軍職)을 거쳐 고종 31년(1894년) 갑오경장 내각에 내부토목국장으로 중용되어 서울 종로와 정동 일대 및 육조 앞과 남대문 사이의 도로를 정비하고 파고다공원을 세웠다. 고종 33년(1896년) 7월 서재필 · 이상재 등과 독립협회를 창립, 중앙위원 · 서

기 · 사법위원 · 평의원 등에 선출되는 등 고위급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고종 35년(1898년) 9월 나수연 · 유근 등과 『황성신문』을 창간하고 사장에 취임, 국민 계몽과 독립협회 활동을 지원하는 데 힘을 쏟았다. 1905년 3월 고종의 간곡한 요구로 다시 관직을 맡아 성주목사로 부임해 선정을 베풀었으나, 그 해 11월 일본이 강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국권을 박탈하자 통분을 참지 못하고 사임한 뒤 귀경하였다. 1906년 2월 다시 양양군수에 임명되자 애국계몽운동에 참가하여 1906년 7월 양양의 동헌 뒷산에 현산학교를 설립하고 구국교육을 실시하였다.

중등 수준의 현산학교는 처음에 주민들의 신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군수의 직책을 활용하여 주민들을 강요하다시피 하여 학생을 등교시키고 7월 20일 개교식을 거행하였는데 학생수는 200여 명이었다. 개교 당시의 교사와 교과목은 군수이자 교장이었던 남궁 억이 영어와 음악을, 정우용(鄭禹鎔)이 산수와 역사를, 김홍식(金洪植)이 일본어와 체조를, 이홍영(李鴻榮)이 국문과 한문을 각각 가르쳤다. 수업료는 없었고 공책과 연필은 무료로 공급하였다. 그리고 교과서를 깨끗하게 사용한 학생에게는 상을 주었고, 이를 다음 학생에게 물려주었다. 현산학교는 '국권갱생(國權更生)의 길은 오직 하나인 교육 밖에 없다' 라는 교육 정신을 내걸어 민족주의 정신을 고양시키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1907년 일제의 강요로 '정미 7조약' 이 체결되자 남궁 억은 군수를 사직하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처음 학교를 설립할 때 적극 반대하였던 지방 유림학자인 정현동(鄭顯東)에게 교장의 일을 맡기면서 학교 운영을 부탁하였다. 이 학교는 오늘날 양양초등학교와 양양중고등학교의 전신으로, 3 · 1운동 당시 조직적인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집필 : 박도식

각주

1) "(奈勿王)42年 秋七月 北邊何瑟羅旱蝗 年荒民飢 曲赦囚徒 復一年租調"(『삼국사기』권3, 신라본기).
2) 광개토왕은 왜병을 격퇴한 후 그 군대의 일부를 신라 영토 내에 계속 주둔시켜서 왕위계승과 같은 신라의 內政에까지 간섭하였다. 「중원고구려비」에는 신라 영토 내에 고구려인 幢主가 주둔하며 군사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우선정, 2000 「麻立干 時期 新羅의 對高句麗 關係」『慶北史學』23, 114쪽).
3) 『삼국사기』권3, 신라본기3 눌지왕 34년 7월조.
4) 『일본서기』권8, 雄略天皇 8년조.
5) 전덕재, 1990 「4~6세기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사회변동」『역사와 현실』4, 한국역사연구회.
6) 이우성, 1975 「남북국시대와 최치원」『창작과 비평』10-4, 창작과 비평사.
7) 서병국, 1981 「신당서 발해전 소재 니하의 재검토」『동국사학』15 · 16; 조이옥, 1999 「신라와 발해의 국경문제」『백산학보』52.
8) 송기호, 1989 「동아시아 國際關係 속의 渤海와 新羅」『韓國史 市民講座』, 일조각 ; 한규철, 2005 『발해의 대외관계사』, 신서원.
9) 서영일, 1999 「新羅 五通考」『白山學報』52(申瀅植博士 回甲紀念論叢).
10) 고려시대 관인과 구별되는 특별 부류에게 수여한 직. 태조 2년(919년)에 처음 두었고, 태조 19년(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한 뒤 관계를 재정비할 때 16등급 중 제8위에 해당되었으며 품계는 4품이었다.
11) 문무관에게 수여된 관계 중 최고의 관계.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한 뒤 관계를 재정비할 때 16등급 중 제3위에 해당되었으며 품계는 종1품이었다.
12) 왕건은 29명의 부인을 거느렸는데, 후비들의 출생지를 보면 황해도 9명, 경기도 4명, 충청도 3명, 강원도 3명, 전라도 2명, 경상도 6명, 출생지 미상이 2명으로 나타난다.
13) 10도는 본래 唐의 10도제를 모방한 것으로, 그 명칭도 대개 唐의 도명을 그대로 채용한 것이었다. 행정구획으로서의 10도 명칭은 關內道 · 中原道 · 河南道 · 江南道 · 嶺南道 · 嶺東道 · 山南道 · 海陽道 · 朔方道 · 浿西道였다.
14) 동계는 문종 원년(1047년)에 동북면, 명종 8년(1178년)에 연해명주도, 원종 4년(1263년)에 강릉도, 공민왕 5년(1356년)에 강릉삭방도, 공민왕 9년(1360년)에 삭방강릉도라고 불렀다(『고려사』권58, 지리지3).
15) 순양계 지역에는 속현이 없으나, 준남도 지역에는 남도 지역과 같이 속현이 두어지고 있다.
16) 고려전기 수군과 병선을 맡아보던 관청. 여진과 일본 해적이 자주 출몰하자 이를 방비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선병도부서(船兵都部署)라고도 불렀다.
17) 『고려사』권80, 식화지3 賑恤 災免之制.
18) 고종 8년(1121년)에 8월 몽골 황태제(皇太弟)가 저고여(著古與) 등을 보내와서 수달피 가죽 1만 영(領), 가는 명주 3천필, 가는 모시 2천필, 설면자 1만근, 용단먹(龍團墨) 1천 정(丁), 붓 200관(管), 종이 10만 장, 자초(紫草) 5근, 홍화(紅花) · 남순(藍筍) · 주홍(朱紅) 각 50근, 자황(紫黃) · 광칠(光漆) · 오동나무기름 각 10근 등을 요구하였다(『고려사절요』권15).
19) 속초시 설악동 남쪽에 있는 석축산성(石築山城). 일명 설악산성이라고도 한다. 둘레는 약 3,500m이고, 현재 성벽은 거의 허물어져 터만 남아 있다. 이 산성의 축조연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신라 때 권 · 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서 난리를 피하였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그리고 『낙산사기(洛山寺記)』에는 고려말 몽골군이 침입했을 때에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이곳에 성을 쌓고 피난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적어도 고려말 이전부터 존속한 산성임을 알 수 있다.
20) 이해준, 1983 「埋香信仰과 그 主導集團의 性格」『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지식산업사.
21) 조선시대 역참(驛站)을 관리하던 외관직. 조선초기에는 역승(종9품)과 찰방(종6품)이 병존했으나, 중종 30년(1535년)에 역승을 폐지하고 찰방으로 일원화하였다.
22) 박도식, 「조선초기 上院寺 立案文書 연구」『임영문화』26, 강릉문화원, 2003 참조.
23) 『중종실록』권15, 7년 5월 정사조.
24) 서유구, 『임원경제지』 本利志(上) 稻類.
25) 유시헌의 본명은 유인상(劉寅常)으로 1872년부터 최시형을 도와 활동하는 점으로 보아 1871년 3월 영해교조신원운동 직후 피신해 온 최시형을 만나 동학에 입교한 것으로 추측된다.
26) 천도교에서 한울님의 덕을 세상에 편다는 뜻으로 전도를 일컬음.
27) 이돈화, 『천도교창건사』.
28) 『고종실록』권33, 32년(1895) 5월 26일(병신).
29) 이에 대해서는 박민영, 1998 『대한제국기 의병연구』, 한울아카데미 참조.
30) 국사편찬위원회, 『관동창의록』, 1984, 7~8쪽.

각주

31) 『駐韓日本公使館記錄』5,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988, 18~19쪽.
32) 민용호는 이날의 날씨에 대해 "아, 원통하다. 하늘이 국가를 부흥시키지 않으려는 것일까, 義士를 돕지 않으려는 것일까. 이미 위태로운 경우와 해탈 징조를 가지고 있는지라 하늘도 역시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일까" 라고 탄식하였다(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巢隱倡義錄」『독립운동사자료집』3, 1984, 269쪽).
3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獨立運動史』1, 230~231쪽.
3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東遊錄」, 『獨立運動史資料集』1, 558~559, 575~576쪽.
35) 강원도의병사연구회 편, 1987 『강원의병운동사』, 강원대학교 출판부.
36) 『운강선생창의일록(雲崗先生倡義日錄)』, 276쪽. 이백담사 전투는 안동 서벽전투, 봉화 내성전투, 안동 재산전투 등과 함께 이강년이 의병항전 중 거둔 승첩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다.
37) 『운강선생창의일록』, 102쪽.
38) 백남규는 이강년이 경기도로 북상하기 전에 그로부터 호남창의장(湖南倡義將)의 직함을 받아 권용일과 함께 그 동안 경상, 충청 일대에서 4천명의 의병을 소모해 안동 서벽에 주둔해 있던 중, 이강년이 운기리에 당도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합류해 왔다고 한다(『운강선생창의일록』, 102~103쪽).

참고문헌

■자료
『三國志』(경인문화사, 1977).
『삼국사기』(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일본서기』(일지사, 1997).
『고려사』(아세아문화사, 1983).
『고려사절요』(아세아문화사, 1973).
『세종실록』, 『중종실록』(국사편찬위원회, 1958)
『고종 · 순종실록』(탐구당, 1996).
『신증동국여지승람』(아세아문화사, 1983).
『여지도서』(국사편찬위원회, 1979).
『증보문헌비고』(국학자료원, 1993).
『임원십육지』(서유구, 보경문화사, 2005).
『輿圖備志』(한국인문과학원, 1998).

참고문헌

『경국대전』(『朝鮮王朝法典集』 所收, 경인문화사, 1972).
『임원경제지』(서유구, 보경문화사, 1983)
「東遊錄」, 『독립운동사자료집』1(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巢隱倡義錄」『독립운동사자료집』3(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4).
『관동창의록』(국사편찬위원회, 1984).
『駐韓日本公使館記錄』5(국사편찬위원회, 1988).
朴貞洙 편, 『雲崗先生倡義日錄』, 국립중앙도서관 古2159-25.

▣ 저서 및 논문

강원도의병사연구회 편, 『강원의병운동사』, 강원대학교 출판부, 1987.
박도식, 「조선초기 上院寺 立案文書 연구」『임영문화』 26, 강릉문화원, 2003.
박도식, 『강릉의 역사와 문화』, 눈빛한소리, 2005.
박민영, 『대한제국기 의병연구』, 한울아카데미, 1998.
박용운, 『고려시대사(수정 증보판)』, 일지사, 2008.
서병국, 「신당서 발해전 소재 泥河의 재검토」『동국사학』 15 · 16, 동국사학회, 1981.
서영일, 「新羅 五通考」『白山學報』 52(申瀅植博士 回甲紀念論叢), 백산학회, 1999.
송기호, 「동아시아 國際關係 속의 渤海와 新羅」『韓國史 市民講座』, 일조각, 1989.
우선정, 「痲立干 時期 新羅의 對高句麗 關係」『慶北史學』 23, 경북사학회, 2000.
이돈화, 『천도교창건사』, 경인문화사, 1970.
이수건, 『조선시대지방행정사』, 민음사, 1989.
이우성, 「남북국시대와 최치원」『창작과 비평』10-4, 창작과 비평사, 1975.
이해준, 「埋香信仰과 그 主導集團의 性格」『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3.
이희권, 『조선후기 지방통치행정 연구』, 집문당, 1999.
전덕재, 「4~6세기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사회변동」『역사와 현실』 4, 한국역사연구회, 1990.
조이옥, 「신라와 발해의 국경문제」『백산학보』 52, 1999.
한규철, 『발해의 대외관계사』, 신서원, 2005.



Ⅳ. 3·1운동과 근현대사

1. 항일 의병운동

청일전쟁 이후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1895년에 명성황후의 시해사건인 을미사변과 단발령 등을 내린 을미개혁을 도화선으로 항일의병이 일어났다.

1896년 당시 영동지방의 의병 대장격인 민긍호(閔肯鎬)가 지휘하던 의병들이 강릉에서 원산으로 북진하던 중 양양지방을 경유하면서 산발적인 유격전이 전개되었다.

1897년 5월에 관찰사 서정규가 관군을 거느리고 양양면에 진입하면서 민긍호가 이끄는 의병들과 충돌하여 양양면소재지에서 임천리까지 싸움터가 되어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가 관군의 증원으로 의병들이 퇴각하였다. 이 결과 민가 30여 호가 소실되었다.

본격적인 항일 의병운동은 1905년의 을사조약이 체결과, 1907년에 군대 해산 이후 해산된 군대가 의병에 합류하면서 의병 활동이 활발하였다.

1907년 8월 19일에 의병 대장 우수길(禹秀吉)이 부하 약 200여 명을 거느리고 인제군 내면에서 양양면으로 공격하여 현산학교에서 돈 2천환을 강탈하였으며, 그 외 우편물취급소, 순사주재소 등을 파괴하고 명주사 부근의 산으로 피신하였다.

동년(同年) 11월 3일에는 민긍호가 박췌남(朴萃南), 주광석(朱光錫) 등과 함께 약 400여 명의 부하를 이끌고 양양면을 공격하여 현산학교 및 민가 2동을 불태우고 순사주재소를 파괴하여 순사와 읍민의 사재를 약탈한 뒤 피신하였다.

1908년 5월 6일에는 이강년(李康年)이 부하 300여 명을 거느리고 양양면을 공격하여 양양면 뒷산에서 5시간동안 치열한 전투를 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친 의병들의 항전이 이 지방에서 전개되었는데 주요활동 일지는 〈표4-1〉과 같다.

양양군에서 의병 활동일지와 의병들의 피해는 〈표4-2〉와 같다.

〈표4-1〉 항일의병 활동 상황[1)]

성 명	주 요 활 동 내 용
박화남(朴華南) (70세)	충청도 제천에서 봉기하여 부하 80여 명을 거느리고 원주, 양양, 고성 각지를 다니면서 활동.
주광석(朱光錫) (40세)	간성군에서 봉기하여 100여 명을 거느리고 간성, 양양, 고성 등지에서 활동. 부상 후 행방불명.
어득수(魚得水) (47세)	정선군 창촌에서 봉기하여 부하 70여 명을 거느리고 양양, 간성, 강릉 등지에서 활동
윤기영(尹起英) (53세)	충청도 파평군 사람으로 원주에서 봉기하여 70여 명을 거느리고 양양, 강릉지역에서 활동하다 전사.
성인호(成仁浩) (58세)	경상도 성주 사람으로 양양군에서 봉기하여, 부하 100여 명을 거느리고 양양, 정선, 강릉 등지에서 활약.

〈표4-2〉 의병활동 일지

년 월 일	활 동 내 용	의병 피해
1907. 4. 2.	손양면 상운리 부근에서 접전	사망 1명, 부상자 10여 명
1907. 4.20.~22.	월천리와 어성전리 부근에서 접전	사망 2명
1907. 5. 9.	양양면 부근에서 전투	사망 5명, 부상자 10명
1907.11. 6.	의병 약 500여 명이 양양 부근에서 접전	사망 2명 , 부상자 20여 명
1907.12. 1.	의병 약 80명이 양양 서쪽 산에서 접전	
1908. 6.22.	의병 약 40명이 양양 서쪽 30리에서 교전	
1908. 7. 4.	의병 13명이 양양 서쪽 40리에서 교전	
1908. 9.25.	의병 약 30여 명이 양양 서쪽 약 50리에서 교전	
1910. 8.10.	의병 약 13명이 토성면 동북방 30리에서 교전	

자료 : 양주지, 1990

양양 출신의 의병으로서는 이강년과 함께 싸우다 명주군 연곡리에서 전사한 김성서(金聖瑞)와 인제군에서 사망한 이교하(李敎夏)가 있다. 양양에서 이와 같이 항일 의병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첫째, 초기의 의병활동은 주로 위정척사사상을 가진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 봉기하였는데 양양지방에는 유림세력들이 당시 이 지역을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양양을 비롯한 강원도 지역에는 포수(砲手)가 많았기 때문에 의병들의 전투력 향상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셋째로는 산악이 많은 이곳은 의병들의 유격전 활동에 지리적으로 유리하였기 때문이며, 나아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의병들의 활동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2.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

1) 3 · 1만세운동

(1) 3 · 1운동 당시의 양양지방의 사회 모습

일제의 만행은 1908년 6월 17일 한낮에 손양면 송전리 쌍호[2]에 오리사냥을 온 일본 순사가 송전리 고씨의 집안에서 베를 짜는 부인을 보고 희롱하자, 당시 이 마을 서당 오산제에서 훈장을 하던 고익주가 분개하여 일본인을 꾸짖고 추방하려고 하자 이에 무참하게 총살시켰으며, 이를 목격한 고혁주와 고광하가 항의하자 역시 차례로 흉탄에 맞아 즉사하였다.

1910년 이후 일제는 식민지 통치를 강화하고자, 헌병경찰제를 통하여 무력을 앞세워 무단통치를 하면서 1910년대 초기에는 산림령, 광산령, 어업령 등을 내려 이 지방에서의 산업 침탈을 하였으며, 1912년에는 토지조사령을 내려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을 벌여 전국 농토의 40%를 약탈하여 농민들은 생활이 곤란하여 초근목피로 연명하였다.

양양군은 대한제국(大韓帝國) 광무(光武) 5년(1901년) 당시에는 강릉진관(鎭管) 소속 양양군으로 편성되어 12개 면(面)으로 되어 있었는데 1919년 3 · 1운동 당시에는 부내면과 부남면, 위산면이 양양면으로, 동면과 남면이 손양면으로, 도문면과 소천면이 도천면으로, 사현면과 강선면이 강현면으로 개편되었으며, 서면과 현북면, 현남면은 그대로 두어 7개 면(面)으로 편성되었다. 도천면은 지금의 속초인데 당시에는 한가로운 어촌이었다.

당시 양양 상업의 중심지는 양양시장과 강현면 물치시장이었다. 동해안을 따라 만들어진 신작로가 이즈음에 준공되었으나 아직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여서 강릉이나 고성군과의 교류는 미약하였으며, 영서지방과의 왕래는 서면의 오색리나(오색령 옛길) 갈천리의(구룡령 옛길) 산길을 도보로 넘어 들어 활발하였다. 이에 양양시장은 영서지방의 물화(物貨)를 교류하는 곳으로 발전하였다. 당시 이곳의 문호(門戶)는 대포항구였다. 이곳에서 바닷길을 이용해 원산으로, 이어 경원선 철도를 이용하여 서울로 갔

었다. 또한 뱃길이 소련의 연해주까지도 연결되어 있어 대포가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부근의 물치시장이 상업적으로 크게 번성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시 이 지방의 성격은 보수와 개화세력으로 크게 구분되었다.

가. 보수 세력의 동향(動向)

양양은 향교를 중심으로 한 유학의 고장으로, 가장 대표적인 유학문중은 양양면 임천리의 함평이씨(咸平李氏)와 조산리의 강릉최씨(江陵崔氏), 손양면 수여리의 전주이씨(全州李氏), 현남면의 한양조씨(漢陽趙氏) 등이었다. 이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교적 보수 세력은 동학운동 당시, 반동학군(反東學軍)을 조직하여 활동한 함평이씨 이석범(李錫範)이었다. 그는 1859년 11월 25일에 출생하여 자는 사일(士一), 호(號)는 설초(雪樵)로 성격은 사교적이면서도 호방하여 1894년에 동학군이 영월, 정선, 평창 등지에서 들어오자, 그는 양양지방의 유림들을 규합하여 토비군(討匪軍)을 조직하여 동학군을 토벌하였다는 기록이「갑오군공록(甲午軍功錄)」과 「동학당정토인록[3](東學黨征討人錄)」에 있으며, 그 후 군부주사(軍部主事)를 거쳐 고종 때 중추원(中樞院) 의관(義官)의 벼슬을 받았다. 도천면 중도문리에 살면서 쌍천학교(雙川學校)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남궁억(南宮 檍) 군수의 신문화운동에 대응하기도하였다. 3 · 1운동 직전에는 도천면장도 역임했으며, 1927년 2월에 서울에서 신간회가 조직되어 활동하자, 그해 4월에는 양양지회를 조직하여 회장을 역임하였던 인물로 당시 군수와 경찰서장 등과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던 인물이었다.

그 외 이 지방의 반동학(反東學) 지도자들로는 이국범(李國範, 이석범의 동생), 김익제(金翼齊), 최주하(崔舟河), 김준수(金儁秀), 장혁주(張赫周), 노정수(盧鼎秀)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오랫동안 이 지역의 대표적인 보수 세력이었다.

나. 개화 세력의 신문화 운동

양양 지방 출신의 개화 신문화운동의 선구자는 이동식(李東植)이었다. 그는 한말(韓末) 순회판사(巡廻判事)를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개화의 선구자이며, 갑신정변의 주동자였던 김옥균(金玉均)과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 지방에서 신문화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구한말 개화운동의 선구자로서 독립협회의 총무, 황성신문(皇城新聞) 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남궁억이 1906년에 양양군수로 부임하여 현산학교를 설립하고 근대교육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이 학교를 통하여 신교육을 실시하고 개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청년회(青年會)를 중심으로 신문화의 조류가 널리 퍼져 있었다. 때문에 일제(日帝) 초기에는 학구열이 왕성하여 양양보통학교와 대포보통학교 학생들은 곧바로 대포항구를 통하여 원산으로, 다시 개성과 서울 등으로 진학하였다. 이러한 신문화운동의 영향으로 이 지역에 혁신적인 풍토가 마련되었다.

또 다른 개화 세력인 개신교는 감리교회로서 양양면 성내리의 교회[4]와 강현면 물치리와 현북면 상광정리교회가 있었다. 1919년 당시 양양감리교회는 전도사 조영순에 의하여 전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양양보통학교 졸업생의 상당수가 교인으로 활동이 활발하였으나, 이에 비하여 대포에 이웃하고 상업 중심지인 물치리교회와 3·1운동 당시 9명의 피살자와 20여 명의 부상자를 내어 참상이 가장 심하였던 상광정리 교회는 초창기 활동으로 양양감리교회에 비하여 활발하지는 못하였다. 조영순(趙英淳)전도사는 양구교회 전도사로 활동하다가 양양감리교회에 부임하여 목회활동을 하면서, 양양지방 근대사회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다. 그는 이 지방 3·1운동에 큰 역할을 담당한 조화벽(趙和壁)의 아버지이며, 조화벽 여사는 유관순의사의 오빠 유우석(柳禹錫)의 부인이다. 때문에 3·1운동 직후 유우석 가족은 이 곳 양양에서 은거생활을 하였으며, 그의 고모 유정숙(柳貞淑)여사는 양양면 사천리에서 여생(餘生)을 보냈다.

양양교회 청년지도층은 양양보통학교 졸업생들이 주축이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옛 도호부의 이속(吏屬)인 경주김씨와 경주이씨의 후손으로서 이 시기의 전반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보수적 체제에 반발하는 심리적 동기가 교회를 찾게 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신문화 물결이 감리교회의 활동을 통해서 근대사상으로 널리 보급되었으며, 이 사상은 3·1운동의 소지(素地)를 마련하였고, 이것은 보수 세력의 전통적인 왕도사상(王道思想)에서 나온 항일사상과 연결되었으며, 이 지방 만세운동에 커다란 힘으로 작용하였다.

⑵ 3 · 1만세운동

가. 독립선언서의 입수(入手)

강원도 영서지방에 독립선언서의 배부는 3월 2일 천도교의 안상덕(安相德)이 비밀리에 강원도와 함경도에 전달하고자, 경원선으로 원산에 가던 중 이날 평강(平康)에 내려 이곳 천도교구에 선언서 1부를 전하므로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5].

그러나 양양지방의 독립선언서는 두 갈래로 독립선언서가 입수되었는데, 하나는 유교적 보수 세력에 의해서, 다른 하나는 감리교 개화 세력에 의해서 들어왔다.

가) 1919년 1월 21일에 고종(高宗) 황제(皇帝)가 일본인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2월에 이곳에 전해지자, 2월 20일 저녁에 현산공원(峴山公園)에 이종만(李鐘萬)을 비롯한 유림(儒林) 20여 명이 모여 한성(漢城)쪽을 향하여 '망곡(望哭)'을 한 후 임천리 이교완(李敎完)의 집에 모여 '국상(國喪)의 예(禮)는 복상(服喪)으로 조의(弔意)를 표하는 것이 도리(道理)'이라며 고종황제의 '인산(因山)'에 참례할 사람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협의한 결과, 이석범을 비롯한 10여 명을 상경(上京)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2월 25일과 3월 1일 양일에 걸쳐 유림들이 육로를 이용하여 한성에 올라갔다[6]. 이때 나이 61세였던 이석범이 한성에 가서 서울의 만세운동을 직접 목격한 뒤 양양의 만세운동을 위하여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 등의 자료를 몸에 숨겨 오던 중 일본군경의 검문검색을 피하기 위하여 검문소에서 소변을 보는 척 하면서 버선 속에 숨겨 무사히 일행과 함께 3월 20일에 귀향하였다.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었던 이석범은 고향에 돌아온 그날 동생 이국범과 논의하여 자기의 아들 이능렬(李能烈)을 앞장세우고, 도천면에는 중도문리의 김영경(金永經)을, 강현면에는 적은리의 장세환(張世煥) 등을 책임자로 정하여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나) 서울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당시 양양감리교회 조영순 전도사의 딸 조화벽은 개성소재의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3월 3일 개성의 만세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에서 휴교령을 내리자, 독립선언서를 가방에

숨겨 가지고 경원선 열차를 이용하여 원산에 도착한 후 다시 뱃길을 이용하여 대포항에 도착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조화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 학교(호수돈여학교)에서 만세시위를 한 후 학생들이 지방으로 분산하였다. 내가 대포항에 도착했을 때 경찰이 소지물을 전부 압수하고 나를 경찰서장 관사로 끌고가 심문을 하였다. 그러나 가방의 버선목 솜속에 숨겨놓은 독립선언서는 발각되지 않아 그것을 교회 청년 김필선에게 전달했다.

이후 조화벽은 양양감리교회 청년지도자 김필선, 김주호, 등에게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인계하여 청년지도자들과 중심이 되어 은밀히 만세운동을 추진하던 중 양양보통학교 선배인 임천리의 최인식과 연락이 되어, 보수적 유교 세력과 연합적인 만세운동을 계획하게 되었다.

참고로 당시 양양에는 경찰서가 설치되어 있었고, 도천면 대포리 주재소는 도천면과 강현면을 관할하였고, 현북면의 기사문리 주재소는 현남면과 현북면을 관할하였다. 손양면과 서면 오색리에 각각 주재소가 있었는데 면소재지가 아닌 오색리에 있었던 서면 주재소는 3 · 1운동 이후 철수하였다[7].

나. 지역별 계획

양양지방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7개 면으로 되어 있었다. 그중에서 현남면을 제외하고 6개 면이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는데, 각 면의 만세운동을 위한 조직 및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양양면 만세운동 계획

양양면에서의 만세운동 계획은 유교와 감리교회 세력이, 현산학교와 양양보통학교 출신의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연합적인 계획이 전개되었다.

> 판결문 ①
> 이름 : 최인식

주소 : 양양군 양양면 임천리(林泉里) 직업 : 대목직(목공) 나이 : 28세
이름 : 김재귀(金在龜)
주소 : 양양군 양양면 남문리(南門里) 직업 : 농업 나이 : 20세
이름 : 김규용(金奎容)
주소 : 양양군 양양면 서문리(西門里) 직업 : 농업 나이 : 19세
이름 : 김필선(金弼善)
주소 : 양양군 양양면 남문리 직업 : 면사무소 급사 나이 : 17세
이름 : 김계호(金啓鎬)
주소 : 양양군 양양면 청곡리(靑谷里) 직업 : 등기소 고용원 나이 : 18세

주 문

피고 인식, 필선, 재귀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 귀용을 징역 1년에, 피고 계호를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물건은 전부 몰수 한다.

이 유

피고 인식, 필선, 재귀, 규용은 조선독립운동에 찬동하고 대정 8년(1919년) 4월 4일, 피고 등이 살던 양양면 장날에 모이는 군중을 선동하여 정치변혁의 목적하에 서로 함께 안녕을 방해하기 위해, 그리고 군중에게 배부하여 기세를 올리기 위하여 구한국기(舊韓國旗, 태극기)를 많이 작성할 것을 공모하고 동월(同月) 3일 피고 재귀는 옥양목 및 백지를 구입하여 피고 필선과 모의하고 구한국기를 인쇄하기로 하고 옥양목 및 백지를 동 피고에게 교부하매 동 피고는 양양면사무소에서 등사판을 사용하여 그 백지 중 2백매에 대한독립만세, 양양군의 문자, 태극모양 등을 인쇄하여 이를 휴대하고 도중에 만난 피고 재귀, 규용과 함께 피고 인식을 방문하여 서로 제휴하고 동인이 사는 마을의 이교정(李敎貞)집에 이르러 전시(前示)의 옥양목을 원료로 하고 구한국기를, 또 용지에 인쇄한 국기와 같은 것을 묘사(描寫) 중 피고 계호는 이에 응하였으므로 이상의 피고 등은 위 작업에 종사 중 군수 이동혁(李東赫)이 와서 전시의 인쇄기(증 제3호), 천으로 만든 기(증 제2호) 묘사한 종이로 만든 기외 일부(증 제4호)를 빼앗고 그 부주의한 마음가짐을 타이르므로 위 피고 등은 계획이 폭로될 것을 두려워하여 잔여의 묘사지(증 제1호)를 휴대하고 동면 거마리(車馬里)로 달려가 동리(同里) 김종태(金鐘台)의 집에서 일박(一泊)하고 다음 아침 동소(同所)를 출발하여 김종태는 천으로 만든 기를 휘두르고 선두에 서서 전진하고 피고 등은 이를 따라 도중에서 시장으로 가는 자에게 전시의 계획을 설명하고 권

> 고하여 위중 제1호의 기를 배부하고 이를 휘두르게 하여 동일(同日) 11:00경 양양면 시장에 이르러 피고 인식이 먼저 조선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고 기타의 피고는 이에 화창(和唱)하여 모여든 군중 50여 명으로 하여금 화창케하여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8].
> …… 이하 중략

위의 판결문에서 보듯이 양양면에서의 만세운동계획은 최인식, 김필선 등에 의해서 계획되었다. 도천면과 강현면의 만세계획을 추진한 이석범은 그의 고향인 임천리의 이교완(李敎完)의 집[9]을 거점지로 하여 전례(前例)와 같이 주로 30세 전후의 청장년들을 규합하고자 최인식을 계획에 참여시켰다. 최인식은 양양보통학교 1회 졸업생으로 보통학교 출신들과 동문(同文)으로 평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직업이 목수로서 군관내의 대 · 소규모의 토목사업은 거의 도맡아 시공함으로써 서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는 이와 같은 신분을 이용하여 만세운동의 주모자들을 모집하는데 앞장섰다.

이와 같은 시기에 양양감리교회에서는 3월말 조화벽이 가지고 내려온 독립선언서와 태극기가 교회 청년지도자이며 양양보통학교 출신으로 양양면사무소 고용인이었던 김필선과 등기소 고용인 김계호, 김주호 등에게 인계되어 비밀리에 계획이 진행되었다.

양양보통학교 출신인 최인식과 김필선 등이 선후배 관계로 서로 연결이 이루어짐으로서, 유교와 감리교 세력은 양양보통학교 출신들에 의해서 연결되어 민족의 독립을 열망하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되어 연합 세력을 형성하여 계획이 추진되었다.

이에 3월 27일 19:00에 삼짇날 '율계(律契)'를 계기로 이교완의 집에 추진세력들이 모여 계획을 논의하여 독립선언서 인쇄 및 태극기 제작 책임자와 각 면의 연락책임자를 각각 선정하였다. 이에 독립선언서 등사 책임자는 김필선이 태극기 제작은 성내리의 김두선(金斗善)과 거마리의 김종태 및 각 면의 책임자에게 맡겨졌다. 이리하여 이석범과 이교완은 양양의 유교사회를 중심으로, 최인식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하여 서민층의 참여를 통한 만세운동을 계획을 추진하였다.

각 면의 책임자와 연락원은 〈표4-3〉과 같다.

〈표4-3〉 각 면의 책임자와 연락원

면	책 임 자 및 연 락 원
양 양 면	최인식, 김필선, 김명기
강 현 면	장세환, 김원식
손 양 면	신세묵(辛世默), 김종택(金鍾澤)
현 북 면	박규병(朴奎秉), 이성윤(李聖允), 오세옥(吳世玉)
도 천 면	이능렬, 김영경
서 면	노용수, 박춘실

이렇게 추진된 양양면 마을마다의 책임자들을 보면 감곡리는 이관진(李寬鎭), 이원도(李源道), 이원희(李源喜)의 삼부자가 맡았고, 거마리는 최인식의 처남 김명기(金明基)와 김종태가 앞장섰고, 임천리는 총본부로써 최인식 이외에도 최항식(崔亢植), 안광수(安光洙) 등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다. 조산리는 최영덕(崔永德), 최영직(崔永直)형제, 청곡리는 김계호, 서문리는 김주열(金周烈), 김규용(金圭容) 부자, 남문리는 김재구(金在龜), 김주호(金周鎬), 김필선, 김봉운(金鳳運), 사천리의 이정희(李貞熙)가 각자 자기 마을을 맡고 있었다. 최영덕, 이관진 등은 이석범 혹은 그의 동생 이국범이나 이교완 등과의 친분관계에서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경우는 최인식과 그의 처남 김명기의 활약 또는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당시에 이석범이 양양의 대표적인 유교세력이었다면, 기능인들 사이에서는 최인식과 김명기가 으뜸이었다고 전해지며, 또한 보통학교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독립선언서는 면사무소 교용원인 김필선과 김주호, 김계호 등이 면사무소 창고에 촛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등사한 뒤 새벽에 김필선이 밀봉하여 임천리 본부에 전달하였고, 태극기는 김두선이 중심이 되어 김필선, 김주호, 김계호, 김재구, 이원희, 이두형, 김규용 등이 4월 1일 19:00부터 성내리 뒷산 곳집(상여보관소)에 모여 밤을 새워가며 3일간 5천여 매의 태극기를 수기(手旗)로 만들었으며, 한편 임천리에서는 이교정과 이건충(李建忠)의 집에서 이현철(李鉉喆), 김형진(金衡鎭) 등이 참여하여 4월 1일부터 태극기를 만들다가 4월 3일 이교정의 집에서 만들던 사실이 군속(郡屬 : 군청의 직함) 심윤택에게 발견되어 당시 양양군수 이동혁과 같이 와서 태극기 374매 및 재료 등을 압수[10]하고 주모급 22명을 잡아 갔으며, 다음날 장날인 양양시장을 철시(撤市)하였다[11]. 또한 감곡

리 이상온(李相瑥)은 자기집에서 태극기를 만들었으며 청곡리, 기정리, 강현면의 금풍리, 사교리, 방축리, 물갑리, 둔전리, 간곡리 등을 다니며 군중을 동원하였다.

나) 강현면과 도천면의 만세운동 계획

이곳은 이석범을 중심으로 유교세력과 물치리의 감리교회 세력의 연합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판결문 ②
이름 : 이능렬
주소 : 양양군 도천면 중도문리 직업 : 농업, 나이 : 32세
이름 : 김원식(金元植)
주소 : 양양군 강현면 침교리 직업 : 농업, 나이 : 24세
이름 : 이형우(李炯雨)
주소 : 양양군 강현면 하복리 직업 : 농업, 나이 : 26세

주 문
위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능렬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 원식, 형우를 각각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이 유
피고 능렬은 정치의 변혁을 목적할 의사가 계속되어 1919년 4월 4일 밤 양양군 도천면 중도문리 이종국(李鍾國)의 방에서 차압된 태극기 2폭을 작성하고 동(同)이민(里民) 수명에 대하여 명 5일 동군(同郡) 강현면 물치리 시장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겠으니 여기 참가하라고 선동하고, 다음 5일 정오경 물치시장에서 선동에 응하여 모여드는 군중 수백 명을 지휘하여, 전시 태극기를 세우고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고 다시 위 군중을 거느리고 약 20정(町) 거리인 도천면 대포경찰관 주재소 부근에 이르러 다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또 군중에 대하여 양양경찰서에서 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약속한 것은 불법이다. 명 6일은 양양면으로 가서 만세를 부르고, 또 구속된 사람을 석방하도록 요구할 터인데 '일동(一同)도 와서 참가하라' 는 취지를 말하고 선동하여 다음 6일 16:00경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양양면 시장에서 전시 태극기를 세우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쳤으며, 피고 원식, 형우는 같은 정

> 치의 변혁을 목적하는 의사를 계속하여 피고 능렬의 전시행동에 가입하고 물치시장 및 양 양면에서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여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 이능렬의 당 공정에서 대정 8년(1919년) 4월 4일 밤 이민(里民) 수명에 대하여 선동한 점을 제한 위의 사실을 자백, 사법 경찰의 동피고 신문조서 중 '대정 8년 4월 4일 밤 이민 수명에 대해 선동한 사실의 자백 기재, 피고 원식의 당 공정에서 자백, 사법경찰관의 피고 형우 신문조서 중 자백 기재, 압수된 태극기 2폭의 현존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12]… 중략

강현면에서는 이석범의 아들 이능렬과 동생 이국범이 앞장서서, 도천면에는 중도문리의 김영경을, 강현면에는 적은리의 장세환을 책임자로 하여, 4월 3일(음력 3월 3일 삼짇날) 중도문리 이종황(李鍾黃)의 집에서 친목계를 가장(假裝)하여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도천면에서는 대포리의 박사집(朴士集), 부월리의 이종순(李鍾淳)이 합세하여 주역에 나섰고, 강현면에서는 많은 인원이 마을을 담당하였는데, 장세환을 주축으로 물치리에는 김두영(金斗榮), 박제범(朴齊範), 김대선(金大先) 등이 태극기를 만들며 계획에 참가하였고, 강선리에는 전달원(全達元), 윤순범(尹順範), 이종엽(李鍾燁), 하복리에는 이철우(李喆雨), 이형우, 중복리에는 김창렬(金昌烈), 심한준(沈漢俊), 간곡리에는 추병원(秋秉元), 장산리에는 양익환(梁益煥), 회룡리의 박봉래(朴鳳來), 침교리의 김원식, 김진선(金振璇), 적은리의 김철기(金鐵起), 김환기(金桓起), 주청리의 김경도(金敬道) 등이 각자의 마을을 맡아서 추진하였다.

위의 열거한 사람들 중에서 김두영과 전달원은 당시 감리교회 교인이었으며, 그 외는 대부분 마을의 현직 이장(里長)이거나 과거 지냈던 사람이었다. 김철기는 서당 훈장이었다.

다) 서면의 만세운동 계획

이곳은 임천리의 계획과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임천리의 이교완의 집을 본부로 한 이석범계열의 만세운동 계획은 이웃한 서면으로 확산되어 북평리 노용수(盧龍秀)를 중심으로 용천리의 이장 노병우(盧炳禹)와 최명옥(崔明玉)이 계획에 참가하였다. 상평리도 임천리에 이웃한 곳이어서 임천리와 직접 연결되었다. 특히 상평리에서의 만세운동은 박춘실(朴春實)의 활동이 컸는데, 그는 원래 인제 사람으로 한말 의병으로 활약하다가, 일제시대 상평리에 피신하여 술집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는 임천리에서 만든 종이 태극

기를 이교학(李敎學)을 통해 받아 자기 집에서 수기(手旗)를 만들었다.

라) 손양면 만세운동 계획

이곳의 계획은 하나로 통일되지 못한 채 7번국도를 중심으로 노하(路下)와 노상(路上)으로 나뉘어져 전개되었다. 이유는 가평리 주민들이 4월 4일 만세운동에 가담하였기 때문이다.

판결문 ③
이름 : 최한두(崔漢斗)
주소 : 양양군 손양면 주리　　직업 : 농업, 이장　나이 : 41세
이름 : 김진열(金振烈)
주소 : 양양군 손양면 우암리　직업 : 농업, 이장　나이 : 38세
이름 : 김종택(金鍾澤)
주소 : 양양군 손양면 상왕도리　　직업 : 농업, 이장　나이 : 45세

주 문
위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최한두, 김진열, 김종택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제1. 피고 최한두는 양양군 손양면 주리 이장인데 조선 독립을 희망하고 이 운동을 할 것을 기도하여 1919년 4월 5일 09:00경 피고의 선동으로 그 취지를 찬동한 이민(里民) 약 40여 명을 인솔하고 구한국기를 세우고 양양면 시장에 이르러 피고 김진열의 일당과 합하여 조선독립만세를 불러 치안을 방해하고,
제2. 피고 김진열은 동군 동면 우암리 이장인데, 조선 독립을 희망하고 운동을 하기로 기도할 취지로 이민을 선동하고 동이민 약 30여 명을 인솔하고 전시와 같은 시일, 장소에서 피고 최한두의 일당과 합하고 조선독립만세를 불러 치안을 방해하고,
제3. 피고 김종택은 상왕도리 이장으로서 조선 독립을 희망하고 이 운동을 할 것을 기도할 취지로 이민을 선동하고 동월 6일 이민 약 20여 명을 인솔하고 구한국기에 '조선독립' 이라고 쓴 것 2폭을 세우고 양양면으로 들어와 면입구 남대천 다리 앞에 이르렀는데 경찰 관헌에게 저지 되었으므로 동소에서 인솔한 이민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고, 또 동군 동면 연창리에서 동군 도천면 면민 등이 집합해 있다는 것을 듣고 동소로 달려

가 합작하여 조선독립만세를 불러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13]. …… 이하 중략

손양면은 이전의 동면과 남면이 통합된 면으로 오늘날 보통 노하(路下)로 불리는 옛날 동면은 유교적 양반들이 비교적 많이 살고 있었으며, 가평리와 송전리의 제주고씨 등이 계획에 참가하였다. 가평리의 계획은 옛 이장이었던 신세묵과 당시 구장이었던 함홍기(咸鴻基)가 담당하였다. 양양 3 · 1운동에서 가장 장열(壯熱)한 죽음을 한 함홍기는 현산학교와 양양보통학교 출신으로 양양면의 동창들과 연락되어 있었고, 한편으로는 현북면 상광정리의 오세옥등의 친척과 연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평리의 만세 군중을 동원하는 데는 신세묵의 역할이 컸다[14].

오늘날 노상(路上)으로 불리우는 옛날 남면 지방에서는 상왕도리의 김종택, 주리의 최한두, 우암리의 김진열 등 당시의 이장들이 중심이 되어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지역에서 양양면과 연락을 취하고 있던 김종택은 현재 손양면 경찰지소 옆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그 지방의 학문과 도덕의 중심이던 삼익서당(三益書堂) 훈도의 손자였다. 출옥 후에도 일제의 학정에 못 이겨 1940년에 자결하였다.

손양면의 만세계획은 다른 곳과 다르게 비교적 짧은 기간에 추진되었다. 그것은 양양군에서 계획적으로 만세운동에 참가하는 마을은 모두 자기 마을에서 수기를 만들었는데, 손양면의 만세 군중은 비록 다른 곳과 같이 매호당 한 사람씩은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왕도리를 제외하고는 태극기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그 계획이 단시간에 추진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의 깃발을 들고 농악대를 앞세운 점은 특이하면서도 농민들의 반일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마) 현북면 만세 계획

이곳의 만세 계획은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이루어졌고 시위도 별도로 추진되었다.

판결문④
이름 : 박규병(朴奎秉)
주소 : 양양군 현북면 원일전리　직업 : 농업, 나이 : 31

주 문
원 판결 중 피고 박규병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피고 박규병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포제 국기 1폭을 몰수하고 기여는 차출인에게 환부한다.

이유
피고는 1919년 3월 초순 이래 조선 내각지에서 조선독립운동이 행해져, 그 방법으로 조선독립만세를 부른다는 것을 들어 알고 그 취지에 찬동하여 자기 마을에서도 이와 같은 행동에 나아가 독립운동에 이바지하려 하고 있던 차에, 4월 중 실제 아모(동생 박병원)가 손병희 외 32명의 명의로 발표한 '조선독립선언서'를 소지한 혐의로 양양경찰서에 구속이 되었으므로 이 기회를 타서 다수 군중을 선동하고, 한쪽으로는 그 기세를 믿고 실제(實弟)를 석방할 것을 청원하기로 기도하고, 동년 4월 6일 마을의 가마(釜) 제조장에서 모여든 약 40명의 군중에 대하여 전시의 기도를 고하고 그 찬동을 얻고 명 7일 아침 동면 장동[15](獐洞), 이현(里峴)에 집합하고 구 한국기를 세우고 함께 양양면내로 쇄도할 것을 약속하고 이날 밤 자택에서 원심 상 피고 박용규(朴容圭)와 함께 구 한국기 1폭을 제작하여 다음 7일 아침 앞서 기약한 대로 위 장동, 이현에서 모여오는 민중 100여 명의 선도자가 되어 구 한국기를 세우고 양양면내로 향해서 행진하던 도중 동읍 서단(西端) 임천리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이어 용천리에서 만난 동 서원에 대하여 조선독립 운동자를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힐문(詰問[16])하여서 치안상 방해를 하였다.[17]

위 판결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그 하나는 4월 4일 양양장날의 만세운동에 자극되어 현북면 원일전리의 박규병이 주동하고 장리에서 이곳과 도리의 학동(學童)들을 모아 한학을 가르치고 있던 이성윤이 합세하여 계획하였다.

다음의 또 하나는 양양지방 만세운동 중에서 가장 참옥한 기록을 남긴 소위 '기사문리 사건'의 계획인데, 이곳은 원래 기사문리 주재소의 습격을 목적으로 계획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양양면에 가서 시위할 계획이었던 것을 4월 9일인 당일에 변경하여 '기사문리 사건'을 일으켰다.

판결문⑤
양양군 현북면 말곡리(구장) 김창환
양양군 현북면 명지리(구장) 권광식

양양군 현북면 대치리(구장) 김종성, 황선극, 한윤성
양양군 현북면 상광정리(구장) 김익렬, 오세옥, 김종대, 이회원, 오정현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구장) 김우근
양양군 현북면 말곡리 문종석, 윤명종
양양군 현북면 도리(구장) 김재한

주 문
위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김재한을 징역 1년 2월에 처하고 김창환, 권광식, 김종대, 오정현을 8월에 피고 김종성, 한윤성, 이회원, 김우근, 김익렬, 문종석을 6월에 처한다. 피고 황선극 윤명종을 불구류 25일에 처한다. 피고 김재한, 김창환, 권광식, 김종대, 오정현, 김종성, 한윤성, 이회원, 김우근, 김억렬, 문종석에 대해선 미결구류일수 180일을 본항에 삽입한다. 피고 황선극, 윤명종에 대해서 미결구류일 집행 본형에 삽입한다. 피고 오세옥은 무죄.

중 략
피고 김재한은 1919년 3월부터 조선 각지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여 조선독립만세 운동을 행하는 것에 찬동하고 이와 동일한 행동을 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에 대해 동 운동을 행하도록 선동하여 동년 4월 9일 양양군 현북면사무소 앞에 다다르게 하여 전시 운동케 하였다. 피고 김익렬, 문종석, 김창환, 권광식, 김종성, 한윤성, 이회원, 오정현, 김우근 등이 동소에 모여서 조선독립운동을 위해 독립만세를 소리쳐 부르게 했고, 피고 김종대도 같은 곳에 모여 가담한 탓으로 피고 11명은 범인 이외의 사람에게 종이로 만든 태극기 작은 것 34기, 큰 것 1기를 주어 조선독립만세를 크게 부르며 치안을 방해하였다. 피고 황선극, 윤명종은 같은 날 같은 곳인 도로에서까지 만세를 고창 선동 시켰다.

기사문리 사건의 계획이 당초에 시작된 것은 상광정리에 있던 감리교회의 신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오세옥이 주동이었다. 광정교회는 교회간의 연락으로 만세운동의 정보를 입수하였고, 또 오세옥과 친척관계인 손양면 가평리의 함홍기와 연락이 되어 있었다. 오세옥은 상광정리의 호족인 해주 오씨로 마을에서 덕망이 있는 오정현을 참여시켰다. 오정현은 면서기의 경력을 가졌고 학문에 밝아서 그는 여러 곳에 보내는 통문(通文)을 담당하였다. 이 계획은 확대되어 현북면의 유학자들인 임병익(林秉翼)과 박원병(朴元秉), 김재한(金在漢) 등이 만세운동 계획에 참여하였다. 이에 각 마을에서는 마

을 이장들이 책임을 맡고 추진하였는데, 이렇게 계획이 확대된 것은 상광정리에 살던 포수(砲手) 김종대(金鍾大)와, 이응렬(李應烈) 권사의 활동이 컸었다.

당시 계획에 참가했던 마을의 이장은 다음과 같다. 상광정리 김익열, 중광정리 김우근(金禹根), 하광정리 김진혁(金振赫), 명지리 권광식(權廣植), 대치리 김종성(金鍾聲), 말곡리 김창환(金昌煥), 원일전리 박용기(朴容琦), 도리 김재한(金在漢), 어성전리 김두칠(金斗七) 등이다. 양양지역의 만세운동의 중요세력 및 각면의 책임자와 연락원은 〈표4-4〉 및 〈표4-5〉과 같다.

〈표4-4〉 만세운동 계획의 중요 세력

유교 세력(보수 세력)	감리교(개화 세력)
이석범 이교완	조영순 조화벽
최인식과 양양보통학교 출신들의 역할로 연결(이교완의 집 본부)	

〈표4-5〉 각 면의 책임자 및 연락원

면	책임자 및 연락원	비 고
양양면	이교완, 이관진	유교
	김두선, 김필선, 김주호, 김계호, 김규용, 김재구	감리교, 보통학교 출신
	최인식, 김명기	기능인, 보통학교 출신
도천면	이능렬, 김영경	쌍천학교, 유교
강현면	김철기, 장세환	유교
	김두영, 전달원	감리교
손양면	신세묵, 김종택, 최한두, 함홍기	마을 이장
현북면	오정현, 박규병, 이성윤, 김재한	유교
	오세옥, 이응렬	감리교

나. 만세운동의 전개

앞에서 지역별 조직화에 대한 설명은 양양군의 면별로, 또 그 계획의 연결 관계를 따라 살펴보았다. 그러나 만세운동이 실제 전개 과정은 사전에 군수 및 일본경찰의 감시와 탄압으로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만세운동이 전개된 날짜별로 살펴본다.

가) 4월 3일

이날은 만세운동이 없었으나 운동 계획이 발각되어 임천리에서 몇 사람이 경찰에 연행된 사건이 일어났다. 내일 양양 장날에 대규모의 만세운동을 준비하기 위하여 양양면, 서면, 손양면의 가평리 등에서 태극기를 만들며 준비가 한창이었다. 특히 양양면에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양양감리교회 청년회 지도자들이 성내리 뒷산의 곳집(상엿집)에서 태극기를 만들었고, 임천리에서는 이교정, 이건충의 집에서 4월 1일부터 옥양목과 백지로 태극기 1,100여 개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중 이교정의 집에서 만들던 사실이 군속 심윤택이 눈치 채고 고발하여, 군수 이동혁이 출동하여 태극기 374매 및 제작 도구인 등사기 등을 빼앗기고, 이석범을 비롯한 주모(主謀)급 22명이 붙잡혀 갔으며, 다음날 장날인 양양시장을 철시하였다.

이날의 상황을 강원도장관(江原道長官)[18]이 조선 총독부의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본일(本日) 양양군(襄陽郡)에서 10~13명의 청년 집합(靑年 集合)하여 태극기 3백70매(三百七十枚)를 제(製)하고 있음을 발견(發見) 압수(押收)하다. 명일(明日)의 시일(市日[19])을 이용(利用)하여 사(事)를 양(揚)코져 한 계획(計劃)임과 여(如)하여 내(內) 유력(有力)한 면장(面長)[20]도 가(加)하고 있는지 의심(疑心)있기로 경찰(警察)과 협의(協議) 경계(警戒) 중(中)[21]」… 이하생략

이와 같이 임천리 계획의 일부가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하여 최인식, 김종태, 이원도 등은 거마리 김종옥의 집 뒤의 곳집으로 옮겨 계속 태극기를 만들었으며, 성내리 뒷산의 곳집과, 감곡리의 이상온이 집에서 태극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장날을 이용한 전체 계획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

나) 4월 4일

이날의 만세운동계획은 4월 1일 각 면의 연락원이 이교완의 집에 모여 결정하였다. 이날은 음력 3월 4일로 양양 장날이었다. 아침부터 각 면 마을에서 장꾼으로 가장한 만세 군중들이 양양장터로 모여들었다. 당시 경찰의 힘으로 장날의 수천 군중을 수색하거

나 막을 길이 없었다. 태극기도 두루마기 속에 감추었기 때문에 만세군중을 일일이 수색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에 총을 겨눌 뿐이었다.

양양면에는 동면 부근 마을의 만세 군중이 먼저 들어와 시장(市場)과 군청, 경찰서가 내려다보이는 구교리 뒷산에 모여 최인식, 김재구, 김필선, 김계호 등과 만세를 불러 분위기를 돋우었다. 동쪽에서는 최영덕, 최영직이 인솔하는 조산리의 군중, 이정희가 인솔하는 사천리의 군중들이 청곡리 군중들과 합세하여 양양시내로 들어오다가, 연창리 대미소 밑에서 경찰과의 충돌로 최영원 등 다수가 체포되었으나 군중은 경찰저지를 뿌리치고 계속 들어왔다. 남쪽에서는 손양면 각리에서 동원된 군중이 들어오다 남대천 동운교(東雲橋) 앞에서 저지하는 일경과 대치하다가, 다리 상 · 하류로 흩어져 남대천을 건너 들어왔다. 서쪽에서는 용천리 방면 군중들이 태극기를 높이든 노병례, 최선옥, 최선극 등을 선두로 하여 용천리와 북평리 사이 다리를 건너 들어왔다. 그리고 임천리와 거마리 군중들은 서문밖 고개로 거마리 김종태가 앞장서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장꾼들에게 만세운동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면서 들어왔다. 북쪽에서는 감곡리 군중들이 북문을 넘어 들어오다가 포시(浦市)[22]집 앞에서 일경의 저지로 대치하다가 앞장섰던 이관진, 이원도, 이원희 3부자가 현장에서 체포되면서도 계속 돌파하여 들어왔다. 이리하여, 양양면에 모여든 만세군중과 철시가 된 줄도 모르고 장 보러온 사람들도 모두 만세를 불러 그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였다고 한다.

점심때를 전후해서는 만세소리와 태극기의 물결이 장터와 경찰서,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군청주변의 취산루(醉山樓)를 메우고 흡사 독립을 쟁취한 듯한 만족스러운 분위기 가운데 평화적인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3일 임천리에서 연행된 22명의 석방운동이 실패하고, 만세군중에서 체포된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오후 늦게부터 분위기가 험악해져 만세군중들이 일본인 집에 돌을 던지자 일본인들은 쫓겨 경찰서로 피신하였으며, 먼 곳의 각 면리의 군중들이 모여들어 수천 명의 군중이 양양면내를 가득 메운 가운데 체포자의 석방과 독립만세를 부르며 돌을 던지자[23], 이에 일본경찰은 발포(空砲)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격분한 군중들은 더욱 돌을 던지며 격렬히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날의 상황을 강원도장관이 보고한 전신문(電信文)을 보면 다음과 같다.

※ 4월 5일 오전 0:30 접수
본일(本日) 편(扁)히 양양군(襄陽郡) 읍내(邑內) 부락(部落)으로부터 야소교도(耶蘇敎徒)를 중심으로 한 수백명(數百名)의 일단(一團)이 읍내(邑內)로 진입(進入)하려 함을 저지(沮止)함에 읍내(邑內) 배회자(徘徊者) 수백명(數百名)과 호응(呼應)하여 만세(萬歲)를 창(唱)하다. 주모자(主謀者)를 검거(檢擧)하고 해산(解散)시켰으나 상(尙)불온(不穩)의 상태(狀態)이다[24].」

※4월 5일 오전 10:00 접수
작야(昨夜) 다시 양양군(襄陽郡) 읍내(邑內) 부근(附近) 인민(人民) 약(約)육백(六百) 읍내(邑內)로 내습(來襲), 읍내민(邑內民) 약(約)오백(五백(百)) 차(此)에 화(和)하여 소요(騷擾)를 극(極)하며 특(特)히 유치인(留置人)탈감(脫監)을 위하여 경찰서(警察署)에 침입(侵入) 약탈(掠奪)을 극(極)함으로서 무기(武器)를 사용(使用)하여 일단(一旦) 진압(鎭壓)하였으나 형세(形勢)불온(不穩), 폭민(暴民)사상(死傷) 있었다[25].」

이와 같이 군중의 시위가 과격해지는 가운데 손양면 가평리에서 만세군중을 이끌고 온 가평리 구장 함흥기(당시 22세)는 경찰서장실로 뛰어 들어가 일본 사타쿠(舍澤 : 사택)서장에게 서장실에 있던 화로(火爐)를 들어 던지려 할 때, 일본 경찰 아끼야마(刹郡秋山 : 찰군추산)와 오오이시(大石 : 대석) 두 명의 칼(일본도)에 양팔이 잘린 후 목을 찔려 죽었다. 이에 뒤따라 뛰어 들어가 또다시 화로를 던지려던 손양면 간리의 권병연(당시 22세)도 일본도에 목을 맞아 쓰러졌다. 이에 군중들이 격분한 가운데 상평리의 김학구(金學九)가 군중 속에 있다가 경찰서로 뛰어 들어가다가 일경의 총탄에 맞아 숨을 거두었는데, 이 때 사용한 총은 엽총이었다. 이때에 총에 맞은 부상자는 오후 늦게 참가한 용천리의 이흥달(李興達 : 머슴으로 반벙어리였음), 노병우, 박의병(朴義秉), 한원일(韓元一), 남순극(南淳極), 박경화(朴京化), 이두하(李斗夏), 노병택(盧炳澤), 남성극(南成極), 최명옥(崔明玉), 김경숙(金敬淑) 등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북평리의 용조원(龍照轅), 가평리의 신영묵(辛永默) 등 13명이었다. 그러나 부상자는 이외에도 더 많았다.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일본경찰에 의해 주동, 또는 가담 등이 밝혀지면 감옥이나 태형(笞刑)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숨겼기 때문이다[26].

경찰서장에 덤벼들다 죽음을 당한 함흥기의 시신은 경찰서 내 복도에 가마니로 덮어

놓았다가 10여 일 후 가족에게 인계되어 마을민이 모인 가운데 장례식을 마쳤으나, 하관(下棺)직후 일본경찰이 파헤치고 관을 깨버렸다. 이유는 장례식 때 동네 전 주민이 모여서 울었다는 것 때문이었다. 손양면 간리에서 객지살이 하던 권병연의 가족은 그 이후 행방을 감추었다. 함흥기와 권병연의 충혼비는 손양면 간리 7번국도 길가에 있다가 손양초등학교 교정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7번국도변으로 옮겨졌다.

이날 시위로 옥고를 치룬 복역자는 최인식, 김재구, 김필선, 김주열, 김봉운, 이원도, 이원희, 김주호, 김규용, 최항식, 김계호, 최영덕, 김종태, 김명기, 노승우, 신세묵 등 16명이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옥고(獄苦)를 치룬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함흥지방법원이나 강릉지청의 판결문이 현재 없고,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한 사람의 것도 일부만 남아있으며, 일제시대에는 옥고를 치룬 것을 스스로 감춰야 일제의 탄압을 피할 수 있었으며, 그 후 26년이 지난 1945년에 광복이 되었으니 흘러간 시간 속에 숨겨진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원도는 석방된 후 국외로 망명하여 행방불명이며, 또 남문리의 김필선은 출감 후 1920 · 30년대 청년운동과 농민조합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한 뒤,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병사하였다고 한다. 임천리의 이석범은 경성복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갑부였던 이교완도 복역치 않은 것은 일본이 회유, 분열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인다. 이날 시위로 산림간수 1명도 부상당하였다[27].

다) 4월 5일

이날은 양양면을 비롯하여 손양면, 그리고 강현면과 도천면의 군중이 만세 운동을 담당하였다.

손양면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김종택이 주도한 왕도리 주민과, 최한두, 김진열이 앞장선 주리, 우암리의 주민들이 제각기 자기 마을의 이장을 앞세우고 양양면내로 향하였다. 이때 왕도리에서는 커다란 태극기를 앞세우고 갔지만, 서로 이웃 마을인 주리와 우암리 주민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깃발을 들고, 뒤에는 농악을 울리며 따랐으니 징과 꽹과리 등 어떻게 생각하면 흥겹고 평화적인 행진이었다. 그러나 이

들이 양양면으로 들어갈 때는 만세를 부르며 들어갈 계획이었다.

이 상황을 알리는 강원도장관의 보고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1919년 4월 6일 오전 7시 50분
> 「오일(五日) 양양군(襄陽郡) 양양면(襄陽面)에서 양반(兩班)을 중심(中心)으로 한 군중(群衆) 삼백명(三百名), 태극기를 세우고 만세(萬歲)를 고창(高唱), 읍내(邑內)를 통과(通過)하려 함으로 진무(鎭撫) 해산(解散)시키다.[28]」

그러나 양양면까지 들어오지는 못하였다. 읍에 들어오려다 남대천에서 완강한 경찰 제지 때문에 돌아갔다. 그 후 이날의 만세 시위를 주동한 김종택, 김진열, 최한두 등은 붙잡혀 원산 감옥에서 1년의 옥살이를 했고, 주리의 장두용(張斗容)은 태형을 받았다.

다음에 강현면의 운동 상황을 살펴보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양양군에서 만세 운동에 참가한 6개 면 중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민주적인 평화적 만세 운동을 한 강현면의 운동은, 장세환, 김두용, 김원식 등이 중심이 되어 각 마을마다 책임자가 되어 세 갈래로 전개되었다.

첫번째는 물치 장터에 집결하여 만세를 불렀던 것이며, 두번째는 그들의 관할 경찰인 대포주재소 주변에서의 만세운동을 한 것이고, 세번째는 양양에 가서 시위한 것인데, 이 운동은 4월 6일에 있었던 일이다.

5일은 이곳 물치리의 장날이었다. 물치장은 평소에도 양양장 이상으로 사람이 모여드는 큰 장이었으며 전날 양양 운동의 영향으로 경찰의 사전 대비책도 그들 나름대로는 철저하였다. 경찰이외의 그들의 가족과 일본인은 모두 대포 항구의 배에 실어 바다에서 피신시키고, 무장 경찰만이 육지에 남아 있었다.

과거 강선면의 북부 지역의 군중은 물치 장터로 직접 모여 들었으나, 남부 옛 사현면의 주민들은 장터로 오다가 도중에서 당시 강현면사무소 소재지였던 장산리에서 만세를 부르며 기세를 올렸고, 강현면사무소 서기 김남훈(金南薰)도 군중의 요구로 만세를 불렀다[29].

이후 물치 시장에는 각 마을에서 모여든 군중들은 큰 저지없이 시장의 쌀가게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를 높이 세워 흔들며 만세를 불렀다. 이때의 상황을 강원도장관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동군(同郡) 강현면(降峴面) 시장(市場)에 폭민(暴民) 약(約) 오백(五百)집합(集合) 점차(漸次) 증가(增加)의 형세(形勢)이다. 금야(今夜) 대포(大浦)또는 읍내(邑內)를 습(襲)할 계획(計劃) 있음에 엄중(嚴重) 경계(警戒) 중(中)[30]」

물치 장터의 만세운동에는 물치리의 계획을 담당하였던 김두영(金斗榮)과 박제범(朴齊範), 김대선의 활동이 컸었다. 김두영은 원래 도천면 대포리에 살고 있었는데, 경찰주재소가 설치되면서 집을 빼앗긴 후 물치리로 이사하여 일본에 대한 원한이 깊었다. 박제범과 김대선은 나이 어린 감리교인이었다. 이 날의 운동을 지휘한 사람은 장세환, 김원식으로 알려졌는데, 그들은 오후 늦게 대포리 경찰주재소로 이동하여 도천면의 군중들과 만나 만세운동을 벌였다.

도천면에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석범의 뜻을 받은 그의 아들 이능렬이 도천면과 강현면을 맡아 활동하였는데, 이능렬과 손을 잡은 도천면 중도문리의 김영경은 물론, 부월리의 이종순(李鍾純)과 대포리의 박사집(朴士集)의 활약으로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대포리 경찰주재소로 몰려왔다. 이에 도천면의 시위 군중은 강현면의 군중과 함께 대포리에 모여 만세운동을 하였다. 당시의 대포주재소 수석(首席)은 이시다[석전삼랑(石田三郎)]이었는데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경찰이 아닌 일본인은 모두 배에 태워 바다에 피신시켜 두었고, 일본경찰의 물러가겠다는 회유 설명을 듣고, 날이 저물도록 도천면과 강현면의 천여명의 만세 군중은 내일 양양에 가서 독립 만세운동을 할 것을 약속하고 해산하였다.

라) 4월 6일

이 날의 만세 운동은 세 곳으로 나누어 전개되었다. 그 하나는 도천면과 강현면의 군중이 양양면에서 시위한 것이고, 다음은 양양면에서 양양보통학교 4학년 생도가 시위군중에 섞여 만세를 불렀는데 나이 어린 보통학교 학생이 계획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세번째 사실은 4일 경찰서 앞에서 일경의 총탄에 숨진 김학구의

장례식이 있었다.

5일의 약속대로 강현면과 도천면의 군중들이 장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양으로 걸어와 운동을 벌였는데, 당시의 상황을 강원도장관이 4월 7일 보고한 전문(電文)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양양군 대포(大浦)를 습(襲)하려 한 8백명의 군중(群衆) 작(作) 6일에 지(至)하여 천이삼백명에 달하여 읍내(邑內)를 습(襲)하였으나 병력(兵力)을 공(恐)하여 폭행(暴行)한 불온(不穩) 주모자(主謀者) 7명을 인치(引致)함에 차(此)의 인치건(引致件)을 경찰서장(警察署長)에게 청원(請援)하였으므로 간유(懇諭) 퇴산(退散)케 하다. 상(尙) 동군(同郡) 현북(縣北) 현남(縣南)의 양면(兩面) 민심(民心) 동요(動搖) 불온(不穩)의 조(兆)있음[31]」

위의 보고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천면과 강현면의 시위 군중은 전날 물치시장, 대포주재소 앞에서 만세 시위를 하였는데, 이 날은 이능렬, 김영경, 이국범, 장세환, 김원식, 김두영 등 전날의 지도자가 앞장서서 양양면으로 진출하였다. 삼베주머니에 도시락을 집어넣고, 어떤 이는 독립을 위하여, 어떤 이는 독립이 된 줄 알고 양양에 가 일본사람을 쫓아내기 위하여 나갔다[32]. 이것은 전날에 대포주재소로 만세군중이 갔을 때 그들은 일본 사람들이 이미 배를 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동을 나타났으며 사기는 충천하여 더욱 높았고, 경찰들은 만세군중들에게 '우리는 돌아 갈 것이니 조용히 만세만 불러라' 고 간청했던 것이다. 물론 주모급 인사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일반 만세군중들은 그들의 행동과 말을 어느 정도 믿었기에 독립을 눈앞에 둔 것 같은 흥겨운 기세는 능히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삼베주머니에 도시락을 준비하여 15㎞ 이상 되는 양양까지 걸어서 왔다.

그러나 당시 양양면의 사정은 달랐다. 4월 5일 3 · 1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일본 본국에서 증강한 군대와 강릉의 수비대를 합한 6개 대대병력이 양양면에 주둔하였다[33]. 도천면과 강현면의 시위 군중 특히 김원식 등이 이끄는 강현면 군중들이 조산리를 지나 연창리에 이르렀을 때 수비대의 군인들은 새끼줄로 길을 가로 질러놓고 일반인의 통과를 막고 있었다. 이에 시위 군중들은 그곳에서 한참 대치하다가 수비대의 포진(鋪陳)에도 불구하고 새끼줄을 끊어버리고 만세를 부르며 양양면으로 들어가, 먼저 만세운동을

하던 500여 명의 군중과 합세하여 만세를 부르다가 다시 경찰서 주변으로 몰려가 만세를 불렀다. 일본 수비대의 삼엄한 경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질서 정연하게 만세운동을 지도하였다. 그리고 이능렬과 김원식은 경찰서장실에 들어가 군중의 대표로서 서장과 군수에게 "양양에서 떠나라"고 요구했고, 바깥의 군중들은 이동혁 군수를 욕하며 소리쳤다.

지방의 만세 운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지도자들의 수준이 비교적 높고, 또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행동한 군중이었기에, 장날에 궁중 심리를 이용하여 갑자기 일어난 만세군중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이날의 일본 경찰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행동을 취하며 군중의 대표와 군중에 대하여 '자기들 일본 사람은 돌아 갈 테니 군중도 돌아가라고' 간유[34](懇諭)하였다. 이리하여 만세 군중은 오후 늦게 각 면으로 되돌아갔다.

이날 도천면과 강현면의 만세 군중이 양양면에서 운동을 할 때 경찰서 뒤 군행리 언덕에서 양양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반 생도가 모여 만세를 불렀다. 휴교 중에 4학년 졸업반인 김억준(金億俊), 이창식(李昌植)이 주동하고, 비밀리에 약 10여 명이 참가하여 경찰서 뒤 현산까지 와서 만세를 부르고 헤어졌다. 이 사건으로 김억준은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까지 끌려갔다가 나이가 어려서 풀려 나왔다.

다음에는 앞에서 말한 서면 상평리의 김학구의 장례식에 있었던 만세시위를 살펴본다. 김학구는 원래 강현면 침교리의 사람이었는데, 서면 상평리의 권성심(權聖心)에게 데릴사위로 갔다. 지난 4일 경찰서 앞 시위에서 피살당한 유혈이 낭자한 시신을 경찰서 뒷마당에 옮겨놓자, 노용수가 "끌고 가자"라고 소리치자, 이형우(李炯雨)가 업어 자기 집 뒷마루 밑에 멍석으로 덮어 안치했다가 다음날 가족이 찾아가 3일장으로 장례를 지냈다.

마을 사람들은 상여를 메고 서면사무소까지 갔으나 상여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와 있던 100여 명이 만세를 부르면서 면사무소를 습격하여 면사무소 일부가 파괴되었고, 면장과 면직원들은 도망쳐 버렸다. 서면 조개리[35]의 지석화(池石化)는 만세를 부르는 군중이 먹을 음식 100여 명분을 준비하여 상평리로 운반하여 합세하려다 일경에 체포되었다[36].

그러나 '조선독립만세'를 울부짖는 김학구의 상여는 상평리 면사무소를 떠나 산길을

따라 30여리 되는 침교리로 가던 중 강현면 물갑리 고개에 이르렀을 때 강현면 침교리에서도 상여를 메고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어, 관(棺)은 서면의 상여에서 강현면의 상여로 옮겨져 침교리에서 장례를 치렀다. 그러나 그 후 일본 경찰은 사설묘지라 하여 파내어 공동묘지로 옮겼다. 서면 상평리의 주민들은 김학구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격분한 감정으로 7일 다시 만세운동을 하였다.

4월 5, 6일 양일간의 만세운동으로 말미암아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사람도 많았지만 잡혀가 태형을 받은 이는 더욱 많았다. 시위 후에 도망하였다고 해도 경찰이 그들의 가족을 괴롭혔고, 또 못자리 설치시기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수하여 태형을 받은 사람도 많았다. 도천면 중도문리 이종인, 이정렬, 이재환(李載煥) 등은 자수하여 60대(2개월의 자유형 몫)의 태형을 받았다. 이때 원산 감옥에서 옥고를 치른 사람은 도천면 도문리의 이능렬, 이종국, 이춘재(李春載), 김영경, 김정식(金鼎式), 이동열(李東烈) 등과 부월리의 이종범, 대포리의 박사집, 강현면 물치리의 김두영, 박제범, 김대선, 강선리의 전달원, 윤순범(尹順範), 이종엽(李鍾燁), 하복리의 이철우(李喆雨), 이형우, 종복리의 김창렬, 심한준(沈漢俊), 사교리의 김철기(金鐵起), 김환기(金桓起), 침교리의 김원식, 김진선(金振璇) 등과 간곡리의 추병원(秋秉元), 장산리의 양익환(梁益煥), 회룡리의 박봉래, 적은리의 장세환, 주청리의 김경도 등 28명이었다. 이중에서 박제범과 김대선은 미성년자로 함흥 유치감(幼稚監)에서 옥고를 치렀고 박제범은 출감(出監) 후에 일본으로 건너갔다. 김두영과 전달원은 감리교인이었고 김철기는 서당 훈도로 김두영 등은 그의 제자였다. 장세환, 이종순, 박사집, 이능렬은 쌍천학교 출신의 청장년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당시 리장으로 만세운동을 이끌었다.

참고로 사교리의 김철기가 1946년 3 · 1절 기념식 때 지은 한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37].

桓彊舊城建新機(환강구성건신기) 陷死後生今日是(함사후생금일시)
旣着念頭時不遠(기착념두시불원) 要擧先毁去年非(요거선훼거년비)
着吾白髮秋何在(착오백발추하재) 中途幾人舍怨逝(중도기인사원서)
挽彼黃河運復歸(만피황하운복귀) 表哀追悼淚點衣(표애추도루점의)

마) 4월 7일

현북면의 원래 계획은 4월 9일 양양장날에 만세운동을 할 목적으로 원일전리의 박병원이 독립선언서를 복사하려다가 가지고 있던 독립선언서가 발각되어 체포되자 그의 형 박규병은 현북면의 계획에서 독립하여 박용규와 장리에서 훈장으로 글을 가르치던 이성원(李聖元)과 뜻을 같이하여 6일 원일전리에 모여 내일의 계획을 설명하고 찬성을 얻어 7일 아침에 원일전리, 장리, 도리의 200여 명의 주민과 학생들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남대천을 따라 양양면에 내려왔으나, 일본 군경의 남대천 건지산 및 두물뫼에 미리 대기하고 있어 얼마동안 대치하다가 임천리에 건너가 만세를 부르고, 용천으로 되돌아오다가, 용천리에서 만세를 불렀다. 이곳은 지난 4일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용천리 주민의 피해가 많았다고 위로하는 뜻에서 만세를 불렀다하여 이 지역의 주민들은 이 만세를 '위로만세(慰勞萬歲)' 라고 부른다. 당시의 주모자 이성윤은 그 후 은신하였고, 박규병은 1년 2개월의 옥고를 치렀음은 앞의 판결문 ④를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강원도장관의 전신 보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양양군(襄陽郡) 읍내(邑內)에 7일(日) 오후(午後) 2시(時) 군중(群衆) 약(約) 2백명(百名)이 습(襲)하므로 군수급(郡守及) 경찰서장(警察署長) 등(等) 설유(說諭) 해산(解散)케 하다[38].」

양양면에서는 14:00 반경에 천도교를 비롯한 300여 명의 주민들이 장터에서 만세를 불렀다. 당시의 보고문 1919년 4월 8일 고제(高第) 10568호 극비 독립운동(極秘 獨立運動)에 관한건 제41호는 다음과 같다.

「양양군(襄陽郡) 7일 오후 2시반 천도교도(七日 午後 二時半 天道敎徒)를 중심(中心)으로 약 3백명(約 三百名)의 군중(群衆)이 운동(運動)을 개시(開始)하여 양양읍내(襄陽邑內)에 압기(押奇)하여 부수모자 4명(付首謀者 四名)을 체포(逮捕)하여 해산(解散)시켰다.[39]」

서면 상평리 주민들이 앞에서 말한 김학구의 죽음 및 장례식에서의 처절한 광경이 울분으로 폭발하여 7일 저녁에 면사무소를 습격하여 창문을 깨고 시위하였다. 당시 강원도장관의 전언(電言)은 다음과 같다.

> 「7일야 양양군 서면사무소(七日夜 襄陽郡 西面事務所)에 약 백명(約 百名)의 폭민 내습(暴民 來襲)하여 창문(窓門)을 파괴(破壞)하고 면 직원(職員)에 대(對)하여 폭행(暴行)을 가(加)하다, 그런데 동요서류(重要書類)는 팔일중 군청보관(八日中 郡廳保管)을 탁(托)하여 1시 면사무(一時 面事務)를 중지(中止)하다.[40]」

그 후 4월 11일 강원도장관의 보고를 보면 사흘 동안 면사무가 중지되었다. 이때 유리창을 깨고 면서기를 폭행하였던 주모급 김동섭(金東燮)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 외 이날 낙산사(洛山寺) 승려들이 19:00에 바라소리와 더불어 전 승려들이 등불을 들고 만세운동을 하였으며, 각 면에서는 산위에서 봉화를 들고 만세운동을 하였다.

바) 4월 8일

이날은 도천면 논산리에서 약간의 시위가 있었다. 4월 4일부터 계속 만세 시위가 일어나니 논산리에서도 만세운동에 대한 명분론이 일어났다. 원래 이 마을에는 중심인물이 될만한 김주혁(金周赫)이 당시 강원도청 주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지시는 없었지만 신중을 기하고 있었다. 온 군민이 만세시위에 참가하는 형편이 되었으니, 당시의 이장 김주철(金周哲 : 김주혁의 종형), 고광화(高光華), 황명찬(黃明燦), 박명원(朴明元), 고을주(高乙柱) 등이 주동하여 집집마다 한 사람씩 동원하여 면사무소와 주재소가 있던 대포리를 목적지로 하여 큰길로 나아갔다. 큰길은 부월리를 거쳐 대포리로 이어졌는데 부월리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는 이미 도천면사무소 회계서기 김우규(金宇圭)가 와서 대기하면서 만류하여 대포리까지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곳에서 만세를 부르고 모두 해산하였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김주철, 고광하, 황명찬, 박명원, 고을주 등은 검거되어 양양경찰서에서 고초를 겪은 후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김주철을 제외한 4명이 90대의 태형을 받았다[41]. 태형을 맞은 4명은 상처가 심하여 거적으로 만든 들것에 엎드려 이틀동안 집으로 와서 일년동안 엉덩이 상처에서 구더기를 파내며 치료하였다고 한다.

사) 4월 9일

양양 3 · 1운동의 마지막 만세운동이었고 가장 참상(慘狀)을 기록한 소위 '기사문리사건' 이 일어난 날이다. 앞에서 만세운동의 계획을 설명할 때 말한 것과 같이 오세옥, 이응렬의 상광정리 감리교회와, 오익환(吳翼煥), 김재한, 박원병, 오정현 같은 한학자, 김종대 등의 젊은 청년, 그리고 현북면 각 마을의 이장들이 만세운동의 계획을 추진하면서 태극기를 만들었다[42]. 각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한 사람씩 동원되어 장날인 양양면으로 갈 계획으로 하광정리에 있는 현북면사무소 앞에 모였다. 이에 어떤 집에서는 두 사람 이상이 참가하고, 가까운 마을에서는 하광정리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구경하기 위하여 어른, 아이들이 모여 군중은 일본 측 기록으로는 600여 명(당시의 참가자들은 천여 명)의 인원이 모였다. 일부는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줄' 잘못알고 참가한 이도 있었다고 한다. 마을마다 이장들이 선두에 섰고, 현북면에서 신망이 있는 임병익, 박원병 등과 감리교인 오세옥 등이 앞장선 이 모임은 면민대회(面民大會)와 같은 분위기였다. 당시의 상황을 강원도장관의 보고 전언을 보면 다음과 같다.

> 「4월 9일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 주재소(四月 九日 襄陽郡 縣北面 其士門 駐在所)를 습(襲)한 폭민(暴民)은 면장(面長)을 협박(脅迫)하기를 심(甚)히 하여 면장(面長)은 부득이 일시 사무(不得己 一時 事務)를 중지(中止)하고 피난중(避難中)이다[43].」

위의 보고문 중 기사문 주재소는 면사무소를 잘못 보고하였으며, 현북면사무소는 중요 서류를 이미 감추어 버렸고, 면장과 면직원은 모두 도망하였다. 군중은 면사무소 주변에 모여서 기세 높게 만세를 부른 후 면장을 앞세우고 양양면으로 가려고 먼저 면장을 찾았다. 그러나 면장은 하광정리 이장이었던 김진혁의 집에 3일간 숨어 있었다. 김진혁은 만세운동의 지도자이며 자신이 태극기도 만들고 군중도 동원하였다. 그러나 면장과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자기 집에 숨겼고, 면사무소의 서류도 자기 집에 보관하여 놓고 비밀을 지켰던 반면, 기사문리 경찰주재소 앞에 가서 만세를 선창하는 이중적 행동을 하여 그 뒤, 모든 마을의 이장들이 징역을 살았는데 김진혁은 징역을 면하였다.

현북면의 군중이 면사무소의 주변에서 만세를 부르고 양양면으로 갈려고 할 때 양양

군 남부(南部)에서 신망이 높던 김익제[44](金翼濟)가 양양면으로 가려던 군중을 저지시켰다. 그는 손양면 동호리의 사람으로 그가 하광정리에 온 이유는 양양면에 수비대가 주둔하여 그곳으로 간다면 인명 피해가 많을 것을 예상하여 이를 만류하러 왔다고 하였다.

이에 계획을 바꾸어, 군중은 그곳에서 약 1㎞ 정도 떨어져 있는 기사문리 경찰주재소 앞에 가서 만세를 부르기로 하였다. 하광정리와 기사문리 사이에는 해발 50m 정도 되는 나지막한 고개[45]가 있는데, 하광정리에 모인 군중, 장꾼, 구경나온 어린아이들은 모두 만세 군중이 되어 만세를 부르며 고개를 올라가던 중, 때마침 신작로에 가로수를 심고 지주(支柱)를 바쳐놓고 있을 때여서 일부 군중들은 지주를 뽑아들고 고개를 넘어갔다. 당시의 상황을 4월 10일 10:00 강원도장관이 전화 보고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사소교도(襄陽郡 縣北面 下光丁里 耶蘇教徒)를 중심(中心)으로 한 600명 4월 9일 오전 10시(限 600名 四月 九日 午前 10時) 지개 봉(棒)을 휴(携)하고 만세(萬歲)를 고창(高唱)하면서 기사문경찰관주재소(其士門警察官駐在所)를 습(襲)하여 폭행(暴行)하다 때마침 강릉수비대(江陵守備隊)로부터 래(來)한 보병 5명(步兵 五名)과 공력(共力)하여 발포진압(發砲鎭壓)에 노역 폭민사자 9명(努力 暴民 死者 九名)을 출(出)함 외(外)에 부상자 약간(負傷者 若干) 있는 모양(模樣)이나 불명(不明)[46]」

기사문리 경찰주재소에는 며칠 전부터 현북 일대의 만세시위 분위기를 짐작하고 강릉수비대가 도착하여 있었다. 군중이 주재소 전방의 다리부근에 이르렀을 때 주재소 순사 이홍근이 나와 선두를 막았다. 한참동안 군중과 경찰이 대치하여 옥신각신하다가, 하광정리 이장 김진혁의 선창(先唱)으로 만세를 불렀고 이에 만세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면서 군중들의 만세운동 분위기가 고조되자, 주재소 옆 개울 언덕에 숨어 있던 5명의 수비대와 경찰이 발포하였다. 앞의 전화보고 내용의 나무 받침대를 곤봉으로 시위군중이 주재소를 습격, 폭행하였다는 내용은 그들이 발포하여 9명이 사망한 사실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허위 보고였다. 즉 이 때 시위 참가자들은 전혀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 총격을 가하여 참상은 가혹하였으며, 무차별 총격을 가한 이유는 앞에서 말한 4월 5일 대포주재소 앞 사건 및 오색리주재소 철수, 산림간수의 1명 부상 등의 사건들이 일본경찰의 심리적 동요가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의 피해 상황은 확실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피살자는 전원거(全元擧, 하광정리), 임병익(중광정리), 홍필삼(洪必三, 어성전리), 김석희(金錫熙, 어성전리), 고대선(高大先, 어성전리), 황응상(黃應想, 어성전리), 문종상(文鍾祥 : 아명 승학, 어성전리), 진원팔(陣元八, 어성전리), 이학봉[47](李學奉, 명지리) 등 모두 9명이었다. 부상자도 당시 일본의 탄압 때문에 숨겨져서 확실히 파악할 수 없었으나 20여 명의 부상자 중 확인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이종우(李鍾雨, 하광정리), 김응옥(金應玉, 하광정리), 오세빈(吳世璸, 상광정리), 오문환(吳文煥, 상광정리), 오세풍(吳世豊, 상광정리), 황중칠(黃中七, 대치리) 함병원(咸秉元, 어성전리), 강춘실(姜春實, 어성전리), 정홍엽(鄭泓燁(어성전리), 홍금석(洪금석, 말곡리), 김봉구(金奉九, 어성전리) 등이다. 위의 기록에 문종상은 오기였으니 그의 형 문종희(文鍾熙 : 말곡리)로 바로잡아야한다.

그리고 이날의 만세시위 후 검거되어 태형을 받은 사람을 전부 찾아낼 수도 없지만 여기에 모두 소개할 수도 없다. 그것은 당시에 일본 순사가 만세 참가자 명부를 작성해 두고 샅샅이 찾아 체포하여 태형을 가하였으니 말이다. 당시 복역자 명단은 〈표4-6〉와 같다.

〈표4-6〉 복역자 명단

이 름	지 역	직업, 종교	이 름	지 역	직업, 종교
오세옥	상광정리	감리교인	김창환	말곡리	이 장
김익열	상광정리	이 장	문종석	말곡리	
오정현	상광정리	한학자	김재한	도 리	한학자
김종대	상광정리	포 수	박원병	원일전리	서당훈도
김우근	중광정리	이 장	박용기	원일전리	이 장
이응렬	명지리	감리교인	김두칠	어성전리	이 장
권광식	명지리	이 장	이형규	어성전리	
김종성	대치리	이 장	우흥수	어성전리	
한윤성	대치리	농 업	이원규	어성전리	
황 주	대치리				

아) 그 외의 만세운동

양양군 7개 면 중에서 현남면만이 만세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곳은 양양면에서 약 50여리 떨어져 있어 가장 멀어 양양면까지 도보로 5시간 이상 걸어야 했기 때문이

기도 하지만, 계획 도중 기사문사건이 너무 놀라운 참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계획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기사문사건 이후의 만세시위로는 일본 군경의 삼엄하고 철통같은 경계 아래에서도 4월 16일 300여 명의 군중이 만세 운동을 전개[48]하였으며, 5월 9일 10:00 및 14:00경 양양면 남대천 앞산에서 37명이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49]

3 · 1운동 당시 유공(有功)자 및 수형(受刑)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4-7〉 유공자 명단

구 분	성 명	년령	당시주소	유공사항	비 고
순국	함홍기(咸鴻基)	22	손양면 가평리	왜적에게 총살	양양경찰서
의사	권병연(權炳淵)	22	손양면 간리	총탄에 사살	양양경찰서
의사	김학구(金學九)	미상	서면 상평리	총탄에 사살	양양경찰서
의사	전원거(全元擧)	35	현북면 하광정리	총탄에 사살	현북면 기사문리
의사	임병익(林秉翼)	24	현북면 중광정리	총탄에 사살	현북면 기사문리
의사	홍필삼(洪必三)	24	현북면 중광정리	총탄에 사살	현북면 기사문리
의사	고대선(高大先)	미상	현북면 어성전리	총탄에 사살	현북면 기사문리
의사	황응상(黃應相)	미상	현북면 어성전리	총탄에 사살	현북면 기사문리
의사	김석희(金錫熙)	미상	현북면 어성전리	총탄에 사살	현북면 기사문리
의사	문종희(文鍾熙)	미상	현북면 말곡리	총탄에 사살	현북면 기사문리
의사	진원팔(陣元八)	미상	현북면 어성전리	총탄에 사살	현북면 기사문리
의사	이학봉(李學奉)	미상	현북면 명지리	총탄에 사살	현북면 기사문리

〈표4-8〉 수형자 명단

면	이 름
양양면	최인식(崔寅植), 이원희(李源熙), 최항식(崔亢植), 김필선(金弼善), 김명기(金明基), 김종태(金鍾台), 최영덕(崔永德), 김계호(金啓鎬), 이관진(李寬鎭), 이원도(李源燾), 김규용(金圭容), 김재구(金在龜), 김주호(金周鎬), 김봉운(金鳳運), 김주열(金周烈)
손양면	김창환(金昌煥), 김진열(金振烈), 최한두(崔漢斗), 김종석(金鍾澤), 신세묵(辛世默)
현북면	오정현(吳鼎鉉), 김재한(金在漢), 오세옥(吳世玉), 박용기(朴容基), 권광식(權廣植), 김종대(金鍾大), 이종은(李鍾殷), 황응상(黃應相), 이선제(李善濟), 김우근(金禹根), 윤명종(尹明鍾), 박원병(朴元秉), 김종성(金鍾聲), 한윤성(韓允聲), 김두칠(金斗七), 이원규(李元圭), 우흥수(禹興遂), 이형규(李亨奎), 박용기(朴容琦), 김익열(金益烈), 문종석(文鍾錫)

면	이 름
강현면	김철기(金鐵起), 김원식(金元植), 장세환(張世煥), 김경도(金敬道), 이종엽(李鍾燁), 김두영(金斗榮), 윤순범(尹順範), 전달원(全達元), 이형우(李炯雨), 이철우(李喆雨), 김창열(金昌烈), 박봉래(朴鳳來), 추병원(秋秉元), 양익환(梁益煥), 박제범(朴濟範), 김대선(金大先), 심한준(沈漢俊), 김환기(金桓起), 김진선(金振璇)
도천면	이종순(李鍾淳), 박사집(朴士集), 이동열(李東烈), 김영경(金英經), 이종국(李鍾國), 이춘재(李春在), 김정식(金鼎式), 이재훈(李載勳), 이능열(李能烈)
서 면	김동섭(金東燮), 노용수(盧龍秀)

수형자 중 73명은 형기(刑期) 3년 이내 8개월 이상 복역, 총탄을 맞고 부상한 사람 20여 명 이상이 기사문리 만세운동에서 왜적 총탄에 맞고 부상, 10여 명 이상이 양양면 시위에서 부상하였으며, 태형자와 부상하여 치료 중 사망한 사람도 부지기수(不知其數)이다. 국가 유공자 명단은 〈표4-9〉과 같다.

〈표4-9〉 유공자 국가 표창 내역

이 름	표창 내용	표창 연도	비 고
함홍기	대통령 표창	1977	순 국
이학봉	대통령 표창	1977	순 국
김창열	대통령 표창	1980	
최인식	독립유공표창	1982	
이재훈	대통령 표창	1982	
조화벽	대통령 표창	1982	
임병익	독립유공표창	1982	
김재한	대통령 표창	1983	
김종탁	대통령 표창	1983	

2) 양양신청년동맹(襄陽新靑年同盟)

(1) 조직

3·1만세운동 이후 양양지역의 항일 민족운동은 약화되는 듯하였으나 1920년대 초에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으로 전국적으로 각종 사회단체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

운데, 이곳 양양에서도 1920년 이래 현산청년회와 양양신청년회에서 활동하던 오용영(吳龍泳), 김대봉[50](金大鳳), 김동환(金東煥), 최우집(崔禹集) 등에 의하여 1923년 물치노농동맹(沕淄勞農同盟)이 조직되었다[51]. 이후 물치노농동맹은 1923년 8월 28일 조선노동연맹회(朝鮮勞動聯盟會)에 가맹하고 청년운동과 노동운동을 병행하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1924년 조선노농총동맹이 창립되자 조인순(趙仁淳), 김대봉을 대표로 파견하였다. 그러다가 1924년 광복운동의 신사조(新思潮)가 전파되면서 최우집, 김대봉 박정양(朴鼎陽) 등 28명에 의하여 양양신청년동맹이 창립되었다.[52]

(2) 활동

양양신청년동맹은 우선 무산계급 의식을 각성하게 할 만한 수양기관의 설치, 무산 계급운동에 필요한 언론 기관을 설치하는 동시에 강연 · 강습 · 연구 · 운동 · 토론 · 연극 등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회원의 가입 자격은 만 17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하였고, 의지가 견고하고 동맹원 2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했으며, 그 후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하여 회원 가입이 매우 까다로웠다. 양양신청년동맹의 선언과 강령 집행위원은 다음과 같다[53].

선언(宣言)
사람이 절대인 것을 안 우리 청년은 우리 인간의 모든 불공평, 불합리를 부정하고 절대 진리인 세계 민중해방운동에 공헌하기 위하여 2대 강령을 세우고 양양신청년동맹을 조직하노라.

강령
1. 본 동맹은 사회진화법칙에 의하여 신사회(新社會)를 건설할 역군 양성을 기함
2. 본 동맹은 무산계급의 해방을 기하며 당면 이익의 획득을 위하여 투쟁에 힘씀

집행위원
서무부 : 김유선(金有善), 김대봉(金大鳳)
교양부 : 이건호(李建鎬), 최용대(崔容大)

경리부 : 김명기(金明基), 김달규(金達圭)

1925년 10월 30일, 제2회 정기대회를 열어 새로 집행부를 선출하고 다음 사항을 결의하였다.

집행위원
서무부 : 박정양(朴鼎陽), 김남한(金南翰)
교양부 : 최용대(崔容大), 오일영(吳日泳)
경리부 : 방재규(方在明), 김달규(金達圭)

결의사항
1. 소작운동에 관한 건
2. 순회강좌 개최의 건
3. 노동연합대회 개최의 건

그리고 1925년 11월 2일에는 동아일보 양양지국의 후원으로 만해(卍海) 한용운(韓龍雲)을 초청하여 '인생관' 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양양신청년동맹은 현산청년회 · 양양신청년회 · 일혁청년회 등과 함께 양양군의 청년운동을 통일할 목적으로 합동정우회를 조직하고, 통합을 꾀한 결과 동화청년회(同化青年會)를 조직하였다. 동화청년회는 1927년 3월 20일 전양양사회운동단체연합간친회(全襄陽社會運動團體聯合墾親會)를 주최하였다. 이 간친회에는 우리수양단(修養團), 물치농민조합, 설악청년회, 차부조합(車夫組合), 조산농민조합, 형평사, 현서청년회, 금강농민조합, 손양청년회의 대표와 개인 참가자를 합한 80여 명이 참가하였는데,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1. 청년운동에 관한 건
   9개의 면(面)의 청년단체를 망라하여 군연맹(郡聯盟) 조직을 촉진시킨다.
2. 노동운동에 관한 건
   노동단체가 없는 곳에는 창립을 촉진시켜서 단체적으로 훈련하고 시대적으로 교양하기 위하여 각 단체에서 위원을 선거하여 순회강좌(巡廻講座)를 개최한다.

3. 소년운동에 관한 건
   전군소년연맹(全郡少年聯盟)을 촉진시켜서 시대의 적의(適宜)한 훈련과 교양을 받게 한다
4. 여성운동에 관한 건
   각 동에 부녀야학(婦女夜學)을 설립하게 한다
5. 형평운동에 관한 건
   시간 있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 집회(會集)하게 하여 시대적 의식을 투철히 각오하도록 교양, 지도한다
6. 어민운동에 관한 건
   각 어진(漁津)의 어민단체의 창립을 촉진시킨다.
7. 운동자 교양에 관한 건
8. 양양운동단체심사의 건
   각 단체를 심사한 결과 금강조합, 차부조합은 아직까지 가치가 선명치 못함으로 일정 기간에 보류한다.
9. 조선운동방향전환(朝鮮運動方向轉換)에 관한 건
   ○ 사상단체 해체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한다.
   ○ 정치운동에 대하여는 종래의 운동에서 비약하여 정치운동으로 전환한다.
   ○ 신간회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원조한다.
10. 공회당(公會堂)문제에 관한 건
    년래(年來)의 숙제인 대공회당문제로 4월 3일에 군민대회(郡民大會)를 개최한다.
11. 도평의원(道評議員) 선거 부정투표에 관한 건

위의 전양양사회운동단체연합간친회는 결국 양양지역의 사회운동 전반에 관해 협의하여, 이 자리에서 결의된 청년연맹의 촉진, 신간회 원조, 어민단체의 촉진 등은 실천에 옮겨졌다. 그리고 정우회[54]의 방향전환론이 채택되어 운동의 방향 전환을 꾀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양양청년동맹, 신간회 양양지회, 어민조합 등이 조직되었던 것이다.

1927년 6월 3일 양양읍 남문리 동화청년회관에서 양양군청년연맹의 집행위원회가 개최되어 단오회(端午會)에 흥행할 굿은 미신을 선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 외 2개항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6월 14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강원도 사회운동자대회의 참가, 이류단체(異類團體)처리, 청총(靑總)가맹 등을 결의하였다.

1927년 8월 10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선청년총동맹의 규약에 의거하여, 양양청년동맹으로 발전적인 해소를 하고, 조선청년총동맹에 가입할 것과 강원연맹 혁신 그리고 세포 단체에 관한 건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도천면, 강현면, 서면, 손양면에 지부를 설치하였으며, 물치차부조합, 물치농민조합, 조산농민조합을 지부로 하였다.

당시 양양청년동맹 지부 현황은 〈표4-10〉과 같다.

〈표4-10〉 양양지역 청년동맹지부 현황[55)]

지 역	사무소	회원수(명)	지부장
도천면 지부	도천면 대포리	50	정충근
강현면 지부	강현면 물치리	25	오일영
서 면 지부	서 면 상평리	24	강장주
손양면 지부	손양면 금강리	26	이양섭

(3) 활동 내용

〈표4-11〉의 양양청년동맹의 활동은 몇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자체 조직의 정비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 면 단위의 지부 설치, 리(里) 단위의 반(班) 설치, 그리고 각 지부의 활동 점검, 회비의 징수, 교양 방침의 수립, 미조직 민중에 대한 조직 방침, 연령 제한, 문고 설치 등에 관련된 활동들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는 지역 사회의 여러 부문운동에 대한 지원 활동을 들 수 있다. 인근 지역의 청년동맹 창설에 대한 지원 활동이라든지, 같은 양양지역의 농민조합, 신간회 등의 설립에 대한 지원 활동, 소년운동에 대한 후원활동 등이 그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표4-11〉 양양청년동맹 활동 내용

일 시	장 소	사 회	결의 내용
1927. 10.26.	구속성학교사 (舊速成學校舍)	최용대	신간회 양양지부 설치 후원의 건, 군농민조합 조작 촉성의 건, 회관건축에 관한 건, 인군청년동맹 조직 촉성에 관한 건
1927. 12. 7.	양양청맹회관	김두선	○○반 설치에 관한 건, 양양면지부 설치에 관한 건 - 노병례(盧炳禮)를 집행위원에 선출
1928. 1. 8.	양양청맹회관	최용대	회비 및 의무금에 관한 건, 토의 및 양양지부 설치에 관한 건, 재만동포옹호동맹 촉진에 관한 건

일 시	장 소	사 회	결의 내용
1928. 2.20.	양양청맹회관	최용대	회비 및 의무금에 관한 건, 퇴회 및 제명에 관한 건, 각지부 순회의 건, 문고 설치의 건, 청총 해금운동에 관한 건, 신간전국대회금지대책에 관한 건, 농민운동 후원에 관한 건, 소년운동 지도에 관한 건
1928. 4.25.	구속성학교사	최용대	교양방침에 관한 건, 미조직민증 교양에 관한 건, 각부 ○○에 관한 건, 연령 제한에 관한 건, 운동선○화에 관한 건, 회관건축에 관한 건, 향교재산에 관한 건, 三總집회금지에 관한 건, 신간 및 근우회 지지건, 강청대회(江靑大會)대의(원)선거에 관한 건, 경성청년회성명서에 관한 건, 재만동포옹호동맹지지에 관한 건, 일본노동농민당해산에 관한 건, 미신타파에 관한 건, 지방언론기관에 관한 건, 조혼 및 강제결혼 폐지에 관한 건 - 집행위원장 김두선 외 위원18인, 검사위원장 최용대, 위원 김필선, 오일영
1928. 6.27.	양양청맹회관	김두선	의무금에 관한 건, 창립 1주년 기념에 관한 건, 유학생 환영에 관한 건, 소년연맹 집회금지에 관한 건
1928. 7.26.	양양청맹회관	김두선	제명수리의 건, 각지부 위원회 수리의 건, 유학생 환영회 주최의 건, 본동맹 창립 1주년 기념에 관한 건

셋째로는 양양지역의 차원을 뛰어넘어 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다든지,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하는 활동을 들 수 있다. 청년총동맹의 해금 운동, 신간회 전국대회 금지에 대한 대책 회의, 재만동포옹호동맹[56](在滿同胞擁護同盟)에 대한지지, 일본노동농민당(日本勞動農民黨) 해산에 관한 의견 제시 등의 활동이 그 예에 속한다 할 수 있다. 특히 양양청년동맹의 집행위원이던 최창원(崔昌源), 오일영, 추교철(秋敎哲), 조상엽(趙相燁) 등 4명이 1929년 9월 경 삼척에서 열린 강원도청년연맹대회에 보낸 축문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검속(檢束)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 외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의 제시와 실천 활동을 하여, 향교재산에 관한 문제 제기, 미신 타파에 대한 문제 제기, 지방 언론에 관한 문제 제기 등을 하였다.

(4) 각 지부 조직과 활동 내용

양양면지부는 1928년 1월 8일 설립되었다. 설립 후 1928년 9월 22일에 제3회 정기총회를 열고 다음의 내용을 토의하였다.

○ 의무금 징수방안에 관한 건
○ 자체 교양에 관한 건
○ 부문 확립에 관한 건
○ 전양양 사회운동 통계표 작성에 관한 건

1930년 3월 30일 도천면지부의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소년운동 절대지지 후원과 미신타파 등 6개의 의안을 토의하고 위원을 개선하였는데, 위원장에 우세열(禹世烈), 서무 김현풍(金顯豊), 김금수(金錦洙), 교양 O충근(O忠根), 황근(黃槿), 선전 최O화(崔O和), 소년 은학수(殷學洙), 여자 O명순(O明順), 후보 김석기(金石基), 황창흡(黃昌洽) 등이 선출되었다. 1930년 10월 30일에는 신간회 양양지회 도천면 분회, 양양군소년연맹 도천면 소년회, 대포노동조합, 대포어민조합 등과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3) 신간회지회 활동

(1) 조직

민족유일당 운동의 영향으로 배타적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가 연합하여 1927년에 조직된 신간회는 창립 이후 계급과 계층의 구분 없이 민족의 지지를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지회를 조직하였다. 양양의 경우도 신간회 중앙조직 창립 직후 양양지회 조직 움직임이 태동하였다. 지회의 조직에는 양양청년동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양양청년동맹은 앞에서 보았듯이 1927년 10월 26일 제1회 정기대회에서 신간회 양양지회 설치 후원, 농민조합 촉성 등 4개의 안건을 토의하였다. 이와 같이 양양청년동맹의 적극적인 후원 하에 1927년 11월 20일 신간회 양양지회가 조직되었다.

회장에는 이석범(李錫範), 부회장에는 김현환(金顯桓), 서무재정부 총무 함하선(咸河璿), 상무 김두선(金斗善), 간사 이찬우(李璨雨), 이규한(李圭漢) 정치문화부는 총무 최용대(崔容大), 상무 김서봉(金瑞鳳), 간사 김달규(金達圭), 박정양(朴鼎陽), 조사연구부에는 총무 김병환(金炳煥), 상무 김필선(金弼善), 간사 이양섭(李陽燮), 이달충(李達忠), 선전조직부에는 총무 최완집(崔完集), 상무 오일영(吳日泳), 간사 김종철(金鍾喆), 마기

영(馬冀永) 등이 선출되었다. 조직 후 신간회 양양지회는 1927년 12월 7일 총무간사회를 열어 신입회원 37명의 가입을 승인하였다.

(2) 활동

1927년 12월 21일 정기대회를 개최하여 회원 모집, 통계 수집, 조직체 변경, 재만동포 피압박 대책, 본부대회 출석 대의원 선거, 본부대회 건의한 작성위원 선거 등에 관하여 토의하였다. 그리고 1928년 1월 18일 제2회 총무간사회에서는 신입회원 12명의 심사 수리, 재만동포옹호동맹(在滿同胞擁護同盟)지부대회 시일, 지방열단체 박멸, 본부기관지 발행 건의, 본부대회 건의안 작성 문제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1928년 2월 19일에는 총무간사회를 열어 중국재류동포옹호동맹(中國在留同胞擁護同盟)과 대포공진소년회(大浦共進少年會)에 관한 방침 등 6개의 안건을 토의하였다. 특히 대포공진소년회에 관한 토의 안건은 대포공립보통학교의 교장 다나까(田中 : 전중)가 1928년 1월 9일 공진소년회에 입회한 자신의 학교 학생 2명에게 「'일한합병'은 두 민족이 더 잘살기 위하여 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불평을 품고 여러 가지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대포에는 공진소년회라는 것이 있어 너희 24명이 입회하여 있은 즉 오늘 전부 탈퇴하되, 만약 탈퇴하지 않으면 주재소에 넘겨버리겠다」고 협박한 사건이다[57]. 이에 공진소년회에서는 경고문을 발송하는 동시에 양양청년동맹 소년부에 보고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양양청년동맹, 신간회 양양지회까지 관여하게 되어 양양지역의 중대한 사회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1928년 7월 27일에 총무간사회에서는 입회원 승인 및 유학생 환영회 개최의 안건을 논의하였는데, 특히 유학생 환영회 개최 준비에는 양양지역의 사회단체 모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대적인 행사가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1930년 4월 18일 제4회 정기대회를 개최하여 도지회연합회(道支會聯合會) 설치 촉진 이외 7개의 안건을 토의하고, 아래와 같이 임원을 개선하였다.

위원장 : 김현환
위　원 : 이종명(李鍾溟), 김형기(金亨起), 김병환, 김동기(金東起), 최용봉(崔容鳳), 김병익(金炳益), 김유희(金有熙), 함재덕(咸在悳), 최완집, 채O충(蔡O忠), 이규한, 김현우(金顯禹), 장재근(張在根), 함하선, 최종길(崔鍾吉), 이원희(李元熙), 이상봉(李商鳳), 오일영, 진상길(陣湘吉), 김동환(金東桓)
후　보 : 우순복(禹順福), 이양섭, 최영달(崔永達), 김종철, 김달규(金達圭)
검사위원 : 최욱(崔旭), 이찬우, 김대희(金大熙), 진형찬(陣炯璨), 이학규(李學奎)
본부대회 대의원 : 김현환, 이규한
후　보 : 최환집, 함하선

이어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다음과 같이 집행부를 선정하였다.
서 기 장 : 이종명 회계 김형기
서무부장 : 이종명 부원 함하선
재정부장 : 김형기 부원 노병례
교육부장 : 최완집 부원 김동기
도조부장 : 장재근 부원 오일영
조사부장 : 이규한 부원 박정양
상무위원 : 김현환, 이종명, 최완집, 장재근, 김병환, 하기선, 김동기, 함재덕, 이충O

1930년 5월 9일 집행위원회를 열어 분회(分會) 및 반(班) 순회 등 5개의 안건을 토의하였다. 그런데 분회는 반 조직이 활성화되면 승격되는 것이었으므로 신간회 양양지회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간회 양양지회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일제는 신간회 창립 1주년 기념식을 금지하는 등 방해하였다. 그리고 교육부 부원이었던 김동기가 신간회 해소(解消 : 신간회 해산)대회 시 신간회 중앙본부의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양양지회는 신간회 해소(解消)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3) 활동 의의

신간회 양양지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양양지회는 신간회가 추구했던 민족협동전선

(民族協同戰線)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1927년 신간회 양양지회가 창립되면서부터 1930년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때까지 신간회의 회장, 또는 집행위원장을 역임했던 인물은 이석범과 김현환의 두 명이 확인되는데, 이들은 사회주의자는 아니었다. 이석범은 지역을 대표하는 유학자로서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상당히 강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김현환은 보천교[58](普天敎) 신자로서 양양지역 사회주의운동에서 이름을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특히 1930년에 개편된 집행부의 각 부장을 역임한 인물들도 역시 사회주의 활동을 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인물들이다.

반면에 3 · 1운동에 어린 학생으로 참여하였던 노병례, 함하선, 김동기, 오일영, 박정양 등은 양양지역 사회주의운동의 주도적인 인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간회 양양지회는 다른 지역에서 나타난 적극적 사회주의 운동과는 다르게, 지역의 명망가들과 실천력을 갖춘 인물들이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연합하여 운동을 전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어민운동

(1) 조직

1910년에 일제는 어업령을 발표하여 우리나라 근 · 연해에까지 일본 어선들이 진출하여 어민들의 피해가 매우 컸었다. 당시, 동해안의 주요 항구였던 대포항은 해상 교통과 어업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에 1928년 1월 19일 조합원 34명으로 대포어민조합이 창립되었다. 그러나 대포어민조합은 창립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일체의 집회가 금지되어 활동이 여의치 않아 서면(書面)대회를 소집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학규(李學奎)는 어민조합의 쟁의부장, 교양부장, 집행위원장을 역임하였는데, 그가 이와 같이 어민운동에 투신하게 된 데에는 1922년부터 김대봉과 친분을 갖게 된 것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즉 그는 김대봉(金大鳳)과 교유하면서 『조선지광(朝鮮之光)』, 『비판(批判)』, 『사회주의학설대요(社會主義學說大要)』, 『이념투쟁(理念鬪爭)』, 『러시아혁명소사(革命小史)』 등의 서적을 탐독한 결과 공산주의에 공명(公明)하

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는 경제투쟁 및 정치투쟁의 의식을 어민대중에게 주입시켜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고 공산제도의 실현을 도모할 목적으로 어민 조합을 조직하였던 것이다.

(2) 활동

어민조합의 조직 후 이학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양활동에 주력하였다. 즉 그는 1929년 6월 조합원인 정주화(鄭周和)에게 "우리 어민들은 사력을 다해 출어(出漁)하여도 그 이득은 자본주에게 착취당해 당시 생활이 곤궁함은 현재의 계급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단결하여 이 계급을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1931년 4월경에는 대포리의 김대학(金大學)의 집에서 어민조합원인 이성백(李成伯)에게 "조합원은 단결이 절대 중요하다. 그대들의 단결의 관념이 빈약함은 대단히 유감이다.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실현하고 빈부의 구별이 없이 평등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들도 강력히 단결하면 장래는 필(必)히 빈부의 구별이 없는 평등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1931년 6월에는 조합원인 박봉길(朴鳳吉)에 대하여 월연금을 잘 납부하도록 '월연금은 무산어민이 자본주의와 투쟁할 때 군량이므로 잘 납부하라. 일단 유사시는 싸워서 자본주의와 하등의 구별이 없는 평등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하였다. 이와 같이 대포어민조합은 어민의 의식을 고취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1931년 6월 23일부터 온유박(鰮油粕)[59] 가격 문제로 대포리와 물치리의 어선 70여 척과 100여 명이 파업(罷業)을 감행하였다. 이들 중 40여 명은 경찰서에 몰려가 검속(檢束)된 두 명의 검속 이유와 멸치 가격 협의회의 금지 이유, 조합문서를 압수한 이유 등에 대해 항의하였다.

5) 양양 농민조합 운동

(1) 배경 및 조직

일제가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으로 토지를 빼앗기고 경작권마저도 상실한 채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민들의 활동은 1923년 물치노농동맹이 조직되면서 점차 활기를 찾았다. 그러나 농민운동이 하나의 운동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청년운동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양양지역 청년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물치노농동맹은 농민단체로서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1926년 3월 5일 '조선노농총동맹 발 제23호' 공문에 의거하여 오용영(吳龍泳)이 명칭을 물치농민조합으로 바꾸었다. 이어 1927년 3월에는 양양농민협회(襄陽農民協會)가 창립되었고, 1927년 12월 4일에는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소비조합, 문맹퇴치, 동아일보 양양지국 유지의 건 등을 토론하였다.

물치농민조합의 창립 이후 리(里)단위의 농민조합이 조직되어, 조산리, 노리(蘆里), 용천리, 정손(丁巽)리, 소야(所野)리, 서림리의 6개 농민조합이 조직되었다. 이와 같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농민조합이 조직되는 과정에서 양양에서도 농민조합이 대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양양농민협회가 조직되었고 이어서 전양양농민조합연합회로, 나아가 양양군농민조합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이 양양농민조합은 다른 지역의 농민조합의 성립 과정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양양청년동맹의 적극적인 후원 하에 조직되었는데, 이와 같이 청년동맹의 도움에 의해 농민조합이 조직되는 원인은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양양의 반일(反日)적인 지역정서를 들 수 있다. 이 지역의 반일 전통은 그 연원을 동학농민운동시기까지 소급해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신문화의 유입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으므로 새로운 지식을 수용한 청년층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청년운동이 지역사회에서 동질성과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점이다. 양양지역의 경우에는 3 · 1운동을 거치면서 신지식을 수용한 청년층이 운동의 주요한 세력으로 참

여하여 지역민들에게 상당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성원으로서 청년들은 곧 농민청년이었으며, 따라서 이점은 이들과 지역민 사이에 동질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즉 이들은 지역민들과 생활하는 공간이 동일하였으므로 지역민들과 접촉할 기회가 상당히 많았으며, 또한 그 때문에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을 그들의 투쟁에 반영할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이들과 지역민들 사이에 동질성과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것이다.

양양농민조합은 1927년 9월 강원도 청년혁신대회를 계기로 군 농조조직운동이 활발해지자 같은 해 12월 초 조산리 보응(普應)학원에서 창립준비위원 오용영 이하 28명을 선출하고, 12월 30일에는 청곡리 최영동(崔永東)의 집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하여 집행위원장에 김병환, 집행위원에 오용영 외 30명을 선출한 후 다음 사항을 토의하였다.

토의사항
- ○ 교양에 관한 건
  - 조직농민 훈련에 관한 건
  - 미조직 농민 교양에 관한 건
- ○ 저곡(貯穀) 저금(貯金)에 관한 건
- ○ 도일(渡日) 노동자 저지 반대의 건
- ○ 일본 노동농민당 지지 및 조선인(?) 설치 XX(지지 - 인용자)의 건 외 3항.

그리고 양양농민조합은 다음의 4개항을 강령으로 채택하였다.

- ○ 마르크스주의를 지도정신으로 한 유물변증법(唯物辨證法)에 입각하여 과학적 지식을 보급시킬 것.
- ○ 법률에 관한 지식을 주어 현시의 정치 기구 내지 공작이 무산농민에 대해 어떠한 손익이 있는가를 비판할 것.
- ○ 유물사관에 관한 지식을 주어 무산농민의 사회적 지위 및 역사적 사명(사회혁명)에 대한 자각을 환기시킬 것.
- ○ 현하(現下) 세계의 추세에서 장래 농민을 획득할 것.

한편 양양농민조합은 이상과 같이 중앙조직을 수립하면서 이미 조직되어 있던 물치 · 조산 · 용천 · 정손 · 소야 · 서림농민조합 등을 지부로 흡수하고, 월리, 포월리, 상평리, 노리(蘆里) · 강선리, 정암리 등 각 리에 지부를 조직하였는데, 각 지부의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표4-12〉 각 지부의 책임자

지 부	책 임 자	지부	책 임 자
조 산	최용복(崔容復), 최창원(崔昌源)	용 천	노병례(盧炳禮)
월 리	김극선(金極善), 김동환(金東桓)	소 야	진형찬(陣炯瓚)
정 손	김성규(金聖圭), 김찬규(金燦圭) 외 1명	서 림	김동신(金東臣), 이근수(李根壽)
정 암	김사만(金思晩), 박용구(朴容九)	물 치	김동환(金東渙)
상 평	함재풍(咸在豊), 양세진(梁世鎭)	포 월	최동섭(崔東燮), 이창엽(李昌燁)
사 천	최용갑(崔容甲)		

〈표4-13〉 양양농민조합사건 관계자 일람표

성 명	나이	직 업	관 련 단 체	기 타
김병환(金炳渙)	45	어업,농업	조선농민총동맹 중앙집행위원, 신간회 강원지부장, 신간회 중앙집행위원	조공 양양야체이카 책임자, 조공 3차대회를 자택에서 개최
오용영(吳龍泳)	35	농업	신간회 양양지회	일명 오일영, 조공 양양야체이카 선전부원
최우집(崔禹集)	38	농업	조선노농대회준비위원, 신간회양양지회	일명 최욱, 1929년 양양농조 집행위원장, 원산제네스트에 동정금 송부, 양양야체이카사건에 관련
최용복(崔容復)	28	농업	조선농민총동맹	광복 직전 강릉에서 강릉의 박기돈의 도움으로 환일백화점 경영
김동기(金東起)	33	농업	신간회 해소대회시 중앙집행위원	원산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원산으로 감
최용대(崔容大)		면서기	양양청년동맹 검사위원장	조공 양양야체이카사건 관련
박정양(朴鼎陽)			신간회 양양지회	신흥사의 승려
이학규(李鶴奎)		이발소	대포어민조합 집행위원장	
김동환(金東煥)	51	농업, 정미소관리인	신간회 양양지회	
최용운(崔容運)	25	농업		최용달의 실제
최동섭(崔東燮)	25			일명 최규영

성 명	나이	직 업	관 련 단 체	기 타
진형찬(陣炯瓚)	38	농업		
김극선(金極善)	39	농업		
함재진(咸在鎭)	33	농업		
최종길(崔鍾吉)	39	농업		
이겸열(李謙烈)	31	농업		
최연집(崔淵集)	31	농업		
최용선(崔容善)	31	농업		
김성규(金聖圭)	21	농업		
김종현(金鍾賢)	26	농업		
김동환(金東桓)	48	농업		
양세진(梁世鎭)	24	농업		
김정기(金貞起)	34	농업		
김진행(金振?)	38	농업		
김창렬(金昌烈)	40	농업		
이창엽(李昌燁)	38	농업		
최용철(崔容喆)	32	농업		
노병례(盧炳禮)	27	농업		
최영달(崔永達)	41	농업		
최창원(崔昌源)	29	농업,목면		
최상교(崔相敎)	27			
김병익(金炳益)	51			
김병설(金炳卨)	30			
김달규(金達圭)	34			
최용갑(崔容甲)	31			
최용호(崔容虎)	27			
김동신(金東臣)	31			
박용구(朴容九)	37			
김사만(金思晩)	44			
정연철(鄭然徹)				
박문병(朴文秉)				
김찬규(金燦圭)				
이근수(李根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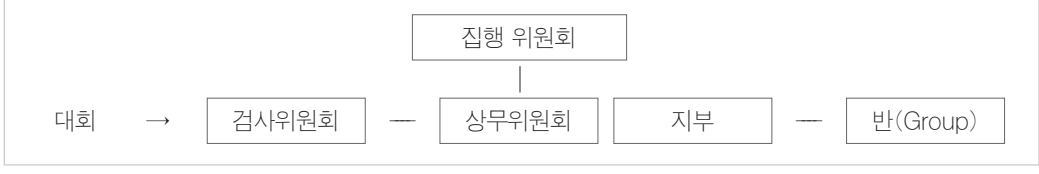
자료 : 「양양농민조합사건 판결물」, 『동아일보』, 『조선일보』

〈표4-13〉을 보면, 양양농민조합의 주요 구성원인 김병환, 최우집, 김동기는 중앙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이들과 함께 오용영과 최용대, 김병환 등은 조선공산주의 운동에 관계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다. 또한 이들은 영농 형태별로 분류하면 운동을 지도하던 김병환, 오용영, 최우집, 최용복 등과 최용운, 장용국은 중농으로, 지부장인 김동신, 김사만, 박용구와 김동환은 빈농으로, 김종현, 노병례과 양양농민조합이 궤멸된 후 강환식과 함께 '양양적색노농협의회'를 조직했던 추교철은 부농이었다. 그리고 박정양은 신흥사의 승려 신분이었고, 이학규는 이발소를 경영했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운동의 지도적인 인물인 김병환, 오용영, 최우집 등은 남궁 억이 세운 현산학교 출신이며 3 · 1운동에 참가하였다. 이외에 3 · 1운동에 참가한 인물로는 노병례, 김동환, 진형찬, 김극선, 김병익, 박용구, 김사만, 김동환, 김진연, 김창렬, 이창엽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양양농민조합의 주요한 구성원들은 현산학교를 졸업한 인물들을 지도자로 하여 3 · 1운동에 참가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김동기는 1929년 원산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원산으로 떠났다고 한다. 이를 다시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50대가 2명, 40대가 5명, 30대가 19명(35세 이상 8명, 35세 미만 11명), 20대가 10명(25세 이상 8명, 25세 미만 2명)으로서 운동의 중심인물이 주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당시 『동아일보』는 "운동의 중심 인물은 대개 40세 이상인 자로서 근래 운동의 한 이채(異彩)"라고 하였던 것이다. 즉 양양농민조합은 다른 지역에서는 농민운동과는 달리, 지역 사회에 어느 정도의 물적 · 인적 기반을 지닌 인물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다는 점이며, 이들 가운데는 김병환, 오용영, 최용대 등과 같이 조선공산주의운동에 관계한 인물들도 있었다.

양양농민조합의 조직체계는 다음과 같다.

양양농민조합의 조직체계



(2) 활동

양양농민조합은 운동의 주안점을 농민에 대한 교양활동과 일상이익의 확보에 두었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은 주로 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중앙의 본부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였다.

집행위원장 김병환은 1928년 2월 22일 12개 지부 위원장에게 조합원의 교양은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할 것을 지시' 하면서 납세 거부, 채권 소멸, 수업료 면제, 묘목 배부 등의 현실 행정에 대한 과격한 비판 연설로써 조합원들에게 당시 농민들의 당면문제에 해결에 역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김병환의 지시는 같은 해 3월 4일 집행위원회에서 보다 구체화되어 본부 집행위원 및 지부 조합원 중 장래 조합의 지도자로서 괄목되는 자를 각 2명씩 선발하여 3월 5일부터 월 6회 소야 · 포월 · 물치 · 용천지부에 있는 피선발원을 소집하여 조합 본부에서 파견한 강사로 앞의 '교양 방책' 의 취지에 따라 사회과학 · 자연과학 · 정치 · 법률 · 역사 등을 강연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서림지부에 대하여는 강사를 파견하여 강연하였다.

양양농민조합은 조직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하여 독서회 · 야학[60] · 연구회 · 신문 강좌 등의 조직을 통해 농민들에 대한 대중적 교양 지도를 더욱 강화하였다. 즉 1928년 4월 26일 제2회 정기대회에서는 조직농민에 대해서는 일정한 교재를 선택하여 일정한 과정 하에 독서회를 개최하거나 현실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수시 연구회를 개최할 것을 정하였다. 그리고 가담하지 않은 농민에 대하여는 야학을 열어 농민들의 문맹을 퇴치하는 한편 미신을 타파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일제가 토지 없는 자에게 묘목을 강제로 배포함은 산업 장려라는 미명하에 묘목 생산자 본위의 자본주의사회의 특징인 상업생산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농민조합원은 이 기만정책을 폭로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강제 배포된 것은 모두 반환하고 군 또는 면에 항의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가난한 아동에 대한 수업료 철폐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31년 3월 30일 제5회 정기대회에서는 이와 같은 농민의 일상이익의 획득을 위하여 농민대회 · 소작대회 · 시위운동 등의 운동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대회에서 사용할 구호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일체의 채무계약의 무효를 주장한다.
○ 잡세를 철폐하라.
○ 토지는 농민에게
○ 노동자의 단결을 강고히 하자.
○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철쇄이며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사회이다.
○ 현 계급은 부르주아민주주의 전취 과정에 있다.
○ 민국의 무산자여 단결하라.

한편 양양농민조합은 당시 전국의 노동운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원산총파업[61]단에 격려전문을 보내고 동정금 10원을 기부하였다. 그리고 김동기는 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원산으로 떠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때문에 집행위원장 최욱과 간부 오일영이 검거되었으며, 각 회관을 수색당하여 많은 문서를 압수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각 지부의 집회가 모두 금지 당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양양농민조합의 활동은 중앙 본부가 정책을 결정한 후 지부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각 지부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상평리지부는 1928년 1월 30일 조직되었으며, 2월 28일 제2회 지부위원회를 열어 도서 구입에 관한 건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1930년 3월 12일에는 제3년 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게 김동휘(金東輝)를 선출한 후, 허례타파에 관한 건 등 3개항을 토의하였다.

조산리의 경우에는 이미 1925년 12월 30일에 농우회가 조직되어 농민운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일제가 "사회주의를 선전할 위험이 보인다"고 하여 강제로 해산시킨 바가 있는 지역이었다. 따라서 조산리는 비교적 농민운동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던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양양농민조합 조산지부가 조직된 후에 최용복, 최창원을 지도자로 하여 1928년 2월부터 1930년 12월경까지 농한기를 이용하여 사회과학 강좌를 개최하여 마르크스주의를 해설, 비판하는 한편 신문강좌를 실시하여 신문기사 중 노동쟁의와 소작쟁의 기사를 마르크스주의적인 입장에서 해석하였다. 특히 조산지부와 사천지부에서 주목되는 점은 다른 지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공제부(共濟部)가 조직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양양농민조합이 조합원의 당면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활동에 적

극적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용천지부의 경우도 1928년 2월 24일 지부위원회를 열어 인동(隣洞) 미조직(未組職)농민조직촉성의 건 등 5개항을 논의하였다.

진형찬을 지도자로 하는 소야지부는 1928년 3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1929년 11월부터 1930년 1월까지, 1930년 1월부터 1931년 1월경까지 3차례에 사회과학강좌를 개최하여 『마르크스입문(入門)』, 『프롤레타리아의 사명(使命)』, 『사회주의대요(社會主義大要)』 등의 서적을 강독하는 한편 신문강좌를 개최하였다.

노병례를 지도자로 하는 용천지부에서는 1928년 12월부터 1929년 1월경까지 『노동독본』, 『사회주의대의』 등의 서적을 강독하는 사회과학강좌와 신문강좌를 개최하였다.

포월지부는 1928년 9월 28일 제2회 정기총회에서 "현하 각 농촌에서 임금제도는 자본가에게 헛되게 강제당하여 착취당하고 자본가의 회(懷)를 살찌우고 노동자 · 농민은 빈궁한 심연(深淵)에서 방황하는 현상으로서, 포월지부의 구역 내에서는 춘하(春夏)의 임금은 일률적으로 백미 3승(升)으로 하고, 추수기(秋收記)의 임금은 백미 5승의 임금으로 한정하고, 그것의 실행 방법은 군농민조합본부에 건의하고 전 양양군내에서 실시할 것을 협의"하였다. 이외에도 정손, 서림, 월리, 상평, 강선, 사천지부에서도 사회과학강좌와 신문강좌가 개설되었다.

(3) 해산

이상과 같은 지부를 중심으로 한 양양농민조합의 활동에 대해 일제 경찰은 해당 지역의 구장과 면장을 동원하여 농민조합원의 탈퇴를 종용하였다. 즉 양양군 서면 상평리의 김동휘는 수재에 의하여 집이 유실되어 구제를 받아야 했는데, 면장 김우제(金宇濟)가 농민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구제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양양농민조합은 비공식 상무위원회를 열어 최연집 등을 위원으로 선정하여 김우제의 협박에 대응하였다. 또한 일제는 양양농민조합 정암지부가 회원이 20명 미만이므로 지부를 해산하고 반조직으로 개편할 것을 강요하였다. 특히 앞의 김동휘는 상평리 지부의 위원장으로서 양양농민조합의 중간 간부였다. 이로 보아 일제는 농조의 중간 간부 이하의 농민층을 회유하여 농민조합운동의 기반을 붕괴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간

부의 검속과 집회 금지 조치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1932년 3월 '야학생 격문사건'을 계기로 검거되기 시작하여 궤멸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노병례는 1932년 단오날(5월 5일)을 기해 일제히 시위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단오 날 시위 시 사용할 전단이 5월 1일 그의 집 천장에서 발각되면서 조합원에 대한 검거가 시작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 전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찌르자 강도 일본제국을. 반대하자 조선총독 폭압정치를.
> 우리는 무주공산의 오작의 밥이 되더라도 강도 왜적 섬멸에 총궐기하자.
> 내가 빼앗기고 돌려달라는 애국 청년을 놈들이 뻔뻔히도 감금했다.
> 때려 부숴라 검은 철창 검은 감옥을. 이천만 동포들이여 호응하라.』

결국 양양농민조합원들은 1932년 6월 검거되기에 이르렀는데, 이후 청년동맹과 어민조합 · 노동조합에까지 일제의 단속이 미쳐 총검거 인원이 300여 명이나 되어, 연무장을 유치장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었다. 이들의 공판은 1934년 5월 25일 개최되었는데, 오용영 등은 농민조합에서 주로 「노동독본」과 「한글」 등을 가르치고 소작쟁의 이야기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재판부는 1934년 6월 8일 재판에서 "피고 전부의 운동이 합법적 운동이고 범죄를 구성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고심하던 재판장도 이 사건의 처결에 매우 곤란을 느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이렇듯 양양농민조합의 활동은 재판장도 인정할 만큼 합법성을 최대한 활용한 단체였으나, 일제의 가혹한 탄압은 "피고인들의 범행인 결사협의선전 선동 등 여러 가지 혐의가 빈약은 하나 증거와 여러 가지로 보아 무죄가 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양양농민조합이 붕괴되자, 강릉지역의 최선규(崔善珪)와 관계를 갖고 있던 강환식(姜煥植)이 중심이 되어 이수형(李秀泂), 추교철, 장기원(張基源), 김필선 등과 함께 적색농민조합과 적색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한 준비기관으로서 '양양적색노동협의회(襄陽赤色勞動協議會)'를 조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강환식이 '조선공산당강릉공작위원회' 사건에 연루되어 검거되어 실패하였다.

3. 공산치하에서의 반공활동

1) 서북 청년회(西北 靑年會)

(1) 조직

1946년 7월 21일에 주문진에서 월남한 반공청년들이 친목의 명목으로 동지를 규합하여 회장 유낙춘(6 · 25한국전쟁 때 낙동강에서 사망)을 중심으로 24명이 참가하여 조직하였다. 1946년 7월 21일에 서북청년회를 조직하고 총본부를 서울에 두고 본부장에는 문봉석(文鳳錫), 초대 단장에는 유낙춘이 되었다. 2대 단장은 최병용(崔秉溶), 3대는 백의곤(白義坤)이었다. 주문진에 본거지를 두고 다시 6개 분단(分團)을 주문진에 2, 3, 7분단, 서림, 인구, 연곡에 각 분단을 두었다. 서북청년회의 2,070명 중에 함경도와 평안도 출신이 70명이었다.

1946년 7월 29일 당시의 서북청년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유낙춘(柳樂春), 유동신(劉東燼), 장기수(張基守), 김장운(金長雲), 고연재(高淵在), 김영수(金榮洙), 김인영(金仁泳), 한범구(韓範九), 성요근(成堯根), 최방출(崔芳出), 박병선(朴秉宣), 김종호(金鍾鎬), 김종우(金鍾禹), 김태권(金泰權), 최창갑(崔昌甲), 김욱기(金旭起), 김원옥(金元玉), 김종익(金鍾翊), 홍해운(洪海雲), 전운영(全云英), 김현재(金顯在,), 김영록(金永祿), 고광학(高光學), 김철수(金哲洙), 이종철(李鍾喆)

(2) 임무 및 활동

서북청년회는 군사 · 경찰의 권한까지 행사하는 권한을 부여받아 영동지방의 공산분자 및 38°선 이북에서 정보 수집을 위하여 침투 월남하는 간첩을 색출하여 응징 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으며, 또한 이북에 있는 반공청년들을 지휘하여 동해안일대의 지하공작을 하고 있는 공산당 전복을 기도하였다. 김세환(金世煥)은 북한에서 경제혼란을 목적으로 지폐를 위조했다.

2) 민일당(民一黨) 사건

(1) 조직

1946년 6월 13일 서문리 천도교회당에서 조직하였다. 지하조직책으로는 김석진(金錫振 : 만주군 출신), 김문수(金文洙), 박희순(朴熙洵), 정종명(鄭鍾鳴), 김형열(金瀅烈), 염의용(廉義勇), 윤재균(尹在均), 이상협(李相協), 윤석갑(尹錫甲), 오승환(吳承煥) 등이었다.

(2) 활동

반공의식과 민주사상이 투철하고 결사적 투쟁력을 가진 청년을 포섭하여 공산당타도, 무기탈취 및 반공투쟁, 당세 확장을 위해 자당(自黨 : 통천에 있는 청년조직)과 속초 부월리의 노장파와 협조하였다. 나아가 공산세력 전복(顚覆)을 목적으로 비밀결사단체로 활동하였다. 군표(軍票 : 군인용 수표)를 대량 반입 살포하고 후방인에 사용하다가 체포되기도 하였다.

(3) 검거 및 옥고

1947년 5월 18일 비밀이 탄로(綻露)되어 전원 검거되었다. 당시 윤석갑은 북한 보안부 대원과 싸워 임천다리에 떨어뜨리고 남하하였으나, 대부분의 대원들은 교화장에 유치되어 햇빛도 못보고 감금되어 혹독한 고문으로 5개월을 보내다가, 공산당에 충성할 것을 맹세한다는 거짓 혈서를 쓴 뒤, 1947년 10월 22일에 북조선정치에 적극적 협조하라는 소련 검찰관취조를 받고, 인민재판에서 혈서를 쓴 것이 효과가 있어 집행유예 4년에서 5년의 언도(言渡)를 받고 전원 석방되었다. 그 후 1947년 12월까지 전원 남하하여 교원(敎員)이나, 경찰관 경비대에 입대하여 반공투쟁을 계속하였다.

3) 반공의거사건

(1) 조직

1947년에서 1949년에 사이에 북한 공산치하에서 온갖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자 반공의식이 나날이 높아져 북한 당국의 무서운 감시와 감독을 피하면서 지하공작 활동을 전개하였다. 양양읍 군행리의 김양진(金良鎭)과 서면의 최병주(崔秉周)가 주모자로 활약하였다. 김동근(金東根), 김문학(金文學), 서면 범부리의 신동만(申東萬), 이상복(李相復), 이귀용(李貴龍), 이형우(李炯雨), 우암리의 장진팔(長鎭八), 김여영(金여泳), 김문건(金文乾), 김을성(金乙星), 김현주(金鉉柱) 등은 대원으로 활동하였다.

(2) 활동 및 결과

공산주의를 반대하여 자유를 위하여 괴뢰정권의 파괴 공작을 암암리에 계획하기 위하여, 북한의 각 기관의 활동을 탐지하여 남한의 서북청년회와 기타 군당국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배후의 조종으로 반공의거를 계획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지하조직을 통하여 반공의거를 계획하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반동분자' 라는 죄명으로 징역 3년에서 무기까지 받은 자가 50여 명에 달하였다. 대부분 원산 형무소와 아오지 탄광 등지로 끌려갔다.

신동만과 윤규백(尹奎白)은 원산 형무소에서 복역 중 옥사(獄死)하였다. 대개는 복역, 노역하다가 6 · 25한국전쟁시 국군이 북진하자 방공호 속에 넣고 총살하였다고 한다. 이운영(李雲榮)은 체포 당시 탈출하였고, 김문학, 천봉득(千奉得)은 군국 진격시 감시망을 뚫고 구사일생으로 귀향하였다.

4) 양양 건견장(乾繭場) 방화사건

양양면 서문리 소재의 건견장[62]을 손양면에 사는 최지선(崔祉鮮)이 공산치하에서 경제혼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1948년 봄에 방화하였는데 발각 체포되어 복역 중 감옥에서 옥사하였다.

5) 학생의거 사건

1947년 12월 악독한 공산당의 만행에 의분을 금치 못하고 있던 양양고급중학교(교장 : 金鍾聲)에 재학 중이던 고재철(高在喆), 안재승(安在昇), 임세삼(林世森), 이창규(李昌圭), 이상조(李相詔), 남상중(南相重) 등이 앞장서 월남하여 서북청년회에서 활동하던 김주철(金周哲)과 무기 탈취를 모의(謀議)하고 소련군 창고에서 권총 5자루와 화약 3상자를 탈취(奪取)하였다. 그리고 공산당 간부와 소련군 정보부(콘트라지백크) 간부를 살해할 의거를 김복기(金福基)학생 집에서 계획하다가 탄로되어, 당시 양양고급중학교 김운봉(金雲奉)교사 집에 은신하던 중 동년 12월 31일 전원이 체포되어 원산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 후 강원도 인민재판소 부소장 윤두병(尹斗炳 : 광복당시 양양군청 내무과 촉탁, 손양면 하양혈리 거주)의 판결로 고재철 20년, 안재승 18년, 그 외 학생은 15년형의 언도를 받았다. 고재철은 함흥형무소서 1950년 4월 13일 부친 고광익(高光翼)과 마지막 면회를 하였으나 국군 진격시 인민군에게 피살되었다. 안재승도 함흥 형무소로 이감(移監)되었다가 1950년 8월 20일경 옥사하였다는 통지가 가족에게 전해졌다. 임재삼과 이창규는 청진형무소, 김주철(당시 18세)은 신의주형무소, 노복현, 김복기, 박을병 등은 원산형무소에서 각각 복역하였다. 교사 김운봉은 학생 은익불고지죄로 처형되었다.

6) 중학생집단 월남사건

38° 선 이북에서는 소련식 공산주의체제를 홍보하고 강화하고자 어린 학생들에게 공산주의사상을 주입시키는데 혈안이 되었고, 자아비판 등을 통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자, 이런 교육체제에 불만을 갖은 학생들이 못마땅함을 표현하자, 학교당국은 이 학생들을 무지막지하게 체벌(體罰)하였다. 이를 계기로 당시 현북중학교 윤석진(尹錫振)을 중심으로 박용호(朴龍鎬), 장원식(張元植), 박상진(朴相鎭), 윤석근(尹錫根), 윤석빈(尹錫斌) 등은 1948년 6월에 집단 월남하였다. 그러나 남한 당국은 자유를 찾아 월남한 학

생들을 어떤 임무를 띠고 남하한줄 잘못 알았고, 또한 어린 학생들이므로 부모에게 되돌아가 공부하라고 38° 선에 데리고 가 공산군에게 인계하였다. 이로 인하여 잔인한 북괴들은 학생들이 공산주의를 반대하였다 하여 반동분자로 몰아세워, 1949년 3월 12일 재판에서 4년에서 5년의 형을 받고 원산형무소에서 있다가 함흥, 청진형무소 등에 이감 복역하였다.

6 · 25한국전쟁 이전에 박상진은 영양실조로 쇠약하여 죽고, 윤석규, 윤석종, 박상진은 아오지탄광에 끌려갔다. 전쟁에서 불리하여지자 5년 이상의 정치범은 모두 총살 집행하고, 4년 이하는 만주로 수송 중 폭격이 심하므로 개마고원에 있는 사수국민학교에 감금하고 문에 못을 박고 외부출입을 못하게 한 뒤 감시원들이 모두 도망하였다. 이에 학생들이 탈출하였다. 윤석빈는 그 후 행방을 알 수 없고, 6명 중 유일한 생존자 윤석진은 천신만고 끝에 생감자로 20일간 연명하다가 다행히 유엔군에 발견되어, 함경도 신흥군 하기천면의 이정명(치안대장)의 집에서 은신하던 중 1 · 4후퇴 때 함흥 감포항에서 어선을 타고 현북으로 돌아왔다.

7) 김일성초상 소각사건

소련군이 양양국민학교에 주둔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교실이 사방에 산재하였다. 시내 분교실에도 김일성의 초상화가 역시 걸려있다. 평소부터 공산주의 교육체제에 불만이 많았던 양양고급중학교에 재학중인 남상중(南相重 : 양양중학교장 남라석의 아들)은 1948년 7월 어느 날 청소하던 중 김일성의 초상화를 뜯어 소각하여 버리고 그길로 월남하였다. 그 뒤 다시 돌아와 정보활동을 하려다 잡히고 말았다. 얼마 동안 고초(苦草)를 당하다 학생의 신분이고 또 평소 온후하였던 남교장의 아들이라 하여 석방되었다. 그 후 학생의용군으로 끌려간 뒤 행방을 알 수 없다.

8) 호림유격대(虎林遊擊隊) 제5 · 6대대사건

(1) 창설

1948년 남 · 북한에서 정부가 수립된 이후 남 · 북간의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군사적 충돌도 자주 일어났다. 본격적인 충돌은 1948년 11월 4일 180여 명의 북한 인민유격대가 오대산으로 침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패주 중인 여순반란사건 패잔병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둘러 남파된 이들은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장비도 부실했기 때문에 출동한 군경에 의해 쉽게 토벌되었다.

그러나 1949년에 접어들자 상황이 달라졌다. 북한은 평양 인근의 강동정치학원에서 월북자들을 대상으로 남파유격대원을 훈련시켜, 6월 1일에 400여 명의 대규모 인민유격대를 백두대간을 통해 남파시켰다. 국군 8사단이 급히 출동해서 토벌에 나섰지만 100여 명은 끝내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갔다. 남파 목적은 지역 공비들과 합류해 산간 오지의 주민들을 모아 해방구를 설치하고 장기투쟁을 꾀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소지한 위조지폐는 도시에도 침투해 지하당을 조직하고 남한 경제를 교란할 목적도 지니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전의 우발적인 침투와는 차원이 다른 남파였다. 이에 대한 남한의 대응책도 필요하였다.

호림부대는 서북청년단을 주축으로 국방부 산하 유격부대로 창설됐다. 서북청년단은 공산당의 학정을 피해 월남한 평안도 청년들이 구성한 단체인데, 흔히 평안도 사람들의 기질을 맹호출림(猛虎出林)이라고 하는 데서 부대의 명칭을 호림부대로 정했다고 한다.

호림부대는 1947년 7월에 서북청년단 영동지구본부가 중심이 되어 창설한 계림공작대(鷄林工作隊)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부대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방부 제4국 소속 동해특별대(東海特別隊)로 개편됐다. 사설 군사단체에서 국방부의 후원을 받는 준군사단체로 승격한 것이다. 당시 이범석 국방부장관은 동해공작대에 큰 기대를 걸고 대원 150여 명을 선발해 3개월간 특수훈련을 시켰다. 그러나 남과 북의 충돌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 미 군사고문단의 압력으로 국방부 제4국이 해체되면서 동해특별대도 함께 해체되었다.

1949년 2월 25에 군 당국은 동해공작대의 소속을 국방부에서 육군으로 이관시키고 명칭도 호림부대로 바꿨다. 마침내 월남청년들의 사설 군사단체가 국방부 관련단체를 거쳐 대한민국 육군 소속 북파공작대로 탈바꿈한 것이다. 소속이 육군으로 이관됐다고 하지만 호림부대는 정식으로 육군에 편제된 부대는 아니었다. 호림부대원들은 대북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환하면 그때 정식 군인이 되는 조건부 신분이었다. 이 때문에 나중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생환한 호림부대원들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억울한 처지에 놓였었다.

(2) 활동

1949년 2월 28일에 대구로 이동한 호림부대원들은 18연대에서 기본 군사훈련을 받았다. 지휘관은 정보국 특무과장 한왕룡 소령. 그곳에서 기본 훈련을 끝낸 호림부대원들은 수원의 육군수색학교로 이동해서 본격적인 유격교육을 받았다. 당시 교관은 이희성[63] 소위였다. 훈련을 마친 호림부대원들은 경상남도 거제도와 경상북도로 이동해 그곳 지방 게릴라 토벌에 투입됐다. 일종의 실전경험이었던 셈이다. 호림부대는 5월 25일 서울로 귀환해 이범석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의 사열을 받았다. 당시 신문들은 국방부 제2국 소속의 호림부대 대원 557명[64]이 총리의 사열을 받았는데 이들의 지휘계통은 육군참모총장 채병덕 소장에서 육군본부 정보국장 백선엽 대령을 거쳐 정보과 5과장 한왕룡 소령으로 이어진다고 신문에 보도했다[65].

북파된 호림부대원의 총인원은 동해특별대를 모체로 하는 5대대와 오대산유격대를 모체로 하는 6대대를 합쳐 252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호림부대에는 이들 5대대와 6대대 외에 2대대와 3대대의 두 개 대대가 더 있었다. 2대대는 서부전선을 맡고 있었고, 3대대는 5대대와 6대대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호림부대 5대대와 6대대 대원들은 1949년 6월 23일에 서울을 출발해 강원도 횡성을 거쳐 동부전선에 도착했다.

6월 29일 마침내 비장한 각오로 250여 명에 달하는 호림부대원들이 북한 인민군 복장에 일본군이 남기고 간 99식 소총으로 무장하고 어둠 속을 조심스레 전진하여 38° 선

을 너머 300m 지점에 있는 고산봉에 도착하였다. 이후, 부대원들은 점봉산과 오색리를 지나 대청봉을 거쳐 7월 1일에 봉정암을 정복하였다. 그곳에서 자신들의 머리카락과 손발톱을 묻으며 생무덤을 만들어 결사의 의지를 다지고, 5대대는 동해안을 타고 북상해 함경남도로, 6대대는 내륙으로 침투해 평안남도로 진출하기로 작전을 계획하였다.

호림부대의 목표는 원산과 평양을 잇는 평원선을 차단해 군수물자 수송을 저지하는 것이다. 원산을 통해 대거 유입되는 소련 군수물자로 인해 북의 군사력은 남을 크게 압도하고 있었다. 빨리 저지하지 못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고, 북측은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를 일이었다. 결국 호림부대는 전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북파된 것이었다.

험한 산지를 통과하는 평원선에는 터널이 여러 곳 있다. 5대대는 함경남도 고원으로, 6대대는 평안남도 양덕으로 진출해 터널을 폭파하고 철로를 파괴해서 군사물자 수송을 저지할 계획이었다. 군 수뇌부는 평원선을 교란하면 북한의 남침 의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지의 반공인사들을 포섭해 장기 주둔할 예정이었으므로 호림부대는 남으로 귀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었다.

가. 제2차 기사문리 전투

1949년 7월 4일 막 자정을 넘긴 시각에 동부전선 및 해안일대의 경비를 담당한 강릉 8사단 10연대 연대장 송요찬 중령은 호림부대의 활동을 돕기 위한 양동작전을 위하여 기사문리 공격을 계획 실행하였다.

당시는 기사문리에는 북한의 해군기지가 있어서, 대한민국 육군 10연대가 날카롭게 대치하던 곳으로 당연히 충돌이 잦았다. 1949년 2월에는 인민군 2개 중대가 38° 선을 넘어 잔교리까지 내려와서 주민을 학살하고 돌아갔다. 이에 10연대장 백남권 중령은 즉각 보복공격을 명령했고, 105㎜ 곡사포 5발을 기사문리의 북한 해군기지를 향해 발사했다. 포격은 총격과는 달라 자칫 전면전으로 치달을 위험이 크다. 미 군사고문단은 놀라 재발방지를 이유로 대포 조준경을 회수해 가버렸다. 이때의 충돌을 두고 제1차 기사문리 전투라고 불렀다.

대대장 고백규 소령의 명령을 받은 중대장 원선경 중위는 즉시 중대원을 인솔하고 38° 선을 넘었다. 정규군 중대병력이 38° 선을 넘는 일이 처음으로 발생한 것이다. 중대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38° 선이라고 해봐야 표지판 하나 썰렁하게 서 있을 뿐 철책선 같은 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인근 주민들은 눈치를 보며 가끔 오가기도 했다. 하정광리와 상정광리를 거쳐서 기사문리에 이를 때까지 북한군은 눈에 띄지 않았고, 일찍 잠이 깬 어부들만이 놀란 눈으로 국군을 쳐다보았다.

북측 해군기지에는 보초도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채 경비가 허술하였다. 10연대 장병들은 기습을 단행했고 놀란 북한군들이 도망가면서 해군기지는 싱겁게 점령하였다. 그러나 오후 늦게 비로소 북한군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되자, 고작 중대 병력으로 적지 한복판에서 오래 버틸 수는 없어 철수를 하였다. 이를 2차 기사문리 전투라고 한다.

나. 6대대의 활동

오대산유격대를 이끌며 태백준령을 넘나들던 김현주 대대장이 지휘한 6대대는 봉정암을 출발하여 백담사에 도착하여, 인제군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체포해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7월 4일에는 용대리 내무소를 기습해 내무서원 3명을 사살한 뒤 소비조합에서 식량을 노획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위치가 파악되고 말았다. 곧 38경비여단과 인근 부대로 편성된 토벌대가 추격에 나섰다. 잠시 용대리 뒷산으로 철수했던 6대대는 토벌대의 규모가 연대 병력에 이르는 것을 확인한 뒤, 교전을 포기하고 후퇴하여 7월 7일에 인제군 서화리 가마골로 이동하여 북한군 연대병력과 교전하였다. 전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김현주 대대장은 전사하였고, 이영주 제1소대장 등 일부만 생존하여 탈출하였다.

다. 5대대의 활동

과거 동해특별대를 이끌었던 5대대장 백의곤 대대장이 지휘하는 5대대원 120여 명은 군장을 정비하고 행군하여 7월 5일에 예정대로 화채봉에 도착하였으나, 현지 정보원[66]을 통하여 이미 이 지역일대에 경계령이 펼쳐졌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에 식량을 보충[67]하면서 북한군의 수색을 피하기 위하여 강행군을 하여, 7월 8일 새벽 4시에 강현면 상복리 핏골(皮谷)[68]에 도착하여 김종모(金鍾模)와 김정배(金正培)의 집에 4일간 나주어 거주하면서 앞으로의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피로를 회복한 5대대원들은 별 어려움 없이 핏골 내무서 공격에 성공하여, 필요한 식량을 확보하고 인민위원장과 보안대원 6명도 처단한데다, 신형 무기를 노획한 것은 대단한 전과였다. 당시에 이범구[69](李範九)의 신고로 한차례의 교전이 있었고, 속초애국동지회에 침투해 있던 공산당원[70]의 정보누설로 5대대의 행보가 북한군에 예상보다 빨리 발각되었으며, 다른 하나는 속초에 출정 채비를 마친 북한 제3병단[71]이 주둔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5대대는 쫓기는 신세가 됐다. 그렇지만 5대대는 쉽게 뒤를 잡히지 않았다. 치고 빠지며 북상을 계속해 7월 9일에는 신선봉에 진격하였으며, 12일에는 마산리에서 처음으로 토벌대와 조우했지만 1개 소대 병력의 북한군은 정예 호림부대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교전 끝에 북한군은 8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했다. 이후 향로봉으로 향하는 도중에도 교량 2곳을 파괴하고 트럭을 기습해 탈취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7월 15일, 소양강의 발원지인 삼치령 전투에서 전력의 열세로 패한 뒤. 해발 1385m의 국사봉 삼각고지에 재집결하여 북한군 추격대와 용감히 싸웠으나, 대대장 백의곤이 7월 16일에 그곳에서 전사했다. 252명의 대원 가운데 38°선을 넘어 무사히 귀환한 대원은 5대대 23명, 6대대 12명 등 도합 35명뿐이었다.

북한은 호림부대원 106명을 사살하고 44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공표했다. 그리고 호림부대가 주민 11명을 납치하고 29명을 살해했으며 가옥 11채를 파괴하고 소 15마리를 죽였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38°선 인근 전답 1만 1,859평에서 농사가 방해받았고 4,800평에서 제초를 하지 못했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덧붙였다.

포로가 된 호림부대원들은 1949년 8월 28일 평양 모란봉극장에서 재판을 받았고 모두 사형이 선고됐고, 그리고 9월 11일 형이 집행되었다.

무사히 생환한 대원들도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대원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좌절과 실망뿐이었다. 정식 군인이 아닌 데다 부대의 창설도 6 · 25한국전쟁 이전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나라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으며 살아야 했으며, 북파 20여 년 만에 호림부대 생존자들이 국방부로부터 정식으로 동료들의 전사통지서를 받았다[72]. 전적비를 세우는 일조차 순탄치 못했다. 북침의 증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당국에서 만류하고

나섰던 것이다. 생존 호림부대원들이 중심이 되어 꾸준히 노력한 결과, 37년 만에 그들의 원혼을 달래줄 호림부대 전적비가 고성군 통일전망대에 1986년 9월에 건립되었다.

(3) 당시 상복리의 투옥자 명단과 형기는 다음과 같다.

김종림(金鍾林, 사형), 김근수(金根洙, 10년), 김종우(金鍾禹, 17년), 김학배(金學培, 10년), 김성훈(金成勳, 10년), 김성룡(金成龍, 5년), 조만순(趙萬順, 7년), 김성태(金成泰, 7년), 김종모(金鍾模, 17년), 김종학(金鍾學, 17년), 양영길(梁永吉, 10년), 김우배(金佑培, 10년), 김옥배(金玉培, 7년), 김종탁(金鍾卓, 7년), 이몽순(李夢淳, 10년), 이몽춘(李夢春, 7년), 김종찬(金鍾瓚, 7년), 김종호(金鍾浩, 3년), 최동수(崔東洙, 3년), 박용준(朴容俊, 13년), 박용선(朴容善, 13년), 권오용(權五龍, 13년), 추병식(秋秉植, 13년), 최서구(崔瑞龜, 13년), 김환기(金桓起, 8년), 김종학(金鍾學)은 18세의 소년으로 정보연락의 책임을 맡았다.

(4) 호림부대의 전과(戰果)

가. 당시 생존자

김종익(金鍾翊, 강릉), 이종억(李鍾億, 속초), 김하섭(金夏燮, 토성면 아야진리), 김재수(金在洙, 서면 수상리), 이상은(李相殷, 속초), 김종성(金鍾聲, 설악동)

나. 당시 전사자

김남홍(金南洪, 금풍리), 박춘근(朴春根, 남문리), 이계화(李啓和, 서문리), 최복길(崔福吉, 속초 영랑), 박용학(朴容學, 용천리), 김명종(金鳴鍾, 도리), 윤정병(尹貞炳, 영덕리), 이상옥(李相玉, 영덕리), 이상만(李相萬, 영덕리), 이효충(李孝忠, 영덕리), 이광우(李光佑, 속초 중앙동), 김사열(金士烈, 영덕리), 김정수(金貞洙, 영덕리), 김혁배(金赫培, 상복리)

⑸ 후문

가. 김환기가 원산형무소에서 폐렴(肺炎)으로 중태 시 이상권에게 호림부대의 양양 공격시 실패는 위조군표사실이 탄로나고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실패하였다.

나. 6 · 25한국전쟁직후 귀순한 당시 인민군보위부 중좌였던 염동호(廉東浩)의 증언에 의하면(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근무) 다음과 같다.

가) 1949년 7월경 호림부대 2개 대대병력이 중부지구에 침투하여 일대경동(一大驚動)을 일으켜 공산당의 충격은 말할 수 없이 컸었다.

나) 1949년 7월에 호림부대 포로 40여 명을 귀순용사라는 명목으로 자동차에 현수막을 달고 포로를 탑승시키고 각 주요도시 및 각 군부대를 순회 선전했다.

다) 40여 명의 호림부대원은 평양, 함흥, 원산, 등지에 5,6명씩 분산 수용되어 중상자를 치료하는 한편 세뇌공작을 하였다.

라) 1949년 9월에 호림부대 40여 명에 대한 심판을 평양최고재판소에서 열고 최고간부급 및 각처의 지도계층과 언론계 등을 동시 참여케 하여 재판을 하였는데, 이때 재판정에서 호림부대 강모중위가 고함과 욕설을 하여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그 후 강중위를 비롯해 6명의 호림부대의 간부급을 모란봉에서 김일성이 참관하는 가운데 총살형으로 집행했다고 한다.

마) 1949년 6월 호림부대 침투직후 비상령을 선포하고 10월말 경에 해제한 것이며 호림부대토벌작전에 동원된 병력은 3개 사단 병력이 넘는 것으로 안다고 한다.

9) 도리 반공청년 비밀공작사건

(1) 조직

도리는 38° 선 이남인 장리로부터 2㎞ 북쪽에 위치하여 서북청년회의 활동에 영향을 받아 반공 의식이 매우 강하였다. 이에 손양면의 민주당 총책인 이기호(李起虎)를 중심으로 공산당을 타도하고 민주국가 건설을 위한 비밀결사의 행동대를 조직하였다. 이 조직의 총책은 이기호(李起虎)이고 행동대원은 이종윤(李鍾允), 이종명(李鍾鳴), 이종현(李鍾鉉), 노재봉(盧在鳳), 이종운(李鍾雲), 김정수(金正洙), 양인석(梁仁錫), 이종천(李鍾天), 이종선(李鍾善), 양재일(梁在逸), 이종원(李鍾遠), 이종성(李鍾聲), 이종열(李鍾烈), 양재진(梁在振), 이종복(李鍾福), 이봉래(李鳳來), 안봉도(安奉道) 등이었다. 연락책임은 이종천과 노재봉이었다.

(2) 활동

이들은 이쪽 정보를 장리지서를 통하여 이남의 서북청년회와 호림부대공작대에 전달하고 또 그들로부터 정보와 무기를 공급받았으며, 또 남북간의 물물을 교류하여 필요한 공작자금을 마련하여 적당한 시기라고 판단되던 1947년 7월 7일에 공산당총회 개최시에 회의장을 폭파하고 적색분자들을 피살하려고 계획하였다. 이 때 공산당사와 훈련장은 도리인민학교였다. 그러나 도리인민학교장인 안봉도(이기호의 대원이면서 공산당 정보원)의 고발로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어 전원이 양양내무서장에게 체포되었다. 도리 청년들 대부분이 체포되어 양양재판소에서 즉결 판결을 다음과 같이 언도를 받고 원산형무소에 수감되어 복역하였다.

이기호(무기), 이종윤(15년), 이종명(7년), 노재봉(7년), 이종운(7년), 김정수(7년), 양인석(8년), 이종천(12년), 이종선(7년), 양재일(7년)

그 후 이종현은 체포전에 월남하여 부모와 처자를 인솔하려고 입북하였다가 체포되어 사형 언도를 받았다. 또한 이기호는 복역 중 중노동에 영양실조로 옥사하였다. 그 외

복역자들은 1949년 2월 6일에 배에 실려 바다에 넣어 수장(水葬)하여 버렸다. 이 사건 후 도리주민은 모두 분산 이주되었다.

(3) 이후 활동

가. 대원(隊員)중 사전에 월남하여 국군에 편입한 뒤 6 · 25한국전쟁 때 전투에 참가한 북진용사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종원(주리) 장리대한청년단장　　이종성(도리) 학림부대공작대원
이종열(서울) 학림부대공작대원　　심상진(강릉) 학림부대공작대원

나. 민주당(民主黨) 양양지부 활동

지부장 이근화(李根化) 총무부장 이기호(李起虎) 조직선전부장 김태영(金泰泳)

다. 서북청년호림부대에서 활동

윤석기(尹錫基, 수리), 김병열(金炳烈, 서림리), 김지봉(金知奉, 수리), 김선배(金善培, 수리), 김종순(金鍾順, 수리), 김인환(金仁煥, 수리), 김한배(金漢培, 수리), 이대우(李大雨, 서림리), 김세환(金世환, 서림리)

그 후 도리인민학교장 안봉도는 도리사건공로자로 김일성의 훈장과 표창을 받았다.

10) 장리 지서원(支署員) 납치사건

현북면 장리는 강을 경계로 이남인 까닭에 장리에 지서가 설치되어 38° 선 상의 국토방위의 전초기지이며, 아랫마을 도리는 강 남쪽의 산머리까지가 38° 선이어서 북한의 치안대와 소련군이 주둔하여 38° 선 상에서 서로 총격하는 분규가 자주 일어났으며, 또 납치사건이 빈번이 일어나 사상자가 많았다. 부소치가 월남하기 가장 용이한 곳이었다. 소위 '루트' 가 되었기에 북한의 감시망의 초점이 되었다. 도리는 지형상 양 계곡사이에

끼어있어 경계가 삼엄하였다. 그러나 부소치 사람과 장리 사람들은 남대천 강물에서 서로 목욕도 같이 하며 담소하기도 하였다. 밤에 주로 월남자가 많았다. 양쪽 경비원이 38° 선의 경계로 시비로 남한 측은 강의 중심이라 하고 북한은 아니라고 억지를 부렸다. "당신네는 강중심이라 하나 우리 지도를 보고 38° 선을 확실하게 정하자"고 북한에서 제의하기에 이것이 유인책인 줄 모르고 이에 응답하고, 1949년 11월 20일에 경찰관 2명(지서주임 박문수와 이상열(李相烈) 순경)과 한청원(韓靑員) 3명이 도리에 갔다. 도리에 도착하니 미리 대기하고 있던 북한 내무서원과 소련군이 포위하고 "손들어"하고 모두 납치하여 양양으로 끌고 갔다. 한청원의 신현복은 끌려갈 때 '소피'(소변)를 보겠다하고 한 뒤 어둠을 틈타 도망하였다. 그 후 끌려간 사람들의 생사도 모르고 그들의 처리 관계도 알 수 없다. 이상열 순경은 1949년 11월 20일 전사로 되고 그 가족은 원호가족으로 보호 받고 있다.

11) 반공유격대 및 특공대 활동과 전과

김려수(金麗水)는 1946년에 월남하여 반공청년들과 계림(桂林)유격대를 조직하고 동해지구 38° 선의 파견대장으로 게릴라 작전과 고노골 기습공격으로 상당한 전과를 올렸고, 6 · 25한국전쟁 당시는 육군 3사단 정보수색대장으로 북진시에 양양을 선두로 진격하여 현산공원에 태극기를 게양하였다. 당시 양양에는 노약자만 남고 애국청년들은 행방을 감췄다. 당시 북괴군이 군민(郡民)들을 후퇴하도록 명령하여 일부는 후퇴하였으나 애국청년들은 산중(山中)에 피신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한 뒤, 애국청년전원을 구출할 것에 전념하던 중, 주문진에 반공청년들이 다수 집결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현지에 가서 100여 명의 청년을 인솔하고 다음날 양양에 도착하여, 산중에 피신했던 반공 청년들을 군청소재지인 남문리에 집결시켜 놓고 육군 제1군단 헌병부장의 승인을 얻어 양양자치방위 특공대를 조직하였다. 대장은 김여수, 부대장은 대포리 이홍석(李弘錫), 작전참모는 김현학(金顯學)이 맡아 북괴군 패잔병 소탕작전 때에 그 공적이 컸으며, 특히 북괴군 패잔병 1개 여단이 북상시 속초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고, 우리 특공대원도 5명이 전사하였다. 그 유골은 속초 보광사 뒷산에 안장하였다. 지금은 위령탑에 그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12) 공비만행과 소탕

(1) 오대산지구 남침공비소탕

제주도 4 · 3사건과 여 · 순반란 10 · 19사건을 진압하기 위하여 국군과 경찰병력이 후방으로 투입된 상황을 파악한 북괴는 남한 내의 치안을 교란하고 각지에서 폭동 반란을 일으켜 공산화를 이룩할 목적으로 좌익 계열에 지령을 내려 붕괴된 지하당조직의 재건 및 야산(野山)유격대를 편성하여 무장봉기들을 꾀하였다. 북괴는 소위 해방산(解放山)이라고 부르던 오대산 일대를 무대로 남한에 있는 공비에게 무기 공급 및 병력보충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양양인민유격대훈련소' 에서 유격전에 대한 훈련을 받은 남로당 출신 약 180명을 선발하여 괴뢰군복과 일제 99식 장총으로 무장시켜, 1948년 11월 14일 양양군 서면에서 38° 선을 넘어 비밀리에 월남 침투시켰다. 이들 남침공비는 험준한 백두대간의 산줄기를 타고 오대산과 흥정산(興亭山)을 거쳐 1948년 11월 15일에는 홍천, 평창, 횡성의 3군 접경에 있는 태기산(泰崎山)에 이르러 계속 남하하는 중이었다.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원주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 제8연대는 즉시 일부 병력을 출동시켜 경찰과 합동으로 공비의 남하루트를 차단하고 수색작전을 전개하였다. 우리 군경의 태기산 포위작전에 걸려든 남침공비는 수많은 사상자를 나타나자 사기가 저하되어 왔던 길로 되돌아가 흥정산, 보래악, 매봉산을 우회하여 다시 남하를 계속하였다.

우리 군경은 이러한 무장공비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11월 17일에는 지휘본부를 간고개(間峠)로 이동한 후 계속적으로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수색 · 추격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11월 20일에는 지휘본부를 평창경찰서로 이동시켜 공비가 서울~강릉간 도로 이남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봉쇄하였다. 그러나 우리 군경의 봉쇄망을 교묘히 탈출한 공비의 주력은 서울~강릉간 도로를 건너질러 가리왕산, 치악산, 백덕산 방면으로 계속 남하하여 분산된 병력을 규합한 다음 영월지역으로 들어가 마차 탄광지역에 침투했다.

⑵ 태백산지구 남침공비소탕

경북 보현산지구에서 우리 국군과 경찰의 포위망에 발이 묶여 섬멸 직전에 놓인 김달삼 부대를 구출하고자 북괴는 전에 강력한 정예부대 700명을 월남 침투시켰다. 김상호 및 김무현이 각각 반(半)을 인솔한 이들 극렬분자로만 편성된 소위 인민유격대는 선발대로 김상호가 약 300명을 이끌고 1950년 3월 24일 05:00를 기하여 주문진 경찰서 관내인 기교, 대치리, 명지리, 장리, 서림리 등 38° 선 경비대가 우리측 전초 참호 진지에 일제히 공격의 포문을 열고 38° 선 이남의 각 고지에 불법 남침하므로 우리측 국군 병력이 각 고지에 집결한 틈을 이용하여 정족산 · 벽실령을 넘고 오대산의 산줄기를 타고 남하 하였다.

이러한 정보를 상세하게 분석 검토한 제8사단은 주문진 주둔 1개 대대의 병력을 출동시켜 경찰의 협조하에 군경합동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아군은 공비들을 노인봉에서부터 청계동계곡으로 유인하여 일제히 공격하여 공비침투 23일 만인 1950년 4월 17일 두목 김상호 이하 176명을 사살하고 36명을 생포 12명의 귀순포로를 잡은 외에 박격포 5문, 중기관총 3정, 기타 장비 다수를 노획하는 큰 전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김무현이 이끄는 나머지 350명의 무장공비는 인제에서 홍천군으로 이동한 뒤 치전동에서 월경하여 방대산을 거쳐 남하하였다.

⑶ 기타 공비토벌상황

가. 1948년 11월 14일

여 · 순반란사건으로 군경의 주력이 호남 및 영남지역에 집결되어 남한의 치안상태가 혼란에 빠진 시기를 포착, 1948년 11월 14일 강동정치학원 제1차 수료생 약 100명을 양양에서 오대산지구로 침투시켰다.

이들은 오대산 산줄기를 타고 태기산까지 남하하였으나 아군이 포착됨으로써 대부분이 소탕되고 잔여 공비는 충북 제천방면으로 도주하였다.

나. 1949년 9월 28일

7차례에 걸쳐 침투에 모조리 실패한 북괴는 1949년 9월 28일 39경비여단 예하 일부 병력의 엄호하에 약 50명의 유격대를 양양군 현북면 면옥치리로 침투시켰다. 그러나 이들 역시 아군 제8사단에 의하여 격퇴되어 분산 월북하였다.

다. 1949년 11월 6일

8차에 걸친 침투에 계속 실패한 북괴는 육로에 의한 침투가 불가능함을 깨닫고 1949년 11월 6일 약 100명의 유격대를 경북 영일군 솔라면 지경리로 해상 침투시켰는데 이들은 보현산으로 입산하여 동해여단의 김달삼부대와 합류하였다.

4. 6 · 25한국전쟁

1) 남침 준비

북한은 1948년 9월 9일에 김일성을 수상으로, 남조선 노동당 지도자 박헌영을 부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이후 민주 기지론(소련군이 점령한 38° 선 이북이 혁명을 위하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북한에서 먼저 혁명을 하여 민주 기지로 강화한 후 이를 바탕으로 남한을 해방시켜 통일하겠다는 이론)를 내걸고 남침을 준비하기 위하여 김일성은 소련, 중공과 군사 비밀협정을 맺어, 소련으로부터 탱크와 비행기 등 최신무기를 도입하고, 중공으로부터는 중국군에 참여하였던 조선 의용군 2~3만 명을 지원 받아 인민군에 편입시켰다.

(1) 북한군의 이동과 부대배치

북한군 제5사단은 함경남도 나남에서 동해북부선 기차를 이동하여 원산을 거쳐 6월 20일 양양에 도착하였다. 이후 양양을 중심으로 동해안지구를 담당하여 사단 예하 1개

보병연대와 1개 포병대대 및 자주포 포대가 동해 연안을 경비하면서, 당시 양양에 있었던 제1경비여단을 보강하기 위하여 투입되었다. 5사단은 조선의용군 출신으로 중공군에서 편입된 사단으로서 전투경험이 많은 사단이었다.

제945육전대와 제766부대는 상륙부대로서 총참모부의 직접 통제하에 운용되는 부대였다. 제945육전대는 원산에서 기차로 이동해 23일 양양에 도착하였으며, 제766부대는 6월 12일 회령을 출발하여 간성을 거쳐 양양으로 이동하였다. 제766부대는 주로 남로당원 및 강동정치학원 출신 등으로 편성된 유격부대로서 주 임무는 남침과 동시에 삼척부근에 상륙하여 무장폭동을 야기하는 한편, 국군의 퇴로 및 증원부대를 차단하는데 있었으며, 제945부대는 강릉 정동진 일대에 상륙하기로 계획되어 24일 양양을 출발하도록 되어 있었다. 제12 MTSP연대는 함경북도 길주에서 양양으로 이동시켰다. 기마병대는 양양중고등학교에 주둔하였다.

이와 같이 강원도 일대는 이미 주둔하고 있었던 38경비 제1여단 등 도합 3개 사단과 1개 유격부대가 전쟁을 위하여 준비를 완료하였다.

당시 북한군의 이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4-14〉 북한군 공격부대의 전방이동 상황(1950. 6.)

부 대	주둔지	도착지	부 대	주둔지	도착지
제1군단	금 천		제2군단	화 천	
제6사단	사리원	계 정	제2사단	원 산	화 천
제14연대	남천점	해주 · 죽천	제12사단	원 산	양 구
제1사단	남 포	구화리	제5사단	나 남	양 양
제4사단	경 강	연 천	제15사단	회 령	화 천
제3사단	시능주	운 천	독립전차연대	나 남	인 제
제13사단	평 양	금 천	제12MTSP연대	길 주	양 양
제105전차연대	평 양	연 천	제766부대	회 령	원산 · 간성
제203전차연대	평 양	남 천	제549부대	갑 산	성 진
제10사단은 군 예비로 숙천에 주둔					

(2) 북한군 전투력

북한군의 전투력은 제1경비여단이 약 8,000명, 제5사단 예하병력이 약 3,000명, 제945육전대와 제766부대가 약 3,000명 등 14,000명 정도였으며, 화력으로는 122㎜ 곡사포 4문, 76㎜ 견인포 24문, 76㎜ 자주포 4문, 45㎜ 대전차포 20문, 120㎜ 박격포 14문, 82㎜ 박격포 36문, 60㎜ 대전차로켓포 200여 문 등을 보유하였다.

이밖에도 우마차를 동원하여 보급물자를 추진하고 전투 간에 노무자를 강제로 징용하여 각종 보급품을 운반하게 하였다. 그리고 선무공작대가 후속하며 활동하는가 하면 편의대를 운영하여 첩보를 수집하였다. 북한군 5사단은 양양-강릉의 해안도로 측선에 주력을 투입하여 북쪽에서 국군 제10연대를 정면 공격하고 제766유격부대와 제549육전대를 임원진과 정동진으로 상륙시켜 제21연대의 중원을 차단함으로써 2개 연대를 각개 격파하고 강릉을 남북으로 협공하려 하였다.

(3) 국군 현황

동해안 지역을 담당한 제8사단(사단장 : 대령 이성가(李成佳)은 1949년 6월 20일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26호에 의해 제6사단 예하 제10연대와 제5사단 예하 제21연대를 기간으로 강릉 비행장에 창설되었다. 2개 연대로 편성되어 제10연대의 38°선 책임 경계지역은 현북면 기사문리에서 진흑동(인제)까지 26㎞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21연대는 예비대로 삼척에 배치되어 게릴라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제10연대 1대대는 광원리에 대대본부를 두고 책임 경계구역은 정족산(鼎足山, 869m)에서 서림리-쇠나드리(우탄리)-진흑동에 이르는 12㎞이었다. 연대의 우측 부대인 제2대대는 대대본부를 주문진에 두고 잔교리에서 대치리-명지리-장리-연화동-정족산을 연결하는 14㎞를 경비하였다. 제3대대는 예비대대로 제1대대와 교대할 계획이었다.

사단 포병인 제18포병대대는 장병 대부분이 서북청년단 출신으로 교육수준과 반공수준이 높은 대대로서 105㎜ M-3포h 15문을 장비하고 있었지만 새로 도입된 GAT 사법(射法) 교육을 위해 포대장 및 선임하사관급이 대부분 포병학교에 파견 중이었고 대대

장도 육군본부에 출장 중이었다. 공병대대는 창설이래로 지역 내의 작전도로 및 교량설치 보수와 경비를 담당하는 한편 게릴라 침투 예상로와 38°선 경계진지 북쪽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주요 지역에 교통호와 진지를 구축할 예정이었으나 자재와 예산부족으로 3월경에 중단되었다.

제8사단의 병력은 6,866명이었으며, 장비는 105㎜ 야포 15문, 57㎜ 대전차포 12문, 81㎜ 박격포 24문, 60㎜ 박격포 38문, 2.36㎜ 로켓포 128문, 각종 차량 156대 등이었다.

2) 6 · 25남침과 전투 상황

북한군의 양양에서 남침은 2갈래로 이루어졌다. 북한군 제1경비여단은 전투대형을 2개 제대로 편성하였는데, 제1제대는 경비여단 소속 7개 보병대대로 편성하고, 제2제대는 제5사단 제10연대로 편성되었다. 경비여단 7개 대대는 제1, 제2, 제3보병대대는 귀둔리, 공수전리, 내현리 선에서 남쪽으로 공격을 개시하였으며, 제7보병대대가 기사문리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2제대인 제5사단 10연대는 동해안을 따라 진격하여 전과를 확대하는 임무를 받고 양양 부근에 집결해 있었다. 즉 6월 25일 04:00 공격준비사격과 더불어 주공격(主攻擊))부대가 현북면에서 기사문리의 38°선을 돌파하여 주문진으로 진격을 개시하였으며, 조공격(助攻擊)부대는 양양 영덕리에서 서림리 지역을 공격하여 원일전리를 거쳐 남대천을 거슬러 강릉 소금강 지역으로 남하하였다.

(1) 잔교리-연화동지역의 전투

국군 제2대대가 담당한 이 지역은 24일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인해 경계진지 주변의 시계가 매우 불량하였다. 188고지(잔교리 서남쪽 2㎞)에 고요를 깨고 낙하한 일발의 포격을 신호로 동해안에서 연화동에 이르는 일대에는 포탄이 비 오듯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적은 곧이어 포 사격을 계속하면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연대 우측 앞에서 동해안일대를 경계하던 제2대대의 제5, 제6, 제7중대는 적의 맹렬

한 포격을 받고 전열을 가다듬을 사이도 없이 순식간의 급습에 의해 혼전의 회오리 속으로 말려들었다. 제2대대 본부에는 04:35에 북분리의 제7중대장 강응설 중위로부터 "적이 공격을 개시했다"는 급보가 전해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대는 물론 중대에서 조차 이러한 적의 행동이 지금까지 자주 있어 왔던 게릴라 침투를 위한 공격 정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제5, 제6중대장으로부터 급박한 전황보고가 잇따르자 제2대대장은 적의 공격이 심상치 않음을 알게 되었다.

명지리-장리-연화동 일대를 경계하던 제5, 제6중대도 제7중대와 마찬가지로 진지선이 붕괴되어 철수 중일 것으로 판단한 대대장은 제10중대에게 286고지(북분리 남쪽 2.5㎞)를 확보하여 제5, 제6중대의 철수를 엄호하며 반격거점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이후 연대로부터 철수 명령이 내려져 후퇴하였다. 제10중대는 제7중대의 엄호하에 동해가도를 따라 축차(逐次 : 차례로) 철수하면서 인구리 주민의 피난을 돕고 응호(鷹湖 : 매호) 동쪽의 교량을 파괴한 다음 임호리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제7중대는 제8중대의 기관총소대와 81㎜ 박격포의 지원하에 적의 추격을 저지하면서 향호리 북쪽에 진지를 확보하였다. 제5중대와 제6중대는 어성전리 부근에서 병력을 수습한 뒤 제5중대는 통신이 두절된 채 철갑령을 넘어 후퇴하였으며, 제6중대는 대대 주저항선에 진입하였다.

(2) 정족산 - 진흑동의 전투

이 지역은 국군 10연대 제1대대가 경계하던 곳으로 북한군 제1경비단 제2보병대대가 서림의 제9중대 정면을 돌파해 산간계곡을 따라 구룡령으로 급진하였다. 당시 제9중대는 중대본부를 하서림에 두고 제2소대를 우측에, 제1소대를 정면에, 제3소대를 좌측에 배치하여 정족산정면에, 제3소대를 경계하던 중 적의 공격을 받아 제3소대와 화기소대가 중대장의 지휘아래 적과 교전 중 중대장이 중상을 입고, 적의 직사포 공격이 집중되면서 포위당하자 분산된 채 철수하였다. 제2소대는 제2대대 제6중대의 경계진지가 무너질 때 이미 분산되어 철수하였고, 제1소대는 지형상 적의 공격을 받지 않았으나 자신들만이 고립된 것을 알고 16:00에 진부리로 철수하였다.

제11중대는 본부를 우탄리에 두고 구룡령 서북쪽 일대를 경계하였으나 통신이 두절되어 제9중대와의 연락도 안 되는 가운데, 북한군이 제9중대를 공격한 뒤 오대산 쪽으로 남하하여 그대로 진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3) 당시 38°선 일대 국군 지휘관들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가. 인구리일대(당시 제8사단 제10연대 제2대대장 조원영(趙原英) 소령의 증언)

6·25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38°선 지역의 지뢰폭발사고가 빈번하게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이것이 남침을 위한 장애물 제거였던 모양이었다. 6월 22일에 북한병사 1명이 해안선으로 침투하여 귀순하였는데 적의 병력이 계속 남하 중에 있고 8월 15일까지 해방시키겠다고 떠든다는 것이다. 그 병사의 개인 수첩에서 북한군의 편제장비 준비상태를 알고 전투력이 녹녹치 않은데 새삼 놀랐다. 6월 25일 새벽에 나는 그 간에 대대에 배속되었던 제10중대가 부대 교대차 서림리에서 광원리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대대에 가서 신고를 받고 훈시를 막 하려는데 일선 중대에서 남침보고를 받았다. 이에 대대가 보유한 2대의 트럭으로 인구리로 출동하였는데 2~3회를 왕복함으로써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기억한다. 이때 정면의 제7중대와 통신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미 유무선이 두절되어 전황을 파악할 길 없었으나 적의 움직임으로 보아 진지는 피탈되고 분산후퇴 중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는 특히 제7중대의 좌정면인 188고지 일대를 적이 점령하여 제5, 제6 양중대의 퇴로가 차단될 것을 우려하고 이 고지를 탈취하여 각 중대의 철수를 엄호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때 사단으로부터 사단 전면에 대한 남침이니 사단 계획에 따라 지연전을 감행하라는 명령이 하달되고 고지의 적은 흰수건을 흔들며 "우리는 물러선다"며 정말로 자취를 감추었다. 이 무렵에 어성전리의 제5중대장 김동증 대위로부터 중대정면을 돌파한 1개 대대 규모의 적이 남쪽으로 침투하여 자취를 감추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나는 적이 동해가도를 따라 그 주공을 지향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격을 중지시켜 인구리-북분리 도로를 따라 배치시킨 다음 후퇴중인 제7중대의 분산 병력을 흡수하여 인구 남쪽의 71고지를 확보하게 한 다음 제5, 제6중대는 주문진 북쪽의 임호리 341고지 유어리를 따라 사단 전초 진지선으로 즉각 진입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이때 적의 직사포 2문이 나타나 포격을 시작하였다. 나는 집중사격과 아울러 81㎜ 박격포로서 그 가운데 1문을 파괴하였으나 71고지를 점령한 제7중대로부터 적침보고가 있었

다. 퇴로차단의 위협을 받기에 이른 나는 대대 주저항선으로의 철수를 명령하고 기관총반을 지휘하며 제10중대의 철수를 엄호하면서 주문진으로 철수하였다. … 이하중략

(당시 제8사단 제10연대 제3대대 제10중대 최창주 소위 증언)
6 · 25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대본부는 주문진에 있었고 우리 중대는 인구리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중대가 38°선 경비를 했습니다. 동해안 바닷가에서부터 대치리라고 있는데 그곳에서서 38°선 경비를 했습니다. 그곳이 오대산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동해안 쪽으로 죽 막아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2개 소대씩 38°선 경비를 교대로 나가곤 했는데, …중략
바로 25일 아침에 인구리 초소에 가만히 있는데 나팔소리가 들려와서 이상하게 생각되어 초소, OP(작전상감시초소)에 올라갔는데 안개가 끼어서 시야가 안보여요, 20m 정방도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분초에다 전화를 거니까 순간적으로 38°선 앞까지 적이 접근을 했어요, 나팔소리가 들리자마자 들어온 것이지요, 당시 진지 축성 상태는 아주 미약했고, 철조망은 바로 진지 앞에 조금 있었고, 지뢰도 약간 매설되어 있었으며, 탄약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60mm 박격포가 1개 반이 나와 있어서 박격포가 있었고 소총탄도 비상용으로 좀 있었는데 하루 교전을 할 수 있는 양도 안 됩니다. 1개 소대가 실지 경계배치 구역은 정면이 1㎞는 됐어요. … 중략
중대본부도 저녁때까지는 지탱을 했어요, 그때 적의 전차는 양양쪽에서 내려오고 보병은 오대산을 타고 내려왔어요. 우리는 고지에서 진지를 지키고 있다가 보니까 적은 오대산 능선을 타고 먼저 내려갔어요,그래서 우리는 그 날 밤에 주문진 방면을 다시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하다가 보니까 적이 대병력이 밀려와서 안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사천 남방으로 철수했어요 … 이하 중략

나. 명지리 일대(제8사단 제10연대 제5중대 소대장 이홍진 중위의 증언)

우리 소대는 명지리 북쪽 고지일대를 담당하였는데 적의 주요 접근 예상로여서 인지 비교적 진지공사가 잘되어 우리 소대에는 견고한 화력거점(토치카)이 2개 있었으며, 일대에는 지뢰와 철조망이 부설되어 있었다. 6월 25일 04:00경에 나는 명지리 마을의 소초본부(소대본부)에서 자고 있는데 포격에 놀라 깨었더니 282고지에 있는 제2화력거점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포탄이 전후좌우로 비 오듯 쏟아진다는 것이었다. 나는 전투태세로 즉각 돌입하라고 명령하였는데 이번에는 133고지의 제1화력거점으로부터 적이 새까맣

게 공격해 온다는 것이었다. 나는 증강된 1개 소대를 지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20명의 예비 병력을 보유하고 있어 즉각 비상을 걸어 133고지로 출동하면서 어성전에 위치한 중대장 김동증 대위에게 상황을 보고하였다. 이때 우리중대의 배치 상황은 내가 지휘하는 제2소대가 우일선으로서 명지리 정면을 담당하고 제3소대가 장리 정면을 담당하였으며 제1소대는 중대예비로서 어성전리에 위치하였다. …중략

05:00경으로 기억한다. 이때 적은 133고지의 화력거점을 탈취하고 만세를 부르고 있었는데 출동하는 우리를 발견하자 2정의 기관총을 난사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병사들로 하여금 적을 저격토록 하여 이들을 사살하는 즉시 교통호로 진입하는데 성공하였는데 이때 비가 약간 오고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다. 가만히 보니까 적은 모두 술이 취해있는 듯하여 살금살금 접근하다가 안개가 바람에 날려 시계가 트이는 순간에 일제 사격을 퍼부었다. 이리하여 30분간을 일진일퇴의 격전을 벌렸는데 실탄이 거의 바닥이나자 어찌할 길이 없어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장리 일대를 담당한 제3소대와 통신이 두절되어 중대장이 걱정하였는데 그 소대는 나중에 어성전리에서 합세했는데 소대장이 행방불명이 되었다가 몇 일후에 복귀한 것으로 안다. …이하 중략

다. 구룡령일대(제8사단 제10연대 제3대대 제11중대 제3소대장 정진화 소위 증언)

제10연대 제3대대는 연대예비로서 주문진에 주둔하고 있다가 1950년 6월 22일경에 진흑동으로 이동하여 제1대대의 진지를 인수했다. 이때 제11중대는 제1대대의 좌일선 진지를 인수하고 제9중대는 우일선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대대본부는 강릉비행장에 제12중대와 같이 주둔하고 있었고 제10중대는 주문진에서 제2대대에 배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제9, 제11중대는 광원리에 본부를 둔 제1대대의 작전 지휘하에 있었다. 즉 제1대대와 제3대대의 진지교대가 완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군의 남침을 받은 것이다. 당시 부대 배치는 중대본부는 쇠나드리, 제1소대는 좌일선, 제2소대는 예비로 쇠나드리, 제3소대는 우일선으로 859고지에 배치되었다 우리 소대의 소초본부는 859고지의 정상에 있었으며, 고지 북사면에 분대 단위로 병력을 배치하였다. 방어진지는 허술했고 경비지역은 2㎞ 정도였고 진지는 군데군데에 유개호가 있었고 교통호로 연결되어 있었다. 3소대의 병력은 36명(100%)이였으며, 통신장비로는 T/S-10가 있었는데, 인접소대와 횡적인 통신망은 없고 중대본부 경유 통화가 가능하였다. … 중략

보급 상황은 정상이었으나, 비상식량은 중대 본부에 비축하고 일선 소대는 개인당 건빵 3~4개 봉지씩 지급되어 있었다.(진지교대 몇 일전에 북한군 하사관 1명 귀순했는데, 그

자는 "북쪽에서는 건빵 1주일분이 각자에게 지급하고, 철원에는 전차가 집결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탄약은 1기수 당 160발이 있었다.(진지를 인수한 날부터 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 새벽사이에 적의 습격도 받고 우리가 적 초소를 기습하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 자고 밤에 근무했다.) …중략

6월 25일 이른 새벽에는 짙은 안개가 끼여 시계가 제한되고 있었다(한치 앞도 볼 수 없었다). 이날 새벽 우리 소대 정면 박격포탄이 집중되고 소총사격도 가해졌다. 그 당시까지 한번도 이러한 적의 사격을 받아 보지 못한 까닭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 우리 소대는 사격으로 저항하여 적을 격퇴했다. 아침 해가 뜰 무렵부터 859고지 일대에 비가 내렸다. 얼마 후(오전) 적의 주력부대는 우측 제9중대 지역의 웃용소골-서림리로 남하하고 우리중대 정면은 잠잠해졌다.(적의 일부가 우리 소대를 견제하고 주력은 우측으로 포위) 나는 38°선 진지에서 1~2시간 방어하다가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 쇠나드리로 철수했다. 그러나 좌일선 소대와 우인접 제9중대와는 통신이 두절되었다. 우리 중대는 적정도 아군 상황도 모르는 속에서 쇠나드리에 집결하여 있다가 이날 어두워질 무렵 철수를 개시하여 갈천리-구봉리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재편성한 후 2~3일간 남하하여 영월에 도착하였다. …이하 중략

3) 38°선 돌파

38°선 돌파문제는 1950년 8월 30일 애치슨 미 국무장관의 발언이 있은 후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어, 이후 북진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어났다. 이승만 대통령은 일찍이 트루먼 미국 대통령에게 "이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토통일이어야만 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보내어 침략자를 격멸하고 통일을 달성해야할 한국국민의 권리가 있다는 그의 신념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유엔군 사령부는 인천상륙작전이후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한 다음날 29일 모든 부대에 진격을 멈추도록 명령했다. 이에 국군도 38°선에 정지하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정일권 육군참모총장에게 38°선을 돌파해 북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정일권 총장은 유엔군과의 지휘체계상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의 워커 장군에게 동해안 전선의 국군이 전술적인 상황하에서 38°선 바로 북쪽의 고지를 점령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해 동의를 얻었다.

38°선 진격이 결의되자 제1군단장은 1950년 9월 30일을 기하여 "제3사단은 현재까

지의 추격을 계속하여 양양을 점령 확보하는 동시에, 수도사단의 38° 선 이북 진출을 용이하게 하라"는 작전 명령 제109호를 발하였다. 30일 제3사단 제22연대는 강릉을 탈환하였고, 제3사단 제26연대는 삼척에서 LST로 출항하여 주문진에 집결 중이었다. 38° 선 돌파를 앞둔 이날 제3사단이 북진 준비를 완료하였을 때, 수도사단 제18연대는 38° 선 남쪽 2㎞ 지점 서림리로 진출하여 서림~양양가도를 따라 양양의 서측방을 공격할 준비를 하였다.



38° 선 돌파당시의 모습

10월 1일 05:00경 제3사단은 제23연대를 선봉으로 역사적인 38° 선 이북 진격을 개시하였다. 그들은 양양 38° 선 지역에서 북한 인민군 제5사단의 저항을 제압하고, 그날 10시경 38° 선 이북으로 진격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처음으로 38° 선을 돌파한 것이었다. 38° 선을 넘는 순간 주민들은 구겨진 태극기를 펴들고 감격의 눈물을 지으며 북진하는 국군에 환호했다. 정부는 이날을 기념하여 1956년에 10월 1일을 국군의 날[73]로 정하였다.

10월 2일 양양군민은 '양양군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읍면에는 읍면자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당시 치안대장은 김영제가 추대되었다가, 11월 22일에 김민하로 교체되었다. 치안대는 국군과 합동으로 패주하는 북한군을 속초 논산앞에서 격퇴하였다.

4) 1·4 후퇴 시 양양사수 작전

1950년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 10월 27일 전선에 개입하고, 북한군은 징집을 통해 40%이상의 신병을 충원하여 다시 남침을 하였다. 이에 국군 제1군단(사단장 : 김백일)은 흥남에서 선박으로 철수하여 12월 18일 묵호(수도사단)와 울진(제1군단)에 상륙하여, 12월 23일에 강릉으로 이동한 후 지휘소를 설치한 후 수도사단을 주문진에 배치시켜 적의 남침에 대비하게 하였다. 일부는 현리(懸里, 인제군), 오대산지구에서 적을 방

어하다가 밀려 1951년 1월 3일 영월로 철수하면서, 동해안 지역 38° 선 상에 설치된 "C 방어선상"에서 저지한 후 인접한 제3군단과 호응하여 黃牛線(삼척~영월선)으로 계속 철수하면서 일대 반격할 계획이었다.

양양에서는 이보다 앞서 현리에서 양양에 이르는 선상에 육본직할부대의 제28연대를 관대리(冠垈里)지방에서 현리 남방까지, 제29연대는 구하골에서 서림까지, 제30연대는 양양 서북방에서 동해안에 이르기까지 각각 중점으로 배치하여 이 일대에 잠입하고 있는 적 길원팔(吉元八)유격대와 금강산방면에서 남하한 수미상(數未詳)의 적을 방어하게 하였다.

12월 24일 수도사단장 송요찬 준장은 제1연대(한신 대령)를 양양에 진출시켜 제9사단 제30연대의 진지를 인수케 하였다. 그 주저항선은 수여리에서 장승리와 금풍리에 이르는 선상이었고 기갑연대는 서림 동방인 어성전리 북방과 하광정리에 배치하여 예비진지를 구축하고 제26연대를 사단예비대로 하여 주문진에 두어 방어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은 남진방책을 해안선을 피하여 아군의 방어력이 취약한 산악지역을 택하여 유격부대 침투에 주력하였다. 더구나 아군 제9사단 대부분의 이동으로 공백이 생긴 서림서방지역의 공간을 이용하여 오대산일대로 잠입하려는 계획을 세워, 12월 24일 제29연대의 주력부대가 완전 철수하고 극소수의 병력으로 잔무 정리 중인 서림지역을 기습 공격하여 적에게 다시 38° 선이 다시 돌파 당하였다. 이에 25일 양양 서림리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9사단을 현리와 창촌으로 이동시켜 북한군 제2사단을 방어하게 하였다. 이에 수도사단장은 전주력 부대에 진지 보강을 속행하게 하면서 김동수대령이 지휘하는 기갑연대를 방어력이 약화된 서림지역에 배치하기 위하여 12월 25일에 군단 예비진지에서 철수시켜 26일에 제1대대를 현진지에 두고 제2대대를 서림에서 조침령과 황이리 일대로, 제3대대를 면옥치리에서 정족산 일대에 재배치하고 연대지휘소를 서림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제1대대는 양양북방에서 약간 철수하여 기갑연대와 연결되는 영덕리에서 양양남방을 중심으로 해안선에 이르기까지 배치하고 적의 남하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이후 제9사단이 방어하던 현리와 창촌 지역의 전세가 급속히 악화되자, 제3군단장(김백일)의 지시에 따라 수도군단의 기갑연대는 주력인 제2, 제3대대로 하여금 29일 04:00

시에 서림에서 하치전(下雉田)남방을 목표로 공격하였다. 또한 주문진에서 송천으로 이주한 제26연대 제3대대는 29일 06:00시에 제9사단 제30연대의 전투지역과 연결을 위하여 갈전곡봉(葛田谷峰)남방을 목표로 진격하였다. 적의 침입이 주로 인제와 평창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서림 서북방에 배치되어 있는 수도사단은 접적(接敵)없이 현진지를 보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인제 평창지역의 전세가 더욱 악화되자, 1951년 1월 3일 육본 작전명령 제257호에 의거하여 서림지역에 있던 수도사단 주력부대를 송천에 있는 제26연대로 하여금 엄호부대로 하고 각 연대별로 철수들 단행하여 4일 04:00시에 제1연대를 주문지서 남방 삼교리에서 하진부리로 철수하였다.

이에 양양 38° 선 이북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1차 피난을, 이남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2차 피난에 나서게 되었다.

이후 북한군은 강릉 초당리에 사령부 둔 민족보위성직할(民族保衛省直轄) 제4군단 제69여단은 예하 6개 대대의 병력으로 강릉 일대에 배치하여 진지를 구축하여 방어태세 갖추고 이후 남진을 계획하고 있었다.

수도사단 제26연대가 중심이 되어 2월 3일부터 시작된 강릉 탈환 작전은 2월 6일에 성공하여 초당리에 있던 북한군 69여단을 격퇴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오대산 일대도 소탕하였다. 당시 양양에는 후방지역을 소탕하고 있었던 경장비(輕裝備)의 제2경비대대가(독립대대 당시 1,200명) 남이 있어 최전방부대가 되었다. 이에 급거 재진격한 수도사단에 의해 진지가 교대되어 영월로 이동하였다.

5) 38° 선 재탈환 작전

1·4후퇴 이후 1951년 3월 이후 국군의 반격작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국군 제1, 제3군단은 경강국도(서울-강릉간)에서 양양-현리(인제)를 연결하는 '카이로선' 으로 진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무렵 험준한 태백산맥을 따라 북상하던 인민군 패잔병들이 양군단의 후방지역으로 접근하자 먼저 이들을 소탕하였다.

3월 18일 제1군단장은 양양을 공격하기 위하여 수도사단에 18일부터 연곡천 북쪽지

역에 대한 강력한 수색정찰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때 군단 정면에 인민군 제69여단도 북으로 철수한 제10사단의 일부를 증원받아 양양을 방어하기 위하여 산악으로 연결된 하월천리-만월산-명지리 축선에 축차적인 거점을 확보하고 국군 수도사단의 진격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수색에 나선 제1연대는 동해안에 배치된 미 함정의 화력 엄호아래 적의 축차전지를 격파하고 양양 남쪽의 어성전리-명지리 선으로 진출하였다.

적은 연대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극력 저항하였으나 미 함정의 집중적인 함포사격에 의한 병력손실로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연대의 진출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상황이 급진전되자 수도사단장은 제26연대가 방어 중인 경강국도변의 진지를 9사단에 인계하고, 연대를 주문진을 경유하여 양양 인구리로, 사단예비인 제1기갑연대도 강릉에서 주문진으로 이동시켰다.

제1군단과 왼쪽으로 인접한 제3군단이 위력수색작전에 주력하고 있을 무렵, 3월 25일 08:00에 제8군사령관으로부터 "동부전선의 국군으로 하여금 신속히 카이로선으로 진출하게 하자"는 요청을 받은 육군본부는 작전지시 제10호 "제1군단 및 제3군단은 3월 25~26일 양일간에 공격을 실시하여 책임 지역내 카이로선을 확보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제1군단장은 수도사단으로 하여금 카이로선의 양양을 점령하고, 제9사단은 수도사단의 좌측방을 엄호하면서 차례대로 진출하도록 하였다.

수도사단장 송요찬 준장은 3월 26일 좌전방에 제1연대, 우전방에 제26연대로 공격제대를 편성하고 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은 양양을 고수하기 위하여 남대천 남쪽의 우암리-노고봉선에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여 배수의 진을 치고 사단의 공격을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사단은 전화력(全火力)을 집중한 후 돌격하여 적의 최후 방어선을 돌파하였다.

적은 방어선이 돌파되자 남대천을 도하하여 양양북쪽의 고성군과 한계리-인제로 통하는 설악산 입구로 철수하였고, 사단은 27일 남대천을 건너 양양으로 진출하여 양양-인제, 양양-서림리 간의 차단진지를 점령하였다. 당시 양양-속초 간의 인민군은 동해안에서 지원되는 함포사격에 방어진지 편성은 물론 철수도 불가능하게 되자, 인제-설악산 간의 내륙지역으로 통하는 도로변에 거점을 확보하고 저항하면서, 설악산 입구의 387고지에 강력한 거점을 구축하였다. 이 고지는 적 제2군단의 철수로 양양-오색령-

원통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 지점이므로 일전을 준비하는 듯하였다. 수도사단이 387고지에 집중사격을 실시한 후 제1연대가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적의 저항이 완강하여 공격에 실패하였다. 사단이 포격으로 적을 제압하는 동안 제1연대는 전열을 재정비하여 30일 공격을 재개하였다. 사단의 화력이 387고지의 후방으로 계속되자 적은 1개 중대 규모의 잔류부대만 두고 주력은 오색리를 경유하여 설악산으로 퇴각하였다.

한편 제3군단은 3월 25일 후방지역의 패잔병 소탕작전을 제7사단에 전담시키고 제3사단으로 하여금 경강국도에서 카이로선인 현리-서림 도로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3사단은 제18연대를 주공으로, 제23연대를 조공으로, 제22연대를 예비로 하여 26일 08:00에 공격을 시작하였다. 제18연대는 오대산에서 설악산으로 연결되는 산악 능선을 따라 공격하여 경미하게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27일 카이로선상에서 서림리를 확보하였고, 제23연대도 27일 월정동을 지나 30일 조개리(홍천군 내면)로 진출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1, 제3군단은 현리-서림과 동해안의 전술적 요충인 양양을 확보하였다.

6) 설악산지구 전투

1951년 3월 양양지역을 재탈환한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5월에 들어서면서 한국전쟁사에서 매우 빛나는 전투이며, 현재의 휴전선이 서부전선보다 위로 올라가 고성지역까지 북상할 수 있는 계기의 전투였던 설악산지구 전투를 전개한다.

당시 북한군은 제6사단과 예하의 제1연대, 제5연대, 제15연대와 제12사단의 제2연대가 설악산 일대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방어하는 동시에 120㎜, 82㎜ 박격포, 중기경기, 무반동총 등 다수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후방과의 연락과 보급이 원활이 이루어져 막강한 전투력을 보유한 가운데, 아군의 후방이나 보급 차량 등을 기습 공격하여 북진 및 전투력 약화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

국군은 제1군단 1951년 5월 1일 주문진 장가동(長街洞 : 현재 교황리)에 군단사령부를 두고 예하 수도사단과, 보병 제11사단을 중심으로 설악산 일대의 작전을 전개하였다.

5월 7일부터 12일까지 작전 기간 중의 날씨는 비교적 청명하였으나, 야간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거나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어 관측에 어려움이 있었다. 잔설이 남아

있는 지역도 있어 작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1) 수도 사단 : 설악산 남부지역 전투

가. 적의 상황

대승령과 우와리(牛臥里 : 인제군) 및 가리봉 부근 일대에 배치된 북한군 제6사단 주력과 제12사단의 일부 병력은 방어력을 강화하고, 아군의 진격을 지연 저지하는 한편 시간적 여유를 획득하여 가리봉 일대에서 공격하여 남하하고자 하였다.

나. 부대 이동 상황

5월 1일에 제1군단 예하의 수도사단은 지휘소를 양양에 두고 제1연대는 전투지휘소를 오색리에서 가라피로 이동 설치한 뒤 각 대대를 이동 배치하였다. 기갑연대는 장승리에, 제26연대는 공수전리에 각각 지휘소를 설치하고, 사단 전차 공격대대는 양양을 경계하게 하고 포병 제20대대는 마산리에 지휘소를 두고 마산리와 오색리에 각 중대를 배치하였다.

5월 3일에는 제1연대는 전투지휘소를 가라피리에서 마산리로 이동하는 한편 주력은 오색령~금표암 일대를 확보 중이며, 제2대대는 제3군단 예하 제18연대 제1대대와 대하여 필례일대의 진지에 투입되었다. 제3대대 주력은 점봉산 일대로부터 북진하여 망대암산에서 지산봉에 배치되고 제10중대는 계속 광여리에 남아있었다. 기갑연대는 장승리에서 가라피로 이동하고, 제1대대는 사단간 전투지경선 변경으로 다른 담당지 경내에서 철수하기 위하여 제20연대 제2대대에 관모봉 서사면 일대 진지를 교대 인계하고 가라피리에 집결하였다. 제2대대는 장승에서 행동을 개시하여 제1연대 제1대대진지를 교대 인수함으로써 금표암 일대의 진지에 투입되었다. 제26연대는 공수전리에서 서림으로 이동하였다.

5월 4일에 제1연대는 전일의 진지를 계속 확보 중이었으며, 기갑연대 주력은 송천리에 집결 중이었으며, 제2중대는 설악산에 진출하여 전초 진지를 적과의 교전 없이 확보하였으며, 제5중대는 약수리에서 대기 중이었다.

5월 5일에는 대부분의 부대가 7일의 공격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동 없이 전일의 진지를 확보 중이었다.

5월 6일에는 제26연대 전투지휘소가 서림에서 약수리로 이동하였고, 기갑연대는 전투지휘소를 가라피리에서 설악산으로 이동하여 7일에 각 대대를 분산 배치하였으며, 사단 전차공격대는 가라피리로 이동하였다.

다. 제1연대의 5월 7일 이후 전투 상황

5월 7일에 제2대대 주력은 가리봉과 대승령 일대에 대한 공격을 위하여 약수리에서 유리한 지점으로 이동을 하였다.

8일에 제2대대는 06:00에 공격을 개시하여 진출 중 가리봉 일대에서 강력히 저항하는 적 약 2개 중대와 3시간에 걸쳐 교전 후 적을 체포 섬멸하고 가리봉을 점령 확보하였다. 제3대대 주력은 대승령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여 자양전 서남방 지점에서 적 1개 중대와 조우 격전을 벌려 적을 섬멸한 뒤 대승령 서남방의 능선일대를 확보하였다.

9일에 수도사단은 지휘소를 양양에서 가라피리로 이동하였다. 제2대대는 가리봉 북방으로 패주하고 산재된 적을 추격하여 가리봉 서북 능선을 점령하였다.

10일에 제2중대는 진지를 출발하여 가리봉에 도착하여 제7중대와 진지를 교대하는 중 적 약 1개 중대의 기습공격으로 한때 상황이 불리하였으나, 3차에 걸쳐 돌격탈전(突擊奪戰)으로 적을 완전히 섬멸시키고 야간을 이용하여 가리봉 일대를 점령하였다. 제2대대는 서북방으로 진출하던 중 대승폭포 서남방 1㎞지점에서 약 1개 중대로 추정되는 적과 2시간의 교전으로 적을 격퇴하고 원진지에서 야간배치에 임하였다.

11일에 제1대대는 연대예비대대로서 가리봉 동측 간의지역을 점령 배치중이며, 제2대대는 진공 중 11:00경에 제5중대 정면 자양전 북방 고지와 제7중대 정면 지점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적 약 2개 중대를 제7중대의 좌측으로 위회하여 퇴로를 차단하고 공격하여 완전 체포 섬멸하였다. 제3대대는 1,210고지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적 약 1개 중대를 추격하여 섬멸하고 안산(鞍山, 인제군)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확보하였다.

12일에 2대대는 대승폭포 서남방 능선에서 적 약 1개 중대와 조우전이 전개되었으나 긴밀한 화력지원과 아군의 육박전으로 격퇴시켰다.

13일에 제1, 제2대대는 접적(接敵)없이 계속 현진지를 확보중이며, 제3대대는 1,210고지에 내습한 숫자 미상의 적과 1시간에 걸친 교전 끝에 격퇴시키고 진지를 강화하였다.

라. 기갑연대의 5월 7일 이후 전투 상황

기갑 연대는 설악산 서남방 능선의 안산을 중심으로 5월 7일 이후 9일까지 적과 대치하면서 전투를 전개하였다. 10일에 제1대대는 진지를 출발하여 157.2고지 주변에 결집하고 안산 일대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였고. 제2, 제3대대는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제1연대를 화력으로 지원하였다.

11일에 제1대대는 미명을 기하여 현 집결지를 출발하여 1,356고지를 공격하여 수미상의 적과 싸워 점령하였다. 제2대대는 적 약 1개 중대와 소규모 전을 전개하였다. 제3대대는 노동부근의 계곡일대를 점령하고 적의 전초 중대와 소규모 전을 전개하였다.

12일에 제1대대는 적의 강력한 역습으로 대승폭포 부근의 능선으로 철수하여 적의 침두를 저지하고 제2, 제3대대는 현진지를 계속 확보하고 적의 반격에 대비하여 진지를 강화하였다.

13일에 제1대대는 08:00경에 현진지를 철수하여 설악산 서사면 일대에 연대 전초대로서 배치되었으며, 제2대대는 설악산 전사면에, 제3대대는 제2대대 서측능선에 재배치되어 차후 작전에 대비하였다.

(2) 제11사단의 전투 : 설악산 동북부지역 전투

가. 부대 이동 상황

제1군단 예하의 제11사단은 동해안의 요충인 간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5월 1일 지휘본부를 하왕도리에 두고 전방 전투 지휘소를 낙산사에 두었다. 제9연대 역시 지휘소를 낙산사에 두소 제1대대는 물갑리에서 정산(釘山)사이에, 제2대대 주력은 상복리에서 내물치리 사이에 주진지를 확보케 하였으며, 제5중대는 청대산에서 부월리 사이에 전초진지를 확보, 제3대대 주력은 송암산에서 상복리사이의 주진지를 각각 확보케 하였다.

제20연대는 지휘소를 임천리에 두고 제1대대는 무명고지에서 송암산 사이에, 제2대

대는 월리에, 제3대대는 거마리에 각각 집결 대기시켰다. 제13연대는 지휘소를 북분리에 두고 군단예비대로서 주력이 북분리에 집결 대기하였다. 포병 제20대대는 지휘소를 주청리에 두고 A중대는 거마리에 B · C 중대는 주청리에 각 배치하였다.

3일에 제2대대는 월리에서 행동을 개시하여 수도사단 기갑연대와 제1대대와 진지를 교대 인수하여 제1대대 좌측과 연계하여 배치하였다. 제3대대는 4일에는 거마리를 출발하여 가라피리로 이동하였고 5일에는 다시 가라피리에서 상평리로 이동하였다.

6일에 제13연대는 지휘소를 북분리에서 하왕도리로 이동하고 제1대대를 북분리에서 주문진으로 이동하였다.

7일에는 본격적 공격을 위하여 제20연대는 송암산에서 화채봉 일대로 진출하여 동서로 배치되었고, 제9연대의 제1대대는 척산리로, 제2대대는 물치리에서 봉포리와 학사평 일대로, 제3대대는 학사리 고지 일대에 진출하였다. 제13연대는 전투지휘소를 하왕도리에서 상복리로 이동하였다. 제2대대는 송현리에서 상복리로 이동하였으며, 제3대대는 상복리 북방일대에 배치되었다.

8일에 제20연대 제3대대는 임천리에서 서북방 지역의 무명고지로 이동하였고, 제1대대는 화채봉 일대에서 진격하여 이동하였고, 제2대대도 서북지역으로 전진 이동하였다. 제5연대는 지휘소를 낙산사에서 부월리로 이동하였다. 제2대대는 봉포리와 학사평간 진지에서 괘진리고지로 진출하였다.

나. 5월 9일 이후 전투 상황

가) 제1대대

제1중대는 9일 화채봉 일대에서 출발하여 신흥사를 지나 서방 1㎞지점 진출한 뒤, 11일 12:00에 출발 전진 중 전 약 2개 중대와 약 5시간의 거쳐 교전하여 적을 격퇴하였다. 12일 01:00에 적 2개 중대 병력이 내습하여 03:00부터 05:00까지 교전하였으나, 실탄이 떨어져 신흥사를 경유하여 13일 24:00에 여운포리에 도착하였다.

제2중대는 9일 06:00에 화채봉 부근에서 출발하여 설악산 비선대 일대의 무명고지에서 10일 11:00경에 적 약 2개 중대와 조우(遭遇)하여 악전고투 끝에 적을 물리친 후 경계하였다. 11일에 적이 내습하였으나 격퇴시켰다. 12일 02:00에 적 약 1개 중대가 내습하여

교전하던 중 실탄이 떨어져 신흥사를 경유하여 13일 24:00경에 여운포리에 도착하였다.

제3중대도 9일 06:00 출발하여 적 약 2개 소대와 조우하여 약 30분간의 전투끝에 미시령일대로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였다. 12일 적 약 2개 중대가 내습하여 응전 끝에 탄약이 두절되어 신흥사를 거쳐 13일 21:00경에 여운포리에 도착하였다.

나) 제2대대

제5, 제6, 제7중대는 봉포리와 학사평일대에서 적과 약 31시간이란 오랜 시간 동안 교전한 결과 각 중대는 탄약과 식량의 보급 두절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적은 증원부대가 도착하여 제2대대의 각 중대는 수차례에 걸쳐 육박전을 감행하였으나, 적의 강력한 저항으로 전진이 좌절되자, 제7중대의 지원사격으로 18:00에 대대지휘소와 제8중대가 철수하고, 제6, 제7, 제8중대의 지원사격으로 19:00에 마지막으로 제5중대가 철수하여 신흥사로, 제6, 제7, 제8중대와 대대지휘소는 봉정암으로 집결하여, 13일 07:00에 설악산을 출발하여 20:00에 여운포리에 도착하였다.

다) 제3대대

이대대는 예비대대로서 연대와 같이 저항을 받으므로 제9중대는 5월 10일 05:00에 오세암을 출발하여 저항령으로 전진하던 중 적 약 1개 대대를 발견하여 13:00경부터 교전이 전개되었으나 적의 화력이 강하여 전진이 어려워 암석사이에서 야간을 기다렸다. 중대장은 1,092고지를 점령하고자 2개 소대의 결사대를 편성하여 야음을 이용하여 적진을 파괴하고 적병을 살상시켰다. 제10중대는 11일 미명에 제2차적으로 동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2개 소대의 결사대를 편성하고 육박 수류탄을 투척하고 사격을 가하여 적진에 돌입하여 백병전을 벌인 끝에 철수하였다. 제9중대는 12일 01:00에 제3차로 공격을 감행하여 제1소대로 육박공격을 하였으며, 암벽을 타고 돌입한 아군은 다수의 적을 살상한 후 철수하였다. 제11중대는 연대관측소를 경계하면서 제10중대를 지원하였다. 제12중대는 대대 후방에서 포진지를 구축하고 공격중대의 지원을 면밀히 하였다. 3대대는 13일 작전 명령에 의거 마등령에서 적 제13연대와 교전후 진지를 출발하여 17:00경에 여운포리에 도착하였다.

7) 6 · 25한국전쟁 시기의 반공 활동

⑴ 김창수(金昌洙) 이선영의 죽음

1945년 광복이 되면서 강현면 하복리에서는 좌익계 청년들이 날뛰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이종상(李鍾詳)은 왜정(倭政)에 반대하고 소련에 망명하여 고아원장으로 공산주의자가 되어 해방되어 돌아오니 그 문중의 청년들은 민청, 부녀동맹의 중견(中堅) 공산분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 지역을 '모스크바 축소판' 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에 반공 청년들과는 서로 대립되어 사사건건, 암투하고 그들의 감시를 받으며 자기들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자아비판 시키고 심하면 매질까지 하여 못살게 굴고 그들의 부모들까지도 반동으로 몰아부처 공산당화를 위하여 가진 악랄한 수법을 다하였다. 반공 청년들의 반발심은 더욱 가중되어 반공 활동에 열을 가하였다.

그중에서도 김창수 이선영의 활동은 돋보였다. 1950년 10월에 국군의 진격하여오자,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 많은 반공청년들과 함께 주민들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만세를 부르며 대대적으로 환영한 뒤, 공산분자들을 동사(洞舍)에 모아놓고 그들의 만행을 규탄하고 매질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1 · 4후퇴 때에 김창수와 이선영이 월남하고자 하였으나 벌써 38° 선이 막혀 피난 못하고 돌아왔다. 1 · 4후퇴 이후 도피하였던 공산분자들이 돌아와 김창수가 한 사실을 듣고 격분하여 김창수, 이선영을 동사에다 철사로 손발을 묶어 놓고 죽도록 매질을 하여 반죽음 상태로 만들었다. 이후 전세(戰勢) 불리하게 되자 다시 김창수 이선영을 창수네 옆집에 몰아넣고 수십 명의 극열분자들이 혹독하게 매질하여 유혈이 낭자하고 피바다가 되었다. 김창수의 부친은 "이놈들아 나를 죽여라"고 외쳤으나 인정사정없이 계속 때려 두 사람은 인사불성이 되었다. 수일 후 국군반격으로 북진하게 되자 운신부동인 두 사람을 방공호 속에 처넣고 총살하였다. 그 후 김종환(金鍾煥 : 김창수의 父)은 아들의 매질 당하던 모습의 충격으로 조사(早死)하고 말았다.

⑵ 강선리 이근우(李瑾雨)의 죽음

1950년 10월 2일 국군의 38° 선 돌파이후 김무정의 북괴군이 후퇴하면서 강선리 인민위원회에 와서 모든 주민들을 간성읍까지 피난할 것을 명령하여, 주민들 거의가 북으로 피난하였으나 반공 청년들은 산중에 피신하였다가, 10월 3일에 국군이 남대천을 건너 북진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3일 17:00에 하산 귀가하였다. 이날 이근우는 주동자 김장연(金長演), 김흥기(金興起), 이상호(李相浩), 손동인(孫東麟), 신귀남(辛貴南) 외 3명은 동지들과 동사에 집합하여 국군 입성을 환영하고자 태극기를 만들고 부락자치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북한 패잔병 4병이 08:00경에 출현하여 동민들의 후퇴를 강요하였다. 이에 모인 반공 청년들은 태극기 제작 등의 모의사실을 숨기고 침착하게 대처하였다. 반면 이상호로 하여금 북한 패잔병 출현사실을 국군 백골부대에 신고하여, 1개 분대가 출동하여 반공청년들과 패잔병이 모인 동사를 포위하고 공격하여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반공청년 이근우는 총탄에 맞아 즉사하고, 신기남은 부상당하였으며 신원미상의 30세가량 되는 청년도 사살되었다. 야간 전투로 피아(彼我)의 구분이 안 되어 주로 반공 청년들만 희생되었다. 다음날 이근우는 강선리에서 장례를 치렀다.

⑶ 적은리의 김남형과 김학래 부자(父子)의 죽음

김남형은 양양 강릉지역에서 뛰어난 문인으로 성격이 온후하였고 인공(人共)치하에서 공산정치를 반대하여 전가산(全家産)을 몰수당하는 등 수난을 겪었으며, 6 · 25한국전쟁으로 국군이 진격하자 장남 김학래는 마을 리장과 강현면 한청단장을 맡아 반공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1 · 4후퇴 때 부자가 미처 피난을 못가고 은신하던 중 인민군이 적은리에 주둔하면서 인근부락의 공산당원이 밀고하여 부자를 끌어다가 부락 창고에서 인근 동리주민들을 모아놓고 인민군 중령이 주재하는 인민재판을 하는데 극렬 세력들이 달려들어 곤봉 등으로 난타하여 김남형은 1951년 음력 2월 7일 즉석에서 사망하였다. 아들 김학래는 속초까지 끌려가서 동명동 방공호에 감금하고 음력 2월 7일부터 18

일까지 매일같이 구타하고 고문하여 사경(死境)에 이르렀다. 이 소식을 논산에 있는 외가에서 듣고 찾아가 면회를 청하니 집으로 데려가라 하여 거적으로 만든 들것에 실어 집에 돌아와 2일(1951년 음력 2월 20일) 만에 사망하였다.

(4) 면옥치리 공비토벌

1952년 3월 19일 15:00경에 공비 10여 명이 면옥치리 산간에 출현하였다는 정보가 어성전지서에서 입수하였다. 이 정보에 접한 지서장 한용겸(韓龍謙)은 순경 김정운(金正雲) 전호길(全浩吉)에게 한청원(韓靑員)을 대동하고 즉각 출동할 것을 명하였다. 두 순경은 한청원 20명을 소집하여 공비토벌작전에 출동하였다. 한청원들은 방한(防寒) 장비와 식량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입은 옷 그대로 총을 메고 순경의 뒤를 따라 면옥치리 현장에 도착하였다. 한청원들은 면옥치리, 어성전리, 법수치리에 살고 있어 지형 지리에는 익숙하였다. 그러나 공비를 찾아 매봉산 일대를 헤매는 사이에 해가지고 갑자기 날씨가 흐리기 시작하고 지척을 분별치 못할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리며 눈보라까지 쳐서 오지도 가지도 못할 형편이었다. 시간이 흐름에 배고픔과 추위는 떨어야 했다. 후속지원은 고사하고 후방과의 연락도 두절되어 경찰을 비롯한 한청원 등 21명은 2척(尺)이 넘는 눈 속에 쪼그려 앉아 쓰러져 모두 '물레방아 골'에서 순사하였다. 당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한청원은 19세의 조준기뿐이었다.

3월 20일에 지역 주민들이 출동하여 1m에 가까운 눈 속에서 시체를 찾아 동사 앞에서 영구(靈柩)를 모시고 초혼(招魂)하고 장례(葬禮)를 치렀다. 순직경찰관 김정운 김호길은 경찰장으로 하고 그 묘소(비석 1개)는 어성전 산기슭에 있다. 전호길의 묘소는 현 남면 동산리선영 옆에 모셨다.

단원 서장열외 18명은 순경으로 추서(追敍)하였고 서정열은 유가족에게 운구되어 서림리에 장사지냈으며 김옥기 김석기 두 형제는 함께 순사하였으며 유족에게는 원호 가족이 되었다. 생존자 조준기는 당시의 충격과 정신적 후유증으로 얼마 후 사망하였다.

⑸ 영덕리 공비 토벌 개황

1953년 11월 15일 강원지구 연락총책 공비 2명이 서림지서에 자수하여 왔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변안전을 받기 위하여 38° 선에서 정족산까지의 연락조원이 지금 영덕리 외딴 빈집에 잠입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왔다. 서림지서장 권영열(權寧烈)경사는 순경 한병열 김호규 두 사람에게 명(命)하여 토벌작전에 임하였다. 두 순경은 한청원 소속의 김연수, 김성기, 정연식, 이경수, 윤봉래, 이대영과 자수한 공비 1명을 인솔하여 현지에 도착하여 빈집을 포위하고 상황을 살펴본즉 마침 흰눈이 깔린 우물길에 발자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접근해갔다. 마침 방안에서는 공비 2명이 저녁식사를 마치고 그 중 1명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이대영 대원이 생포하려고 공포를 쏘면서 "손들어"하고 소리쳤더니 공비는 방으로 뛰어 들어가 소지하였던 M1소총과 M2칼빈 총으로 응사하였다. "완전포위 되었으니 자수하라"하고 권고하였으나 끝내 반항함으로 그 중 1명은 사살되었고, 다른 1명은 부엌쪽으로 도주하면서 김연수 대원에게 사격해 전사했고 추적에 나선 대원들은 논둑 밑에서 최후 발악하는 나머지 1명을 사살하였다. 그들 주머니에서 암호 연락문이 나와 공비토벌 작전에 크게 활용하였다.

5. 미군정 시기

우리나라의 현대사에는 미군정기가 있었다. 흔히 말하는 미군정이라 하면 1945년 광복부터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 전까지를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이후에도 2번의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두번째 미군정은 한국전쟁기에 유엔군과 국군이 북한지역을 일시 점령하던 시기인 1950년 10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대략 45일간 실시되었다. 세번째의 미군정은 다름 아닌 양양군에서 6 · 25한국전쟁 중인 1951년 8월부터 휴전 후 1954년 5월 국군이 인수하기까지 3년에 걸쳐 실시되었다. 당시 이 지역은 남한의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승만 대통령도 미군의 동의가 있어야만 방문이 가능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점령한 38° 선 이북지역은 강원도 7개 군(양양군만 완전 점령

되었고 금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은 분단되었다.), 경기도 2개 군(연천군, 북포천군)이었다. 점령한 9개 군 가운데 양양군을 제외하고는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기 전까지 모든 지역은 비상계엄 상태에 놓였고, 원주민은 모두 소개 · 피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인의 접근도 금지되었다. 점령 후부터 휴전 전까지 민간인 거주를 허용한 유일한 곳은 유엔군(미군)이 완전 점령한 양양군뿐이었고, 이에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1) 군정의 필요성

미군정이 실시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이 지역이 군사 · 전략적 거점의 중요성이며, 둘째는 과거 공산주의 지역의 사회주의 요소제거 및 재건 문제였다.

첫째 군사 ·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지역적 특성은 수많은 인구를 필요로 했고 동시에 군정의 실시를 필요로 했다. 속초에서 원산에 이르는 동해 전선에는 미8군 제10군단을 비롯한 국군 1군단, HID(첩보부대)동해사령부, 해병대, 커크랜드(Kirkland) 특수임무부대나 아벤리(Avanlee)부대 등과 같은 첩보부대와 미군이나 국군 유격부대가 주둔해 있었다. 심지어 속초 앞바다에는 대만의 장제스군이 이끄는 첩보부대도 활동하고 있었다. 따라서 적게는 몇 백 명에서 많게는 몇 만 명에 달하는 군인들이 급작스럽게 배치됨으로써 군부대를 지원할 여러 종류의 민간인 군노무자가 필요했다.

속초[74]에는 제100여단 군노무단부대[75]가 창설되어 몇 천 명이 복역하다가 휴전협정이 조인된 후 9월에야 해산되었다. 미10군단의 용역하청회사인 '상호운수주식회사' 가 설립 운영되었으며, 국군 1군단도 '군 후생사업' 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민간인을 임의로 고용했다. 고용한 이유는 군부대의 어류나 채소 등의 부식추진, 원산앞바다의 여도 등의 도서나 함북의 성진앞바다 양도 등에 주둔해 있던 국군이나, 유격대, 첩보부대 등에 군수 물자 보급, 첩보원들의 북한지역 침투나 작전수행 후 귀대 시 배로 실어주는 일 등을 담당케 하려고 하였다. 민간인은 주로 원주민을 고용을 원칙[76]으로 하였으나, 다수의 월남민도 포함되었다. 군부대와 속초시내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기회사와 화력발전소가 세워졌다. 뿐만 아니라 1군단 내에서 제작되어 전황을 알리는 종군신문인 〈동

해일보〉가 제작되어 지역 주민에 게 중앙 소식과 지역 내 소식을 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수복된 양양지역 특히 속초가 군사전략적 거점으로 부상되면서 급격하게 수많은 군부대와 군인, 군속, 민간인들이 요구되었고 또 그들이 몰려오면서 이 지역에 대한 질서와 통제를 수립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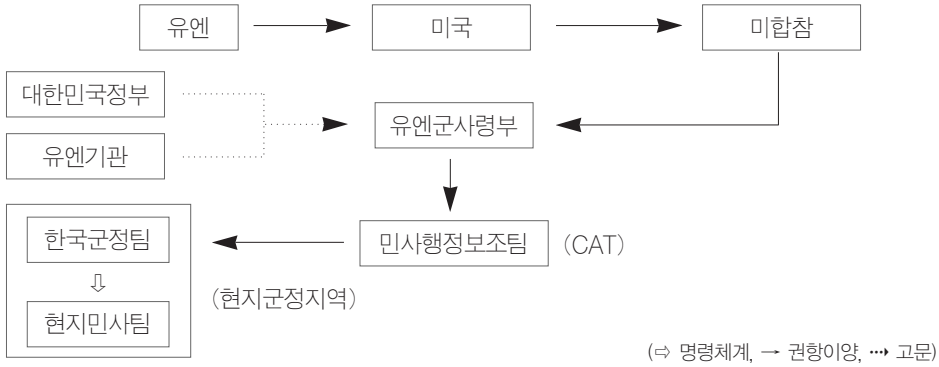
둘째, 종래 공산주의 지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여 적성(赤性)을 제거하고 순화(純化)시키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려는 기획은 군정을 요구하였다. 유엔군이 점령한 38° 선 이북지역은 5년간 사회주의 북한의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혁명(민주개혁)' 을 경유하여 '사회주의 혁명' 을 맞던 중 한국전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1946년 토지개혁을 통해 5정보 이상 지주의 토지는 무상 몰수되어 모든 농민에게 일정한 점수에 따라 무상 분배되었다. 또한 한인 소유의 중 · 소규모 상업이나 수공업의 경우에는 개인소유가 허용되지만, 일본인이 소유했던 산업의 경우에는 국유화되거나 폐업하기도 했다. 또한 친일파나 민족반역자들은 숙청되었고 그들 중 다수는 38° 선 이남으로 월남했고 '건국사상총동원운동' 으로 과거 일제와 봉건의 잔재가 청산되어나갔다. 또한 어업의 영세성을 극복할 방안으로 1948년말부터 '수산합작사운동' 을 전개하여 낮은 수준에서나마 협동회를 시작했다. 그 결과 1949년경 속초면의 부월리는 모범부락으로 선정이 고려될 만큼 사회주의적 개혁이 진전되었다.

따라서 사회주의 일부 지역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북한 영토를 점령하고자 희망하였던 유엔군이나 이승만정부로서는 점령지역 주민을 어떻게 순화시켜 체제내화 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사업이었다. 이런 관심에서 미국은 처음으로 점령한 사회주의 지역에 대하여 사회주의적 요소와 적성을 배제하고, 체제내화(體制內化)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적용하고자 군정을 실시하였다.

2) 군정의 운영체계

한국전쟁 당시 군정의 골격에 관해서는 1950년 10월경 논란을 겪고 난 후에는 더 이상의 논의가 부각되지 않으므로 양양군의 미군정은 1950년 10월 합의를 토대로 운영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정 통치구조



군정의 최종 결정권이자 통치권 또는 행정권은 유엔군 총사령부에 있었다. 또한 유엔군 사령부 내 민사행정보조팀(Civil Assistant Team)이 군정에 대한 통치권과 행정권을 행사하였다. 다만, CAT는 현지 군정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되 국군 군정팀에 집행권을 부여하여 형식적으로는 고문역을 담당하여 전면에 부상하지 않았다. 그래서 군정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 1군단 군정사령부였다. 군정사령부는 민사처를 통해 민정을 실시했고 구체적으로 행정을 집행한 것은 현지 민사팀, 양양군수(군민정관), 읍장(읍민정관) 등이었다. 그 밑에는 읍, 면장 밑에는 구장(이장)과 치안대, 국민회, 대한청년단, 대한부인회 등 여러 자치기구가 실무를 담당하였다.

현지 민사팀은 양양군 군정사령부가 인정한 지방정권으로서 대개 1950년 이전 38° 선 이남으로 월남했다가 1950년 10월 유엔군이 이 지역을 점령했을 때 들어가 치안대 및 반공단체를 만들고 주도했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그 후 1·4후퇴인 1950년 12월 이후, 유엔군이 북한 지역을 총퇴각할 때 그들은 군과 함께 남하했다가 1951년 6월 이후 남한이 재점령할 때 그들도 양양군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대개 치안대와 대한청년단, 대한부인회, 국민회 등의 간부로 활동하였다. 민사팀의 활동은 1951년 초기 군정 당시에는 좌익색출사업전개하면서, 점차 모든 지방정권기관이나 각 제도에서 사회주의 방식을 제거하고 자유민주주의적으로 방식을 바꾸거나 대한민국식으로 순화시키는 활동을 위하여 구호행정을 실시하였다. 1군단 민사처는 부정기적으로 강릉에 주둔하고 있는 미8군 동해사령부에서 구호물자를 직접 인수하여 각 민정관들과 주무부처 직원,

구장, 피난민 반장 등을 소집하여 구호물자를 분배 · 지급하면 그들은 현지에 내려가 일정한 양을 배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구호물자로는 모포나 의류, 식료품, 피혁, 일용품, 소금, 천막 및 농업용 도구를 지급받았고, 구호양곡으로는 외미(안남미)와 소맥, 대맥, 고량미, 수수 등을 배급받았다. 그 외에도 어선용 전나무나 주택용 자재, 의류, 의약품, 학용품 등을 배급하기도 하였다.

1950년 10월 이후부터 미8군이 미군정을 실시하다가 국군 1군단에게 해당 지역 행정권을 넘겨준 1954년 8월, 다시 1군단이 대한민국 정부에 민정이양을 한 것은 1954년 11월 15일이다. 이시기에는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38° 선 이북 점령지역에는 미치지 못했다. 실제로 군정의 허가 없이 국회의원이나 행정부의 관리들은 그 지역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군정의 권한은 막강했다. 이승만 정부는 간헐적으로 이 지역에 국회조사단을 보내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군정시기에 대한민국 정부는 군정지역이나 군정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거의 미칠 수 없었다.

3) 행정권 이양

수복지구 행정권 이양은 유엔군의 유보적인 태도로 인하여 휴전 조인 후 1년이 지난 1954년 8월에야 이루어졌다. 8월 12일 유엔 한국위원회는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권을 대한민국 정부에 정식 이양하기로 결정했으며, 정부는 8월 28일 수복지구 행정인수위원회를 조직했다. 이어 10월 3일에는 정부와 유엔군 사령부 사이에 수복지구 행정권을 인수하는 협정에 서명하여 모든 인수 절차를 끝냈다. 국회는 이에 발맞추어 1954년 9월 29일 제51차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안을 심의 통과시켰으며, 동 법은 정부에 이송되어 10월 21일자로 공포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1954년 11월 14일 수복지구 행정권인수식을 거쳐, 11월 15일에는 철원, 김화, 11월 17일에는 양양,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에 대한 행정권을 완전히 되찾았다.

그러나 이 지역은 임시행정조치법에 따라 일반 행정 및 교육행정 등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다. 수복지구는 공산치하에 있었고, 전란으로 황폐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전쟁 이재민으로서 구호대상자라는 점을 감안하였던 것이다. 그 내용은

① 읍면에 관한 경비와 교육에 관한 경비 일체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② 정상적인 상황에 이를 때까지 군수가 교육감이나 세무서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일반 행정 및 교육 · 세무행정 등을 관장하게 하여 일원화를 기했다.

강원도는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권 이양 즉시 군수를 임명하여 행정체계를 갖추는 한편, 중점적인 지원 시책을 서둘렀다. 양양군 초대 군수에는 김주혁(金周赫)이 임명되었다[77]. 김군수는 군정 때인 1953년 11월부터 이미 양양군수로 재임하고 있었다. 김군수는 수복지구행정에 역점을 두는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행정 재건과 주민계도에 힘을 쏟았다. 특히 군부대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어 학교 공공건물 등을 복구하고 행정 기반 구축에 주력하였다.

1954년 11월 수복된 양양군이 대한민국의 관할이 되면서 해방 후 38° 선으로 분단되었던 양양군이 하나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1군단사령부가 주둔하였던 속초는 광복 후 한국전쟁까지는 면이었으나, 군정기를 통하여 급성장하여 1951년 8월 군정이 실시된 이후 읍으로 되었으며, 1963년 전국에서는 29번째, 강원도에서는 네번째로, 38° 선 이북지역에서 시로 승격되어 양양군에서 분리되었다.

집필 : 이철휘

각주

1) 朝鮮總督府, 『暴徒史 編輯資料』, 강원도편.
2) 현재 오산리 유적 박물관 부근
3) 『동학란 기록 하』, 국사편찬위원회, 620-622쪽, 720쪽.
4) 1901년 미국인 선교사 Dr, Ra, Hardie가 창설.
5) 『韓國獨立運動史 Ⅱ』, 國史編纂委員會, 1966.
6) 『朝鮮憲兵隊司令部 報告文』, 1919년 3월 10일자, 高警 제 6334호.
7) 『朝鮮憲兵隊司令部編』, 「朝鮮騷擾事件狀況」, (昭和 44년 9월 20일), 극동연구소 출판사 복간본, 125-129쪽.
8) 앞의 책 독립운동사 자료집 5집, 974-975쪽.
9) 당시 함평이씨 문중의 거부(巨富)
10) 앞의 판결문② 참조.
11) 앞의 책 독립운동사 자료집 6집, 667쪽.
12) 『獨立運動史資料集 5집』, 「3 · 1운동 裁判記錄」, 1984, 975~976쪽.
13) 앞의 책 독립운동사 자료집 5집, 976-977쪽.
14) 함홍기도 신세묵의 권유에 의하여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15) 오늘날 현북면 장리(獐里)를 뜻함.
16) 트집을 잡아 따져 물음.
17) 앞의 책 독립운동사 자료집 5집, 973-974쪽.
18) 현재의 강원도지사
19) 4월 4일 장날을 의미함.
20) 당시 면장은 이석범을 뜻함.
21) 金正明편, 『朝鮮獨立運動 Ⅰ』, 民族主義運動篇, 原書房, 1967, 507쪽.
22) 일본인 상점
23) 양양문화원, 「峴山文化」, 〈양양의 항일운동〉, 1989, 41쪽.
24) 「韓國獨立運動史 Ⅱ」. 국사편찬위원회, 713-714쪽.
25) 앞의 책 「조선 3 · 1운동소요사건」, 105쪽.
26) 만세운동 참가자는 경찰서에서 태형을 받았다. 형식상으로는 1개월에 자유형을 대신하는 것이 30회의 태형을, 3개월분 90회의 태형을 가할 수 있었다. 「조선 태형령」(1912. 3.18일 공포), 태형을 당한 사람 중 일부는 당시 의약품이 부족, 여름철에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여 엉덩이 상처에 구더기가 생겨 고생한 사람도 많았다고 함.
27) 앞의 책 「한국독립운동사 Ⅱ」, 714쪽.
28) 앞의 책 「한국독립운동사 Ⅱ」, 714쪽.
29) 당시 강현면장 김동석(金東錫)은 만세군중이 왔을 때 도망하였음.
30) 앞의 책 「한국독립운동사 Ⅱ」, 714쪽.
31) 앞의 책 「한국독립운동사 Ⅱ」, 715쪽.
32) 앞의 판결문 ① 참조.
33) 강원도에는 원래 수비대가 철원 평가에만 있었는데, 3 · 1운동직후 춘천에 1개 중대, 고성에 1개 소대가 주둔했다. 그 후 4월 5일에 1개 대대가 증강되어 춘천을 대대본부로 각처에 주둔하게 하였다.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Ⅰ」, 354쪽 및 510쪽 참조.
34) 간유(정성을 다하여 회유하였다)의 표현으로 보아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35) 1973년 7월에 홍천군 내면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됨.
36) 태형을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부락민 10여 명이 들것에 실어 밤새도록 돌아갔음, 현산문화, 42쪽
37) 김철기는 서당 한문선생이었는데 당시 나이가 많아 그의 제자 김두영이 기념식에서 시를 읊었다.
38) 앞의 책 「한국독립운동사 Ⅱ」, 715쪽.
39) 앞의 책 「조선독립운동사 Ⅰ」, 545쪽.
40) 앞의 책 「한국독립운동사 Ⅱ」, 717쪽.
41) 김주철은 당시 이장으로 다른 예를 보아 징역이 확실한데 주민들이 김주철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여 태형을 받지 않고 징역도 살지 않음.
42) 태극기는 각기 마을에서 만들었는데 이장의 집이 아니면 서당에서 만들었고 상광정리 경우에는 김종대의 집에서 만들었음.
43) 앞의 책 「한국독립운동사 Ⅱ」, 717쪽.
44) 대한제국의 주사(主事)로 동학운동 때 반동학군을 조직하여 활약함, 「동학란기록 하」, 621쪽.
45) 현재 만세고개라 부름. 1985년에 3 · 1운동 기념비가 세워짐.
46) 앞의 책 「한국독립운동사 Ⅰ」, 716쪽. 앞의 책「조선독립운동 Ⅰ」, 547쪽 및 590쪽 참조.
47) 이학봉이 殉死한 후 그의 부인은 기정리로 재가한 뒤 일제의 후환이 두려워 李國補로 개명함.
48) 앞의 책 「한국독립운동사 Ⅰ」, 607쪽.
49) 앞의 책 「한국독립운동사 Ⅱ」, 766쪽.
50) 김대봉은 1901년 양양에서 태어나 어려서는 서당에서 한문을 修學하였으며, 서울 중동학교 야학부를 중퇴하였다. 1922년 9월 양양현산기독교청년회 총무가 되었다. 1923년 봄 서울에서 토요회에 가입하였으며 그 해 양양에서 물치노농동맹 결성에 참여하여 집행위원이 되었다. 1924년 1월 양양신청년동맹을 조직하였다. 1924년에 조직되는 조선노농총동맹의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고, 1925년 화요회에서 추진하였던 조선민중운동자대회에는 양양을 대표하여 준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제2차 조선공산당의 제7 야체이카의 조직원이었고, 제2차 고려공산청년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1926년에는 제2차 조선공산당 책임비서였던 강달영과 제2차 고려공산청년회 비서 권오설의 추천에 의하여 모스크바 공산대학에 입학하여 1928년 6월에 졸업하였다. 그 해에 귀국하여 사회주의운동에 참가하다가 1929년 1월 일본

각주

경찰의 검거를 피해 소련으로 망명하였다. 1930년 12월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고 귀국하여 적색노동조합 조직 활동을 하는 한편 공산대학 유학생을 선발하기도 하였으며 조선공산당의 재건을 위한 팜플렛을 작성, 배포하기도 하였다. 1932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945년 10월 조선공산당 북조선국의 파견원으로 조선공산당 강원도당 간부를 재편하고 청원인민정치학교의 교장이 되었다.

51) 『동아일보』, 1923. 7. 13일자.
52) 『시대일보』1925. 1. 22일자.
53) 『시대일보』1925. 1. 22일자.
54) 1926년 11월에 사회주의인 정우회가 배타적민족주의 세력과 제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선언서.
55) 『동알일보』, 1927. 9. 6일자.
56) 군벌 장작림의 지배하에 있는 중국 동삼성(東三省) 거주 백만 재만동포들이 연말까지 중국 귀화수속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퇴거명령을 내리겠다는 중국관헌의 폭압으로 박해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신간회를 비롯한 각 사회단체의 주요 인사들은 1927년 12월 9일 조선교육협회 회관에 모여 상설기관으로 재만동포옹호동맹을 창립하고 위원장에 안재홍을 선출하였다.
57) 조선일보 1928년 2월 2일 기사. 소년회에 들었다고 위협하는 대포공보 교장의 실태(失態)
양양군 대포 공립보통학교 교장 전중모(田中某)는 공진소년회(共進少年會)에 입회하여 있는 자기학교 생도 24명을 지난 9일에 불러다 놓고『일한합방』은 두 민족이 더 잘살기 위하여 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불평을 품고 여러 가지 잘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런데 대포에는 공진소년회라는 것이 있어 너희들 24명이 입회하여 있은 즉 오늘 전부 퇴회(退會)하되 만약 퇴회를 아니하면 주재소에 넘겨버리겠다는 기막히는 소리로 순진한 어린 학생들을 함부로 위협하여 퇴회를 강권하였으나 학생들은 하나도 퇴회하지 아니하고 소년회에 자세한 보고를 한 결과 소년회에서는 모교사에게 경고문을 발송하는 동시에 청년동맹 소년부에 보고하고 방금 그 대책을 강구 중이라는데 일방에는『리○○』이란 교원이 동교 6학년 학생 두 사람을 불러서 소년회를 총독부지정부랑자간판(總督府指定浮浪者看板)이라고 한 일까지 있다하여 일반은 극도로 분개하는 동시에 문제는 더욱 확대될 모양이라더라.
58) 1911년 차경석(車京石)이 정읍시에서 창시한 증산교 계통의 신종교. 차경석은 원래 동학교도였다.
59) 정어리기름 찌꺼기.
60) 당시 양양의 각 리에는 야학이 조직되어 주로 한글 교재 없이 한글만을 가르침.
61) 1929년 1월 13일부터 4월 6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원산노동연합회 산하 전 노동조합원이 벌인 최대 규모의 항일적인 총파업.
62) 일제시대에 누에고치를 건조하기 위하여 목조물로 건축하였다가, 인공(북한체제)시대에 벽돌 건물로 개축하였다. 6 · 25한국전쟁 때 대부분 파손되고 일부 건물이 농협의 창고로 개조되어 사용하다가 현재는 개인 창고로 사용.
63)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관을 지냄
64) 2, 3대대원까지 포함된 인원이다.
65) 선전효과를 위해 대대적인 행사를 벌이고 매스컴까지 동원한 것이다. 이는 기밀을 엄수해야 할 북파공작대에는 큰 패착이었고, 정부와 군 수뇌부의 안일한 판단에 의해 호림부대의 정보가 북한 측에 알려지게 되어 나중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다.
66) 당시 정보원은 서문리의 이계화(李啓和)로 인민군의 병력배치상황 정보 탐색을 위해 금풍리에서 연락원을 양양읍에 파견하였으나, 위조군표 사용이 발각되어 인민군이 군풍리를 급습 포위하여 사격하여 전세가 불리하자 자폭하고, 김환기(金桓起)는 '게릴라 은익죄'로 체포되었다.
67) 양양지방의 반공청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있었다.
68) 현재 설악산 C지구로 당시에는 깊은 산중이었다.
69) 김정배의 조카딸 남편
70) 공산당 정보원 김흥수는 밤중에 연락 도중 호림부대에 발각되어 사살되었다.
71) 제주도 4 · 3사건을 주도하였고, 이후 남파 인민유격대를 이끌었던 김달삼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다.
72) '동아일보' 1970년 7월25일자
73) 잔교리와 기사문리 사이에는 동해로 흘러드는 광정천이 있다. 이 하천 위에는 '광정교' 다리가 있었는데, 이날 3사단이 38°선을 돌파하여 북진을 개시했다고 하여 이 다리는 '돌파교'라 하였다. 돌파교 남쪽에 38°선 휴게소가 만들어졌다. 이날 수도사단도 창촌리에서 38°선을 돌파해 북진에 들어갔다. 그 후 국방부는 1956년에 이날을 기려 국군의 날을 10월1일로 정했다.
74) 당시에는 양양군 속초면이었다.
75) 1951년 6월 군노무단이 정식으로 창설되었다. 총 3개 사단 및 2개 여단으로 편성되어 운용된 준군사적 군단규모의 특수한 조직체로서 기능했다. 노무단 창설 이후 징용된 노무단 노무자의 공식 통계는 9만 3,154명이었다.
76) 타 지역민은 진입 통제 및 무연고자 추방하였다.
77) 1953년 11월부터 군민정관을 군수로, 읍 · 면민정관을 읍 · 면장으로 개칭하였다.

참고문헌

『韓國獨立運動史 Ⅱ』 국사편찬위원회, 1966.
『朝鮮獨立運動 Ⅰ』 김정명편(민족주의운동편), 원서방, 소화42년, 1967.
『日帝侵略下 韓國三十六年史』 국사편찬위원회, 1969.
『3 · 1運動 50周年記念論集』 동아일보사, 1970.
『獨立運動史資料集』 4, 5, 6집,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韓國獨立運動史料』 (3 · 1運動編 其一), 국회도서관, 1977.
『獨立運動史資料集』 국가보훈처, 1980.
『獨立運動史』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3.
『韓國獨立運動史』 1, 2, 3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襄陽邑誌』 光武5년, 1901.
『襄陽靈像』 金鍾極, 문왕출판사, 1985.
『峴山文化』 양양문화원, 1989.
『襄州誌』 양양군, 1990.
『(6 · 25전쟁) 육군전사 제5권』, 육군본부, 1954.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조성훈저,』, 국방부군사편찬소편, 2003.
『6 · 25전쟁 참전자 증언록1-북한의 남침과 서전기-』 이종판, 국방부군사편찬소, 2003.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방어전투』 국방부 군사편찬소. 2005.
『(알아봅시다)6.25전쟁사 제2권』 국방부 군사편찬소. 2005.
김귀옥,「잃어버린 또 하나의 역사 한국전쟁 당시 강원도 양양군 미군정 통치와 반성」 『경제와 사회』 2000년 여름호(통권 제46호)
조성운(趙成雲),『일제하 농촌사회와 농민운동』혜안, 2002.
조동걸(趙東杰),「3.1運動때 지방민의 참여문제」, 춘천교육대학교 논문집 9집, 1971.
이철휘(李喆輝),「襄陽地方 3 · 1萬歲運動의 硏究」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최양섭,「일제하 양양지방 독립운동과 기독교인의 역할」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김창환(金昌煥),「일제하 양양지방 농민운동의 전개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신동아 통권 608호 논픽션 다큐멘터리, 2010. 5


會衆千名의盛況
幢友會創立完了

Ⅴ. 근현대 인물사

1. 잊혀진 근 · 현대 인물을 다시 복원하며

해마다 4월이 오면 우리는 1919년 양양의 기미만세운동을 기억한다. 4월 4일 장날 양양읍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일본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군민들의 분노를 일으켜 양양 전역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 나갔다. 만세운동 6일째인 4월 9일 계속된 만세운동으로 궁지에 몰린 일본 경찰과 군대는 기사문리 고개에서 1천여 명 시위군중을 향해 무자비하게 발포해 9명을 현장에서 학살하고서야 만세운동을 간신히 진압할 수 있었다. 총 참가인원만 6천명 이상이며, 학살된 군민만 12명, 8개월 이상 옥고를 치룬 사람만 70명이었으며, 태형을 받은 사람만 수백 명에 이르렀고, 이중의 다수는 후유증으로 생을 달리했다. 당시 일본인들은 겁에 질려 모두 배를 타고 바다로 피신할 정도로 운동은 위력적이었다. 양양의 만세운동은 전국에서도 그 규모와 치열함이 세 번째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운동과 관련한 독립유공자가 40명이며, 해마다 열사들을 추모하고 만세운동의 뜻을 기리는 기념행사가 기사문리 만세고개와 강현면 물치에서 열리고 있다.

만세운동은 많은 희생자를 내고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유림과 기독교계는 더 이상 저항운동의 동력을 갖지 못했다. 오히려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젊은 청년들이 당시 새롭게 유입된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농민과 노동자 등 무산계급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의 뜻을 이어나갔다. 만세운동 당시 양양군민이 보여준 치열함과 일제 만행에 대한 공분은 청년운동과 농민운동, 노동운동의 동력이 되어 양양은 전국에서도 대중운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손꼽혔다. 그들은 만세운동의 실패를 거울삼아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는 기층 민중이 스스로 자각하고 조직적으로 뭉쳐서 일제

의 탄압과 수탈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문맹자를 위한 야학을 개설하고, 독서회와 강연회를 조직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일제의 탄압과 수탈정책에 조직적으로 대항했다. 몇몇 양양의 청년들은 러시아로 가서 몇 년씩 사회주의를 배워와 국내에서 항일 사회운동가로 활동하였다. 아울러 지역출신의 대학생들은 방학 때면 고향으로 내려와 교양강좌를 개설하고 강연을 조직하고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했다. 이들 대학생 중에는 이후에 사상가로 사회운동가로 걸출한 활동을 벌인 인물들도 다수 있다. 아울러 일찍이 봉건억압을 거부하고 가출하여 여성해방의 길로 매진한 양양 출신 여성도 있는 반면, 광복 후 반민특위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친일고등경찰도 있다.

1920년대 양양의 사회운동은 강원도의 청년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일제에 저항한 최고의 노동자 투쟁으로 기억되는 원산총파업 노동운동조직과도 조직적 연대를 같이 했다. 양양농민조합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농민운동 조직이었으며, 이에 위협을 느낀 일제는 전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대규모 검거선풍으로 조직원을 잡아들여 농민조합을 와해시켰다.

1920년대 이후 왕성했던 청년 · 농민 · 노동운동은 치열했던 양양만세운동을 계승하여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기미년 양양만세운동만 기억될 뿐이며, 만세운동을 계승한 대중운동은 모두 잊혀져 버렸다. 남북분단의 상황에다가 수복지구라는 설악권의 지역적 특수성이 중첩되다 보니, 지역의 과거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은 우리 향토사에서 대부분 배제된 것이다.

이미 일제하의 사회주의 계열의 노동운동과 농민운동도 모두 독립운동으로 인정되어 주요 운동가들은 국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고 있다. 양양농민조합운동과 관련하여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하지만 아직 지역 향토사에서는 이 시기 운동에 대한 연구와 기록은 크게 없으며, 당시 운동을 기념하는 상징기념물도 하나 없는 실정이다.

양양의 근현대 인물에 대한 서술은 지역인물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당시의 기록과 연구에 기초하여 잊혀져 있던 인물을 다시 복원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인물의 복원을 통해 누락된 양양의 근현대 역사의 한 장을 다시 재구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의 굴절된 현대사 때문에 잊혀졌던 인물인 안병하 씨를 다시 양양의 인물로 복원하였다.

4월이 되면 자랑스러운 양양만세운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기억될 것이다. 이제 만세운동을 계승한 사회주의 계열의 청년운동, 농민운동이 양양의 역사로 제대로 자리잡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양양만세운동의 의의를 제대로 살려내는 길이라 생각한다.

2. 만세운동 의로운 죽음 – 함홍기 · 김학구 열사

두 죽음, 전 군민 분노 · 항거 결정적 기폭제
함홍기, 경찰서장에 화로 들고 항의 순국
김학구, 고향 가는 장례 행렬 울음바다

1) 격렬했던 양양의 만세운동

기미년(1919년) 만세운동은 그 참가 인원과 격렬함에서 강원도에서 가장 큰 운동이었으며, 전국에서도 손가락 꼽는 치열한 항일독립운동이었다. 특히 양양지방에서의 3 · 1 만세운동은 지역 내 유림 세력과 기독교계, 천도교계와 농민, 현산학교 등 보통학교 졸업생과 학생 등 남녀노소와 계층을 뛰어넘는 전 군민의 운동이었다. 일제 기록에 의하면 양양만세운동은 1919년 4월 3일부터 9일까지 1주일 동안 군내 7개 면 132리 중 6개 면 82개 리에서 4천6백여 명이 참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참가자는 1만 5천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1] 사상자는 총칼에 쓰러진 12명의 열사를 비롯해 43명, 체포 인원은 142명, 옥살이를 한 사람은 73명이다. 시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최인식(崔寅植)은 법정 투쟁으로 형이 늘어나 총 3년 6개월의 옥살이를 해야 했다. 혹독한 태형(볼기)을 받은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 『신한민보』1919년 5월 31일자「내지독립단 소식」에서
4월 6일(四月 六日)에 양양군 읍내에서 다슈한 군중이 모여 대한 독립 시위 운동을 니르키는 고로 왜 슈비병과 크게 츙돌되여 다슈한 살샹이 잇엇다 하며

- 1923년 12월 1일 『개벽』 제42호, 「영서8군(嶺西八郡)과 영동4군(嶺東四郡)」 중 양양군(襄陽郡) 소개내용 중에서
기미년 민족운동시(己未年 民族運動時)에 강원도(江原道)로는 양양(襄陽)이 제일 격렬하얏다. 안이 강원도(江原道)뿐 안이라 조선에 멧재 안이갓섯다. 약(約) 1주일을 연속하야 만세(萬歲)를 부르고 검거(檢擧)된 者가 2,000여 명 수형자 백여 명 즉사자가 10명 중상자(重傷者) 40여 人에 지(至)하얏다.

- 1927년 9월 5일자 『동아일보』, 「순회탐방 '양양군편 4-사회단체」에서
반도강상(半島江上)을 뒤흔들든 기미운동(己未運動)에 십수(十數)의 인명(人命)을 희생(犧牲)하고 수천동포(數千同胞)로 하야곰 혹(惑)은 철창(鐵窓)에 신음(呻吟)하며 惑은 사람으로는 견대지 못할 가혹(苛酷)한 태형(笞刑)에 자못 경내(境內)가 살풍경(殺風景)을 일우어 피화(被禍)가 전조선(全朝鮮)에 제삼위(第三位)라는 논평(論評)을 밧게 되엿섯다. 당시(當時)에 극도(極度)로 팽창(膨脹)되였든 사조(思潮)는 일반청년(一般靑年)들노 하야금 대동단결(大同團結)의 필요(必要)를 절실(切實)히 늦기게 되야 ….

2) 조직적 항일 저항운동 발전

양양군의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고종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돌아온 이석범(李錫範)과 이에 부응한 이교완(李敎完)과 최인식(崔寅植), 개성 호수돈 여학교 재학생으로〈독립선언서〉를 몰래 갖고 낙향한 조화벽(趙和璧) 등이 주도적 인물로 손꼽힌다. 그러나 양양의 만세운동은 몇몇 인물의 자기헌신적인 투쟁만이 아니라 시위에 참가한 모두가 열렬한 독립의지를 보여주는 전 군민의 대중 투쟁이었다.

만세운동 후 양양지방은 극렬한 만세운동의 고장이라는 내외의 인정과 긍지 속에서도 일제의 가혹한 감시와 탄압을 감내해야 했다. 만세운동이 비조직적인 운동으로 실패했다는 반성은 양양 지역의 청년·농민 조직 운동으로 이어져 조직적인 저항운동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일제는 1932년 양양농민조합 사건으로 367명을 체포하고 이 중 36

여 명을 구속하는, 사상 유례없는 탄압으로 양양의 독립운동을 무참히 짓밟았다.

양양지방의 만세운동은 일제의 폭력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전 군민의 분노와 항거를 이끌어내는 데는 함홍기(咸鴻基)와 김학구(金鶴九) 등이 의로운 죽음이 결정적인 기폭제가 됐다.

3) 의로운 죽음 – 함홍기 열사

양양군 손양면 가평리 이장이었던 함홍기는 기미만세운동에서 가장 의로운 죽음으로 일제의 폭력에 항거한 열사이다.

함홍기는 1919년 4월 4일 양양 장터의 독립만세운동에 손양면 사람들을 추동(推動)해 함께 참여했다. 장터에는 수천 명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운동을 벌이고, 〈독립선언서〉가 거리마다 뿌려졌다. 이날 낮부터 일부 지방유지들이 전날 시위를 준비하다 체포된 22명의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서와 군청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감금되어 나오지를 못했다. 이를 알게 된 군중들은 경찰서와 군청으로 몰려들었고, 다시 몇 사람이 경찰서장에게 항의했다.



일본인 경찰서장 앞에서 죽음을 당하면서도 조선인의 기개를 떨쳐 보여준 함홍기 열사의 묘. 고향 가평리 마을의 평화로운 솔밭에 자리잡고 있다. 사진 촬영 엄경선. 2007년.



1963년 손양면 출신의 만세운동 열사 함홍기, 권병연을 추모하는 비가 손양면 간리 언덕에 세워졌다. 사진촬영 엄경선. 2007년.

함홍기는 경찰서장실에서 항의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화로를 들어 경찰서장에게 덤벼들었다. 이때 옆에 있던 사법주임이라는 자가 칼을 빼어 그의 팔을 자르고 허리를 찔렀다. 팔을 잃고 피를 흘리며 넘어진 그는 계속 굴하지 않고 경찰서장을 꾸짖다가 끝내 순국하고 말았다.[2] 조선인의 기개를 떨쳐 보여준 의로운 죽음이었다. 함홍기의 죽음은 독립만세운동을 벌이던 군중을 자극하여 격렬한 무력시위로 발전하게 했다.

경찰서 복도에 가마니로 덮어 놓았던 시신은 열흘 후에나 가족에게 인도되었으며, 일본 경찰은 함홍기의 장례 때도 동네 주민이 하관하여 시체를 묻으려고 할 때 관을 꺼내서 깨어버리며 행패를 부렸다고 전한다.

4) 통곡의 행렬 – 김학구 열사의 죽음

김학구는 강현면 침교리 사람으로 서면 상평리 권성심의 데릴사위로 있다가 독립운동에 참가했다. 4월 4일 양양장터 만세운동에서 함홍기가 왜경의 칼에 무참하게 살해되자 평화적 시위를 벌이던 군중은 격분해 폭력적으로 돌변했다. 돌과 몽둥이를 잡히는 대로 쥐고 군청과 경찰서를 때려 부수었다. 시위 진압에 앞장서며 군민을 탄압한 군수 이동혁을 죽이라고 외쳐댔다. 이에 경찰서로 쫓겨 들어간 일경은 날이 어두워지자 시위대를 향해 발포를 시작했다. 이때 상평리 김학구(金鶴九)와 간리 권병연(權炳淵)이 총에 맞아 쓰러졌다.


四月六日에 양양군 읍내에서 다수한 군중이 모여 대한독립시위운동을 니르키는 고로 왜 슈비병과 크게 충돌되여 다수한 살상이 잇섯다하며

양양

1919년 5월 31일자 신한민보(재미교포 신문) 2면 내지독립단 소식에 실린 양양의 만세운동 소식. (출처,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타베이스. 2009년 11월 확인)

4월 6일 김학구의 장례식이 열린 상평리는 온통 통곡의 행렬이었다. 상여 행렬은 "대한독립만세!"와 상여곡을 번갈아 부르며 원통한 영혼을 위로했다. 면사무소는 돌에 맞아 유리가 깨지고 직원들은 모두 도망갔다. 상평리에서 출발하여 김학구의 고향인 강현면 침교리로 향한 상여는 물갑리 고개에서 김학구의 고향 마을에서 온 빈 상여에 시신을 인계했다. 물갑리 고개에서 상여행렬은 마침 양양경찰서로 진입하는 강현면과 도천면의 시위대와 마주쳐 김학구의 시신 인계 현장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전한다.[3)]

이렇듯 처절한 장례를 치른 김학구의 묘는 일경의 혹독한 탄압으로 며칠 후 다시 시체를 파내어 옮겨야 했다고 전한다.

3. 만세운동을 주도한 유림 대표 – 이석범

양양 유림의 대표적 인물, 신간회 양양지회장
1913년 쌍천서숙 설립
만세운동 쌍천서숙 출신 등이 주도

1) 양양의 유림을 규합해 반동학군 조직

이석범(1859~1932년)은 함평 이씨로 조선 인종 원년에 양양부사를 지낸 이춘령의 후손이다. 자는 사일(士一), 호는 설초(雪樵)이다. 양양 임천리에서 태어나 일찍이 부모를 따라 도천면 중도문리(지금의 속초시 설악동)에 이주하여 어린 시절부터 한학을 익혀 1884년 25세의 나이에 초시에 급제했다.

이석범이 양양 유림의 대표 인물로 부각된 것은 갑오년(1894년) 10월 2차 동학농민전쟁 때 강원도에서 발기한 동학농민군에 맞서 동생 이국범과 함께 양양의 유림을 규합해 민보군을 조직, 홍천 내면 일대에서 동학군을 패퇴시키는 등의 공을 세워 『갑오군공록』[4]과 『동학당정토인록』[5]에 이름이 올랐다. 『동비토론(東匪討論)』과 『임영토비소록(臨瀛討匪小錄)』에는 이석범과 동생 이국범의 행적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강원도의 동학농민군은 초기에 그 수가 수천에 이르러 강릉관아를 점령하는 등 세력이 대단했으나 결국 관군과 민보군의 포위 공격에 진압되고 말았다.

> 1919년 양양군의 기미만세운동을 기록한 국가보훈처의 『독립운동사』에서 원로 사학자 조동걸 교수는 "양양(襄陽)은 극단적인 보수성과 극단적인 혁신성이 병존하는 고장"이라며, "극단적이라는 공통성이 보수든 혁신이든 항일운동이라는 공동 목표에 집약되어 치열한 3·1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양은 당시 유교와 기독교 세력이 공존해 있었으며, 구한말부터 신문화운동이 시작되면서 자리잡은 기독교 세력이 크게 활성화된 지역이며, 유림으로 대표되는 보수 세력도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고장이라는 것이다.
> 바로 이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 기미년 양양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설초(雪樵) 이석범(李錫範)이다.

2) 유학 계통의 쌍천서숙 설립 및 후학 양성

이후 이석범은 광무 2년(1898년) 중추원 3급 의관에 임명되고, 광무 8년(1904년)에 군기창 기수에 임관되었다. 1910년 한일병합이 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했다고 전한다. 특히 개화파의 선구자인 남궁억(南宮檍)이 양양군수로 재직하던 1906년에 현산학교를 세워 신문화운동 세력이 커지자 1913년경 유학 계통의 학교인 '쌍천서숙'을 설립해 정통 사상을 유지하는데 노력하였다. 도문에 위치했다는 쌍천서숙(일명 쌍천학교)은 1940년대 속초읍장을 지낸 박상희를 비롯해 많은 지역 인재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19년 기미만세운동에도 도천면과 강현면 일대에서는 김영경, 장세환 등 쌍천서숙 출신이 운동을 주동하고 참가했다.



설초(雪樵) 이석범은 한국독립운동사에 일획을 긋는 기미년 양양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로 양양 유림의 항일운동을 대표한다.(사진제공, 속초문화원)

1919년에 작성한 일제의 자료에 의하면 이석범은 도천면장(道川面長)으로 기록되어 있다.[6] 그 후에 작성한 왜정인물사료에는 기미만세운동 이전에 양양 현산학교장, 양양금융조합장, 도천면장을 거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듯 이석범은 양양 유림을 대표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로 왕성한 사회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당시의 도천면장이나 금융조합장의 직책은 일제의 통치와 일정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

3) 기미년 양양만세운동 주동

기미년(1919년) 3월 고종이 일본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풍문이 나돌아 민족 감정이 격앙된 가운데, 고종의 인산(因山)에 참례하고 돌아온 이석범은 버선 속에 〈독립선언서〉를 숨겨와 만세운동을 준비했다. 도천면과 강현면 일대는 동생 이국범과 아들 이능렬, 쌍천서숙 출신들에게 맡기고 본인은 함평 이씨 문중이 있는 임천리에서 만세운동을 추동(推動)했다.

그러나 양양읍 장날 만세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인 1919년 4월 3일, 이석범은 만

세운동에 쓸 태극기를 만들던 사람들과 함께 주동자로 체포되었다. 다음날 강원도 장관의 양양만세운동에 대한 전화보고문에서도 "유력한 면장도 가담했다."는 내용이 포함될 정도로 면장 출신인 이석범의 독립운동 주도는 일제로서 놀라운 일이었다. 당시 양양경찰서장인 왜인은 이석범에게 함평 이씨 문중의 독립운동을 막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이석범이 이를 무시하고 만세운동을 직접 주도했다고 화를 냈다는 뒷이야기도 전해 온다.

3·1운동 후 일제의 인물 기록[7]에는 "배일사상을 품고 1919년 4월 양양에서 일어났던 만세 사건에 주모자로 관계하여 원산지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 결과 무죄가 됨"이라고 전한다. 이석범은 비록 형은 면했다 하나 몇 개월의 구금생활과 가혹한 일경의 취조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

4) 신간회 양양지회 회장으로 활동

이석범은 일경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1926년 6월 순종 인산(因山)에 참례하고 1927년에는 월남 이상재 선생이 주도한 민족협동전선운동인 신간회 운동에 참여하여 1927년 11월 20일 창립된 신간회 양양지회의 초대회장을 맡는다. 신간회 양양지회는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설립되었으며, 미신 타파와 조혼 금지, 단연과 아편 흡연 추방 등 계몽운동과 생활, 생존권 수호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또한 8월 29일을 국치일로 정하고, 이 날의 치욕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하여 밥을 먹지 않고 죽을 먹기로 하는 등 반일운동 확산에 힘을 기울였다.


新幹襄陽支會
去二十日設立
襄陽地方에서는去月三十一日에
新幹襄陽支會設立準備會가잇슨
伊來準備委員들은準備에紛忙中
아돈바確定대로지난二十日에設
立大會를襄陽面樂浪座에
▲會長李錫範 ▲副會長金顯恒
▲庶務財政部咸利鎬、金斗善
李燦雨、李圭漢 ▲政治文化部
權容大、金瑞鳳、金落圭、朴鼎
鎬 ▲調査研究部金炳煥、金炳
善李陽燮、李建忠 ▲組織宣傳
部擬定、吳日泳、金顯哲、馬
祝電祝文數十通을朗讀하고規約
通過가엇다나자任員選擧가잇슨
데그被選된氏名은如左하며午後
三時半에無事히閉會하엿고連하
야發會會場開하고各項決議가잇
섯다더라(襄陽)

신간회 양양지회의 창립을 보도한 1927년 11월 25일자 동아일보 기사. 이석범이 회장을 맡았다.

양양 지역의 신간회 활동은 다른 지역의 신간회보다 활발한 활동을 벌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일제는 신간회 창립 1주년 기념식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방해 책동에 나섰다. 양양의 신간회는 청년운동 세력이 주축이 되어 활동했으나 1930년대 이후에는 양양농민조합을 중심으로 한 운동이 활발히 펼쳐

지면서 상대적으로 정체에 빠지게 된다.

이석범은 1932년 9월 향년 74세를 일기로 작고했다. 쌍천서숙을 설립해 후학을 양성하고, 기미년 양양의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신간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양양 유림의 대표적 인물로 항일운동에 바친 그의 헌신적 노력은 후대의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각종 기록과 참가자들의 증언으로 충분히 고증됨에도 그의 만세운동 주동 경력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만세운동 전 양양금융조합장과 도천면장을 지낸 경력도 그의 공을 반감시키고 있다. 그래서인지 실형을 살았던 그의 동생과 아들이 모두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음에도 아직도 독립유공자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있다.

4. 양양교회 담임목사 김영학의 독립운동

양양만세운동 행진 주도로 옥살이…
감리교회 목사로 임시정부 지원 비밀결사 활동
연해주 신한촌에서 선교 활동 중 옥사

1) 양양 만세운동 당시 대중연설과 행진 주도

김영학(金永鶴) 목사는 1933년 블라디보스토크의 한인촌에서 포교 활동 중 러시아 당국의 탄압으로 옥사해, 선교 활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로 우리나라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그가 독립운동을 벌였던 양양 지역에서는 그를 기억하는 기록이 거의 없다.

양양의 만세운동에서 찾아볼 수 없던 김영학 목사의 행적은 기미년 만세운동 다음 해인 1920년 상해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국내 비밀결사조직인 '대한독립애국단(속칭 철원애국단)' 의 양양단장으로 활동하다 검거되어 옥고를 치룬 것에서 확인된다.

양양 지역은 이미 1901년 성내리교회(지금의 양양교회)가 처음으로 들어서고 1908년 조산리교회, 1910년경 물치교회(물치리 소재)와 광정교회(상광정리 소재)가 들어서면

서 하나의 교회 구역을 형성해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

기미년 만세운동 당시 양양 지역의 교회와 교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남감리교회 간성구역장으로 양양교회를 담임하고 물치 · 조산 · 광정교회를 순행하며 목회 활동을 한 김영학(金永鶴) 목사로 알려져 있다. 그는 1877년 황해도 금천군 조포동에서 출생하여 1907년 세례를 받고 서울 광희문 교회, 수표교 교회를 거쳐 1918년 양양교회 목사를 맡았다.

부인 안원정 씨에 따르면 김영학 목사는 순회 강연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애국애족사상을 고취시켰다. 아울러 만세운동 당시 시위 군중 앞에서 연설을 하고 행진을 지도하다가 순경에게 잡혀가 무수히 매를 맞고 서대문감옥에서 6개월을 보내고 출옥했다.[8] 양양만세운동은 조화벽, 김필선, 김재구 등 감리교회 청년들의 개인적인 거사가 아니라 담임목사를 포함해 양양의 감리교회 전체가 나선 조직적인 거사라는 의견이다.

>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역사신학을 전공한 최양섭 씨는 석사 학위 논문(1997년) '일제하 양양 지방의 독립운동과 기독교인의 역할'이라는 논문에서 양양 지역의 만세운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대해 "교회 측의 기록이 잘못되거나 양양교회의 김영학 목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당시 유일한 조직력과 다소의 민족의식 성향을 지녔던 교회의 조직적인 참여를 다루지 못하고 개인적인 참여로만 기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논문에서는 양양만세운동에 참여하고 이후 대한독립애국단 사건으로 옥고를 치룬 김영학 목사에 대해 부인 안원정씨의 증언과 당시의 기록 등을 근거로 상세히 소개하였다.

2) 대한독립애국단 양양군단장 활동

김영학 목사는 그 해 10월 같은 고향 출신이면서 절친한 사이인 조종대로부터 대한독립애국단의 설립 취지를 듣고 이에 동의해 그 지부인 양양군단(襄陽郡團)을 결성하고 군단장을 맡았다.

1919년 5월 서울에서 신현구 등이 주도해 결성한 대한독립애국단은 본부를 서울에 두고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등지에 지단(支團)을 설치했는데, 양양군단은 이러한 강원도단의 산하 조직이었다. 특히 철원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단의 조직과 활동이 활발해

대한독립애국단은 속칭 철원애국단으로 통한다. 강원도에는 철원과 강릉, 양양, 평창에 지단을 구성했다. 애국단은 주로 임시정부의 존재를 알리고, 재정자금을 모집했으며, 국내의 비밀조직망을 통해 임시정부를 지원했다.

양양군단 결성 이후 그는 김형석(金亨錫)과 이근옥(李根玉), 이석규(李錫圭), 김연수(金延洙) 등 당시 양양군에 포함된 토성면 소속 지인들을 애국단에 가입시키는 등 조직 확대에 힘을 쏟았다. 아울러 애국단의 취지에 동감하는 젊은 청년을 모집해 상해가정부(상해임시정부)에 보내어 독립운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희망자는 상해로 건너가는 일을 거들어줄 비밀조직원에게 보내는 소개장까지 써줬다. 1919년 10월 김영학의 권유를 받은 이근옥과 김연수, 이석규, 문명섭은 상해임시정부에 직접 참여할 것을 결의하고 서울로 올라가 대한독립애국단 본부와 교섭을 시도했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본부 단원들이 도피 중이던 상황이라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1920년 1월 강원도단 조직이 발각되어 일경에 피검된 김목사는 그해 2월 2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아 서대문감옥에서 2년간 옥고를 치렀다.[9)]

이러한 연이은 항일운동의 경력으로 김영학 목사는 일제의 사찰 기록인 용의조선인명부[10)]에 '민족절대독립주의, 배일사상 소유자'로 기록될 정도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게 됐다.

3) 러시아 선교와 독립운동 중 해외서 옥사

출옥 후 가평교회 담임목사로 있다가 교회 본부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신한촌에 교회 설립과 책임목사일을 맡을 사람을 물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해 연해주로 넘어가게 된다. 이곳에서 선교 활동은 물론이며, 만주 지방의 독립투사들과 연락하며 왕래를 했고, 교회 헌금으로 독립투사들을 원조하는 데 애를 썼다고 전한다.

러시아혁명 이후 공산국가가 된 시베리아 일대에서의 선교 활동은 1930년대부터 중단되기에 이른다. 탄압에 못 이겨 다른 목사들과 교인들이 러시아를 탈출하는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가 1931년 강제노동형 10년형을 선고받고 시베리아 북쪽 유동감옥에서 영하 40~50°의 혹한 속에서 강제 노역을 하던 중 사망했다.

4) 양양지역 김영학 목사의 영향


露領에서 獄死한
金永鶴牧師
昨日 宗橋堂서 追悼
一九二一년에 서비리아 선교회에 제二세 선교사로 파송 되었든 김영학(金永鶴) 목사는 기독교를 선전하다가 一九三〇년 一월三일 애장포교회(愛彰布敎會)에서 포도와가를 소련(蘇聯) 관헌에게 체포되어 十一월경에 노령치다가 (옥구운) 감옥에서 복역하다가 작년 九월에 라재시까다 감에앗는 감옥으로 이감되어 복역중에 작년 十一월경에 노령치다가 (옥구운) 에 걸려서 무참이도 이명의 쓸쓸한 감방에서 사망하였다는데 이 소식을 들은 경성 감리교역 서회에서 二十九일 오후 三시에시내 종교(宗橋) 예배당에서 추도회를 거행하였다 한다。
◇사진은 고김영학목사

김영학 목사의 순교를 알리는 동아일보 1933년 10월 31일자 기사.

기미년 만세운동과 대한독립애국단 활동으로 이어지는 항일운동은 이후에도 양양 지역의 기독교 세력에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 판단된다. 3·1운동을 주도한 다수의 청년 기독교인들은 1920년대 계몽운동적 성격이 강한 지역 청년운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1921년 3월 13일자 『조선일보』에는 '양양웹엣청년회' 창립 기사가 게재되었다. 웹엣청년회는 전국적인 기독교 청년 단체로 구한말 서재필, 윤치호 등이 주도했으며, 김구도 진남포 웹엣청년회 출신이다. 양양웹엣청년회는 1921년 2월 18일 14:00에 양양군 예배당 내에서 김형식(金亨植), 최우집(崔禹集), 최인식(崔寅植), 장세환(張世煥) 등 10여 명의 유지와 청년들의 발기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회원은 70여 명에 달하고, 회장은 박종명(朴鐘溟), 부회장 장세환(張世煥), 서기 최인식(崔寅植), 서기 이원희(李源熙), 종교부장 오현영(吳顯泳), 사교부장 최희국(崔熙國), 문학부장 박상희(朴祥喜), 자선부장 최우집(崔禹集)이 피선되었다.

양양웹엣청년회는 청년 유학 지원, 전도 사업 노력, 토론 및 강연회 개최 등을 사업으로 삼았다. 이후에 웹엣청년회는 관동학우회의 순회 강연단 활동을 지원했으나 일제로부터 허가 없이 금품을 모집했다고 벌금을 처분받는 등 탄압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웹엣청년회에 사상적으로 좌·우 경향의 청년들이 함께 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부회장 장세환과 문학부장 박상희는 이후에 강현면장과 도천면장을 지냈으며,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최인식은 사업가로 변신했다. 최우집은 양양에 사회주의 사상을 가장 먼저 전파한 인물이다.

1920년대 양양의 청년사회운동은 사회주의 운동 계열이 주도하지만, 만세운동 이후에 최초로 만들어진 청년사회운동 단체가 기독교 관련 단체였다는 점은 큰 시사점을 남겨주고 있다.

5. 양양의 사회주의 운동가 – 김대봉 · 이건호

김대봉, 1925년 양양신청년동맹 창립 주도
김대봉과 이건호, 조공재건운동으로 투옥
양양의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출신들

1)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으로 함께 법정에 섬


1932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김대봉(자료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1, 단행본 450p.)

1920년대와 1930년대 양양의 청년운동과 사회운동을 주도하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운동의 한 역사를 기록했음에도 지역에서는 잊혀진 인물이 바로 김대봉과 이건호이다.

1934년 9월 17일 비공개로 열린 경성지방법원 재판에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꾀한 김대봉에게 징역 4년, 이건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두 사람은 모스크바 공산대학을 졸업하고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국내로 들어와 공산당 재건을 목적으로 각지에서 활동하다 검거되었다.

1919년 기미년 만세운동 이후 국내에서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이 급격히 약해진 상황에서 1924년 최초로 결성된 조선공산당이 탄압 속에도 4차례나 재건되었으나 1928년 대규모 검거와 탄압으로 다시 와해되고 말았다. 1920년대 활발했던 사회주의 운동은 1926년 6 · 10만세운동과 1928년 원산총파업, 1929년 광주학생운동 등 일제에 대항하는 대중운동의 직접적인 동력이 되었다. 조직 와해 이후 사회주의 운동은 모든 힘을 쏟아 재건운동에 나섰는데, 일제의 탄압도 극렬하여 조선공산당 재건 관련 조직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던 시점이었다.

김대봉과 이건호, 이 두 사람은 와해된 조선공산당 조직을 재건하기 위해 노동조합 건설 등 대중조직 건설을 꾀하다가 1931년에 이건호가 먼저 체포되고, 1932년에 김대봉이 체포되어 함께 법정에 출정하게 됐다. 김대봉과 이건호는 동향 출신으로, 한 살 더 많은 김대봉은 강현면 물치리 출신이며, 이건호는 도천면 중도문리(지금의 속초시 도문

동 중도문리) 출신이다. 두 사람은 출생지가 이웃 마을일 뿐만 아니라 학교도 서울 중동학교를 다녔으며, 1925년에 창립된 양양신청년동맹의 초대 집행위원으로도 함께 활동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약칭 共大) 출신으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도 함께 활동했다.

2) 교사출신 사회주의 운동 전개 – 이건호

이건호는 1902년 도천면 중도문리 596에서 출생하여 1920년 서울 중동학교 중등과에 입학, 1923년 고등과 2부를 졸업한 후 1부에 입학했다가 곧 중퇴했다. 1924년 6월에 강원도 화천에서 광동학교 교사로 지내다가 그해 말 양양에서 중등학교 입학 과정 강습소를 설치했다. 1925년 9월 고려공산청년회에 가입하여 11월경 상해로 넘어가 고려공청의 추천으로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 입학했다.

공산대학을 졸업하고 모스크바의 노력중앙연구소에서 3개월간의 실습 과정을 거쳤다. 1929년 12월경에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해 입국한 후 인천에서 활동했다. 1931년 4월 이후 서울에서 조선공산당 재건과 관련해 팸플릿을 작성하는 한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조직운동을 전개했다. 11월경에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1934년 9월 경성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3) 노동 · 청년운동 전개 – 김대봉

1901년 강현면 물치리 32번지에서 태어나 어려서 서당에서 8년간 한문을 배웠다. 그 후 서울 중동학교 야학부를 다니다가 중퇴했다. 1922년 9월 양양 호산(湖山)기독청년회를 조직하고 총무가 되었다. 1923년 오룡영과 김동환, 최우집(일명 최욱) 등과 함께 물치노농동맹을 결성했으며, 1924년 조선노농총동맹이 창립되자 양양 지역의 대표로 파견되기도 했다. 다음해에 중앙집행위원까지 맡게 된다. 당시 중앙집행위원에는 강달영과 권오설 등 국내 주요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다수 포함됐다.

1925년 1월 양양신청년동맹 창립을 주도했으며, 2월에는 일제의 탄압으로 집회가 불

허된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 양양 지역 준비위원으로 참가했다. 양양신청년동맹은 이후 양양 지역의 민족운동을 이끌어가는 주축세력이 되었는데 무산청년의 계급의식 각성을 위한 수양기관과 언론기관 설치, 강연회와 연구활동, 연극, 토론활동 등을 펼쳤다. 당시 그는 조선일보 양양지국 기자로 재직했다.

양양신청년동맹은 1925년 11월 9일에는 한용운의 강연을, 11월 21일에는 사회주의 운동가 송봉우의 강연을 개최하였다. 특히 당시 신문지국과 기자들도 지역청년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신문에는 이들의 활동이 비교적 상세히 전국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찰의 용의조선인명부 자료[11]에 의하면 김대봉은 1923년 8월 노동문제에 대한 강연을 개최하여 "노동자의 지위를 확보하고 향상시키는 등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자녀교육이 최고"라며 노동야학의 필요성을 고취했다고 한다. 아울러 항상 노동자를 모아 노동문제와 공산주의를 얘기하고 있어 정치범죄 전과자와 은밀히 만나 일을 도모할 위험이 있다며 요시찰 인물로 주목했다.

1925년에는 군수 관사 건축비용 등 징수에 관한 군민대회에서 군수가 납세의 선전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자, 군수에게 "조선인이 생활 곤란에 빠져 있을 때의 납세선전은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며, "납세 활동이 극도로 저조한 것은 납세제도가 쓸모없고 관청의 보호가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고 한다.

4)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으로 투옥

김대봉은 청년운동을 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에 적극 가담했다. 1923년 봄 서울에서 사회주의 조직인 토요회에 가입했으며, 1925년에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에 가입하였다. 1926년 12월에 강달영과 권오설의 추천으로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 입학하여 1928년 6월에 졸업했다.

그해 9월 귀국하여 사회주의 운동에 참가하다가 1929년 1월 일본 경찰의 검거를 피해 소련으로 망명했다. 1930년 12월 코민테른 동양부로부터 공산당 재건운동을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라는 지시를 받고 귀국하여 활동하다가 1932년 검거되었다.

출옥 후에는 1940년 1월부터 6월까지 동아일보 양양지국을 운영했다. 김대봉에게 이


재판을 받기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김대봉의 모습. 1934년 9월 11일자 조선중앙일보에 게시된 사진(자료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타베이스)

시기는 변절의 시기였다.

1939년 6월 1일자 『조선일보』는 양양의 사상 전향자 11명과 지방유지 12명이 사상보국연맹 함흥지부에서 보조금 5백 원을 얻어 동경과 대판 등 선진국을 시찰하고 궁성 각 신사에 참배하고 강원신사 확장 공사에 근로보국을 하고 귀향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다. 기사에서는 이 사상 전향 시찰단의 대표로 김대봉이 거명되었다. 중일전쟁을 계기로 일제는 사회운동가들을 전향시키려고 혈안이 되었으며, 특히 기미년 만세운동 이후 치열하게 일제 체제를 위협했던 양양의 사회운동가 전향에 많은 공을 들였다. 김대봉은 사상 전향의 대표적인 인물로 일제 체제에 협력하였다.

김대봉은 광복 후 1945년 10월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파견원으로 강원도당 간부를 재편하고 철원인민정치대학 교장이 되었다.

김대봉의 동생 김대선(金大先)은 1919년 4월 5일 강현면 물치장터의 만세운동에 물치리 주동자로 참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는 16세였다.[12] 그리고 1923년 20세의 나이에 학생신분으로 동아공산당 사건의 주동자로 6년형을 선고받아 서대문형무소에서 형을 살고 1927년에 출옥했다. 김대선은 만주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배워온 황돈과 함께 동아공산당이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권총과 경고문, 사형선고문을 갖고 서울의 부호 집에 침입해 금전을 강탈했다는 혐의로 일경에 체포되었다. 김대선의 활동은 조직적인 사회주의 활동이라기보다는 아나키스트적인 활동에 더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5) 그 외 공대(共大) 출신 운동가들

양양 지역은 강원도 다른 지역보다 공대 출신 사회운동가들이 많다. 김대봉과 이건호 이외에도 노상렬, 최공집, 조두원 등도 공대(共大) 출신이다.

노상렬(盧想烈, 1904~?)은 2004년 보훈처가 제출한 사회주의 계열 서훈 보류자 113명에 포함된 인물이다. 노상렬은 1926년 6 · 10만세운동을 주도하여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한 조선공산당의 전남총책을 맡은 인물이다.

당시 조선공산당은 '6 · 10운동투쟁지도특별위원회'(총책임자 권오설)를 설치하고, 당원 및 인쇄직공 조합원들은 격문 5만여 매를 인쇄하고, 전국 58개 지역을 잇는 조직 연락망을 완성하였다. 6 · 10만세운동 이후 일제는 조선공산당 조직 색출과 파괴에 열을 올렸다. 노상렬은 강달영 등과 함께 제2차 조선공산당 사건에 연루되었다.

노상렬은 양양 출신으로 원산, 청진, 북간도에서 생활하다 러시아로 이주, 1923년 12월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 입학하여 2년간 수학하였다. 1925년 12월 귀국하여 조선일보 광주지국 기자를 지내면서 고려공청 전남도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6월 일본 경찰에 수배되어 가택 수색을 당했으나 도주했으며, 8월 '통일고려공청' 중앙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그 후 서울에서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1928년 2월 경성지법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공대(共大) 출신인 최공집(崔公集, 1912~?)은 양양 청곡리 출신으로 양양에서 보통학교를 5년간 수학했다. 1927년 4월 서울 보성고보에 입학해 1930년 9월 동맹휴교를 주도하여 퇴학당했다. 1932년 서울에서 가구점의 목공으로 일하다가 11월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속성과에 입학해 다음 해인 1933년 9월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해 귀국하여 평양에서 목공으로 일했다. 1934년 3월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검거되어 10월 평양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광복 후 1945년 11월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 대회에 참석하여 강원도 확대위원으로 선임되었다.[13)]

6. 봉건 억압을 거부한 여성운동가 – 조원숙

조선동우회 · 근우회 등 여성운동가로 활동
15세에 포매리에서 야간 도주, 상경 유학
사회주의자와 결혼, 험난한 인생

1) 조선동우회 · 근우회 등 여성운동가로 활동

1920년대 일제 치하의 조선 여성은 이중 삼중의 억압에 시달려야 했다. 일제의 착취와 수탈에 덧붙여, 가부장적인 사회의 봉건적 억압으로 교육과 취업에서의 불평등은 물론이며, 가정과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억압된 삶을 살아야 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적인 봉건적 억압을 과감하게 떨치고, 식민지 여성의 해방을 위해 여성운동의 한길로 나섰던 사람이 바로 양양의 조원숙(趙元淑, 1906~?)이다. 조원숙은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한 축인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현남면 포매리가 고향인 조원숙은 1924년 우리나라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시초가 된 조선여성동우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1927년에 결성된 여성운동 단일 조직인 '근우회'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특히 조원숙은 같은 여성운동가들 중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봉건적 삶을 능동적으로 거부하고 여성운동의 길로 나섰다는 점에서 당시 언론으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았다.

〈15살에 야간 도주, 상경 유학〉
"나의 시골집은 강원도의 작은 읍인 양양입니다. 교통 불편은 물론이고, 집안도 구식 가정으로 행세나 하는 가정인 까닭에 남자의 유학도 잘 허락하지 않거든 어찌 여자의 유학이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서울로 유학하고 싶은 생각이 봄불 타오르듯 하여 자나깨나 밤낮으로 공부하러 갈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며칠씩 밥도 잘 안 먹고 심지어 병까지 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열다섯 살 되던 해 5월 14일 밤이었습니다. 나는 아주 죽기까지 결심하고 도망가는 과부모양으로 봇짐을 싸가지고 부모도 친척도 동네사람들도 다 모르는 중에 교군(轎軍, 가마꾼) 하나를 잡아타고 표연히 집을 떠나

양양과 강릉의 접경지 되는 지경리까지 와서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그때는 마침 춥지도 덥지도 않은 첫여름의 보름밤이라 중천의 둥근달은 초롱같이 밝고 만산의 무르녹는 새 녹음은 그림의 족자와 같은데 나의 시원하고 상쾌한 마음이야 어찌 다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옥중에 있던 죄수가 옥문을 나오고 통 속에 있던 새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1927년 8월 17일 잡지 『별건곤』기사 재정리. 자료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타베이스.)

1906년 현남면 포매리에서 태어난 조원숙은 15세에 서울로 공부하러 가기 위해 가출을 했다. 그의 고향인 포매리는 한양 조씨 집성촌으로 보수적인 집안 분위기에 감히 여자가 신학문을 하겠다고 엄두를 낼 수도 없는 분위기였다. 당시 가출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집안에서 강제로 결혼을 정해 놓아 혼례 전날 밤에 시집가기 싫다고 서울로 도주하여 온 통쾌한 여성"이라고 하기도 했다.

2) 사회주의 여성운동단체 결성 주도

고향을 등지고 가출하며 서울에서 근화학원(덕성여대의 전신)을 다녔다. 그러나 2학년을 다니다가 동맹휴학을 주도하여 퇴학을 당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운동과 여성운동에 나서게 된다.


會衆千名의盛況
槿友會創立完了

일제하 여성운동사상 가장 큰 단일조직으로 출범한 근우회 창립소식을 실은 1927년 5월 29일자 조선일보 기사 (독립기념관 DB자료). 근우회의 창립멤버의 한 사람인 조원숙은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고 보도되었다.

우선, 우리나라 여성의 굴레를 상징하는 삼단머리를 잘라내어 단발여인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1924년 5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여성운동단체인 조선여성동우회 결성에 참여하여 집행위원이 되었다. 1926년 6월 제2차 조선공산당 검거사건에 연루되어 일본 경찰에 검속되었으나 곧 석방되었다. 당시 그의 오빠인 조두원(趙斗元)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 중국 북경으로 피신하였으나 여동생 조옥화와 부친 조석구는 조원숙과 함께 체포되었다.

1927년 4월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통합 조직인 중앙여자청년동맹의 집행위원을 맡았으며, 5월에는 기독교 계열 여성운동과 사회주의 여성운동이 힘을 합친 '근우회'(항일 여성운동단체) 결성에 나서 집행위원 및 서무부원을 맡았다.

그녀는 김활란(광복 후 이화여대 총장 재직), 황신덕(추계예술대학교 설립자) 등과 함께 근우회 창립준비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창립대회 준비를 위해 전 조선의 단체에 보낼 공문을 작성하는 공문작성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27년 5월 27일 근우회 창립대회에서 21명의 집행위원 중 한 명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이틀 뒤 열린 근우회 제1회 집행위원회에서는 서무부 책임자가 되었으며, 7명의 상무집행위원 중 한 명으로 선출되었다.

근우회는 1931년 해소될 때까지 여성문제에 대한 토론회와 강연회 개최, 야학 실시, 문맹 퇴치 및 여공 파업 진상 조사, 항일학생운동 지원 등의 활동을 펼쳤다. 근우회는 전국에 70여 개의 지부를 두었으며, 회비를 내는 회원수만 2천9백여 명에 이르렀다. 근우회는 일제의 탄압과 좌우분열 등으로 해소되었지만 우리나라 여성운동사에서 획기적인 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3) 미모와 활동에 대한 언론의 관심

근우회 활동으로 사회에 알려져 언론의 관심은 각별했다.

- 「사랑이 잡아간 女人群」, 『별건곤』, 1932년 11월 1일자. 자료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타베이스.

근우회에서 미인이 누구냐 하면 그를 가르켰고 또 충실한 일꾼이 누구냐 하면 역시 그를 가르켰다. 그러나 풍염한 얼굴과 어글어글한 눈, 단발의 미, 좋은 체격 등 모든 조건은 이성의 사람을 끌기에 너무 충족하여 일하는 전도에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

- 『삼천리』, 1932년 7월 1일자. 자료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타베이스.

조선여성동우회 당시에 미인으로 평판이 자자하든 그는 … 그리하야 근우회의 집행위원으로 어디를 가든지 대모테안경에 기름한 그의 얼굴이 보이지 않은 곳이 없더니….

당시 서울에는 4미인(四美人)이 있었다고 한다. 주세죽(朱世竹), 허정숙(許貞琡), 심은숙(沈恩淑), 조원숙(趙元淑). 이 중 주세죽은 박헌영의 부인이 되었으며, 허정숙은 변호사 허헌의 딸로 후에 북한에서 여성으로서는 최고의 지위인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에 오른 인물이다. 이들 4명의 여성은 당시 여성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조원숙은 다른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이 그러하듯 사상적 동지를 남편으로 맞았다. 조원숙은 경남 통영 거제도 출신으로 북경대학을 나온 양명(梁明)과 결혼했다. 양명은 고려공청 책임비서를 지냈으며, 결혼 당시 조선일보 기자를 지냈다. 1928년 초 양명이 조선공산당 재건사건에 연루되어 북경으로 망명하자 조원숙도 따라갔다. 중국 상해에서 딸아이를 낳고 양명과 계속 지내기 어려워 귀국해 시집인 통영과 친정인 양양에서 지냈다. 근우회의 맹장이라고 했던 조원숙의 변한 모습에 모두들 놀랐다.

> -『삼천리』 1932년 7월 1일. 자료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타베이스.
> 지난 4월 말에 우연히 京城驛에 나갔다가 머리는 흩어지고 어린아이는 등에 업고 고무신에 낡은 치마, 그리고 치마 안으로 보이는 돈주머니, 그 초초한 행색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미인에 모양내기로 유명하든 그가 이제 웬일일까?

4) 광복 후 조선부녀총동맹 활동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 17일, 일제강점기에 근우회에서 활동하던 여성활동가들이 주를 이루고 사회주의계와 기독교계 여성 지식인들이 모두 참여해 건국부녀동맹을 결성했다. 여기서 집행위원을 맡았다. 건국부녀동맹은 그해 12월 조선부녀총동맹(약칭 부총)으로 개편되었는데 대표 준비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아울러 1946년 1월 17일자 자유신문에 부녀동맹의 대표 자격으로 "38° 선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 민족통일을 이루고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전날부터 열리고 있는 미소공동위원회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였다.

전국에 80만 명의 회원을 두게 된 부총은 남녀평등 선거권과 피선거권, 여성의 경제적 평등권과 자주성 확립, 남녀 임금 차별제 폐지, 모자보호법 제정, 봉건적 결혼제 철폐를 내걸고 운동을 벌였다.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한 부총은 활발한 운동에도 불구하

고 미군정의 탄압으로 활동이 위축되고 말았으며, 한국전쟁을 전후로 남한에서의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맥이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다.

1948년 8월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행적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7. 6 · 10만세운동 주도 – 조두원

1) 연희전문 출신으로 6 · 10만세운동 주도

연희전문 때 6 · 10만세운동 주도로 쫓겨
대화숙 참여 친일파로 전향 활동
남로당 중책, 박헌영 간첩사건 증언자로 나서

양양 출신의 최용달과 함께 일제시대의 사회주의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로 조두원(趙斗元, 1903~1955?, 일명 조일명)을 들 수 있다. 현남면 포매리 출신으로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조원숙의 오빠이다. 남매가 모두 사회주의 운동가로 역사에 기록된 드문 경우이다.


1930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당시 조두원의 모습(자료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8, 단행본 43p.)

일제하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조두원은 광복 후 정국에서 박헌영의 비서 격으로 남로당의 중책을 맡아 활동하다가 월북했으나 1953년 북한정권으로부터 미제 간첩 및 반역 행위의 혐의로 이승엽 등과 함께 사형선고를 받았다.

사회주의자로 해방정국의 좌익 정치인으로 근현대사의 한 장을 기록한 그의 삶이지만, 남한에서는 친일 전향 공산주의자로, 북한에서는 미제 간첩 반역행위자로 지목되어 그의 행적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조두원은 현남면 후포매리 지주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다

녔고 양양학생친목회 집행위원, 조선학생총연합회 집행위원, 조선학생회 집행위원을 지냈다. 1925년 사회주의 학생운동 단체인 조선학생과학연구회를 결성하고 집행위원이 되었으며, 권오설의 권유로 고려공산청년회에 가입하였다. 1925년 12월 10일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집행위원회를 서울 운창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열었다.

1926년 3월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였으며, 그해 6월 조선공산당 산하 6·10만세운동 투쟁지도특별위원회가 와해되자 조선학생과학연구회 간부들과 함께 태극기, 독립만세기, 격문 등을 준비해 6·10만세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6·10만세운동 주도와 제2차 조선공산당 조직에 대한 일제의 검거를 피해 러시아로 망명, 모스크바 동방노력자 공산대학에 입학했다. 당시 동생 조원숙과 조옥화, 부친 조석구도 조두원의 행방을 추궁하는 일경에 함께 체포되기도 했다.

동방노력자공산대학을 졸업하고 1929년 6월 코민테른으로부터 김단야 등과 함께 조선공산당 재조직의 명을 받고 귀국하여 한동안 원산에서 이주하와 함께 활동하였다. 1930년 1월 광주학생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활동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그는 중앙고보교 생도 맹휴사건을 선도했으며, 비밀문서를 작성해 전국적인 학생 동맹휴업 등을 조직하려고 활동하다 동대문 밖에서 일경에 체포되었다. 당시 그의 부친도 고향 양양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기도 했으며 당시 신문에서 '공산대학 출신 조두원사건'으로 크게 다루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中央生爆動
趙斗元公判
작년에 비명밧고들어와
共産黨에도重要人物

서울 중앙고보생 맹휴사건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조두원 공판사건을 다룬 1930년 3월 2일자 동아일보 기사.

또한 공산당 재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그리고 대전형무소로 이감되는 도중 "민족해방투쟁 만세" 등의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의 형량이 추가되었다.

2) 일제 말기에 적극적인 친일 행적

1933년 10월 서대문형무소에서 만기 출옥하고 '공산주의 운동은 환경에 따라 그만둘 수 있다' 라며 전향문을 발표하고 고향에 내려와 농사를 지었다. 1938년 서울로 올라온 그는 1940년에는 중석 채굴을 하던 삼각상회의 사무원으로 일을 했으며, 한때는 술집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때 적극적인 친일 행적이 확인된다. 1938년 12월 14일 부민관에서 열린 시국 유지 원탁회의에서 내선일체의 지도원리를 세워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광수와 주요한, 조병옥 등 좌우익을 막라한 친일전향 인사들도 함께 참여하였다. "나는 로서아(露西亞)에서 공산대학(共産大學)을 다녔는데 학문의 기초라든가 개념의 취급(取扱)이 전연 다르기 때문에 무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조선(朝鮮)의 실정과 적합되는 개념이 될는지를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조선(朝鮮)이나 일본내지(日本內地)의 국민적 특수성을 기조(基調)로 해서 시대에 적응된 새로운 지도원리(指導原理)를 세워야 하리라고 생각만은 하고 있습니다." 라고 발언하였다.[14)]

아울러 1944년 1월에는 내선일체의 강화 및 선도, 전향자의 선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친일단체인 대화숙(大和熟)의 야간학교에서 3개월 동안 일본어 교사로 종사하는 등 적극적인 친일 활동을 벌였다. 이 친일 행적은 해방정국 이후 정치적 활동을 재개하는 전향 친일파라는 꼬리표로 붙어 다니게 되었다.

3) 미제간첩으로 사형선고, 박헌영 재판 증언

1945년 8 · 15광복 다음날 서울 장안빌딩에서 서울계와 자신의 계보인 화요회계와 함께 장안파 조선공산당을 발족하였다. 이후 서울로 돌아온 박헌영을 중심으로 공산당 조직 재편에 앞장섰다. 한때 이승만 암살기도 혐의로 미군정에 체포되기도 했다. 그는 조일명이라는 이름으로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해방일보』 편집국장을 지냈으며, 1947년 남조선노동당 중앙위원과 기관지 『노력인민』 주필로 활동하다가 그해 12

월에 월북했다. 당시 이우적, 정태식과 함께 조선공산당 3대 이론가로 손꼽혔다.

월북 후 남로당 출신들이 모여 있던 해주 제1인쇄소에서 출판을 담당했고 1949년 조선노동당 중앙본부 서기가 되었다. 한국전쟁 중인 1950년, 서울을 점령한 후 서울시임시인민위원회 계획위원장을 지냈으며, 이후에 조선노동당 기관지 『민주조선』 부주필, 문화선전성 부상이 되었다.

그러나 1953년 8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린 북한의 특별군사법정에서 미 제국주의를 위한 간첩 행위와 공화국 정권 전복을 위한 무장 폭동 행위 등의 혐의로 이승엽, 임화 등 다른 남로당 출신 9명과 함께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의 간첩 행위와 무장 폭동 혐의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북한의 재판 기록에 근거해 그를 출세를 위해 친일과 친미 활동을 하며 변절을 거듭한 기회주의자로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 남로당 출신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간첩사건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비참한 말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1953년 사형선고를 언도받았지만 그는 1955년 진행된 박헌영에 대한 특별재판에서 이강국과 함께 증인으로 출정하여 자신과 정치적 행로를 같이 해온 박헌영이 미국의 간첩으로 활동했다는 결정적인 진술을 했다고 한다. 북한정권이 박헌영 등 남로당 계열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조두원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협조를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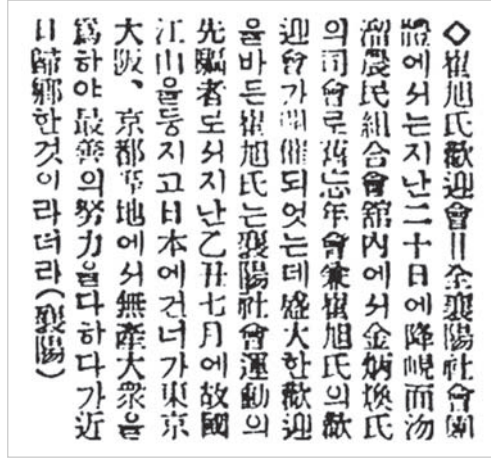
박헌영 재판의 증언 이후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고향인 현남면 포매리에는 1980년대에 구소련에 살아 있다는 엽서가 왔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양양군 포매리에는 남과 북 모두로부터 버림받은 조두원의 존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

8. 항일 양양농민조합운동과 인물들

일제의 사회운동 말살 책동으로 367명 체포, 36명 실형
낙산사에서 1천여 명 넘는 대중집회 개최…
소작쟁의, 농업정책, 농민교육문제 등 거론
지도부 다수가 사회주의 운동, 일부는 기독교인

1) 만세운동 이후


◇崔旭氏歡迎會 = 金襄陽社會團體에서는지난二十日에降峴而汽
笛農民組合會館內에서金炳煥氏의司會로過忠年會兼崔旭氏의歡
迎會가開催되엇는데盛大한歡迎을바든崔旭氏는襄陽社會運動의
先驅者로서지난乙丑七月에故國江山을등지고日本에건너가東京
大阪、京都等地에서無產大衆을爲하야最善의努力을다하다가近
日歸鄕한것이라더라(襄陽)

1928년 1월 28일자 동아일보에 양양사회운동의 선구자 최욱(최우집)씨 환영회 소식이 실렸다.

많은 희생자를 냈던 1919년 양양의 만세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지역의 청년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일을 했을까.

1921년 3월 13일자 『조선일보』기사에 따르면 1921년 2월 18일 오후 2시 양양군 예배당에서 양양웹엣청년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양양웹엣청년회 임원에는 만세운동을 함께 했던 최인식(崔寅植), 장세환(張世煥)과 이후 양양의 대표적인 사회주의 운동가가 된 최우집(崔禹集), 이후에 도천면장을 지낸 박상희도 포함되어 있다. 장세환은 이후에 강현면장을 지냈다.

양양웹엣청년회는 청년 유학 지원, 전도 사업, 토론 및 강연회 개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삼았으나 일제의 집요한 탄압을 받았다.

그리고 1938년 12월 강원도의 치안 상황을 기록한 일본 경찰의 문서[15]에 따르면, 대정 11년(1922년) 7월 경성 방면에 거주하던 화요계 공산주의자 김대봉(金大鳳)이 귀향하여 오일영(吳日泳), 장세환(張世煥), 박상희(朴祥喜) 등을 규합하여 한구청년회(한구청년회(韓口靑年會), 이후 호사청년회(湖山靑年會) 또는 호산기독청년회(湖山基督靑年會))를 조직해 공산주의 운동에 착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문서에서는 이를 강원도

에서의 최초의 사회주의 운동으로 주목하고 있다.

웹엣청년회나 한구청년회(호산청년회)는 본격적인 사회주의 청년운동 조직은 아니었지만 이후 사회주의 청년운동의 모태가 된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만세운동 이후에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함께 기독교 청년단체를 통해 활동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20년대 강원도 사회운동은 양양군과 인근 간성군 청년들이 주도하게 되며, 양양의 청년운동은 이후 농민 · 노동조합 운동과 좌우합작의 신간회 운동을 직접적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아울러 1922년을 전후로 설악권에서는 김대봉, 오일영 등이 살던 물치리에서 물치노농동맹이 결성되었는데, 이는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농민 · 노동 운동 단체라 할 수 있다. 당시 신문기사를 통해 강원도에서도 사회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양양의 상황을 살펴본다.

> 한반도를 뒤흔들었던 기미운동에 십수(十數)의 인명을 희생하고 수천 동포로 하여금 혹은 철창에 신음하며 혹은 사람으로 견디지 못할 가혹한 태형에 자못 경내가 살풍경(殺風景)을 이루어 피화(被禍)가 전 조선에 제3위라는 논평을 받았다.
> 당시에 극도로 팽창되었던 사조는 일반 청년들로 하여금 대동단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하여 전 군(郡)을 망라한 호산청년회(湖山靑年會)를 조직하였으며, 이후 같은 주의(主義) 같은 보조 하에 신청년동맹과 일혁청년회(一革靑年會)가 병진하다가 4개 단체 합동 정우회가 탄생된 이후로 그들도 파전(派戰)을 일소하고 합동의 환성을 외치게 되어 동화청년회(同化靑年會)가 탄생되었다.
> 청년운동이 이와 같이 발전된 동시에 농민노동운동도 상당히 발전되어 왔다. 노도(怒濤)같은 풍조(風潮)가 점차 수입됨에 따라 각지에 청년 · 농민 · 소년 단체가 우후죽순의 세(勢)로 봉기되어 그 추세가 일사천리이었음으로 운동이 상당히 근거가 잡혀 현재의 상태로 보면 그 격렬함이 전 조선적으로 보아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
> 이제 중요 단체를 소개하면
>
> ▷ 조선청년총동맹 양양군청년동맹 상술한 바와 같이 본 군 청년운동은 역사가 깊은 것인데 그간 붉은 손 붉은 주먹으로 비난과 싸우며 압박과 다투어 고행, 참담한 가운데

백절불굴의 정신과 칠전팔기의 용력으로 지방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분투하였다. 지난 4월에 각 면별로 조직되어 있던 5개 세포 단체, 즉 앞에서 기술한 동화(同化), 도천면 대포리에 있던 흥악(興岳), 강현면 물치리에 있던 설악(雪嶽), 서면 상평리에 있던 현서(峴西), 손양면 금강리에 있던 손양(巽陽) 청년회를 연맹체로 창립시켜 청총(靑總)에 가맹하였다가 방향 전환기인 지금에 있어 조직체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어 지난 8월10일에 이를 해체시키고 청총 규정에 의하여 동맹체를 창립시켰다. 그리고 즉시 청총에 가입하고 전 연맹체의 세포 단체를 해체시키고 지부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그 지부는 도천면지부(25명), 강현면지부(25명), 서면지부(24명), 손양면지부(26명)이다.

▷ 물치차부(車夫)조합 본 군에는 아직 노동자 수효가 적은 것이 산업상으로 보아 면치 못할 일이다. 다만 번성한 부락에만 얼마씩 있는데 개중 대포항은 본 郡의 문호로 정기항로의 기항지임으로 백물(百物)이 폭주한다 함은 전기(前記)한 바인데 번화한 만큼 노동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지난해 6월 13일에 이곳에 노동조합이 창립되어 적극적으로 노동자를 위하여 활동 중이었는데 경찰의 신경이 그만큼 과민되어 엄중 감시하던 바 例의 불온(不穩)으로 실로 간부를 구속하는 등 강제로 익월 중순에 해체를 당하고 오직 지난해 오월에 창립된 물치차부조합이 있어 노동운동을 보일 뿐이다. 현 회원이 20명이요 사무소를 물치리에 두었다.

▷ 물치농조(農組) 본래 노농동맹으로 농민 · 노동 운동에 힘써오다가 계해(癸亥, 1923년) 1월 26일에 농민조합으로 변경시켰다는데 역사가 유원한 만큼 공헌이 있었다. 현재 회원 53인.

▷ 조산농조(農組) 재작년 12월 12일에 농우회를 창립하여 일반 농민 교양에 많은 활동을 하여 오던 바 경찰당국으로부터 "사회주의를 선전할 위험성이 보인다."고 해체를 당한 후 다시 지난해 8월 7일에 농민조합으로 변경하였다. 현 회원이 43명이다.

(양양 - 記者)

- 『동아일보』 1927년 9월 5일자 4면 '순회탐방 양양 4, 사회단체'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타베이스)

2) 1920년대 양양지방의 청년운동

양양에서 농민조합운동이 본격화되기 전에 청년운동이 활발했다. 다음은 양양의 대표적인 청년운동 단체인 신청년동맹의 창립 소식을 실은 기사이다.

> 양양 신청년동맹 창립
> [양양] 강원도 양양군에서는 삼일운동 당시에 다수한 희생자를 낸 후로는 사상계는 점점 쇠미하여 보천교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었다. 작년 이후부터는 해방운동의 신사조가 전파되자 청년계에서는 진리를 각오하고 무산계급운동에 봉사코자 하는 자가 많아지더니 지난 11일 오후부터 무산계급을 대표할 만한 청년 28인이 양양면 조산리 보응학원에 모여 양양신청년동맹을 창립하게 되었다. (중략) 기타 실행 사업은 먼저 무산청년의 계급의식을 각성케 할 만한 수양기관과 무산계급운동에 필요한 언론기관을 설치하는 동시에 수시로 강연, 강습, 연구, 운동, 토론, 연극 등을 개최하기로 하고 기타 모든 사업은 집행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사무소는 양양읍 남문리『조선일보』지국으로 정한 후 폐회하였다. 다시 이날 오후 8시경에 집행위원회를 낙산사에서 개최하였다. (생략)
> - 1925년 1월 22일『시대일보』2면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타베이스)

1925년 1월 창립한 양양신청년동맹은 그해 11월 9일에는 한용운의 강연을, 11월 21일에는 사회주의 운동가 송봉우의 강연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양양 지역에서 청년운동단체와 신간회지부가 결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자, 이들 단체와 연계하여 활동하는 소년회를 일본 경찰과 학교당국이 극렬하게 탄압하였다. 1928년 4월에는 양양소년회동맹 주최로 소년소녀현상웅변대회가 있었는데 이날 연사들이 불온한 언사를 했다고 소년회의 회합을 일체 금지시키고 간부 8명을 경찰서에 불러 취조하였다. 또한 경찰은 1930년 5월에 양양면소년회 소속 회원 10여 명을 가택수사하고 간부들을 불러 취조하였다. 일부 간부는 구금되었다가 뒤늦게 석방되기도 했다.

한편 1928년 2월에는 대포공립보통학교 일본인 교장이 공진소년회에 입회한 학생들을 강제로 탈퇴 종용하여 크게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사태가 발생하자 당시 양양의 청년동맹과 신간회지부 등 사회단체들이 적극 나서서 일본인 교장을 강하게 성토하였다.

3) 1927년 통합농민조합 출범

1923년에 양양에서는 물치노농동맹회가 결성되어 전국적인 소작운동에 참여하였으며, 1925년에는 조산농민조합이 결성되었다. 농민조합운동은 야학 활동을 통해 확산되었는데, 당시 양양에는 14개 리에 야학이 설치되어 있었다. 1927년 12월 물치와 조산, 용천, 정손, 소야, 서림 등 6개 지역의 조합이 군농민조합으로 통합되어 양양농민조합이 출범했다. 출범 당시 의장에 속초리 출신의 김병환, 부의장에 물치리 출신의 오일영(오룡영)이 선출되었다. 양양농민조합은 양양과 강현, 손양, 도천, 서면 지역에 활동이 집중되었다.

양양농민조합은 조합원 정기대회를 통해 소작제도의 개선, 무산아동 수업료 면제, 화전민 문제, 묘목 강제 배분 반대, 미신 타파와 조혼 강제 결혼 폐지, 집회 및 결사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기했다. 특히 각 지부별로 교양 훈련에 힘써 활동가를 집중 양성했으며, 소작쟁의 지도 활동과 일제의 농업정책 반대, 문화운동 등을 펼쳤다.

1932년 검거 당시 12개 지부(조산, 서림, 용천, 정손, 소야, 노리, 물치, 정암, 월리, 강선, 임천, 포월)에서 360명의 조합원이 활동했으며, 구성원들도 소작농과 자작농은 물론 부농까지도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양양의 대표적인 농민조직이 되었다. 신간회와 청년동맹 등 지역 조직이 있었지만 간부들은 겸직을 하였으며, 실제 활동은 농민조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일본 경찰은 해당 지역의 구장과 면장을 동원하여 농조 탈퇴 종용, 농조지회 해산 협박, 간부진의 검속과 집회금지 조처, 집회 방청금지 등 탄압을 노골화했다.

갈수록 궁핍해져 가는 양양 농촌지역에서 절박한 농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왕성한 활동을 펼친 것으로 확인된다. 양양 지역은 전년도부터 시작된 극심한 흉년으로 1932년 봄 춘궁기에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 펼쳐졌다. 양양의 11개 리를 샅샅이 답사하여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하는 가난한 소작인과 화전민, 걸식을 위해 떠도는 유랑민의 처참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조사하여 언론에 발표하고 기아 대책을 촉구하였다. 이렇듯 농민의 현실적 요구를 대변하는 조합의 존재는 일제로서는 눈엣가시가 아닐 수 없었다.

일제는 1932년 6월부터 3개월 동안 양양경찰서뿐만 아니라 인근서의 경찰 70여 명

과 강릉지청 검사까지 가세하여 양양 전 지역을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 놓고 조합원과 관련자 367명을 체포, 구금했다. 양양의 농민조합원뿐만 아니라 어민조합, 노동조합, 청년운동단체 조직원까지 검거하였다. 유치장이 부족해 숙직실, 연무장에도 검거한 사람들을 수용한 이 사건은 당시 언론에서도 일제의 계획된 탄압으로 지탄할 정도였다. 당시 언론에서 단천농민조합사건 다음으로 큰 농민조합 사건이라 했던 이 사건으로 1년 8개월 동안의 취조 끝에 주동자 36명이 공판에 회부되어 2년에서 4년까지 실형을 살았다.

일제가 무장경관 수십 명을 총동원하여 대규모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검거 선풍으로 양양농민조합을 궤멸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언론은 이 검거 선풍은 양양의 사회운동을 말살하려는 계획된 탄압이라고 평가했다.

양양군은 강원도에서도 1919년 만세운동이 가장 격렬하게 전개되어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한 곳으로 일제의 요시찰 지역이었다. 1923년부터 시작된 양양 지역의 농민운동은 소규모의 조직들이 통합된 양양농민조합이 결성되면서 그 활동이 일제의 통제를 벗어나기에 이르렀다. 1928년 4월 26일 낙산사에서 개최된 양양농조 제2회 정기대회는 조합원 320명과 방청객 1천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로 일제는 큰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으며, 대회 이후에 일제는 더욱 노골적으로 농조를 탄압하였다.

4) 강현면 농잠사건과 야학생 격문사건

일제의 검거에 앞서 이를 예견하는 전조가 있었다. 검거 선풍이 있기 몇 개월 전인 1931년 12월 강현면에서는 농잠학교(農蠶學校) 설치를 반대하고 구장(區長)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해 농민조합원 14명이 검거되어 이 중 12명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양양군에서 농잠학교 설치를 다년간 요구하여 강현면에 설치할 것을 인가받았는데, 군과 면 당국에서 학교 설립에 대한 부담을 강현면민에게만 떠맡기자 면민대회에서 농민들이 부당함을 지적하며 항의하여 대회가 아수라장이 되고 대회는 아무런 결론도 없이 무산되었다. 그러나 면 당국에서 학교 공사를 강행하고 각 마을에 부역과 공역을 강제로 할당시키자 농민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결국 강현면 적은리에서 농민조합원들이

동리구장에게 "면민대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어떻게 강행하냐"며 동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구장이 이를 거부해, 농민들이 격분하여 구장을 구타한 사건이 발생했다.


農蠶校反對로
農組員檢擧
양양 검찰서에서 활동
十二名檢事局送致

1932년 1월 1일자 동아일보에 '농잠학교 반대로 양양농민조합 조합원 12명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기사가 크게 실렸다. 이 사건은 대규모 농민조합 검거선풍을 예고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이에 앞선 1931년 6월에는 대포어민조합 조합원이 주축이 되어 '정어리기름깻묵' 가격 문제로 대포리와 물치리 어선 70여 척과 100여 명이 파업을 감행하였으며, 이 중 40여 명이 경찰서로 몰려가 조합원 2명을 검속한 이유와 멸치 가격 협의회의 금지 이유, 조합 문서를 압수한 이유 등에 대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농민조합원 검거 선풍은 1932년 장산리에서 있었던 야학생 격문사건에서 비롯된다. 농조 검거 선풍을 다룬 당시 신문에 의하면, 1월 강현면 장산리 농민 야학생 모씨가 강현면사무소 앞 게시판에 불온한 격문을 첨부함을 단서로 잡아 야학교사와 학생 6명을 검거 취조한 결과 농민조합에서 주의선전과 불온사상을 고취시켰다는 것이다.

한편, 양양농민조합에 관여한 노병례의 증언에 의하면 1932년 5월 5일 단오날에 항일시위를 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살포할 전단이 5월 1일 그의 집 천장에서 발각되면서 검거가 시작된 것으로 밝혔다. 그 전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16)]

> "무찌르자 강도 일본제국을, 반대하자 조선총독 폭압정치를. 우리는 무주공산의 오작의 밥이 되더라도 강도 왜적 섬멸에 총궐기하자. 내가 빼앗기고 돌려달라는 애국 청년을 놈들이 뻔뻔히도 감금했다. 때려 부숴라 검은 철장 검은 감옥을. 이천만 동포들이여 호응하라."

체포된 사람만 367명에 취조 기간만 장장 1년 8개월이 걸린 이 사건에 대해 일제는 "농민조합이 비밀결사조직을 만들어 마르크스주의를 선전했다."는 내용으로 검거된 조합원 중 36명을 기소했다. 이에 검거가 시작된 지 만 23개월 만인 1934년 5월 25일 처음으로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오용영 등은 공소 사실을 시인하였으나 각 지부의

교양부 책임자인 최용복, 최창원, 노병례, 김동기 등은 비밀결사조직을 만들고 마르크스주의를 선전했다는 내용을 극구 부인했다. 다만 노동독본과 한글을 가르치고, 소작쟁의 이야기를 김병환이 하라는 대로 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6월 22일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36명 전원에 대해 2~4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일제는 검거 과정에서 농민조합원만이 아니라 어민조합원, 다른 사회단체 회원까지도 함께 검거하였으며, 36명의 핵심인물을 2년 동안이나 구금했다가 재판에 회부하는 등 철저히 양양의 사회운동을 말살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사건 초기에는 '양양농조사건'이라 호칭하였으나 공판 과정에서 '양양 적농사건(赤農事件)'이라 개칭하여 합법적인 농민조합운동을 노골적으로 사회주의 조직사건으로 몰아붙였다.

양양농민조합사건은 설악권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항일조직운동 사건으로 기록된다. 1930년대 양양을 대표하는 항일민족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적색농민조합운동'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사건 발발 60년이 다 지난 1990년에서야 사건의 주동자인 김필선, 노병례, 김사만, 김종현이 기미년 만세운동과 농민조합 활동으로 독립유공 애족장을 받으면서 독립운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농민조합운동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평가가 부족하고, 사건에 연루된 유족의 명예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5) 양양농민조합운동을 이끈 인물들

양양농민조합운동의 주동자 중 다수가 양양의 기미년 만세운동을 주도했거나 참여했던 청년들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양양농민조합운동이 민족독립운동의 연속선상에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당시 농민조합 운동과 청년운동을 주동했던 김병환과 오용영, 최우집을 비롯해 노병례, 김사만, 김극선, 김두선, 김필선 등은 기미년 양양에서 만세운동을 벌인 인물들이다.

당시 농조 집행위원으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극선(金極善)과 청년동맹 활동을 주도한 김두선(金斗善), 신간회 부회장을 지낸 김필선(金弼善)은 양양읍 남문리 출신의 친형제로 모두 기미년 만세운동에 참가했다고 한다.

김두선은 1919년 4월 4일 양양장날 양양읍 주변 마을의 주민들을 지도하여 만세운동에 참여했으며, 1927년 양양청년동맹의 서무부장, 강원도청년연맹의 집행위원을 지내며 양양청년동맹의 실질적인 주동자로 활동했다.

김필선은 1919년 만세운동 당시 양양감리교회 조영순 전도사의 딸인 조화벽이 몰래 숨겨온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아 면사무소의 등사판으로 복사하고 교회청년들을 추동해 태극기를 만들었으며, 양양읍 장날 시위를 앞장서서 지도했다. 그는 이로 인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양양보통학교 8회 졸업생으로 당시 면사무소 급사로 근무했다. 이후 그는 1927년 강원도청년연맹의 집행위원, 조선청년총동맹의 중앙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1929년 12월 고려공산당사건과 관련해 일경에 체포되었으나 1930년 12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노병례(盧炳禮)는 서면 용천리 출신으로 1919년 4월 4일 양양장터의 독립만세운동에 15세의 나이로 참가해 일경에 체포되었다 어린 학생이라 석방되었지만 이로 인해 보통학교에서 퇴학당했다. 1927년 신간회 활동에 참가하고, 양양농민조합 용천지부 책임자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사만(金思晩)은 강현면 정암리 출신으로 1919년 4월 5일 물치장터의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일경에 체포되어 곤장 180대를 맞고 2개월간 취조 끝에 석방되었다. 양양농민조합 정암리지부의 책임자로 1932년 일경에 체포되어 25개월간의 구금 끝에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6) 지도부 다수가 사회주의 운동에 관련

양양농민조합을 이끈 지도급 중 다수가 당시 시대적인 조류였던 사회주의 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농민조합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김병환과 오용영, 최우집, 김동환 등은 비밀리에 사회주의 활동을 함께 한 인물들로 평가된다.

농조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병환(金炳漢)은 도천면 속초리 출신으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였으며, 1930년에는 『중외일보』 양양지국을 운영했다. 조선공산당 양양야체이카 책임자로 알려졌으며, 1930년 4월 김철수 등과 함께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전개하다

가 일본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1932년 농민조합 탄압으로 검거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병환은 신간회 강원지부장과 중앙집행위원을 지냈다.

양양농민조합의 전신이라 할 물치노농동맹을 이끌었던 지도부의 한 명인 오용영(吳龍泳 일명 吳日泳)은 강현면 물치리 출신이다. 1920년 10월부터 양양신청년회 참여를 시작으로 양양의 청년 · 농민 운동을 주도했다. 양양농민조합 부의장을 지냈으며, 조선공산당 양양야체이카 선전부원으로 알려졌다. 1929년에는 원산총파업 관련 혐의로 한때 검속되었으며, 1932년 체포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三個月餘에 亘히 不熄
前後三百餘名檢擧
어민조합에까지 검거선풍
尙今六十餘名取調
夜學生檄文이 端緒
十四個看板撤去
各社會團體를 閉鎖
十月上旬頃
送局될듯!

1932년 9월 19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농민조합 검거관련 기사. 신문에서는 검거선풍이 농민조합 등 각 단체를 해산시키는 동시에 탄압적 수단에서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고 보도했다.

최우집(崔禹集, 일명 최욱(崔旭))은 양양에 사회주의를 가장 먼저 전파한 인물로 당시 언론에서 양양 사회운동의 선구자로 불린 인물이다. 사회주의 운동 이전에 1921년 양양웹엣청년회를 민족주의 인사들과 함께 구성해 지역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조산리 최씨 문중의 사람으로 3 · 1운동 이후 일본에서 사회주의를 배워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속된 농민조합의 간부 중 조산리 최씨 문중 사람들이 많은 것도 그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최우집은 1929년 양양농조 집행위원장으로 원산총파업에 동정금을 송부했으며, 양양야체이카 사건에도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집은 최욱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잡지인 『대중공론』에 "조선 현실에 있어 어떤 청년을 요구하는가? – 농민의 벗으로 자처하는 청년"이라는 글을 싣기도 했으며[17], 조선농민총동맹의 중앙집행위원과 상무위원을 지냈다.

대포어민조합의 조합장이며, 양양신간회 간부였던 이학규(李鶴奎)는 농민조합 검거사건과 같은 시기에 함께 구속되어 고초를 당하고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이학규는 1926년 7월에도 대포노동조합의 강령이 불온하다고 간부 박정양과 함께 끌려가 6개월간 고초를 당하고 무죄 방면된 바 있었다. 1932년 구속된 이학규에게 재판부는 "사회운동가의 선배인 김대봉과 교우하여 사회주의 의식을 주입받

고 무산운동에 투신하였으며, 경제투쟁 및 정치투쟁 의식을 어민 대중에게 주입시켜 공산제도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대포어민조합과 대포노동조합을 설립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7) 원산총파업과 양양농민조합의 연대

특이하게도 양양농민조합사건 관련자 중 몇몇은 원산총파업에 가담했던 경력을 갖고 있다. 일제의 집요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1만여 노동자 가족이 일치단결하여 장장 84일간의 파업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원산총파업은 일제하 노동운동의 최대 사건이었다. 1929년 2월 양양농민조합은 원산총파업단에 격려전문을 보내고 동정금 10원을 기부하였다. 그리고 양양농민조합의 집행위원 김동기(金東起)는 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원산으로 떠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때문에 집햅위원장 최우집과 간부 오일영이 검거되었으며, 각 회관을 수색당하여 많은 문서를 압수당했을 뿐만 아니라 각 지부의 집회가 모두 금지당하기도 했다.

원산총파업에 대한 양양농민조합의 지지, 연대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양양과 원산이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다 원산총파업을 주도했던 지도그룹의 인맥이 양양농민조합의 지도부와 맞닿아 있었다. 이미 1925년 강원도 청년운동단체들의 대중집회인 관동청년혁신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양의 최우집과 김대봉, 고성의 박태선과 함연호, 한명찬이 함께 했다. 이 중 박태선은 고성에서 청년운동을 하다가 원산으로 이주하여 원산총파업을 주도한 원산노동연합회의 간부로 활동했다. 박태선과 최우집의 이러한 관계는 원산총파업에 대한 양양농민조합의 적극적인 지지 연대로 표현된 것으로 파악된다.

원산총파업에 참가한 김동기는 1927년 양양농민조합 결성대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되고 이듬해 포월지부 책임자가 되었다. 1929년 3월 원산총파업 관련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후 신간회 양양지회 위원과 양양청년동맹 위원장을 하다가 1930년 김병환과 함께 조선공산당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다. 1932년 농조의 탄압으로 다시 체포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양양농민조합과 원산총파업의 연대를 보여주는 또 한 명의 인물이 김창렬(金昌烈)이다. 강현면 중복리 출신인 김창렬은 1919년 4월 5일 물치장날을 기하여 일어난 만세운동에 중복리 마을책임자로 참가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았으며, 1927년 창립한 양양농민조합의 검사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했다. 농민조합의 간부로 활동하다가 1929년 2월 하순 원산총파업 당시 김경식 등 원산노동연합회 위원장과 간부들이 다수 구속되자 박태선과 함께 원산노동연합회 상무로 선출되어 2기 파업지도부로 활동했다. 원산노동연합회 집행위원으로 파업을 지도하던 그는 그해 4월 일본경찰에 체포되었다. 다시 1932년 양양농조 탄압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3·1운동에서 농민조합운동, 원산총파업 지도부로 이어지는 그의 행적은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의 '포상자 공적조서'로 확인되나, 이채로운 행적의 기록은 더 자세히 찾지 못했다. 광복 전인 1944년 12월에 작고했으며, 독립유공을 인정받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8) 기독교인들의 농조운동 참여 규명 필요

기미년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양양의 기독교인들도 사회주의 경향을 보인 양양의 사회운동을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된다.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김필선이 대표 인물이며, 1934년 농조의 지도부로 김병환과 함께 징역 4년의 최고형을 선고받은 최영규(崔永逵)도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다.



양양농민조합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김병환. 1932년 농민조합 사건으로 검거되어 1934년 재판에서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사진은 1930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서무대형무소에 복역 중에 찍은 수감사진이다.(자료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자료집 별집2, 단행본 44p.)

1919년 만세운동을 기점으로 한국의 기독교는 정경 분리와 정치적 중립이라는 경향을 내세워 사회운동에서 퇴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양양의 경우 양양교회의 담임목사로 지내며 만세운동과 대한독립애국단 활동에 참가했던 김영학 목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북면 기사문리 출신으로 1930년대 감리교 양양구역장과 물치교회 담임을 맡았던 이풍운 목사는 민족교회의 입장을 내세우고 무산자운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 입장을 보여 미국 선교사들에게는 눈엣가시였다. 이러한 영향

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젊은 기독교인들이 양양의 청년운동, 농민운동에 함께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양양농민조합운동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참여는 새롭게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지금까지 양양농민조합 운동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농민조합운동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일제의 기록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분석하는 데만 급급하였다. 일제의 관심사는 농민조합의 대중적 활동보다는 당시 비합법 사회주의 운동과의 연계를 확정지으려는 데 있었으며, 모든 기록의 초점도 이에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양양농민조합사건을 양양적색농민조합사건으로 명칭조차 바꾸었으며, 양양농민조합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와 동참을 폄하한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지닌 일제의 기록을 좇아가다 보면 정작 양양농민조합운동의 실체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당시 양양농민이 처한 시대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어내고, 왜 양양농민조합운동이 농민대중으로부터 크게 호응을 얻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혀낼 필요가 있다.

1920년대 후반부터 각종 풍수해와 한발 등으로 굶주리기 시작하였으며, 일제의 수탈과 자본주의의 침투로 몰락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한 농민조합운동이 위력을 발휘했으며, 일제는 급기야 전례 없는 대탄압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사회주의 교양 학습보다도 강현면 농잠사건이나 농촌 기근에 대한 농민조합의 대응과 실천, 일제의 정어리 가격 통제로 인한 어민의 대응 등이 보다 주목받을 만한 일이다. 당시 농민과 일반대중의 입장에서 농민조합운동을 새롭게 주목하고 그 활동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9. 잊혀진 인텔리 사회주의자 – 최용달

경성제대 법학부 졸업
해방 후 북조선 대표 정치인 활동
남한에선 '공산주의자', 북한에선 '숙청된 자'

1) 양양출신으로 경성제대 입학한 수재

한국 근현대 역사의 한 장에 기록될 만한 인물임에도 지역에서 까맣게 잊혀진 인물이 있다. 지역에서 그의 존재는 분단으로 인한 냉전의 시대에 공식적인 확인조차 안 되어 그냥 이야기로만 떠도는 유령과 같은 존재였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양양 출신의 거물급 공산주의자가 있었다는 막연한 이야기로만 알려져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거물급 인사가 북한 정권 수립 시절 북한군 총사령관을 지낸 최용건이라는 이야기로 잘못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 높은 자리를 했다던 그 사람 때문에 출신 마을은 냉전시대에 요시찰 지역이 되었다는 이야기만 무성했던 것이다.

그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 50년이 넘은 지금도 지역에서 그의 이름조차 거론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남한에서는 공산주의자라고 하여 거명이 금기시되고, 북한에서는 남로당 계열로 숙청된 자라 하여 그의 존재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몇 년 전 KBS에서 방영된 〈서울 1945〉의 주인공 최운혁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이강국과 인생의 행로를 같이 했던 인물이다. 최용달과 이강국은 경성제대 시절 서클활동을 시작으로, 월북 후 북한 정권으로부터 숙청되기까지 정치적 행로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한 비극적인 인텔리 사회주의 운동의 주인공들이다.

광복 후의 소련 군정 문서[18]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록이 전한다.

- 1946년 3월 27일 여운형과 김일성의 개인비서 황병옥과의 대담 중 일부.

"황병옥이 북조선에서 누가 후보자가 될 것이냐고 묻자, 여운형은 김일성, 김두봉, 무정,

최용달을 꼽았다. 대통령직에는 누구를 후보자로 생각하는가 묻자, 여운형은 미국 측에 서는 이승만, 김구, 조만식과 자신을 천거하고 있다고 답했다."

1948년 5월 28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동양 및 유럽의 공산당 지휘자 명부를 작성했는데, 이 중 조선은 6명으로 최용달, 최용건, 김일성, 김무정, 김두봉, 박헌영이 명부에 올랐다.

최용달은 1903년생으로 양양 출신이다. 본적이 양양읍 임천리로 기록되어 있으나 양양읍 조산리 강릉 최씨 집안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집은 조산리 근처인 사천리에 있었다고 전해진다. 양양농민조합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가하였다가 1934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용운(崔容運)이 그의 친동생으로 알려져 있다.

1925년 3월 함흥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제2기로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했다. 예과에서 본과로 진학할 때에 법학부를 지원하였다. 당시 경성제대에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따기. 경성제대는 민족차별이 심해 한 해의 학생 정원 150명 중 조선인 학생 정원은 47명에 불과했다. 이런 경성제대에 변방 지역이라 할 만한 양양에서 진학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다.

고향 양양과 관련된 행적은 대학시절 향우회 활동으로 확인된다. 1927년 5월 경성 종로경찰서장이 경성지방법원 검사정에게 보낸 경찰 조사 문서 '재경양양학생친목회 정기총회' 조사자료에 친목회 모임의 위원으로 거명되었다. 재경양양학생친목회가 여름방학 때 고향의 부모와 자매, 기타 지역 유지들을 대상으로 운동회와 음악회를 열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해 6월에는 강원도 학생들의 모임인 관동학우회 집행위원회에서 서무부 일을 맡게 되었다고 전한다. 일제는 순수한 대학생들의 모임조차도 일거수일투족 모두 감시했으며, 고향에서의 관동학우회 행사를 금지할 정도로 대학생들의 귀향 활동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대학생들의 귀향 활동을 통해 사회주의 등 불온한 사상이 전파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927년 이강국, 박문규 등과 함께 경성제대 교내 서클인 경제연구회에 가입해 마르크스주의 이론 및 식민지시대 조선 실정에 대해 공부하였고, 1929년에는 원산부두노동

자 파업 때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경제연구회 대표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경제연구회는 일본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일본인 교수 미야케 시카노스케(三宅鹿之助, 1898~?)의 지도를 받았다. 1934년 소위 '三宅鹿之助 교수를 중심으로 한 적화공작사건' 에 연루되어 최용달도 함께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성제대 제1기로 최용달과 이강국 등과 함께 경제연구회에서 활동했으나 전향해 광복 후에는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하고 고려대 총장을 지냈던 유진오 박사는 "이강국은 수재형이고 최용달은 노력형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한다. 우리나라 상고사에서 단군의 존재를 부활시키고 2005년에 타개한 대한민국 학술원 최태영 박사는 "최용달은 열심으로 공산당하고 법학 연구도 했다. 고학한 사람으로 도무지 호강이란 걸 몰랐지만 학문을 취미같이 열심히 했다. 공부 많이 하는 최용달과 내가 서로 통했다"고 회고했다.

경제연구회의 주축인 최용달과 이강국, 박문규는 이후에 '경성제대 삼총사' 라 불렸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계열은 '성대파' 로 불렸다. 이들은 경제연구회 회원이 조선공산당 재건사건에 연루되어 학교당국으로부터 해체 명령을 받자, 1930년 9월 '조선사회사정연구회' 를 만들어 조선의 사회 실정을 연구 조사하고 근로 대중의 조직에도 힘썼다. 이들은 각자 분담하여 각 분야의 사회운동을 집대성해 『조선사회운동사』를 집필하기도 했다.

경성제대 삼총사는 경제연구회를 시작으로 사회주의 운동에 함께 참여했다. 조선사회사정연구회 등 사회주의 활동을 비롯해 노동운동, 여운형의 건국동맹 참여, 광복 후 남로당 활동과 월북, 북한에서의 고위직 정치활동 참여까지 궤를 같이 했다. 하지만 이 셋 중 정치적 감각이 앞섰다고 평을 받던 이강국과 최용달은 한국전쟁 이후 숙청되고, 박문규만 북한정권에서 고위직을 오랫동안 유지했다.

아무튼 일제 치하에서 경성제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그에게는 조선 최고학부 졸업생으로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특권과 동시에 식민지 조선 지식인의 고민이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인생행로도 이와 무관치 않았다.

2) 북한 헌법제정 참여…박헌영그룹 지목받아 숙청

1930년 3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한 최용달은 사법연구실 조수가 되었으며, 졸업생들이 주축이 된 『신흥(新興)』발간에 간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32년 3월 조수직을 그만두고, 4월부터 보성전문학교 교수가 되었다. 1935년 8월 1일자로 발간된 잡지 『삼천리』에서는 「경성제대 출신 청년학사는 어데 갓는가」라는 기사에서 교육 분야에서 가장 먼저 최용달을 소개했다.

> 주로 교육방면에서 힘쓰시는 분을 차례차례 적어보면, 먼저 최용달씨(崔容達氏)를 꼽지 않을 수 없다. 씨(氏)는 일즉이 강원도 양양(江原道 襄陽)에서 출생하셔서 함흥고등보통학교(咸興高等普通學校)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성대(城大)에 입학하여 법학과에서 많은 연구를 쌓으면서, 더불어 예리하고 진보적인 붓대를 휘둘러, 최상해(崔尙海)라는 펜네임으로 《대중공론(大衆公論)》, 《조선지광(朝鮮之光)》 등 월간잡지에 꾸준히 경제논문, 정치논문 등을 발표하여 사회에 큰 여론을 일으킨 분이시다. 아마 그는 진보적 인테리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현재는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에서 민법과 상법을 가르치며 당년(當年) 33세의 '선비'이다. 전에 한동안 성대 법학부 조수(城大 法學部 助手)로도 있섰다.

최용달은 최상해라는 이름으로 1930년 『대중공론』에 「조직화된 자본주의 이론과 정치적 의미」, 「부인운동과 계급운동」, 「부하린의 대립」 등을 썼다. 보성전문학교 교수가


愚問賢答
法律없는社會는언제오나
崔容達氏를찾어서

1936년 동아일보에 실린 상아탑 탐방기 '법률없는 사회는 언제오나-최용달씨를 찾아서' 기사


「意志의 法律哲學」에 對한 批判序論
(九)
崔容達

보성전문학교 교수시절인 1935년 동아일보에 기고한 '의지의 법률철학에 대한 비판서론' 9회 연재분.

된 이후 1935년에는 최용달 본명으로 『동아일보』에 「의지의 법률철학에 대한 비판서론」을 9회에 걸쳐 기고했으며, 1937년에는 11회에 걸쳐 「제주도 종횡관」이라는 제주도 종합분석기사를 싣기도 했다. 이외에도 1936년 『동아일보』의 상아탑 탐방기 「법률 없는 사회는 언제 오나 – 최용달 씨를 찾아서」 등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보성전문학교 교수 최용달은 당시 조선 사회가 인정하는 최고의 인텔리이며, 진보적인 대표 논객으로 이름을 날린 것이다.

3) 대학교수로 비합법 사회주의운동


1933년 보성전문학교 졸업앨범 교직원난에 실린 최용달 사진.

최용달은 대학교수가 된 이후에도 사회주의 운동가로서의 비합법 운동을 계속 이어왔다.

1933년 4월 서대문경찰서와 종로경찰서, 5월 평양경찰서에 끌려가 사회주의 운동 관련 혐의로 취조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1934년 5월에는 이재유 그룹과 관련되었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1936년 7월 원산 공산주의 그룹의 지도자 이주하를 만나 자금과 각종 편의를 제공했으며, 1937년 6월에는 서울에서 이강국, 이주하와 함께 사회주의 비밀결사조직을 결성했다. 이 조직에서 이주하는 조직을, 최용달과 이강국은 운동자금 및 좌익 문헌 입수를 맡아 운동자금으로 2천 수백 원을 이주하에게 교부하였다고 한다.

이주하는 원산에서 적색노동조합을 건설하고 노동자 신문을 발행했다. 1938년 10월 최용달은 이강국과 함께 '적색노동조합원산좌익위원회 사건' 으로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194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이 사건은 조선민족해방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전국의 노동조직을 하나로 묶고, 만주사변 후방 교란을 목적으로 활동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1944년 봄에는 학생들 사이에 공산주의 단체를 결성하려다가 검거되어 6개월의 취조



1934년 보성전문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스승인 일본인 미야께 교수의 적화공작사건에 연루되어 수감된 최용달의 모습.(자료출처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8, 단행본 507p.)

를 받고 풀려났다.

최용달은 이주하, 이강국과 함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을 벌인 원산그룹으로 불린다. 1929년 총파업을 벌였던 원산은 1930년대에 총 4차례에 걸친 태평양노조사건 등 적색노조운동이 가장 활발해 당시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지역이었다. 고향 양양이 원산과 가깝고, 인근 함흥에서 학교를 다녔던 경력뿐만 아니라 경성제대 재학 시절 서클 대표로 원산파업 진상 조사에도 참여한 바 있다. 이러한 인연을 기반으로 최용달은 원산의 적색노조운동에 직 · 간접적으로 계속 참여했다.

일제 말기까지도 조직 사건으로 투옥을 반복하다가 일제가 만든 사상전향자 단체인 '대화숙'에 참여한다. 대화숙은 일제가 사상전향자를 모아 내선일체와 천황에 대한 충성 등 일제의 논리를 전파하는 강연회, 좌담회 등에 동원한 조직이었다.

대화숙 참여로 최용달은 이승엽과 조두원, 임화 등과 함께 사회주의자로서 사상 전향을 하고 친일을 한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그를 친일파로 보지 않는 의견도 있다. 1948년 민족정경문화연구소에서 발간되어 최초의 친일파에 대한 기록서가 된 『친일파군상』에 "최용달, 백남운 등은 대화숙 일을 돕는다고 각기 유혹과 위협을 당하면서 국민총력연맹 부과장 등의 지위를 단호히 배척하였다"는 기록과 함께, 최용달을 "친일 단체의 간부나 강연회 연사 등으로 발표하였으나 거부하기 곤란하여 이름만 걸어두었거나 부득이 출석은 하였으나 발언도 하지 아니한 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강국과 함께 1944년 8월 여운형이 조직한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의 연합 비밀결사조직인 '조선건국동맹'에 참여한다. 이 건국동맹은 광복 후 여운형이 주도한 건국준비위원회의 모태가 되었으며, 이강국과 함께 사회주의 운동의 대표로 건준에 참여해 선전부장, 치안부장을 맡았다.

4) 광복 후 월북, 북한의 사법체계 수립 역할

광복 후 건국준비위원회에 몸을 담을 당시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 재건에 합류한다. 조선공산당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인공에서 보안부장을 맡았으며, 주석으로 추대한 이승만을 직접 만나 인공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최용달은 1945년 9월 백남운을 위원장으로 한조선학술원 상임위원을 역임하다가 월북하였다. 그리고 그해 11월 북조선인민위원회에 참여했다.

당시 남로당 인사들과 달리 상당히 일찍 월북한 편인데, 북한에서 토지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에서 토지 전문가 박문규가 초청했다고 한다. 경성제대 출신으로 사회주의 활동도 함께 해온 박문규와 격이 없는 막역한 사이였다. 또 한편으로 북한에서 정권 수립 시기에 서울에 있는 지식인들의 도움이 필요해 적극적으로 인재 유치 전략을 펼쳤으며, 학계에서는 최용달의 영향으로 제자들 다수를 포함해 학계의 많은 인사들이 월북했다고 전한다. 어쨌든 당시 국내 최고 인텔리 사회주의자로서 활동은 높게 평가받고 있었다.

월북 후 북한 정권 수립 초기 사법 체제를 수립하는 데 한몫을 하게 된다. 토지개혁을 위해 법적 체제를 마련하는 데 역할을 했으며, 1946년 2월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사법국장, 1947년 2월에는 북조선인민위원회 사법국장, 1948년 8월에는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었다. 북한의 헌법제정위원회 위원으로 헌법 제정에도 참여했다.

5) 남로당 박헌영 그룹으로 숙청

북한 정권 수립 초기에 중책을 맡았다가 결국 북로당과 남로당 사이 갈등으로 권력 실세에서 멀어진다. 1948년 3월 북로당대회에서 소련파로부터 공산당 북조선분국 설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공개적인 비판을 받았으며, 이후 북한 정권 수립을 위한 내각 구성에서 남로당 계열로부터 초대 사법상으로 추천받지만 북로당 계열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권력의 핵심에서 점점 멀어진 남로당파는 김일성으로부터 종파분자로 몰려 자아비판을 강제받기도 했다. 특히 김일성은 종파분자의 온상으로 원산 지역을 지목

했는데 이곳은 남로당 계열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주하, 최용달, 이강국이 1930년대 후반 적색노동조합운동,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전개했던 곳이며, 국내파 공산주의 운동의 대중적 거점이었다. 양양에서 태어나 함흥고보를 졸업하고, 대학시절부터 원산의 노동운동에 관여해 온 최용달에게 원산은 제2의 고향이나 다름 없었다.

1949년 7월호 북한의 정부기관지 『인민』에는 「남조선 토지개혁은 반인민적인 것」이라는 글을 게시했으며, 10월, 11월호에는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의 헌법과 새 국가 체제의 성격」이라는 헌법 관련 글을 연재했다. 이후 그의 행적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 『한국사회주의 인명사전』 498쪽.
1953년 1월 산업성 산하 일반 제품 수입상사 사장으로 재직 중 박헌영 그룹의 일원으로 지목되어 숙청되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그의 행적이다. 박헌영 그룹의 최고 이론가이며, 박헌영과 함께 미제의 간첩으로 주목받은 이강국과 둘도 없는 친구요 동지지만 다른 선택의 길이 없었을 것이다.

당대 최고의 수재이며 법학자요, 사회주의 이론과 실천으로 민족광복을 꿈꾸었던 인텔리.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을 희망으로 여겼던 그는 자신이 만든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정권에 떠밀려 역사의 뒤안길로 소리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10. 양양 출신 아나키즘 독립운동가 – 이동순

아나키스트 기관지 『흑색신문』 발행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옥고 치러

우리는 아나키스트라면 무정부주의자라고 번역하여 정부가 없는 무질서한 혼란 상태를 조장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본래 아나키즘은 권력의 집중을 반대하고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일제 당시 우리나라의 아니키즘은 조선 민중에

의한 혁명과 독립을 지향하되 러시아 혁명의 볼셰비키 독재를 비판하였으며, 일제에 맞서 요인 암살과 무장투쟁 등 폭력적 의열투쟁을 수단으로 삼았다.

일제시대의 아나키즘은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과 더불어 독립운동의 3대 주축 세력이었으나 광복 이후 남북 분단으로 인한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의 대결로 양측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아나키즘 운동가로는 단재 신채호와 이회영, 천황 암살기도사건의 박열과 그의 아내 가네코 후미코, 의열단의 김원봉과 유자명 등이 알려져 있다. 의열단 강령으로 채택된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에는 우리나라의 아나키즘 사상과 실천이 잘 드러나 있다.


이동순이 발행에 참가한 흑색신문. 아나키스트는 권력의 집중을 반대하고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조선의 독립사회를 추구했다. (자료출처 독립기념관)

양양군 거마리 출신의 이동순(李東淳, 1909~1977년)은 1930년대 일본에서 재일 한인 아나키스트 기관지인 『흑색신문』을 발행하는 등 우리나라 아나키즘 운동사에 기록되는 인물이다.

이동순은 1931년 일본으로 건너가 재일 한인 아나키스트 조직인 흑우연맹(黑友聯盟)과 조선동흥노동동맹(朝鮮東興勞動同盟)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34년 1월 『흑색신문(黑色新聞)』의 발행을 담당하면서 수차례 검거와 구류를 당하였으며, 상해의 남화한인청년연맹 간부인 이달과 양자추 등과 연락하고, 1935년 3월 백정기, 이강훈, 원심창 등이 주도한 상해 주중일본공사 암살 미수사건(육삼정의거)에 관한 기사와 재중국 조선무정부주의운동 개황 등을 신문에 게재하였다.

1935년 3월경 양자추로부터 투사의 파견을 의뢰받고 7월 이종봉을 상해로 파견하였고, 9월 상해 남화한인청년연맹에서 발행한 뉴스를 송부받아 배포하였다. 1935년 일본 무정부공산당에 입당하여 한인 조직의 통일을 위해 수차례 회합하고 재일 유학생 대책과 해외 한인 연락 등을 일본 동지들과 협의하였다. 그러던 중 1935년 11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반년의 옥고를 치뤘다. 2003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19]

11. 반민족 행위 고등경찰 – 김덕기

친일 행적으로 광복 후 반민특위에서 사형 선고
양양경찰서 순사보에서 고등경찰로 승진
독립투사와 사상범 1천 명 송치

1) 친일행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아

역사의 교훈은 자랑스럽고 당당한 기록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역사의 교훈은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행적을 통해서도 함께 비롯된다. 기미년 만세운동과 이후의 청년운동, 농민조합운동으로 일제에 항거했던 양양군은 강원도에서도 대표적인 항일투쟁의 고장으로 인식되어왔다. 이러한 양양군에서 일제침략기의 친일 고등계 경찰을 대표하는 인물이 나왔다는 점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끄러운 역사를 통해 또 다른 교훈을 얻기 위해 그 행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49년 7월 1일, 친일 부역자 처벌을 위해 입법된 반민법(반민족행위 처벌법)에 의해 김덕기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제헌국회에서 반민법이 통과되고 반민특위가 활동을 개시한 이래 최초로 친일행위자에게 사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 『조선신문』 1949년 7월 2일자 보도 기사 내용
> 재판장은 "피고는 14년간 고등경찰로서 최고 직위까지 지냈으며, 재직 중 수많은 애국자들을 검거, 소탕시켜 민족정신을 말살케 한 극악한 자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민족정신을 살리고 수많은 선열의 영을 위로하고, 외국으로부터 돌아오신 애국투사들의 정신을 살리기 위하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라고 자못 엄숙한 태도로 사형을 언도하였다. (중략) 한편 사형언도를 받고 형무관에 이끌려 나가던 김덕기는 기자의 소감 질문에 "아무 할 말이 없다"며 땅만 보고 창백한 얼굴로 재판소 내 유치장으로 들어갔다.

이후 반민특위 활동이 친일파 경찰 세력을 옹호하는 이승만 정권 등의 방해 공작으로 유야무야되면서 김덕기는 친일행위자로서는 유일하게 사형선고를 받은 인물이 되고 말

았다.

김덕기(金悳基, 1890~1950년)는 1890년 강원도 양양군에서 출생했으며, 1913년 3월 31일 조선총독부 순사보가 되어 5월 말에 양양경찰서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게 된다.[20] 양양에서의 그의 행적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917년 순사로 승진한 이후에 경부보, 경부로 승진했다. 이후 평안북도에서만 20여 년 동안 경찰로 복무하였으며, 1927년에는 평안북도 고등과장으로 임명되었다. 1934년 경찰에서 물러나 전라북도 이사관, 평안북도 참여관 겸 산업부장, 평안북도 참여관 겸 농상부장 등 고위행정직에 재직했다. 광복 전에 경상남도 참여관 겸 산업부장을 맡아 농민을 수탈하는 일제의 미곡 공출에 앞장섰다. 경상남도 농상부장을 지내며 광복을 맞았으며, 이후에도 그 자리를 계속 유지했다. 총 23년 동안 경찰에 재직했으며, 최말단직인 순사보에서 출발하여 도 고등과장을 지내는 등 일반 경찰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일제의 경찰공로기장을 받았으며, 경찰을 그만두고 고위행정관료가 된 후에도 친일 공로가 인정되어 칙임관(勅任官) 훈4등까지 받았다.


反民特裁最初의極刑
倭警金悳基에死刑을言渡

광복 후 반민특위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은 김덕기 관련 기사. 1949년 7월 2일자 조선일보.

2) 독립투사를 직접 사살, 1천명 사상범 송치

반민특위 조사과정에서 김덕기는 스스로의 진술을 통해, 16년간 자기 손을 거쳐 송치한 사상범이 무려 1천 명에 달했으며, 그중 사형이 1할, 무기징역이 1할, 그리고 10년 이상의 체형을 받은 사람이 1할 정도 되었다고 밝혔다. 반민특위 조사로 밝혀진 그의 반민족적 죄상은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김덕기에 의해 체포, 투옥 또는 사살당한 독립운동가는 광복군 총영장 출신인 오동진을 비롯하여 창의단 단장 편강렬, 낭림단 단장 장창헌, 정의부 이진무, 김형출, 의열단원 김시현, 조선공산당 박헌영과 홍증식, 조봉암 등 쟁쟁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

다. 특히 그는 1927년 밀정을 통하여 광산재벌 최창학으로 하여금 군자금을 제공하겠다고 오동진에게 거짓 제의 공작을 펴서 이에 속아 유인된 오동진을 체포해 투옥시켰다. 김좌진 등과 함께 항일무장투쟁계의 3대 맹장으로 불리던 오동진은 결국 오랜 투옥으로 1934년 옥사를 하고 말았다.

또한 낭림단 단장 장창헌을 현장에서 엽총으로 직접 사살하기도 했으며, 정의부의 김형출 등 독립투사들을 무장 경찰을 시켜 사살했다고 한다. 일제에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일본인 경찰보다도 더 악랄한 일을 저지른 일본 고등계 경찰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의열단원 체포로 공을 세워 일제 40년 동안 20명 밖에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경찰공로기장' 을 받았다.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으로 사상무장을 한 김원봉의 의열단은 1922년 가을 국내의 일제 주요 관공서를 폭파하고 요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나섰다. 이를 위해 폭탄 등을 국내로 반입하고 거사를 도모한 의열단원 김시현과 황옥 등이 김덕기의 사전 내사로 계획이 노출돼 모두 체포되고 말았다.

광복 후인 1949년 2월 8일 경기도 양주군에서 반민특위가 파견한 특경대에 의해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으며, 체포 후 자기 죄상을 일체 자백하지 않다가 25일 만에 자백을 시작했다. 그 죄상은 실로 엄청난 내용이었다. 그해 7월 1일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바로 며칠 전인 1949년 6월 26일 민족지도자인 김구가 경교장에서 안두희의 총탄에 쓰러져 온 나라가 어수선하던 시국이었다.

사형을 선고받고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어 사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1년이 채 되지 않아 감형을 받아 출옥하고 말았다. 친일파 사형수 감형 출옥은 이승만 정권의 친일파 비호로 친일파, 민족반역자 척결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역사계에서는 평가한다. 출옥 후 6 · 25한국전쟁 직전에 정릉 근처의 산에 갔다 추락해 죽었다고 전한다.[21)]

3) 향토사에서는 민족의 인물로 소개

한편 2006년도에 속초시에서 발간한 《속초시지》에는 김덕기(金悳基)를 다음과 같이 향토 인물로 소개하고 있다.

金憙基(人號堅 1890년생) 속초시 조양동(부월리)에서 출생. 第七在軍司正公의 후손으로서 한말 중추원 의관을 지낸 문관 사권(思權)의 二子이며 어려서부터 두뇌가 명석하고 총명하여 수재의 稱을 받았으며 일찍이 文觀膝下에서 한학을 전공하여 학문에 뛰어났으며 성장 과정이 한일합병의 시기라 개방의 물결을 타고 신학문에 뜻을 두어 독학으로 외국어를 전공했는데 이때 탁월한 재질과 명석한 판단력에 감복한 日人首級에 의하여 특별히 발탁되어 官契에 투신하게 되었다. 한일합병 초기 흥분된 국민의 민족감정을 완화하려는 일본의 정략으로 公을 치안직에 전보케 하여 평안북도의 고등과장(경찰부)을 피임케 하였다. 그 후 소청으로 일반행정에 전보되어 함경남도 전라북도 상공부장 경상남도 참여관을 역임하였다. 8 · 15 해방을 맞아 퇴관했다.

성품이 강직하고 소신이 뚜렷한 공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성인수시야로 직분을 수행하고 그러면서도 항상 조선인이라는 긍지 하에 민족정신이 투철하여 끝내 창씨에 불응하였다. 해방과 더불어 일시 반민특위에 회부되었을 때에도 如斯한 고증과 함께 많은 민족포용 행적이 입증되어 동정을 받은 바 있다.

관직에서 물러난 후로 경기도 양천군 마석에서 영농, 遁世하다. 6 · 25사변 당시 피난 도중 61세로 병사했다.

비단 《속초시지》만이 아니라 그 후에 발간된 지역향토사에도 김덕기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다. 김덕기란 인물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김덕기는 독립투사를 직접 사살하고 일제 체제에 저항하는 사상범 1천여 명을 잡아넣은 일본 고등경찰이다. 그래서 반민특위에서도 유일하게 사형선고를 받은 인물이다. 그러나 지역 향토사에서는 지역 출신 유명인사라는 이유 때문인지 '조선인이라는 긍지 하에 민족정신이 투철한 인물' 로 소개되고 있다. 반민족행위자가 지역에서 어떻게 민족인사로 둔갑할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12. 광주 항쟁 때 발포 거부한 인권경찰 – 안병하

5 · 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무력 진압 거부한 의인
전남도경국장서 강제 사직 후 보안사 고문 후유증으로 순직
"시민군이 적이 아닌 이상 사격을 할 수 없었다."
청렴한 생활 탓 재산 없어 고통스러운 말년 보내

1) 27년만에 명예회복…국립현충원 안장


안병하 전 전남경찰국장(사진제공, 전임순)

1980년대는 광주의 시대였다. 1980년의 5 · 18광주민주화운동은 12 · 12쿠데타로 실권을 잡은 신군부의 무력 진압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지만, 항쟁의 정신은 계속 이어져 1980, 1990년대의 민주화운동을 이끄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 2007년 영화 〈화려한 휴가〉에 쏟아진 뜨거운 국민적 관심은 광주민주화운동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난 27년 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우리 국민의 의식 속에 생생히 살아 있는 사건임을 보여주었다.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그날의 일들이 폭도들의 난동이 아니라 전 국민적인 열망을 실은 민주화운동이었음을 인정받기까지 17년의 세월이 걸렸듯이, 당시 사건에 연루된 한 사람의 명예가 제대로 회복되는 데는 장장 26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걸렸다. 2006년 8월 서울지방보훈청은 5 · 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에 대한 강경 진압을 거부하여 직무 유기를 이유로 해임되고 이후에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안병하 전 전남도경국장을 순직경찰로 등록했다. 이에 앞서 2005년 11월 24일 경찰청은 과거사 진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병하 전 국장의 순직 사실을 확인하고 유해를 국립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시켰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국장(지금의 전남도경찰청장)을 지낸 안병하(당시 52세)는 1980년 5월 18일 이전에 전남대학교 박관현 총학생회장과 면담하여 대학생의 평

화시위를 보장하고 시위를 평화롭고 질서있게 종결지었다. 그러나 5월 18일 공수부대가 투입되어 여론이 악화되고 사태가 악화되자 시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시위대에 대한 발포 명령과 강경 진압을 거부하고 시민과의 충돌에 따른 불상사를 우려하여 시위 진압 경찰관의 총기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때문에 안국장은 지휘권 포기를 이유로 강제 해임된 뒤 보안사로 끌려가 심한 고문을 받았다. 그리고 광주청문회가 시작되기 바로 전인 1988년 10월 고문의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1997년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병하 국장은 5 · 18 당시에 사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2006년에서야 최종적으로 순직경찰로 등록되기에 이르렀다. 경찰청은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근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 인권경찰의 표상이라고 결론짓고 명예회복과 함께 동상 건립, 경찰 60년사에 모범경찰로 기록하는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 중이다.

2) 양양 남문리 출신, 속초중 강당에서 결혼


육군 중령 시절(안병하씨의 가족사진)

안병하는 강원도 양양군 남문리 출신으로 1974년부터 1976년까지 강원도 경찰국장을 지내는 등 강원도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하지만 1978년 11월 8일자 『동아일보』, 「신팔도기(新八道紀)-속초 · 양양(束草 · 襄陽)」에 속초 · 양양 지역 출신 인사로 '치안본부 경비과장 안병하(安炳夏 : 50세)' 의 이름이 올라가 있을 뿐이다. 일찍이 고향을 떠난 안병하를 기억하는 지역 사람들은 거의 없어 설악권에서는 잊혀진 인물이다. 이에 미망인 전임순씨(74세,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와의 인터뷰, 신문자료 등을 근거로 안병하 전 국장의 삶의 궤적을 찾아보았다.[22)]

안병하(安炳夏, 1928~1988년)는 1928년 7월 13일 강원도 양양군 양양면 남문리 178번지에서 순흥(順興) 안씨 집안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양양공립보통학교(지금

의 양양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하여 제국중학교(?)를 다녔다. 부친은 광복 전에 원산에서 교사로 재직했으며, 광복 후에는 충남으로 월남하였다.

광복 후 서울의 대동상고를 졸업하고 1948년 11월 육사 8기로 입학하여 6개월 후인 1949년 5월 23일 임관하여 6 · 25 한국전쟁에 일선장교로 투입되었다. 육사 8기는 국군이 창설된 이후 최초의 사관학교 입소자이며, 6 · 25한국전쟁 당시 일선장교들로 활약한 기수였다. 이들 중 김종필, 김형욱 등은 5 · 16 쿠데타의 주역이 되었으며, 황영시, 차규헌 등은 전두환과 함께 12 · 12 쿠데타의 주역이 되기도 했다.


동해안 어선통제소를 순시하는 안병하 경찰국장(아야진어선통제소, 1975년)(사진제공, 전임순)

6 · 25한국전쟁 초기, 춘천의 6사단 포병부대 소위였던 안병하는 소양강전투에서 전사한 심일 중위와 함께 춘천 사수를 위해 끈질긴 전투를 벌여 북한군의 남하를 지연시켜 춘천시민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전투 참여의 유공으로 안병하는 1951년 5월 7일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으며, 『한국전사』 공훈자 편에도 공훈이 기록되어 있다. 6 · 25한국전쟁 참전 중에 압록강까지 진격했는데, 중공군의 투입으로 가랑잎 속에서 3일간 숨어 있다가 후퇴했다고 한다.

청년 장교였던 안병하는 6 · 25한국전쟁이 끝나기 전인 1953년 봄, 다섯 살 아래인 전임순 씨와 속초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15사단 감찰장교로 지내던 안병하는 부대가 고성군 간성읍에 있고, 이모가 천진에 살고 있어 가까운 속초에서 식을 올리게 되었다. 전쟁 중으로 변변한 예식장도 없던 시절이라 속초중학교 강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속초에 살던 초등학교 동창도 다수 참석했다고 한다.

3) 74년부터 2년 동안 강원도경찰국장 재직

안병하 부부는 결혼 후 고성군 천진에 일제 때 중학교 관사로 사용했던 솔밭집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그러나 몇 개월 만에 부대가 이동하면서 화천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다. 고향에서 살던 기억은 이것이 전부였다. 그 후로 안병하는 공직을 따라 계속 떠도는 생활을 한 것이다.

어린 시절에 고향을 떠난 안병하는 자주 남대천에서 놀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곤 했다고 부인 전임순 씨는 전한다. 젊은 시절에는 양양 남대천을 찾아 지인들과 함께 어항으로 고기를 잡아 죽을 끓여 먹곤 하였으며, 어렸을 적 친구들이 다수 있어 함께 어울리기도 했다.

두 남동생은 속초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을 마치고 미국에서 살다가 지금은 작고하였으며, 속초 장사동에 큰 이모가 살고 있었는데 속초수협장 출신 박씨 집안이라고 한다.



설악산 폭설로 등반대 조난사고가 발생하여 구조작업 순시를 위해 설악산을 방문한 안병하 경찰국장(76년 2월 19일)(사진제공, 전임순)

감찰장교에서 사단 감찰참모, 대대장과 부연대장을 지내고는 1962년 11월 2일 육군 중령으로 예편하였다.

예편한 다음날인 11월 3일 총경으로 채용되었다. 총경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것이다. 군에서 감찰장교로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받아 정보 계통인 내무부 치안국 정보계장으로 경찰 근무를 시작했으며, 1980년 6월 2일 강제 사임되기 전까지 17년 7개월을 경찰에서 근무하였다. 부산경찰서장, 서울 서대문경찰서장, 내무부 치안국 방위과장, 강원도 경찰국장, 경기도 경찰국장, 전남도 경찰국장을 지냈다. 특히 1974년 10월부터 1976년 4월까지 강원도 경찰국장을 지내며 강원도와 더욱 깊은 인연을 맺었다.

이후에도 1976년 4월 경기도 경찰국장, 1977년 7월 치안본부 제2부 경비과장을 지내며 평탄한 공직생활을 계속했다. 그러나 1979년 2월 20일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결국 격동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말았다.



강원도경찰국장 시절 설악산 폭설로 등반대 조난사고가 발생, 현지를 방문하여 구조대원을 격려하는 안병하(1976년 2월 19일)(사진제공, 전임순)



광주민주화운동이 있기 1년 전 권농일을 맞아 모내기 지원을 나온 안병하 전남도경국장 (1979년 5월 25일)(사진제공, 전임순)

4) 광주시민들 경찰과는 무력충돌 없어

1980년 5월, 광주도 서울이나 다른 도시처럼 민주화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1979년 10 · 26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 이후 12 · 12쿠데타로 전두환 등 신군부가 사실상 권력을 탈취하고 등장했다. 박정희 독재정권의 종말로 새롭게 시작된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1980년 5월 들어 대학생들은 '계엄령 해제'와 '전두환, 신현확 등 유신 잔당 퇴진', '정부 개헌 중단' 등을 내걸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서울에서는 5월 14일 대학생 7만 명이 서울역에 모였으며, 다음날 시위군중은 10만 명에 이르렀다. 전국 대도시에서 학생들의 민주화요구 시위가 늘어났으나 신군부의 개입을 우려한 학생들은 더 이상의 행동을 자제하고 학교로 복귀했다. 광주에서도 5월 14일 시위를 시작으로 16일에는 학생과 시민, 민주인사 등 5만여 명이 모여 민족민주화성회를 열고 횃불행진을 벌였다. 시위는 평화적으로 끝났고 군중과 경찰 사이에는 아무런 충돌도 없었다. 학생들도 더 이상의 시위는 하지 않는다며 학교 복귀를 선언했다.

당시 광주 · 전남지역의 치안책임을 맡고 있던 안병하 전남도경국장은 5월 14일 도청 분수대의 집회 현장을 찾아가 학생 대표와 만났다. 평화적인 집회와 질서 유지를 요구하고, 시위 중에 경찰서로 연행된 학생 11명을 보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를 흔쾌히 수락했다. 16일에도 박관현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과 면담, 평화적으로 시위를 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야간 횃불 시위 요구를 허락했다. 당시 경찰로서는 파격적인 조치로 시

위대는 폭력 시위를 자제하고 경찰은 시위대를 에스코트하며 질서 유지 활동을 펼쳤다. 만약 계엄군이 투입되지 않았다면 1980년 5월의 광주는 더 이상의 충돌과 희생 없이 끝날 수 있었다.

후에 광주청문회를 앞두고 안병하는 자신의 비망록에 당시의 데모 저지 방침으로 "경찰 희생자가 있더라도 절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고, 일반 시민 피해가 없도록 한다.", "주동자 외에는 연행치 말고, 교내서 연행을 금지한다.", "경찰봉 사용에 유의하고 반말, 욕설을 엄금한다."라고 기록해 놓았다.

5) 신군부의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

전국적으로 터져 나오는 민주화 요구와 야당의 비상계엄 해제 촉구 결의 등으로 수세에 몰리게 된 신군부는 사회 혼란을 빌미로 5월 17일 자정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학생들과 김대중 등 주요 정치인사들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모든 정치활동과 집회, 시위 등을 금지하고 학교를 폐쇄했다. 광주에서도 전남대와 조선대에 공수부대가 투입되어 학생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연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격분한 학생들과 시민들은 공수부대와 계엄군의 폭력에 맞서 싸웠다. 5 · 18 광주민주화운동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계엄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이 계속되고,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이 떨어지자 안병하는 결단을 해야 했다. 명령에 따를 것인지 소신 있는 항명을 할 것인지. 항명의 결과는 어떨지 너무나 뻔한 상황이었다. 그는 결국 의로운 항명을 선택했다. 훗날 그는 지인에게 "부마 사태 때 김주열의 머리에 박힌 최루탄이 연상되어 경찰이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고 밝혔다.

시위대가 무장을 하자 그는 경찰이 소지하고 있던 무기를 회수해 시 외곽으로 소개했다. 당시 경찰봉만 소지했던 경찰은 계엄군에 부상당한 시민들을 치료해주고, 밥도 사주고, 옷도 갈아입히는 등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안병하는 훗날 비망록에서 '경찰 및 예비군 무기 탈취'에 대해 "지서의 한두 명 경찰 인원으로 무장한 시민군 몇 백 명에 대항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시민군이 적이 아닌 이상 무기를 탈취당하는 과정에서 사격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시위대도 경찰을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았고, 오히

려 계엄군이 시민편을 든다는 이유로 경찰을 구타하기도 했다. 시민군이 광주를 장악했을 때 시민군은 경찰서에 보초를 세우고 경찰 시설을 보호했으며, 경찰이 철수한 도경 경찰국장실도 일체의 훼손이 없었다고 한다.

6) 고문후유증 치료차 양양 낙산에 머물러


全南道警局長
安炳夏경무관 連行
職務유기 혐의
光州사태로 26일 의안분 무 대기발령을 받은 전남 南도경국장 安炳夏경무관이
27일 직무유기등혐의로 계달국에 연행된것으로 안 은에 와 의안분부장에게 인 사는 한뒤 달국에 연행되 었는데 이번 사태의 지휘 책임을은 문은것으로 전해 졌다。
安경무관은 26일 하오4 시10분쯤 헌법록터전으로서

1980년 5월 27일자 서울신문. 1면「계엄군이 광주시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기사 아래 안병하 전남도경찰국장이 연행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광주민중항쟁의 마지막 진압이 펼쳐지던 5월 26일 신군부는 도청 진압작전에 경찰이 앞장설 것을 요구하고 강제 진압과 발포 명령을 내렸다. 안국장이 이를 거부하자 계엄사령부는 그날로 그를 직위 해제하고 직무 유기 혐의로 연행하였다. 1980년 5월 27일자 일간신문의 1면에는 계엄군의 광주 진압 기사 아래에 안병하 국장의 연행 소식이 함께 실렸다. 헬기로 서울 동빙고의 보안사로 끌려가 11일 동안 모진 고문을 받고 끝내 강제 사직당했다. 육체적인 고문 후유증뿐만 아니라, 육사 8기 출신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 후배들에게 받은 정신적 모멸감이 너무나 컸다고 한다. 고문후유증으로 망가진 몸을 요양하기 위해 고향인 양양 낙산에 머물기도 했는데, 12 · 12 쿠데타 때 신군부에 체포되었던 정승화 전 참모총장도 이곳에 찾아오기도 했다. 신부전증 등 병마에 시달리던 안병하는 광주청문회가 있기 바로 전인 1988년 10월 10일, 광주비망록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을 자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평생을 청렴한 경찰로 근무한 탓에 모아 놓은 재산이 없어 신장 이식도 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으며, 유가족은 치료비 등으로 가산이 모두 바닥나 고통을 겪어야 했다. 미망인 전임순 씨는 그동안 집도 없이 전전하다가 간신히 2006년에야 막내아들이 마련해준 서울 후암동의 작은 빌라에 안착하였다.

명예회복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1993년 7월 부인 전임순 씨는 남편 안병하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5 · 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로 신고서를 접수했으나 경찰관이고 당

시에 사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 1995년 5 · 18 희생자 가족으로 판정받았으며, 2002년 11월에는 남편의 민주화 관련자 인정 통지서를 받았다. 최종적으로 살아 생전 소원이라고 했던 국립 현충원 경찰묘지에 안장된 것은 2005년 11월 24일이며, 정식으로 순직 경찰로 인정된 것은 2006년으로 그가 사망한 지 18년 만의 일이었다.

광주의 5 · 18 시민단체에서는 "신군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온건 진압 지침으로 유혈 사태의 확산을 막고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언론에서도 "당시 안병하 도경국장이 계엄군의 협박에 굴복해 시위대에 총을 쏘았다면 시민들이 대거 희생되었을 것이며, 4 · 19 때처럼 경찰은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후배 경찰들도 그의 '고매한 리더십'을 본받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어린 시절 모천에서 떠난 연어가 긴 여행 끝에 다시 돌아오는 남대천, 비록 육신은 멀리 현충원 묘역에 묻혔어도 안병하의 고결한 영혼은 그의 어린 시절 남대천의 추억과 함께 설악의 향기로 길이 남을 것이다.

집필 : 엄경선

각주

1) 『한국독립운동사 II』 252쪽 참조.
『독립운동사 제2권 : 삼일운동사(상)』,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627쪽에서 재인용.
2) 『독립운동사 제2권 : 삼일운동사(상)』,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615쪽.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참조 재구성.
3) 『독립운동사 제2권 : 삼일운동사(상)』,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622쪽.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참조 재구성.
4) 『甲午軍功錄』下 720쪽에 '襄陽幼學李錫範奮義募旅, 嶺東賴安' 으로 기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에서 2009년 12월 검색.
5) 東學黨征討人錄』下622쪽 「義旅」편에 '李錫範 襄陽義旅 崔舟河 襄陽義旅' 으로 기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에서 2009년 12월 검색.
6) 「직원록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에서 2009년 12월 검색.
7) 「왜정인물 3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왜정시대 인물사료』에서 2009년 12월 검색. 이석범이 양양 현산학교장을 거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오기로 추정되며, 주변 지인과 후손의 증언에 의하면 현산학교장이 아니라 쌍천학교장으로 확인됨.
8) 김영학 목사의 만세운동 연루 복역 사실은 목원대 신학대학원 최양섭의 석사학위논문 "일제하 양양지방 독립운동과 기독교인의 역할" 50쪽 내용 중 부인 안원정씨가 1977년 작성한 "김영학 목사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서"에 근거하였음. 복역에 관한 판결 기록은 찾지 못함.
9) 김영학 목사의 대한독립애국단 활동 행적은 1920년 10월 30일자 경성지방법원「애국단사건예심종결결정」(매일신보 1920.12.19~22 수록,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 게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10) 「한국근현대인물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에서 2009년 12월 검색. http://www.history.go.kr/url.jsp · ID=NIKH.DB-im_101_10771
11) 「왜정인물 6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왜정시대 인물사료』에서 2009년 12월 검색. 일제의 인물 기록에 의하면 1920년대 양양의 인물 중 가장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일제의 요시찰 인물로 주목됨.
12) 김대선의 만세운동 참여사실과 복역 사실은 1919년 4월 21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의 언도판결(매일신보 1919년 5월 3일자 게재)로 확인되며, 나이는 1923년 5월 16일 경성지방법원 「황돈 등의 판결」(공훈전자사료관 http://e-gonghun.mpva.go.kr)에서 20세로 표기되었음을 감안하여 만세운동 참가 당시의 나이를 추정함.
13) 공대 출신의 김대봉과 이건호, 노상렬, 최공집은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강만길 · 성대경엮음,1996, 창작과비평사)의 인물 정보를 참고하여 구성하였음.
14) 시국 유지 원탁회의」, 『삼천리 제11권 제1호』, 1939년 1월 1일 발행, 자료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15) 「社會主義運動 - 共産主義運動」, 『治安狀況(昭和 13年, 江原道)』,1938년 12월. 자료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www.history.go.kr/url.jsp · ID=NIKH.DB-ha_d_173_0090
16) 최홍준, 「1930년대 강릉지역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연구」, 『北岳史論』3383쪽, 조성운 『일제하 농촌사회와 농민운동-영동지방을 중심으로』(2002년, 도서출판 혜안) 67쪽에서 재인용.
17) 『대중공론 제2권 제5호』, 1930년 6월 1일,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제목만 확인.
18) 1946년 3월 28일 작성된 구두정보 보고. 러시아국방성 중앙문서보관소 문서군 172, 목록 614631, 문서철 12, 20~28쪽.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www.history.go.kr/url.jsp · ID=NIKH.DB-fs_006_0010_0050
19) 이동순에 대한 기록은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포상자공적조서』 내용을 참조함.
20) 김덕기가 양양읍 남문리 출신으로 순사보를 양양경찰서에서 시작했다는 기록은 일제의 기록 『인사흥신』 150쪽(출처: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타베이스, 한국근현대인물자료)을 참조하였음. 한편 이와 달리 속초지역의 일부 원로는 김덕기가 속초시 조양동 부월리 출신이라고 증언하고 있음.
21) 김덕기의 행적에 대해서는 1994년 발간된 반민족문제연구소 저 『친일파 99인 2』의 「김덕기 : 반민자 최초로 사형언도 받은 친일경찰」(이수리 글), 신문자료와 일제의 인물 기록 등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음.
22) 전임순씨와의 인터뷰는 2007년 10월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자택에서 진행했음.

참고문헌

양주지, 양양군, 1990.
속초시지, 속초시, 1991.
강만길 · 성대경,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조성운, 『일제하 농촌사회와 농민운동』, 혜안, 2002.
『일제 강점기 사회 · 사상운동자료 해제 Ⅰ』, 국사편찬위원회, 2007.
『남과 북을 만든 라이벌-인물로 보는 남북현대사』, 역사비평사, 2008.
한국사데이타베이스(http://db.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국가보훈처.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독립기념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100.nate.com/minbaek),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언론재단 구축 종합 뉴스 DB(http://www.kinds.or.kr).
동아일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타베이스.
신한민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타베이스.
중외일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타베이스.
시대일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타베이스.
조선일보 데이터베이스.
경향신문, 네이버 디지털 뉴스 아카이브.
개벽,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타베이스.
삼천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타베이스.
별건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타베이스.
최양섭, 「일제하 양양지방의 독립운동과 기독교인의 역할」,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김정환, 「일제하 양양지역 농민운동의 전개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이수리, 「김덕기 : 반민자 최초로 사형언도 받은 친일경찰」, 『친일파 99인-2권』, 반민족문제연구소, 1994.